

2025년도 학술발표회

동양고전 번역과 AI 활용

-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동양고전)의 성과 및 활용을 中心으로 -

2025년 11월 7일(금)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

※ 본 학술회의는 202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동양고전)의 예산을 사용하여 개최하였음.

※ 본 자료집은 202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동양고전)의 예산을 사용하여 발간하였음.

모시는 글

첫 추위가 찾아오는 계절, 본회는 오는 11월 7일(금) 14시, “동양고전 번역과 AI 활용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동양고전)의 성과 및 활용을 中心으로-”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본회에서는 우리의 정신 문화 형성에 영향을 준 東洋古典을 번역하고 현대화함으로써 傳統文化의 전승과 계발을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는 고전번역 사업과 한문교육을 통해 고전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본회가 수행한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동양고전)의 성과를 평가하며, 동양고전 번역에 대한 첨단 연구 기반 조성,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연구 지원 시스템 개발 등의 의제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 IT산업 선구자이며 유교적 인성교육을 선도하신 행파 이용태 박사 회고 특별강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학술회의에서는 이를 통해 동양고전 번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양고전 번역과 AI 활용에 대해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高見을 청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축 사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전통문화연구회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양고전 번역과 AI 활용 - 한국고전번역원 지원 특수고전협동 번역사업(동양고전)의 성과 및 활용”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울러 《이정전서(理貞全書)》의 완역 및 번역 사업의 혁신적 성과를 축하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고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전통문화연구회의 노력과 AI 기술의 융합에 관한 연구를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전통문화연구회에서는 고전번역 사업과 한문교육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고전의 저변화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 추진된 고전번역사업과 AI 기술을 활용한 번역 시스템을 도입은 고전 번역의 패러다임을 혁신할 것이라 확인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문학자를 비롯한 AI 연구자의 협업으로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고전의 현대적 재해석을 넘어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실현한 모범 사례로 평가될 것입니다.

고전 번역은 단순한 언어 전환을 넘어 시대와 문화의 다리를 놓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한문의 난해한 문체, 함축적 표현, 역사적 맥락의 복잡성은 번역가에게도 큰 난관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시는 연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완역된 《이정전서》는 주자학의 선구적 역할을 하는 자료이며, 이러한 결과물은 학계와 일반 독자 모두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된 번역물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학술 발표에는 한국 IT산업 선구자이며 유교적 인성교육을 선도하신 행파 이용태 박사 회고 특별강연이 함께 있어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성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AI 기술은 더욱 진화할 것이며, 고전 번역의 정밀도를 한층 높아지겠지만 번역가의 창의성과 문화적 통찰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AI는 도구이자 파트너로서, 인간과 협력해 고전의 빛을 현대에 전파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번 사업을 위해 헌신해주신 전통문화연구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양고전들이 번역되어 누구나 쉽게 수천년의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전 AI 기술이 씨앗을 꽃피우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전통문화연구회의 혁신적 도전이 지속되기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前 한국국학진흥원장 沈 宇 永

〈2025년 학술발표회 일정표〉

동양고전번역과 AI활용

-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동양고전)의 성과 및 활용을 中心으로 -

■ 개회선언 및 축사 14:00~14:20

사회 : 權源吾(본회 상임부회장)

- 개회사 金 炫(본회 회장)
- 환영사 李啓晁(본회 설립자)
- 축 사 沈宇永(前 한국국학진흥원장)

■ 특별강연 14:20~15:00

- 국내 IT 선도와 한문고전 이해를 아우른 시대의 개척자, 행과 이용태
| 金鍾吉(본회 이사, 사단법인 박약회 회장)

■ 주제발표 15:00~16:20

사회 : 張源哲(경상국립대 한문학과 명예교수)

1. ≪성호사설≫의 서목 인용 방식에 대하여
| 沈慶昊(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동양고전) 연구책임자, 고려대 한문학과 명예교수)
2. 二程의 志向과 理學
| 崔錫起(경상국립대 한문학과 명예교수) / 姜導顯(본회 역자)
3. ≪설문해자≫에 나타난 문자 용어의 실상과 국역 - 段玉裁 注를 중심으로 -
| 李忠九(본회 책임연구원) / 林在完 · 成嘯濟 · 朴相水(본회 역자)
4. AI와 고전번역
| 尹鍾雄(본회 정보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安成守 · 李和春 · 朴惠瑗 · 元志允(본회 연구원)
5.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동양고전) 결과물의 효율적 활용방안
| 金序潤(부산대 연구교수)

■ 식후행사 16:20~16:30

- ≪어린이 사자소학≫ 출판기념회

■ 폐회

<목차>

■ 특별강연

- 행과 이용태 박사를 추모하며 9
| 金鍾吉(본회 이사, 사단법인 박약회 회장)

■ 주제발표

1. 《성호사설》의 서목 인용 방식에 대하여 21
| 沈慶昊(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동양고전) 연구책임자, 고려대 한문학과 명예교수)
2. 二程의 志向과 理學 45
| 崔錫起(경상국립대 한문학과 명예교수) / 姜導顯(본회 역자)
3. 《설문해자》에 나타난 문자 용어의 실상과 국역
- 段玉裁 注를 중심으로 - 85
| 李忠九(본회 책임연구원) / 林在完 · 成嘯濟 · 朴相水(본회 역자)
4. AI와 고전번역 106
| 尹鍾雄(본회 정보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安成守 · 李和春 · 朴惠瑗 · 元志允(본회 연구원)
5.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동양고전) 결과물의 효율적 활용방안 141
| 金序潤(부산대 연구교수)

〈특별강연〉

행파 이용태 박사를 추모하며

金 鍾 吉

(본회 이사, 사단법인 박약회 회장)

杏坡 이용태 회장을
회고하며



출생

- 1932년 창수면 인량리
- 재령이씨 영해파 19대 종손
- 충효당 • 운악 • 석계 • 갈암 • 밀암 퇴계학맥
- 4대 한집안, 4남 1녀 중 둘째
- 8.15 • 6.25 • 4.19 등 격동기 경험



학력

- 조부 수학 / 늦게 영해국민학교 입학
- 조부 강권 4년 중퇴 / 창수 국민학교 6년 편입 / 1등 졸업
- 안동중 입학 / 좌우익 분쟁 2년 중퇴
- 동성고 합격 포기 / 대입 검정고시 결심
- 폐결핵 귀향 중 6.25 / 귀경 / 신도안으로 피난
- 귀향 / 국민교 임시교사 1년 / 영덕농고 3학년 편입
- 서울대학교 이과 수석 / 부산 전시 학교 신입생대표 선서
- 자취고생 / 가정교사
- 수복 상경 / 고계고등학교 수학교사



학원 강사, 대학강사

- 학비, 생계를 위하여 대학생, 가정교사, 학원강사, 대학강사 / 1인 4역
- 독창적 강의 안 교재 개발 / 가장 준비 많이 하는 강사로 명 강사 이지흠
- 13년 학원강사 / 전셋집 / 친척, 친구 도움 받음
- 학원강사경험 / 제일학원 설립 / 유명 강사 운집 / 즉시 투자금 회수
- 동국대, 서울대 강사 / 이화여대 전임 강사



유학의 길

- 전임강사로 석사 박사 학위 필요성 절감
- 생활비 해결
- 선진국에서 물리학 심층 공부 / 꿈 실현
- 36세에 가벼운 마음으로 유타대학 유학
- 처음으로 정규학교 생활
- 귀머거리 6개월 병어리 6개월
- 뽀 곰국 / 내의 다수 1회 세탁 / 세탁시간 독서
- 매일 일기 / 모친 편지 매월 70불 송금
- 한국의 정체성 / 유교문화 전파 주력
- 3년 8개월 후 통계 물리학 박사
- 연수과정 / 기업 실무 경험 과정 생략 귀국



학원설립

- 귀국 후 대가족 생활비 부담 가중
- 최고강사 / 제일학원 경험 / 대일학원 설립
- 경일학원 / 남부 대일학원 설립 / 삼보컴퓨터 지원
- 운영원칙은
 1. 2배 광고
 2. 5%만 더 잘한다
 3. 내가 손해본다
 4. 경영 일임
 5. 지분과 공로에 따른 수익배분
- 친척 • 친지 • 동창 • 선후배 지원



KIST.KIET

- 박정희대통령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 / program 귀국
- KIST 전자계산실 운영실장 / KIET 전자 계산기 부소장
- 물리학연구 → 정보산업육성 진로수정
- 전문인력 100명 → 3년 내 개발 → 정부, 민간기업 호소 → 불발
- 모두 국산화 무관심 → 내가 하는 수밖에
- 1980년 : 사직 / 최초 컴퓨터 제조 / 벤처기업 삼보전자 엔지니어링 설립



삼보컴퓨터

- 1980년 : 삼보컴퓨터 설립 / 자본금 1,000만원 / 7명 / 청계천 골방/ 연구소 요원 전무
- 1981년 : 국내 최초 개인용 컴퓨터 개발
국내 최초 수출 / 최대수출 M/S 1위
- 교육용 컴퓨터 1위 납품
- 1988년 : 기업공개
- 반월공단 제1, 제2공장 종업원 2,000명
- 여의도 20층 사옥 / 강남 15층 사옥
- 심양 합작법인 / SEIKO, EPSON과 기술제휴
- 나래 이동통신 / 두루넷 / 벤처기업 50여개
- 경영 불 관여 / 무보수 / 서예실



벤처기업

- 창조적 idea
첨단기술 꿈 → 자금이 필요 → 모험기업 / 모험가
- 성공 시 고 수입 / 위험성 큼
- 컴퓨터 / 정보통신 / 생명공학 분야 적격
- 한국기술금융 / 한국개발투자
- 한국벤처 기업인 1호 / 벤처 왕 이용태
- 100개 목표 50개 설립 / 박사, 영재 영입 / 대부분 부진



한국데이터통신(데이콤)

- 1982년 : 체신부에서 KTA 분리
정보통신 전담기업 한국 데이터 통신 설립
- KTA 50% 미만 26개 민간기업 참여
- 국가기간 전산망 (행정, 교육, 금융, 국방)
천리안SVC / 88올림픽 정보망
- 주 전산기 국산화 / S/W개발 / 국산기술 / 고용창출
- 국내외 업체 반발 / 전문가 반발
- 관계기관 / 공무원 비협조
- 사리사욕 / 허위사실 유포
- 검찰청, 감사원, 안기부, 청와대 진상조사
- 강연, 논문, 저술로 관료 여론 선도자 설득
- 8년 재직 오늘날 전자정부 구축



두루넷

- 1996년 : 한국 최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 한국전력 30% MICROSOFT와 3자 전략적 제휴
- 1999년 : 국내최초 나스닥 상장
 - 7개국 14개 도시 150회 투자설명회
 - 주식 가치 현대자동차 + LG전자 상회
- 전국 cable TV 20개 확보 통신망 구축
- 법정관리
 1. 한전통신 사업 철수 / 파워컴 설립
 2. KT, 하나로 / 가격경쟁심화
 3. 1조 투자 자금 부담
 4. 삼보컴퓨터 등 관계 회사 연쇄 도산



박약회

- 1987년 : 박약재 10人 / 퇴계선생 사숙 후학 학계
 - 선현학행 / 학습 도덕선비 사회구현 / 실천적 사회운동 단체
- 1994년 : 김호길 회장에 이어 2대 회장 취임
- 2003년 : 사단법인 인가 / 24개 지회 / 회원 4500명
- 학술대회 41회(매회2,000명 참석) / 인성교육 110만명
- 소식지 48호 / 박약지 21집
- 해외유교문화탐방 17회 4,500명 참가



유림활동

[유림단체]

- (사) 박약회 2대 이사장(32년)
- (사)퇴계학 연구원 2대 이사장(28년)
- (사)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초대 이사장
- (사)한국정신문화재단 초대 이사장
- (사)전통문화연구회 이사장
- 숙명학원 이사장(20년)

[서원 원장 도집례]

- 도산서원/ 소수서원/ 옥산서원/ 덕천서원/ 월봉서원/ 구강서원/ 임천서원/ 시빈서원/ 호계서원

[수상]

- 선비대상, 퇴계상, 인촌상
- 은탑산업훈장, KIST 동문상, 관악대상, CEO대상 외 다수



사회활동

[대통령 자문회의의 위원]

- 교육개혁 심의회 3회
- 민주통일평화회의의 2회
- 국가 경쟁력 강화 회의
- 국민경제 자문회의
- 민주화합 추진회의
- 경제구조 조정자문회의

[기관 및 공공단체 이사장]

- 정보산업연합회
- 전국경제인 연합회 부회장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한국전자거래 표준원
- 국제전자 상거래
- S/W정보화지원센터
- 한반도 정보화추진본부
- 한국 S/W활성화포럼의장외 다수



효행

- 광주 경안천 소풍
- 출근 회차
- 학원 사랑방
- 유학 중 편지
- 외국여행 중 귀국



주변이야기

- 난사회
매월 1회 / 5집 출간 / 차중 작시 / 1,000여수 작시 / 시집출간
- 고향집 마루천정 마무리
- 해외 출장 중 독서
- 8인 안동 회동
- 사무실엔 지필묵 비치 / 출장 소지 / 작시
- 건강 : 전립선암, 간경화, 고혈압, 당뇨, 부정맥, 디스크
- 명상 : 나는 행복하다 / 30분 / 등산 / 샤워시 명상
- 식습관 : 야채 / 단백질, 2시간 강의
- 금연 금주
- 골프 : 55세 입문 94세까지



TV • 신문

[방송출연]

- KBS 아침마당 :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 KBS TV 자서전 3회 : 벤처신화
- TV 회고록 2회 : 벤처 1호
- MBC, MBN, 경제TV 등에 출연

[신문]

- 한국일보 나의 이력서 30회
- 영남일보 등 신문과 정보과학 전문지에
다수 게재



저서 • 논문

[저서]

- 정보화 관련 6권 : 선진국 마음먹기에 달렸다 /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 인성교육 10권 : 성적보다 인성이 먼저다
- 유교문화 체험 연수교재 : 6권
- 컴퓨터 6권 : 프로그래밍 자습서
- 수학 5권 : 해석대전, 기하대전

[논문]

- 학술지 정보지 학회지 게재 45편
- 영어 논문 5편 The Journal of chemical physics
- 명예박사 6개 대학



18 동양고전번역과 시 활용 -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동양고전)의 성과 및 활용을 中心으로(2025)







END



《성호사설》의 서목 인용 방식에 대하여

沈 慶 昊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동양고전) 연구책임자, 고려대 한문학과 명예교수)

- I. 서론
- II. 서명 명시의 인증 방식
- III. 무기(無記) 서적의 내용 적기(摘記)
- IV. 대칭(代稱)·약칭(略稱) 서명의 제시
- V. 서명의 오기(誤記) 혹은 인증의 오류 사례
- VI. 결론

I. 서론

현재 세계의 인문학 연구는 지적 아카이브의 구축을 하나의 방법으로 택하고 있다. 한 인간의 사상을 서너 개념으로 개괄하여 평단(評斷)하고 한 인간을 온전하게 파악했다고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사상이 형성되고 굴절되며 변화한 과정을 추적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사유의 역동성 속에 들어 있는 지향-성취의 모순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한 인간의 족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대한 투쟁이 지닌 개별자의 가치를 인정하려는 것을 말한다. 아카이브의 편성은 지식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컴퓨터 공학의 발전에 의해 더욱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다.

본고는 향후 한국 인문학 연구의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하여, 《성호사설(星湖僿說)》의 한 예를 통해 그 가능성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호사설》은 18세기 전반의 성호 이익(李瀾)이 지식학의 규모와 방법을 집요하게 탐색한 결과물이다. 이익은 삶의 후반기에 해당하는 1740년대 초부터 1750년대 말까지 작성한 3,008항의 소논문들을 천지·만물·인사·경사(經史)·시문의 5부분으로 개괄했다. 이후 안정복(安鼎福)은 《성호사설》 초고를 산절刪節하고 이익의 별도 소논문 86항을 추가해서 모두 1,368항을 5편 21류로 분류해서 《성호사설유선(星湖僿說類選)》을 이루었다.¹⁾

1) 《성호사설》은 이익의 조카 이병휴(李秉休)에 의해 천지·만물·인사·경사·시문 등 5개 부문에 걸쳐 3,008항으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인쇄되지 못했다. 전한다. 서너 종의 이본 가운데 가장 신뢰받는 것은 이병휴의 후손 이돈형(李墩衡) 씨 구장 필사본 30권 30책이다. 또한 안정복

이익은 고금 문헌, 생활 세계의 각종 구조·개념·명칭과 관련한 여러 설을 변정(辨正)하고 역사 인물의 행동 양태가 지닌 의의를 상론(尙論)하며 정치 경제의 폐단을 적시하고 구폐(救弊) 방안을 제안(提案)하는 논편들을 그때그때 작성했다.

이익은 변정·상론·제안에서 자기 개인의 문제에 매몰되지도 않았고 자신의 처지를 구차하게 변호하지도 않았다. 인간 본성론과 관련해서는 상성(常性)을 전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자》〈진심·상〉의 “끓주린 자가 달게 먹고 목마른 자가 달게 마시는 것은 음식의 바른 맛을 얻은 것이 아니다.”에 대해 《맹자집주(孟子集註)》는 인간이 욕심 때문에 본성과 정리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지만, 이익은 주희가 상성을 전제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익은 인간의 감정과 삶은 예측모형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단정지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익은 경학에서 그 하위 분야로서의 소학(小學)에서 이미 13경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던 《이아(爾雅)》를 중시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자서(字書)·운서(韻書)의 혼해를 늘 참조했다. 경해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각종 개념을 구정하기 위해 자서의 혼해를 활용하고 필기류의 고거적 성과를 재검토했다. 그리고 천체와 지구의 크기를 계산하고 천문의 운행 규칙을 추리하기 위해 필요한 용수(用數)가 무엇인지 검토했다, 그리고 비록 정치체제 내에서 지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정부, 행정, 용인(用人), 과시(科試), 군사, 농정, 부세, 법률, 계층 등등 현실의 여러 문제를 해분하여 구폐(救弊)의 방안을 제안했다.

《성호사설》에서 이익은 문헌(books, publications, historical document), 전문(hearsay, second-hand information), 경험(information gained from experience)의 내용을 혼재시켰다. 문헌을 인용할 때 저자명만 제시하고 문헌의 일부 편명을 표기하며, 서명의 약칭·이칭을 기록하거나 총서(叢書)나 유사(類書)의 전재물을 인용하거나 했다. 문헌이 신뢰할 만한 기록물인지, 증거력을 갖춘 필기물인지 충분한 검토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검색하기 어려웠고, 초록(抄錄)을 재검토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지식정보의 축적과 심화에 방해가 되었다.

II. 서명 명시의 인증 방식

《사설》은 문헌을 주요한 정보원으로 활용했다.²⁾

은 이익의 승인 하에 《성호사설》을 재분류하고 산절하여 《성호사설유선》을 이루어, 그것이 20세기 초에 활자화되었다. 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에서는 《사설》과 《사설유선》의 각 이본들을 대조하여 각각의 정본을 마련했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필사본을 토대로 《국역 성호사설》을 이루었고, 한국고전번역원이 그 결과물을 한국고전종합DB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 《사설》은 443종 혹은 450종 문헌이 활용되었으며, 그 가운데 한국문헌은 95종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강민구, 《조선 3대 유서의 형성과 특징》, 보고서, 2016; 김형호, <《성호사설》의 인용 문헌과 활용 양상>, 《성호학보》 23, 성호학회, 2021.12, 50면.

이익은 중국의 서적만이 아니라 국내의 4부서를 두루 활용했다. 세종의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을 검토하고, 선조 때 이루어진 《주역언해(周易諺解)》에 대해서 주목한 것은 두드러진 예이다. 또한 일본의 서적까지 열람하여 논거를 확보했다. 이익은 조선인의 문집도 열람했는데, 그 가운데는 허균(許筠)의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가 있다. 《성소부부고》 제22권 〈성옹지소록(惺翁識小錄) 상〉은 서거정(徐居正)의 《필원잡기(筆苑雜記)》를 인용하여, 태종이 여원 말을 상렬에 넣어 명나라에 진공(進貢)하니, 명 성조가 천마로 알고, ‘왕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했다고 한다. 명나라 증계(曾槩)가 〈천마해청가(天馬海靑歌)〉에서 “영락 연간에 조선에서 황류마(黃驪馬)를 진공하자 천마가를 짓도록 했다.”라고 했는데, 이익은 당시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추정했다.³⁾ 허균이 지은 〈궁사(宮詞)〉의 한 수에 “먹물 듣는 세 붓이 양전(이조와 병조)을 기다리다가, 한 자루 뽑아내어 첫머리로 승격했네.[三筆淋漓待兩銓, 一枝抽得首陞遷.]”라고 했는데, 서관(庶官)의 물망을 헤아린 다음 수·부·말(首副末) 삼망을 표기하여 올리면, 임금이 낙점한 사실을 말했다고 풀이했다.⁴⁾

이익은 윤동규에게서 《성경통지(盛京通志)》를 빌려 보고,⁵⁾ 어떤 친구에게서 《국조정토록》을 빌려 보았다.⁶⁾ 6촌 이식(李湜)의 손자사위 정상기에게서는 《농포문답》과 지도를 빌려 보았다.⁷⁾ 정상기는 적성(積城)에서 농사를 지으며 터득한 채소 재배, 과일 재배, 양잠, 목축, 음식, 의약에 관한 기술을 《향거요람(鄉居要覽)》에 기록했는데, 이익은 이 책으로부터 농법과 농정 정보를 습득했을 것이다.⁸⁾ 정상기 묘지명에 따르면 《향거요람》은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이익은 또 어떤 벼를 통해 최동립(崔東立, 1557~1611)의 《가례상제도설(家禮喪祭圖說)》을 빌려보고 서문을 쓰면서 서민을 위한 예서를 집필할 것을 다짐했는데,⁹⁾ 그 지향은 《사설》의 여러 항목에 반영되었다.

이익은 왜란·호란 이전의 관부 문헌이 남지 않았고 사가의 유집(遺集)도 드물므로, 주희가 주의(奏議)를 절록하여 책을 만들어 올람에 대비해야 한다고 상주했듯이,

3) 僊說06萬物03-40〈濟馬〉.

4) 僊說14人事08-46〈抽筆〉; 類選9상經史7·論史門4·東史紀事上36抽筆.

5) 《성호전집》 권21 〈答尹幼章〉. 《盛京通志》는 청나라 때 董秉忠 등이 감수한 중국 동북 지역에 대한 지리지로, 京城·苑囿·壇廟·山陵·宮殿·風俗·人物 등 32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乾隆 44년(1779) 呂耀魯 등이 직명을 받들어 130권으로 修撰했다.

6) 僊說19經史02-41〈征對馬島〉; 類選9상經史7·論史門4·東史紀事上26〈征對馬島〉.

7) 僊說15人事09-68〈車船〉.

8) 《성호전집》 권40 〈鄉居要覽序〉.

9) 《성호전집》 권49 〈家禮喪祭圖說序〉. 崔東立이 1610년(광해군 2) 해서(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이익의 증조부 貳相公(의정부 찬성 李尙毅)이 서찰을 보냈는데, 그 글에 공손한 뜻이 넘쳐흘렀으므로 이익이 유념해 두었다가 벼를 통해 《가례상제도설》을 얻게 되어 공경히 서문을 짓는다고 했다. 최동립은 본관이 朔寧, 자가 卓爾, 호가 臥隱이다. 종표형 禹性傳(1542~1593)에게 배웠다. 1585년(선조 18) 진사가 되고 1592년 宣祖를 義州까지 호종하여 그곳에서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權得己, 〈通政大夫守黃海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崔公行狀〉, 《晩悔集》 권3.)

미국과 각사의 문헌을 내어다가 당순지(唐順之)의 《형천선생우편(荊川先生右編)》처럼 유취·절록하여 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호사설》의 〈서얼방한(庶孽防限)〉에서 이익은 1675년(숙종 1) 이무(李袞, 1600~1684)가 서얼방한 철폐를 주장한 소, 1695년(숙종 21) 영남의 남극정(南極井) 등 988인이 올린 소, 이듬해 이조판서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이 올린 소를 소개했다.¹⁰⁾

한편, 이익은 복강(福岡, 후쿠오카) 병학자 향서성자(香西成資, 고사이 시게스케, 1632~1721)의 《일본지세변(日本地勢辨)》과 〈격조선론(擊朝鮮論)〉이 양쪽의 사정을 다 드러내어 정상이 밝아졌다고 했다. 〈일본지세변〉은 〈본방지세변(本邦地勢辨)〉이란 글이고 〈격조선론〉은 〈풍신각하격조선국론(豐臣閣下擊朝鮮國論)〉이란 글인데, 두 글 모두 《무전병술문고(武田兵術文稿)》 하권에 실려 있다.

이익은 논점을 강화시켜줄 문헌들을 집성했다. 이를테면 1607년(선조 40)의 유연(柳淵) 옥사를 다룬 항목에서는 이항복(李恒福)의 〈유연전(柳淵傳)〉과 윤국형(尹國馨)의 《문소만록(聞韶漫錄)》을 인용하고 그 사건이 고려말 영흥군 왕환(王環)의 일과 흡사하다고 논평했다. 현감 유예원(柳禮源)의 장남 유유(柳游)가 산사에서 행방불명되자 자형 달성령 이지(李禔)와 종매부 심융(沈隆)이 유유 부인과 결탁하여 유예원이 삼남 유연을 친형 살인죄로 고발해서 죽게 했다. 16년 뒤 윤국형은 순안 걸인 천유용(天裕勇)이 유유임을 밝혀냈다. 1624년(인조 2) 유연이 죽고 1639년 이지가 처형된 후 1667년(현종 8) 이항복이 이원익(李元翼, 1547~1634)의 청으로 〈유연전〉을 작성했으며, 이는 목판으로 간행되었다.¹¹⁾ 윤국형의 《문소만록》에 따르면 1668년(현종 9) 김지의

10) 僊說08人事02-21〈庶孽防限〉; 類選3하人事4·治道門1·用人09〈庶孽防限〉.

11) 僊說12人事06-84〈柳淵傳〉, 공양왕의 당숙 永興君 王環은 처남 辛珣이 辛旽에게 붙어 주살되자 武陵島에 유배되었다가 일본에 표착했는데 19년이 지난 1389년(창왕 원년) 석환되어 왔다. 인척 李崇仁은 진위를 변명하다가 誣罔에 坐罪되어 도망했다. 한편 柳淵의 일은 마르탱의 행방불명과 가족 성원의 재산분쟁 이야기가 비슷하다. 나탈리 제이먼 데이비스(Natalie Zemon Davis)가 1983년 저술한 《마르탱 게르의 귀향(The Return Of Martin Guerre)》(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지식의 풍경, 2000)에서 다루었다. 유연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李時發, 《碧梧先生遺稿》 권7 〈謾記〉

② 徐思遠, 《樂齋先生文集》 권5 〈先考進士府君墓碣文〉

③ 李晬光, 《芝峯先生集》 권23 〈工曹判書尹公(國馨)墓誌銘〉

④ 李德馨, 《漢陰先生文稿》 권10 〈與李子常(恒福)書〉

⑤ 權輶, 《石洲集》 권7 〈題柳淵傳後〉(李完平元翼屬李龜城恒福作傳八板)

⑥ 金時讓, 《涪溪記聞》

⑦ 《星湖僊說》 권12 人事門 〈柳淵傳〉

⑧ 權得己, 《晚悔集》 권4 〈李生訟冤錄〉; 〈附與慶上舍述古書〉; 〈與朴君省書〉

⑨ 權認, 《炭翁先生集》 권11 〈閑居筆舌〉(朋友見警識并自警識)

⑩ 李世龜, 《養窩集》 冊10 〈先考贈通政大夫吏曹參議行通政大夫公州牧使公州鎮兵馬僉節制使府君家狀〉

⑪ 宋時烈, 《宋子大全》 권147 〈柳淵傳跋〉

아들 김언관(金彦寬)이 이항복의 〈후서〉와 대신(金貴榮·李山海) 및 대간(朴弘壽·趙仁得)의 복계를 위조하여 아버지의 죄상을 덮으려 했으나 김시양은 《부계만록(涪溪漫錄)》에서 변론했고 임숙영(任叔英)도 김언관의 〈전후서(傳後叙)〉를 위작이라고 논박했다. 《사설》의 다른 항에서 이익은 단옥(斷獄)에 유의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익은 관련 자료들을 섭렵하지는 못했다.¹²⁾

이익이 서명을 명시했다고 해도, 서명 명시의 원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서적이나 유서(類書)에서 간접 인용한 사례도 많다.

이를테면 〈남복여언(男伏女偃)〉 항에 이익은 남녀 출생비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면서 위백양(魏伯陽)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와 남제 저징(褚澄)의 《저씨유서(褚氏遺書)》를 언급했다. 하지만 두 서적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은 《설부(說郛)》 권25하에 수록된 유염(兪琰) 《석상부담(席上腐談)》의 한 항목을 상당 부분 전재했다.

- ㉠ 위백양(魏伯陽)이 말하기를 “남자가 생산될 적에는 반드시 엎드려 낳고 여자는 누운 채 낳는데, 죽을 적에도 역시 이와 같다.”라고 했다. 《저씨유서(褚氏遺書)》에도 “양기는 면상에 모이기 때문에 남자는 낮이 무거워서 물에 빠져 죽을 때는 반드시 엎드리게 되고, 음기는 등에 모이기 때문에 여자는 등이 무거워서 물에 빠져 죽을 때는 반드시 하늘을 쳐다본다.”라고 했다.
- ㉡ 양기가 낮에 모인 자도 음은 반드시 등에 모이기 마련이요, 음기가 등에 모인 자도 양은 반드시 낮에 모이기 마련이다. 사람이 태중에 있을 적에는 남자는 반드시 양을 향하고 여자는 반드시 양을 등지며, 낳을 적에는 반드시 어미가 엎드리므로 남자는 엎드리고 여자는 눕는다. 하늘은 양이요 땅은 음이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적에도 역시 그러한 것이다.¹³⁾

《星湖僊說》 男伏女偃[僊說09人事03-85]	《說郛》 권25하 수록 兪琰 《席上腐談》
㉠魏伯陽曰：“男生必伏，女偃其軀。及其死也，亦復效之。” 《褚氏遺書》曰：“陽氣聚面，故男子面重，溺死必伏。陰氣聚背，故女子背重，溺死必仰。” ㉡夫陽之聚面者，陰必聚背。陰之聚背者，陽必聚面，何以異哉？蓋人在胎中，男必面陽，女必背陽，產必母伏，故男伏而女偃。天陽而地陰，故溺死亦然。	魏伯陽參同契云：“男生而伏，女偃其軀。非徒生時著而見之。及其死也，亦復效之。本在交媾，定制始先。” 《褚氏遺書》云：“陽氣聚面，故男子面重，溺死必伏。陰氣聚背，故女子背重，溺死必仰。” 走獸溺死伏仰皆然。

⑫ 朴世采, 《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권80 〈司諫院司諫贈弘文館副提學朴公行狀〉(甲辰九月二十九日); 권83 〈柳先生祖訥傳〉(丁未十二月二十二日)

⑬ 金平默, 《重菴先生文集》 권46 〈行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贈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 楊村鄭公墓碣銘并序〉

⑭ 柳重教, 《省齋先生文集》 권41 柯下散筆 〈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贈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鄭公墓誌銘並序〉.

12) 類選5상人事7·治道門四·獄訟03.

13) 僊說09人事03-85〈男伏女偃〉.

이익은 ⑥에서 《주역참동계》와 《저씨유서》의 설을 부정하고 남녀음양은 태중에서 결정되어 있어 남녀가 태어나고 익사할 때 면양(面陽)과 배양(背陽)의 특징이 달리 나타나다고 보았다. 《저씨유서》에서 남자는 얼굴에 양기가 모이고 여자는 등에 음기가 모인다는 설은 경험적으로 옳지 않다고 반박한 것이다. 《주역참동계》에는 교구(交媾)의 때에 남북여언(男伏女偃)의 자세가 올바르다고 했으나 이익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Ⅲ. 무기(無記) 서적의 내용 적기(摘記)

이익은 《곽우록(藹憂錄)》 서문에서 자신은 ‘천인(賤人)’이므로 밭고랑 바깥의 일을 근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며, 지위를 벗어나 함부로 사고하는 것[출위남사(出位濫思)]은 필부의 죄라고 주의했다. 그러면서도 신첩(呻帖)의 나머지에 연호(研毫)한 것을 기록했다. 당대 현실의 모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깊은 우려감을 갖고 대책문을 작성해두고 ‘안목이 있는 분’을 기다린 것이다. 또한 ‘곽우’라는 명칭은 도용(屠隆, 1543~1605)의 《홍포집(鴻苞集)》 가운데 제7권이 〈곽어(藹語)〉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¹⁴⁾ 도용도 자신이 낭묘지우(廊廟之憂)와 칠실지려(漆室之慮)를 지녀 〈곽어〉를 저술했다.¹⁵⁾

이익은 《사설》의 8처에서 서명을 언급하지 않고, 도용의 《홍포집》을 참조했다. 도용은 불교의 조심(調心)·참회(懺悔)·이경수행(離境修行)·보시(布施) 등 실천을 중시하고, 도가의 채진(采眞)·하람(遐覽)·박수(博蒐) 등 청정한 태도를 추구하며 삼교일치의 관점을 견지했던 인물이다.¹⁶⁾ 이익은 도용의 박물지기(博物知幾)·통미(通微)·지래(知來) 등 논설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홍포집》의 〈여도요략(輿圖要略)〉에서는 영향을 받았을 듯하다. 앞서 1660년(현종 원년) 75세의 조경(趙綱)은 〈진구기민소(賑救饑民疏)〉

14) 《홍포집》은 도용 사후 1610년(萬曆 28년) 吳興의 茅元儀가 출판했다. 《四庫提要》〈子部 雜家類存目〉에서, 《홍포집》이 雜文과 案牘을 쌓아두었으며 불교·도교를 유학 위에 두었다고 비판했다. 1610년 서문의 48권 16책 목판본이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하버드대학 漢和圖書館에 있다. 《明史》卷288 文苑列傳四 〈徐渭·屠隆〉: 張應文, 〈鴻苞居士傳〉, 屠隆, 《鴻苞集》: 黃霖 《論金瓶梅作者屠隆考》, 文化藝術出版社, 1984; 吳新苗, 《屠隆研究》, 首都师范大学 박사학위논문, 2006; 임병권, 〈명말 강남 백유사 문인屠隆의 문예활동〉, 《중국인문과학》 42, 중국인문학회, 2009.8, 191-212면; 심경호

15) 〈藹語〉의 내용은 識氣數·輔主德·開延攬·重輔毗·廣選舉·定是非·綜名實·正風俗·審政體·懲貪競·弘德意·破常調·論形勢·議邊防·論和戰·任將帥·論戰法·議召募·論兵機 등이다.

16) 이익은 ‘굴슬병(屈膝屏)’의 설을 탐구하고 이서우에게 문의했는데, 이서우는 《홍포집》의 〈박수(博蒐)〉를 언급했다. 僊說28詩文01-61〈屈膝屏〉. 이라 했다고 보았다. 이익은 石虎 즉 석계룡의 일이 근거가 있다고 보고, ‘屈膝’이 곧 ‘屈戌’이라고 추정했다.

《龍洲遺稿》 권9)를 올리며 1579년 강소성 청포(靑浦) 지현 도륜이 집필했던 《황정고(荒政考)》를 인용했다. 이익은 임희원(林希元)이 1529년 올린 《황정총서(荒政叢書)》의 내용을 발췌하고 《홍포집》의 황정 30조 가운데 ‘모아서 구제하는 것이 흠어서 구제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을 초록했다.¹⁷⁾ 그리고 《홍포집》의 〈남북비왜책(南北備倭策)〉을 인용하여 화통(火箭)·화총(火銃)·화포(火砲)·화궤(火櫃)·화갑(火匣)·화패(火牌)·화차(火車)·화궁(火弓)·화노(火弩)·화탄(火彈)·화전(火箭)·화박(火磚)·화창(火鎗) 등 13종 화구를 열거했다. 이익은 《속문헌통고》에 나오는 화산(火傘)·화구(火毬)·화서(火鼠) 등에서 조취총(鳥嘴銃)이 가장 위력이 있다고 하고, 왜가 위고(衛庫)의 조취총을 얻어갔다고 추정했다.¹⁸⁾

《사기》〈추양열전(鄒陽列傳)〉에 “형가가 연단의 의리를 사모했는데, 흰 무지개가 해를 꿰니, 태자가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사기집해(史記集解)》에서 응소(應劭)는 태자 단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걸라고 보았으나, 여순(如淳)은 태자 단이 그 조짐을 보고 실패할 줄 알았노라고 실토했다고 기술했다. 도용은 여순의 설을 취했지만, 이익은 그 변괴가 국지적으로 연나라의 멸망 조짐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보았다.¹⁹⁾ 이익은 민심의 향배는 군주의 취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홍포집》 권7 〈음교(淫巧)〉로부터 도용의 ‘분세지언(憤世之言)’을 인용했다. 《진서》〈부현전(傅玄傳)〉에서 위 무제가 법술(法術)을 좋아하자 천하가 형명을 귀히 여기고 위 무제가 통달(通達)을 좋아하자 천하가 수절을 천히 여겼다고 기록한 사실을 언급했다.²⁰⁾ 또한 이익은 《홍포집》 권7 〈곽어(藹語)〉 ‘광선거(廣選舉)’의 논조를 넷으로 정리했는데, 그 셋째 폐단과

17) 僊說11人事05-33〈荒政〉. 林希元의 1529년 상소는 徐光啓의 《農政全書》와 湖廣布政司 參議 俞森이 엮은 《荒政叢書》 권2에 있다. 정약용도 《牧民心書》에서 《荒政叢書》 내용을 발췌하고 《홍포》에서 荒政은 ‘모아서 구제하는 것이 흠어서 구제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한 말을 초록했다. 丁若鏞, 《牧民心書》 賑荒 6條 第3條 規模.

18) 僊說05萬物02-110〈火具〉; 類選5중人事8·器用門·兵器07〈火具〉. 도용은 關白의 대병이 조선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장문의 〈남북비왜책〉을 작성했는데, 동남방의 비왜책 8조로 議防迅·講戰陣·議設伏·增兵艦·實城池·愼城守·審策應·察陰陽 등을 열거했다. ‘강전진’ 항에서 장도를 사용하는 왜적을 막는 방법으로는 火攻이 가장 유효하다고 하고, 화공에 13종 화구를 들었다. 동북방의 비왜책 6조는 廣召募·和師旅·議戰具·戒冒險·防餉道·重徐州 등인데, ‘의전구’에서는 남방에 둔 화구 13종이 북방의 비왜에 더욱 사용하기 편하다고 제안했다. 도용은 또 남북 총합 8조로, 精訓練·明賞罰·著恩信·嚴紀律·弘延訪·破常調·重將權·寬文法 등을 들었다. 이익은 1744년 정상기의 《농포문답》을 검토한 조목에서도 《홍포집》의 ‘화구’를 언급했다. 《성호전집》 권12 〈與鄭汝逸論農圃問答〉(甲子, 1744, 영조 20).

19) 僊說03天地03-03〈白虹貫日〉. 이익은 《문헌통고》를 근거로, 무지개가 해를 꿰는 현상이 동한에서 5회, 남진(동진)에서 9회, 당나라에서 11회에 불과했지만, 송나라 영종의 治平부터 신종의 元豐까지 9회, 원종부터 철종의 元符까지 16회가 있었다고 하여, 하늘의 조짐이 ‘昭昭하다’고 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을축년(1745년) 정월 3일부터 초8일까지 4회나 이변이 있었다고 했다.

20) 僊說11人事05-32〈民志趨向〉.

관련하여 “뽕과 토끼의 그물에 기린과 봉황은 잡히지 않고 송사리와 새우의 그물에 교룡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비유를 말했다. 도룡이 《홍포집》 권5 〈용인(用人)〉에서 첩괄(帖括)을 비판한 것은 특히 이익의 주장과 통한다.²¹⁾ 도용은 《홍포집》 권43 〈유문요(劉文饒)〉에서 후한 유관(劉寬)의 관홍했던 성품을 말한 뒤에 부록으로 ‘계판(戒板)’ 사례를 소개하며 편급(編急)한 근성은 제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익은 개과천선도 향심이 있어야 하며, 봉당 금지가 계판 구타와 비슷하다고 했다.²²⁾

한편 이익은 〈九五六二〉 항에서, 스스로를 《주역》의 육이효六二爻와 같은 존재로 반성했다. 정(正)이 되지 못하여 정치를 보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여 지극히 유순할 따름이다. 하지만 중(中)의 위치에 있으면서 마음을 판국의 바깥에 두어, 사충(四聰)의 군주가 자신의 입언(立言)을 채택하길 기대했다. 그렇기에 명나라 태주학과의 조정길(趙貞吉, 1508~1576)이 1538년 상소(〈乞求真儒疏〉)에서 “임금에 대해 은 고종과 주 문왕의 성덕을 기대하지 않으면 위로 성명(聖明)을 저버리는 것이고 천하 선비에 대해 부열(傳說)과 여망(呂望)의 어쥬이 있다고 여기지 않으면 아래로 호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던 말을 환기했다.²³⁾ 그런데 이익은 조정길의 언론을 출전 없이 인용했다.

皇明趙貞吉之疏曰：“文藝之科·有司之式，可以得詞藻之才，而難致不召之士也，必有渭濱·傅巖之事，而後得傳說·呂望之賢。高宗當殷道方隆，必有遺老之足用，而鹽梅之託，在於傅巖之版築。周文承累世之基，亦必有君子滿朝，而混一之業，在於渭濱之釣叟。殷·周初無取士之科，二賢非有希合之願，及其遭遇，投竿釋錡，不崇朝而建大業，所謂‘惟非常之士，立非常之功’。今不以殷·周之君望我皇，則上負聖明也。不以傅·呂之賢待天下士，則下誣豪傑也。”此說可表以出之，以警後世也。

조정길의 〈결구진유소(乞求真儒疏)〉는 이지(李贄) 선평(選評) 《조문숙공집(趙文肅公集)》

21) 僊說11人事05-34〈詞科〉.

22) 僊說14人事08-59〈戒板〉. 이익은 조씨 성의 수령이 판자에 경계문을 적어두고 시중꾼에게 자신이 노기가 발하면 들어보이라고 했지만, 시중꾼이 명대로 거행하자 전보다 심하게 때렸다는 일화를 들었다. 그리고 《홍포집》에서 성격이 급한 자의 어머니가 계판을 만들어 주었으나 그자는 계판으로 남을 구타했다는 일화를 취해 왔다.

23) 僊說16人事10-53〈九二六二〉; 類選3상人事3·君臣門上·君道01〈九五六二〉. [‘僊說’은 태동고전연구소 정본 《성호사설》 정본을 가리키고 ‘類選’은 安鼎福 재편, 태동고전연구서 정본 《星湖僊說類選》을 가리킨다. 각각 권수, 분류목-속목, 분류목 목차, 분류목-속목 내의 순번을 적고 항목의 제목을 표시한다. 이하 같다.] 《주역》에서 九五爻와 六二爻의 中正이 응하는 것이 모두 16괘로, 크게 길한 것은 없다. 乾卦 九二爻는 利見大人의 길함이 있고 中孚卦 九二爻는 “우는 학이 그늘에 있거늘 새끼가 화답하도다. 내게 좋은 벼슬 있으니 내 그대와 함께 하리로다.[鳴鶴在陰，其子和之。我有好爵，吾與爾靡之.]”의 길함이 있다. 《易例》에서 中이되 正이 되지 못함은 보필의 직책이 아니라 임금에게 순종함을 정도로 삼는다.

권1에 있다. 한편, 1567년(隆慶 元年) 조정길(趙鼎吉)이 명 목종에게 올린 만언서 〈삼지구페삼세소(三幾九弊三勢疏)〉가 진자룡(陳子龍)·송징벽(宋徵璧)·서부원(徐孚遠)·이문(李雯)선집(選輯), 오배창(吳培昌) 참열(參閱), 《황명경세문편(皇明經世文編)》에 들어 있다. 이익은 《황명경세문편》을 열람했으므로 조정길의 입론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문숙공집》을 구해서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익의 《사설》은 경세의 의지를 문헌고증 방법을 통해서 구현한 점에서 《고염무(顧炎武, 1613~1682)의 《일지록(日知錄)》과 유사한 면이 있다.²⁴⁾ 실제로 고염무와 연관이 있는 항목도 있다. 이익은 혹자가 “옛날에는 거짓이 없으므로 육경 속에 ‘진(眞)’ 자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 글자가 없는 것은 우연일 뿐이며, 육경에는 ‘연(烟)’ 자가 없고 《서경》에는 ‘야(也)’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가 경전인 오경에 ‘진(眞)’ 자가 없다는 사실은 고염무가 《일지록》 제18권 〈파제용장자(破題用莊子)〉에서 지적한 바 있다.²⁵⁾ 이익은 육경에 奸·邪·回·譎·誠·實·正·直 등이 있으므로 眞 자가 없는 것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고염무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성호사설》에서는 고염무의 《일지록》을 언급하지 않았다.²⁶⁾ 《사설》의 각 항목에는 경세 의지, 현실 비판의 목소리가 짙게 배어 있다. 이를테면 이익은 의술가가 인삼·부자 등 더운 약으로 시험하고 효험이 없으면 다시 망초(芒硝)·대황(大黃) 등 찬것을 넣어 약이(藥餌)로 사람 죽이는 일이 많다고 개탄했다. 정이가 사경온(謝景溫)에게 서한을 보내 “올문에 의사들이 약화제를 낼 때 잘못하여 방문과 달라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2년 반 도형(徒刑)에 처하며, 일부러 방문과 다르게 하여 사람을 살상한 자는 ‘고살상(故殺傷)’으로 논죄하며, 사람을 상하지 않았더라도 곤장 60대를 때린다고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익은 신지(神指)·묘안(妙按)을 용렬한 의사나 속된 의사에게 바랄 수 없다고 개탄했다.²⁷⁾ 이익은 천거법을 병용해서 경학에 밝은 이들

24) 고염무는 명말 蘇州府 崑山縣 출신으로, 청나라 초기 사회·정치·경제 등 현실 문제를 학문의 영역에서 담론함으로써 도를 밝히고[明道] 세상을 구하겠다[救世]는 의지를 피력했다. 梁啓超는 《清代學術概論》(1920년)에서 明末 王學의 말류가 공소함에 빠진 것에 대한 반동으로 고증학이 일어났다고 했다. 명말청초에 ‘경세치용의 학’을 표방하는 한 시기가 있는 뒤 고증학이 그 속에서 자라나 강희 중엽에 발전했는데, 고염무는 신학문의 개조자로 평가된다. 山井 湧 저, 김석기·배경석 공역, 《명청사상사의 연구》, 학고방, 1994, 268-270면.

25) 僊說18經史01-05〈六經所無字〉. 顧炎武, 《日知錄》卷18 〈破題用莊子〉.

26) 《일지록》의 판본은 다음과 같다. 康熙九年(1670年), 江蘇淮安付刻, 稱《符山堂本》; 康熙三十四年(1695年)潘耒刻於閩中, 稱《日知錄閩中本》; 乾隆六十年(1795年)重刻遂初堂本, 未附《日知錄之餘》二卷; 道光十四年(1834年)嘉定黃汝成參以閩若璩·沈彤·錢大澐·楊寧四家校本, 刻有集釋本; 廣州本; 湖本局本; 朝宗書室活字本; 席氏刻集. 八卷本是 2종이 있다. 國家圖書館藏 2部 가운데 하나는 傅增湘舊藏. 首〈[再印]初刻日知錄自序〉, 末附〈譎觚十事〉, 1961년 影印本이 있다. 上海圖書館藏 1部는 傅增湘舊藏本과 같으며 1985년 영인되었다. 한편 국가도서관장 1본은 〈[再印]序〉와 〈譎觚十事〉가 없는 早印本이라고 한다.

27) 僊說09人事03-37〈庸醫殺人〉. 《日知錄》은 “醫師古之時庸醫殺人.今之時庸醫不殺人, 亦不活人, 使其人在不死不活之間, 其病日深, 而卒至於死.”라고 개탄하고 “《後漢書》華佗精於方藥,

을 관리에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지록》 권17 〈통경위리(通經爲吏)〉와 논조가 흡사하다.

Ⅳ. 대칭(代稱)·약칭(略稱) 서명의 제시

이익은 간색(間色)에 대해 종래 황색과의 혼합이라고 관념적으로 파악하던 설을 비판하고, 여러 색들의 혼합에서 간색이 무수히 나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자서(字書)’를 인용했다. 본래 《예기》 〈옥조玉藻〉에 “〈면복〉 윗옷은 정색으로 하고 치마는 간색으로 한다[衣正色, 裳間色]”라고 했고, 정현 주는 “면복은 상의를 현색玄色으로 하고 하의를 혼색(纁色)으로 한다”라 하고, 공영달 소는 “현(玄은) 하늘의 색이기 때문에 정색이다. 혼(纁)은 땅의 색이니, 황색이 섞였기 때문에 간색이다.”했다.²⁸⁾ 그런데 《주례》 〈동관 고공기(考工記)〉에는 상의(上衣)에 대해 “화회(畫纁)의 일은 다섯 가지 색을 섞으니, 동방을 청(靑), 남방을 적(赤), 서방을 백(白), 북방을 흑(黑)이라 하고, 하늘을 현(玄), 땅을 황(黃)이라 한다. 청과 백이 서로 차례가 되고 적과 흑이 서로 차례가 되고 현과 황이 서로 차례가 된다”라 하고, 하상(下裳)에 대해 “청과 적을 문(文), 적과 백을 장(章), 백과 흑을 보(黼), 흑과 청을 불(黻)이라 하고, 다섯 채색이 갖추어진 것을 수(繡)라 한다.”라고 했다. 이익은 ‘자서’를 인용해서 간색의 특성을 살폈다. 이익이 언급한 ‘자서’는 명나라 장자열(張自烈) 초편의 《정자통(正字通)》을 말한다. 이익은 《정자통》에서 해당 글자들의 혼색들을 종합해서 확인하되, 두 색의 화합 법칙은 여전히 오행상생설로 설명했다. 《정자통》에서 부정한 속설이나 구주도 되살려 채용했다.²⁹⁾ 이익은 다음 5개의 사례만을 들되, “이 외에도 지별파분(枝別派分)하므로 못 색깔들을 이루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했다.

- 목이 화를 생함. 청적간색(靑赤間色) 슬(𪛗). [《정자통》 戊集中 靑部 ‘𪛗, 舊註, 赤靑色. 非. ’]

處齊不過數種. 夫〈師〉之六五任, 九二則吉, 參以三四則兇. 是故官多則亂, 將多則敗, 天下之事亦猶此矣.”라고 失政을 탄식했다. 이익은 《일지록》을 참조하되 程頤의 〈上謝帥師直書〉(《二程文集》 권10)을 引證하여 庸醫를 警戒하는 문제를 부각시킨 듯하다.

- 28) 공영달의 소는 다음과 같다. “皇氏云：正謂靑赤黃白黑五方正色也. 不正謂五方間色也. 綠紅碧紫駟黃是也. 靑是東方正, 綠是東方間. 東爲木, 木色靑, 木尅土, 土黃並以所尅爲間, 故綠色靑黃也. 赤是南方正, 紅是南方間, 南爲火, 火赤尅金. 金, 白, 故紅色赤白也. 白是西方正, 碧是西方間. 西爲金, 金白尅木, 故碧色靑白也. 黑是北方正, 紫是北方間, 北方水, 水色黑, 水尅火. 火, 赤, 故紫色赤黑也. 黃是中央正, 駟黃是中央間. 中央爲土, 土尅水. 水, 黑, 故駟黃之色黃黑也.”
- 29) 僊說05萬物02-67〈綵色〉. 필사본인 《사설》에 黑白間色の 첫 글자로 적혀 있는 것은 《자휘》·《정자통》·《강희자전》에 모두 없다. 《자휘》와 《정자통》에 ‘淡黑淺色’이라고 혼해한 ‘黠’가 옳다.

- 화가 토를 생함. 황적간색(黃赤間色) 험(黻)·점(黶). [《정자통》 亥集 下 黃部 ‘黻, 《說文》赤黃.’; ‘黶, 舊註, 赤黃色, 非.’]
- 토가 금을 생함. 백황간색(白黃間色) 첨(黻)·천(黶). [《정자통》 亥集 下 黃部 ‘黻, 古謂之紺, 西北方色也.’; ‘黶, 黻字之譌.’]
- 금이 수를 생함. 흑백간색(黑白間色) 회(黻)·발(帥). [《정자통》 亥集 下 黑部 ‘黻, 淡黑淺色.’; 午集 中 白部 ‘帥, 帥字之譌. 舊註, 淺白色, 誤.’]
- 수가 목을 생함. 청흑간색(靑黑間色) 정(靑)·담(黶)·참(黶). [《정자통》 戌集 中 靑部 ‘靑, 《廣韻》, 妝飾也.’; 亥集 下 黑部 ‘黶, 《說文》, 靑黑.’; 亥集 下 黑部 ‘黶, 《六書統》, 黑與靑相參也.]]

이익은 남명홍광조위태자의안(南明弘光朝僞太子疑案)을 다루면서, 건문제 탈출생존설을 함께 검토하여 ‘신명사(新明史)’의 설을 비판했다. 명말청초 추의(鄒漪)의 《명계유문(明季遺聞)》에 따르면, 이자성이 서울을 함락하자 장렬제(莊烈帝)와 태자가 북쪽으로 도망했는데, 남명 복왕(福王) 때 북쪽에서 온 자가 자신이 태자라고 자칭하니, 부마도 위 왕병(王昺)의 손자 왕지명이 가짜로 꾸민 것이라고 의심되었다. 한편 건문제 탈출설은 곡응태(谷應泰)가 《명사기사본말(明史紀事本末)》 권17 〈건문손국(建文遜國)〉의 언어에서 언급한 이후 만명 때는 사증빈(史仲彬)의 작으로 가탁된 《치신록(致身錄)》까지 나왔다. 이익은 ‘신명사’에서 ‘균주(勻州) 사람 양행상(楊行祥)이 거짓으로 꾸며대다가 하옥되어 죽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전수지(錢受之)’가 “출가하여 나이 90을 지났거늘 꾸며댄들 무슨 이익이 있다고 죽음을 버리고 망령되게 범했겠는가?”라고 반박한 것에 동의했다.³⁰⁾ 양행상 옥사는 《명사》 권10 정통 5년 11월 정사의 기록에 나오되, 양행상을 ‘광서승(廣西僧)’이라고 밝혔다. 이후 왕세정(王世貞)의 《염산당별집(弇山堂別集)》 권21 《사승고오(史乘考誤)》 2에 상세한 논증이 있다. 이익이 말한 ‘신명사’는 《명사기사본말》이되, 《명사기사본말》은 양행상을 ‘양응상(楊應祥, 균주(鈞州) 백사리(白沙里) 인물)’이라고 적었으며, 양응상의 본명이 양행상이라고 명시한 것은 왕세정의 〈사승고오〉이다. 한편 《사설》에서 언급한 ‘전수지’는 전겸익(錢謙益, 1582~1664)이다. 전겸익은 《목재초학집(牧齋初學集)》 권22의 〈치신록고(致身錄考)〉에서 건문군 탈출생존 사실을 날조한 《고신록》이 위작임을 변정하고, 다시 〈서치신록고후(書致身錄考後)〉에서 정제程濟의 『종망일기(從亡日記)』 역시 《치신록》과 같은 유의 위서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익은 양행상 옥사 변증설을 전겸익의 글이 아니라 왕세정의 〈사승고오〉에서 보았을 것이다.³¹⁾ 이익이 남명홍광조위태자의안을 다룬 논조는 《일지록》의 〈사칭태자

30) 僊說18經史01-79〈王之明〉. 구 번역본은 ‘新明史’를 고염무 작이라고 주석하고, 본문의 ‘錢受之’를 ‘돈을 왕지명이 받았다’라고 오역해서 이익의 변정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했다.

31) 이익보다 앞서 김만중(金萬重)이 《서포만필(西浦漫筆)》에서 왕세정과 전겸익의 설을 인용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선종 때의 신하로 선종이 죽은 뒤 아들 영종이 9세로 즉위하자 그를 보필했던 양사기(楊士奇)·양영(楊榮)·양부(楊溥)가 영종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문제 생존

(詐稱太子)와 비교된다.³²⁾

이익은 당순지(唐順之)의 《역대사찬좌편(歷代史纂左編)》을 곳곳에서 ‘좌편’이란 이름으로 인용했다.³³⁾ 이익의 부친 이하진이 소장했던 책의 잔본 1책이 규장각 일사문고에 있다.³⁴⁾ 《역대사찬좌편》은 시정에 관계되거나 밀대한 사실도 수록했지만 공도보(孔道輔)의 사실은 누락했다. 이익은 공도보 등이 “왕덕용(王德用)의 집은 건강(乾岡)을 베개 삼고 얼굴은 예조(藝祖, 태조)를 닮았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배도(裒度)가 제오강(第五岡)에게 그랬듯이 중상(中傷)이었다. 이익에 따르면 공도보의 발언은 그 자신의 격사홀(擊蛇笏)에 부끄러우며, 곽 황후 폐위 때 극간하다가 좌천된 것은 충절의 우연한 발로일 뿐이다.³⁵⁾ 구양수도 적청(狄靑)의 추밀 직임을 두고 “몸은 참언대로 응하고 집은 불꽃에 들어가겠다.”라고 했고 “무신으로서 군사들 마음을 얻는 것이 국가의 이로움이 되겠는가?”라고 했다. 이익은 공도보나 구양수나 재능 있는 자를 미워했다고 혹평했다.³⁶⁾

이익은 왕통설에서 ‘실질보다 형식이 성하게 된 폐단’을 배격했다. 동주·서주는 고왕(考王)의 아우 하남 환공(桓公)의 후손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남이 서주이고, 혜공에 이르러 막내아들을 공(鞏)에다 봉한 것이 동주이다. 《자치통감강목》은 난왕(赧王)이 진(秦)나라에 들어간 을사년(기원전 256)을 주나라 국통의 단절로 삼고, 병오년(기원전 255)부터 비로소 국통이 없는 세대로 삼았다. 남송의 왕응린(王應麟)과 남궁정일(南宮靖一)은 동주가 멸망한 뒤에야 ‘주나라가 망했다’라고 써야 한다고 했다. 호일계(胡一桂)는 그 논리에 동의하고 유섬(劉剡)은 《통감절요》에서 그 설로 변석하여 병오년부터 동주가 멸망한 임자년(기원전 249)까지 7년간을 정통으로 기록했다. 1755년 안정복은 이익에게 서찰을 보내, 이때의 동주는 별자가 소종이 되는 것과 같아 주나라

설을 날조했다고 보았다. 김만중 저, 심경호 역, 《서포만필》 하, 하-48 ‘건문군망명설’, 문학동네, 2010. 239-245면.

32) 고염무는 유언(流言)을 ‘망국지요(亡國之妖)’로 지적했으나, 이익은 사료 선정과 독법의 정밀성을 촉구하는 주장을 했다. 《日知錄》 권31 〈詐稱太子〉. “建炎南渡有詐稱徐王棣者, 詐稱信王榛者, 詐稱越王偁次子者, 詐稱淵聖第二皇子者, 詐稱榮德帝姬者, 詐稱柔福帝姬者, 莫不伏法, 訖無異言. 乃福王時王之明一事, 中外流言, 洵洵不息. 藩鎮稱兵, 遂以藉口, 當時民間, 尚有疑以爲眞者. 此亦亡國之妖也已.”

33) 唐順之編輯, 《歷代史纂左編》은 명나라 王革·王左 校訂, 胡宗憲校刊의 1561년(嘉靖40, 辛酉) 浙江本 142권, 명나라 吳用先·陳邦瞻·蕭近高全校 1561년 목판본 142권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吳用先 등 교본 142권 50책이 있다.

34)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胡宗憲校刊本 《歷代史纂左編》 권19-20 1책이 있는데, 李夏鎭 구장본이다. 김수진, 〈국가의 장서와 개인의 장서 : 공사교직(公私交織)의 역사로 조명한 규장각 중국본 도서〉, 《한국문화》 7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22-25면.

35) 僊說18經史01-46〈孔道輔〉. 寧州 天慶觀에 나타난 큰 뱀을 공도보가笏로 쳐서 죽인 일이 《宋史》〈孔道輔傳〉에 나온다. 石介의 〈擊蛇笏銘〉이 《고문진보》에 실려 있다.

36) 僊說22經史05-50〈孔歐妬能〉.

정통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여조겸의 《대사기(大事記)》에서 “난왕이 항복하여 주나라의 국통이 이미 끊어졌다. 동주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으나 주(紂)나라나 거(莒)나라와 같은 부용국일 뿐이었다.”라고 논한 말을 인용했다. 이익도 주나라 소공과 태공이 봉해진 곳이 태산 아래이지만 두 도읍의 옛 땅이 진(秦)나라와 진(晉)나라에 편입되었으므로 동주와 서주는 왕통과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침반의승선생찬집강감금단(鼎鉉潘義繩先生纂輯綱鑑金丹)》(1631년)이 명 태조가 태어난 날부터 정통의 호칭을 붙인 것을 비판했다.³⁷⁾ 이때 이익은 이 책을 ‘강감’으로 약칭했다.

이익은 장년기에 《곽우록》을 엮으면서 <치민(治民)>의 끝에서 섬천(剡薦)의 방안을 설명하다가 해변 고을에 임명된 관리들이 풍토병으로 죽어나가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들고 2년을 임기로 하고 서학서 ‘수법문서(水法文書)’에서 말하듯 수고(水庫)를 설치하여 빗물을 모았다가 마시는 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³⁸⁾ ‘수법문서’란 곧 《태서수법(泰西水法)》을 가리킨다. 이탈리아 선교사 웅삼발(熊三拔, 사비아틴 데 우루시스 Sabbathin de Ursis, 1575~1620)가 서양식 농사법을 구술한 것을 서광계(徐光啓)가 한역하여 《태서수법》을 이루었다. 1612년 북경에서 6권으로 간행되고, 이후 《사고전서》에 수록되었다.³⁹⁾ 이익은 《사설》의 <용화(龍華)> 항에서 《태서수법》 권3 <수고기(水庫記)>의 내용을 요약해서 인용했다.⁴⁰⁾ 《태서수법》에는 설화가 육출(六出)인 이유를 기하학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고, 이익은 《태서수법》에서 그 내용을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 종래 설화는 육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출화(六出花) 혹은 육출공(六出公)이라고도 한다. 《주자어류》 <이기 하(理氣下)>에서는 “눈꽃이 반드시 육각형인 이유는

37) 僊說23經史06-103<東周>; 類選9상經史7·論史門4·東史紀事上04<東周>. 안정복과의 문답은 1755년 문목에 나와 있다. 《성호전집》 권25 <答安百順問目>.

38) 今宜於歲初, 令有司, 各舉一人爲保任. 合以考之, 其名出多者, 爲上薦, 一出者, 爲下薦. 其再出以上, 銓官不敢不用, 先試下僚, 秩滿而又薦. 始試外郡, 視其能否, 罰歸薦主. 觀其輕重, 奪俸遞職如例. 如其著能, 賞其得人. 然人有先後貞黷之不同, 不可以一時斷也. 至秩滿而去之, 每有除拜, 輒據更薦如前. 前後失薦之多者, 三人以上, 降秩. 得人之多者, 亦三人以上, 陞秩. 夫如是, 舉者, 必有難慎之心, 治民者, 亦必有自重之意, 而民生少蘇矣. 且濱海之地, 瘴嵐爲祟, 莅縣者, 或多病死. 故以二周歲爲瓜限, 迎送有弊, 而成效不暇責矣. 余觀大西人水法文書, 有水庫之制, 內畜雨水, 經年而後用, 其法甚密. 朝廷宜頒以施行, 可免如遞之患矣.

39) 또한 1640년에는 서광계가 《농정전서(農政全書)》 <수리(水利)> 부분의 권19과 권20에 수록했다. 왕정(王禎)의 《농서(農書)》의 수리도보(水利圖譜)와 웅삼발 구술, 서광계 필사의 《태서수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어 진지룡(陳之龍)이 46권으로 중간했으며, 1742년에는 건륭제의 명으로 《수시통고(授時通考)》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간행했다. 1843년 원래의 《태서수법》이 중간되었다.

40) 僊說05萬物02-17<龍華>. “西國人言: ‘水味本淡. 今泉井之水, 雖甘冽, 非水之本味, 卽土氣之染成. 是以水莫如雨霖, 飲之無病.’ 乃有水庫之法, ‘盛儲庫中. 經久, 而滓穢盡定, 去其滓, 而用其清.’ 其術極巧. 余有莊土, 在野中, 野無泉脈. 其人皆飲陂澤雨霖所匯, 謂之龍華. 雁鴨鸕鷀之所嘗留戲, 穢惡滿渚, 水蟲水草, 交亂腐朽, 色濁而味臭. 見之, 令人欲嘔. 然作飯作酒, 無不美, 洗濯物, 甚潔白. 凡濱海多重腿之病, 獨飲龍華者, 無此症. 始信西國之人經驗甚熟.”

아마도 우박이 강한 바람에 부딪히기 때문에 육각형의 모양을 이루는 듯하다.[雪花所以必六出者, 蓋只是霰下, 被猛風拍開, 故成六出.]”라고 추정했다.⁴¹⁾ 이익은 〈설화(雪花)〉항에서 기왕의 설화육출설을 검토하되 음기육수(陰氣六數)의 설⁴²⁾을 따랐고, 《태서수법》의 설은 취하지 않았다.⁴³⁾ 이익이 인용한 주희의 설이나 하맹춘의 ‘봄 눈은 다섯 모가 난다’는 설은 모두 《여동서록》(권61 〈物産〉)에서 취한 것이다.⁴⁴⁾ 여기서도 이익은 육의 수를 태음의 수에 연계시켰다.

V. 서명의 오기(誤記) 혹은 인증의 오류 사례

이익은 어느 길에서 회오리바람을 만나 장자가 말한 부요(扶搖) 현상과 양각(羊角) 현상을 목도하고, 이시선(李時善, 1625~1715)이 경풍(勁風)은 낮, 저녁, 밤, 아침에 회전 방향이 바뀐다고 해설했던 말을 떠올렸다. 단, 이익은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익은 1763년 이시선의 《송월재집(松月齋集)》이 간행될 때 서문을 썼지만,⁴⁵⁾ 경풍설은 그 문집에 보이지 않는다. 그 설은 진덕수(陳德秀) 《서산독서기(西山讀書記)》 권37 〈천형지형체(天地之形體)〉, 편자 미상 《경제문형(經濟文衡)》 전집 권7 〈논천형지기지설(論天形地氣之說)〉, 장항(章潢, 1527~1608) 《도서편(圖書編)》 권16 〈천도(天道)〉 등에 나오며, 당순지(唐順之, 1507~1560) 《패편(稗編)》 권49 제가(諸家) 7 〈논천지지형(論天地之形)〉에서는 주희의 설로 인용되어 있다. 이단상(李端相, 1628~1669)이 송준길(宋浚吉)에게 보낸 서찰 별지에서도 주희의 말로 인용했다.⁴⁶⁾

명나라 성조가 호(胡)의 침략을 두려워하여 여자들의 발을 동여매어 빨리 걷지 못하게 했다고 하며, 청나라 때 한족 여자는 발을 동여맸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익은

41) 《성호전집》 권24 〈答安百順〉(甲戌, 1754).

42) 《醫林撮要》〈歷代醫學姓氏〉‘李惟熙’. “舒州人, 博學通醫, 善論物理. …又曰: 桃杏雙仁, 輒殺人者, 其花本五出, 六出必雙仁. 草木花皆五出, 惟山梔・雪花六出, 此殆陰陽之理, 今桃杏六出, 雙仁殺人者, 失其常也.”; 《山林經濟》卷2 〈養花〉‘梔子花’. “梔花雜俎曰: 諸花少六出, 唯梔子花六出.[養花錄]…雪花六出, 石亦六稜. 凡陰氣所鍾者, 皆六數也.” 《西陽雜俎》卷18 廣動植之3 木篇에 “모든 꽃잎이 여섯 가닥으로 나온 게 드문데, 유독 치자꽃만은 여섯 가닥으로 나온다.[諸花少六出者, 唯梔子花六出.]”라고 했다.

43) 僊說02天地02-46〈雪花〉.

44) 《餘冬錄》卷61 〈物産〉. “‘草木花皆五出, 雪花獨六出.’[《呂氏春秋》-인용자 주] 古今莫喻其理. 獨朱文公謂: ‘地六爲水之成數. 雪者, 水結爲花, 故六出.’ 或言花中岩桂四出之異. 史繩祖[《學齋佔畢》-인용자 주]云: ‘土之生物, 其成數五, 故草木花皆五出. 惟桂乃月中之木, [居-인용자 주]西方, 地四乃西方金之成數, 故花四出而金色, 且開于秋’云. 春間薔卜花嘗六出矣. 天上瑞雪, 開花六出. 春雪亦嘗五出矣. 以物類求之, 恐亦不可盡曉. 蘇子瞻云: ‘今桃杏花有六出者, 必雙. 仁皆能殺人, 失常故也. 雪花六出, 至春乃五出, 殆亦陰陽之時或有感而然爾.’

45) 《성호전집》 권50 〈松月齋集序〉.

46) 李端相, 〈上宋同春〉, 《靜觀齋先生集》 권8.

홍매(洪邁)의 《容齋隨筆》에서 취재했다고 하면서 “남당 이후주가 요랑(宵娘)으로 하여금 비단으로 발을 동여매어 위로 굽혀 초승달처럼 만들었다.”고 했고, 잡방에 다리를 훌쩍하게 하고 발을 부드럽게 하는 법이 있으며, 《승암집》에서는 그 풍속이 한나라 때 생겼다고 기술했다.⁴⁷⁾ 이익은 요랑 고사를 홍매의 설로 인용했지만, 요랑 고사는 《산당사고》 권40 帝屬 〈足如新月〉이나 《격치경원(格致鏡原)》 권12에서 장방기(張邦基) 《묵장만록(墨莊漫錄)》의 ‘도산(道山) 신문(新聞)’의 설로 인용되어 있고, ‘전족(纏足)’의 명칭은 도종의(陶宗儀) 《철허록(輟耕錄)》 권10에 요랑 고사와 함께 나온다.

이익은 여러 서학서에서 천문·성력·지구과학의 여러 관점들을 흡수했다. 그러나 서명의 인용은 매우 불확실하다. 이익은 지구와 같이 둥그런 물체는 상하사방에서 중심으로 향하는 세력이 있다는 ‘지심설(地心說)’을 믿었다.⁴⁸⁾ 이 관념은 《주제군징》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지만 서명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익은 명말 천주교도 양정윤(楊廷筠, 1562~1627)의 1622년 이후 저술 《대의속편代疑續編》(1635년 간행)⁴⁹⁾을 청초 절강(浙江) 근현(鄞縣) 출신의 천주교도 주종원(朱宗元, 1609년생)⁵⁰⁾의 말로 오인하여 “송나라의 ‘복마(伏魔)’란 마귀로 마귀를 몰아내는 것이다. 마귀는 자기만 떠받들게 하려 하지만 본상(本相)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섬기겠는가?”라고 했는데, 이익은 이 말이 온당하다고 했다. 그리고 한 귀신이 죽으려 들면 다른 귀신이 구해주기도 하는데, 관우가 마귀를 몰아내는 것도 이런 부류라고 보았다.⁵¹⁾ 《대의속편》이 그 제39절과

47) 僊說12人事06-63〈纏脚〉.

48) 僊說02天地02-70〈地毬〉; 類選1하天下·地理門·地02〈地毬〉 또한 문중양, 〈19세기 조선의 자연지식과 과학담론〉, 《다산학》 13, 다산학술재단, 2008, 17면 참고.

49) 楊廷筠은 중국 杭州府 仁和縣 출신이며, 1592년 同進士出身으로 1624년 順天府府丞에 이르렀다. 본래 불교도이면서 유학을 공부했지만 1611년 天主教에 귀의하여 세례명을 彌額爾(Michael)이라고 했으며, 徐光啓·李之藻와 함께 ‘聖教三柱石’이라고 일컬어졌다. 저술로는 《代疑編》과 《대의속편》 이외에 《聖水紀言》·《天釋明辨》 등이 있다. 《대의속편》은 1635년 晉江景教堂刊, 王徵 序, 張賡跋로, 法国国家图书馆(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에 古郎(Maurice Courant)编目 7111호로 소장되어 있다. 신의연, 〈양정균 《代疑續編》 속 용어로 보는 중국 초기 기독교 유교적 변용의 일면〉, 《중국학논총》 57, 한국중국문화학회, 2018, 187-207면.

50) 주종원은 順治 貢生, 순치 5년 舉人인데, 젊어서 세례를 받았다. 1642년 양마락이 또 《天主聖教十誠直詮》을 찬술하자 주종원이 서문을 지었으며, 1642년 孟儒望(Joao Monteiro, 字士表, 1603~1648) 신부가 寧波에서 《天學略義》를 출판하여 〈使徒信經〉을 해석하자 甬東 주종원은 携李 魏學濂과 함께 교정을 보았다. 1659년 여름 賈宜睦(J. de Gravina) 신부가 正編을 완성하자 주종원은 李祖白·何世貞과 함께 교정을 보았다. 費賴之, 《明清間在華耶穌會士列傳(1552-1773)》; 方豪, 《中國天主教史人物傳》 中冊; 龔纓晏, 〈明清之際的浙東學人与西學〉, 《浙江大學學報: 人文社科版》, 《明清史復印》2006.08期.

51) 僊說09人事03-38〈關王廟〉; 類選1하天下·地理門·附鬼神門11〈關王廟〉. 또한 《林下筆記》 권16 참조. 송 政和 연간 궁중에 鬼崇가 있자 한 도사가 금갑 입은 장부를 불러 귀수를 잡게 하여 씹어 없애 버렸는데, 장부를 ‘崇寧眞君 關羽’라 했다. 張飛는 相州 岳氏의 집안에 태어났으므로 武穆[岳飛]이 ‘飛’로 이름하게 되었다. 한편 조선에는 동묘와 남묘 외에 관왕

제40절에서 관우關羽의 복마를 문제삼은 것은 제42절에서 ‘사람은 마땅히 전일하게 주님을 섬겨야 한다[人當專一事主]’는 교리를 역설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익이 《대의속편》의 저자 양정운(양정균)을 주종원으로 오인한 것을 보면, 이익은 주종원의 천주교 교리서 《증세약설(拯世略說)》도 열람한 일이 있어 착각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된다.

이익은 산학과 수학을 분기시키고 병존시켰다. 토지조세 제도, 자연 현상, 천체 운행 등과 관련하여 측정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산학을 중시했다. 또한 경서 가운데 산술과 관계된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 수치를 확인하고 환산을 시도했다. 이익은 《성리대전서》에 수록된 남진 진식(陳埴)의 ‘윤법(閏法)’이나 팽대익 《산당사고》 권7 〈시령(時令)〉 ‘귀여(歸餘)’에서 공영달 설을 인용하여, “남는 날을 마지막으로 돌려 쌓여서 한 달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윤월을 만든다”고 한 것은 잘못이며, 모든 윤월은 앞 반 개월은 앞달의 중기(中氣)에 해당하고 뒤의 반 개월은 다음 달 절기에 해당하므로 남은 분이 쌓여 반 개월일 때 윤월을 두어야 한다고 보아,⁵²⁾ ‘기삼백(朞三百)’ 주에 대해 《주비산경(周髀算經)》을 기초로 기영(氣盈)과 삭허(朔虛)의 개념을 활용하여 19년 7회 치윤법(19년 章法, Metonic cycle)을 정리했다.⁵³⁾ 해 계산하여 제시하고자 했다. 이익은 천체의 구조를 관찰하고 크기를 측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주제군징》의 수치를 근거로 총탄 속도와 비교하여 하늘과 태양의 운행 도수를 변증하고자 했다. 하지만 《주제군징》의 수치를 잘못 인용하거나, 《주제군징》에 없는 다른 수치들을 도입하여, 계산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⁵⁴⁾ 《오주연문장전산고》 〈총탄비천일행도변증설(銃彈比天日行度辨證說)〉에 이익의 계산을 참조한 내용이 나오는데,⁵⁵⁾ 이 역시 계산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가 없다.

묘가 넷이 있었다. 즉 康津의 것은 명나라 도독 陳璘이 세운 것인데, 그 후 한 칸 祠屋을 곁에 따로 세우고, 진인을 主壁으로 삼고 이순신을 배향했다. 남원에는 명나라 장수 李新芳·蔣表·毛承先을 배향했고, 안동의 것은 명나라 장수 薛虎臣이 세운 것으로 석상이 있고, 星州의 것은 명나라 장수 毛國器가 세웠다.

52) 僊說02天地02-55〈歸餘於終〉. 陳埴의 설은 문집 《本鍾集》 권3 〈閏法〉에 나오고, 명나라 胡廣 등 칙찬 《性理大全書》 권26 〈理氣 1〉 및 명나라 章潢 《圖書編》 권25에 전재되어 있다. 이익은 진식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朱註’라고 일컬었다. 이유는 알 수 없다.

53) 《성호전집》 권43 〈朞三百註解〉(日月日退遲速圖附). ‘기삼백’은 《서경》 〈요전〉의 “아, 너희 羲氏와 和氏야. 朞는 366일이니 윤달을 두어야 사시를 정하여 한 해를 이룬다.[咨汝羲暨和 朞三百有六旬有六日 以閏月定四時成歲]”라고 한 부분에 蔡沈의 주를 달아 해와 달의 운행, 달의 대소와 윤년을 설명하면서 역법에 대해 말한 것을 가리킨다. 1741년(영조 17) 이병휴에게 보낸 이익의 답장에 같은 내용이 있다. 《성호전집》 권35 〈答秉休問目〉(辛酉). 또한 《오주연문장전산고》 經史篇 經傳類 書經 〈朞三百注數法辨證說〉 참조.

54) 僊說02天地02-59〈日天之行〉; 類選1상天地上·天文門·天09〈談天〉(부속).

55) 《오주연문장전산고》 天地篇 天文類 日月星辰[0020] 05-0006〈銃彈比天日行度辨證說〉. 교감과 번역은 강민정의 敎示에 의한다. ‘탕약망’부터 ‘높이가 7억 5332만리이다’까지는 僊說02天地02-59〈日天之行〉과 유사하지만 수치와 구성면에서 차이가 있다.

《주제군징》에 다음의 내용이 있다. “태양이 종동천(宗動天)을 따라 서쪽으로 4각(四刻, 1시간) 동안 운행하는 거리는 대략 지구상의 452만리에 해당한다. 열수천(列宿天, 恒星天)에서 적도에 가까운 항성은 1각에 5260만리를 운행한다. 만물 중에 운행 속도가 빠르기로는 총탄만한 것이 없는데, 총탄이 날아가는 속도는 1분에 9리(里)이므로, 지구를 한 바퀴 돌자면 7일[(지구의 둘레 9만리)÷{(9리/분)×(1440분/일)}=6.9444일]이 걸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러하므로 태양이 4각 동안 운행하는 거리는 총탄이 348일[452만리÷{(9리/분)×(1440분/일)}=348.7654일] 동안 날아가는 거리이다. 열수천은 또 태양보다 40배[(5260만리/1각)÷{(452만리/4각)÷4}≈46.5487배. 《사설》은 ‘46배하고도 62만 5000리’를 제시] 남짓 빠르다.” 태양의 하루 운행 거리는 1억 1300만리⁵⁶⁾이므로, 태양천의 지름은 3766만 6667리⁵⁷⁾이며,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881만 8233.5리⁵⁸⁾이다. 열수천은 둘레가 45억 2000만 리이고 지름이 15억 0667만리이며 지표면으로부터 위로 높이가 7억 5332만리이다.⁵⁹⁾

VI. 결론

《사설》에서 활용한 문헌상의 주요 지식정보원은 경전·유가서·소학류, 통감류·정사(正史)·통고(通考)·유서(類書)·편년서·정서(政書)·병서·농서·지리서, 각종 제자서, 집부의 총집과 문집 만이 아니라, 송·원·명·청 및 조선의 고거식 필기류와 서학서를 망라한다. 단, 문헌자료를 이용할 때 이익은 유가적 의리의 관념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테면 ‘이탁오의 아류’로 지목된 도융(屠隆)의 저술 가운데 〈황정고〉를 직접 인

56) 1억 1300만리 : 강민정 님은 다음과 같이 교열했다(이하 【校】로 표시한다.) {452만(리/4각)×24시간=} ‘1만 0848리’가 되어야 한다. 이규경이 (452만리×25=) ‘1억 1300만리’라고 한 것은 하루를 100각으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대통력》과 조선 전기의 《칠정산내편》은 ‘1일=100각=1만분’의 시간 제도를 따랐는데, 이때 1각은 현대의 시각으로 14.4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나라와 조선후기에 사용된 《시현력》은 ‘1일=96각=1440분’의 시간 제도를 따랐으며, 이때 1각은 현대의 시각으로 15분에 해당한다. 이규경은 이 두가지를 혼동하여 서로 다른 계통의 ‘1각=15분’, ‘1일=100각’을 섞어 계산했다. 이 때문에 태양의 하루 일주 운동 거리가 (100각-96각=4각=) ‘1시간’ 동안 운행하는 452만리만큼 큰 숫자로 계산되었다. 이 수를 사용하여 계산한 태양천의 직경 (1억1300만리÷3=3766.666667만리=) ‘3766만 6667리’도 잘못된 값이며, 다시 이 수를 사용하여 계산한 지면으로부터 높이 {(3766만6667리-지구직경3만리)÷2=} ‘1881만 8333.5리’ 역시 잘못된 값이다.

57) 3766만 6667리 : 【校】(24시간×452만리÷3=) ‘3616만리’가 되어야 한다. 《사설》은 이 계산 값을 제시했다.

58) 1881만 8233.5리 : 【校】앞의 각주 500) 말미의 계산에 따라 ‘1881만 8333.5리’가 되어야 한다. 《사설》은 {3616만리-지구직경3만리}÷2=} ‘1806만 5000리’를 제시했다.

59) 열수천은……5332만리이다 : 【校】잘못 계산한 태양천의 둘레 1억 1300만리에 40을 곱하여 열수천의 둘레를 구하고, 이 수를 원주율 3으로 나누어 직경을 구하고, 이 수에서 지구 직경 3만리를 뺀 후에 절반을 취하여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구한 것이므로, 모두 잘못된 수치이다. 《사설》은 열수천의 둘레 50억 3581만 2697리, 그 직경 16만 7860만 4232리, 지표면까지 거리 8억 3928만 7116리를 제시했다.

용하고 도용의 문집 《홍포집》에서 측후설·경세설·음학·자학·명물학에 관한 내용을 인용했다. 하지만 도용이 불교·도교를 유학 위에 둔 관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성호사설》은 독립적인 지적 관심을 반영한 고거식(考據式) 필기물의 집성물이다. 고거식 필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자명하거나 별도로 논증될 수 있는 원리, 원칙, 명제로 시작하지 않으며, 논점을 은폐하거나 생략하기까지 한다. 세부 사항의 설명에 집중하는 경우라도 그 세부 사항을 지탱하는 일반 이론을 제시하거나 철학적 이슈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제나 주장을 내세우고 옹호 논변과 반론을 거친 후 마지막에 이론 평가(메타 이론)를 제출하는 형식을 온전하게 지키지만은 않는다, 때로는 자기 이론의 출발점을 옹호하거나 배타적 이론을 반박하는 논리를 제시하기도 하고 받아들일 만한 논거를 제기하여 경쟁 이론을 배제하기도 한다. 알로니아 출신 디오게네스가 말했듯이, “누구든 담론(logos)을 시작할 때는 우선 시작점(archē)이 논란의 여지가 없게(anamphibētētos), 표현(hermēneia)은 단순하고(haplē) 격조 있게(semnē) 해야 한다.”(DK 64B1) 하지만 고거식 필기는 첫 번째 단계에 머물거나 두 번째 단계로 진전하여 거기에 머무르는 예가 많다. 이 때문에 《성호사설》의 각 항목에 담겨 있는 저술 의도를 충분히 간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성호사설》에서 이익은 정보 자료를 취택한 원천이나 취사의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예가 적지 않다. 문헌을 인용할 때 서명이나 편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은 더욱 많다. 아마도 찰기(札記)를 해 두었다가 검토와 정리를 후일로 미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헌 인용의 경우에 인용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예, 자신의 언어로 바꾼 예, 잘못 인용한 예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천지문 〈일천지행日天之行〉(《성호사설유선》 천지편 천문문 수록)은 아담 샬(湯若望) 편저 《주제군징》〈여러 사물의 존재 원인이 약함으로 증명함[以諸物弱緣徵]〉으로부터 용수(用數)를 인용했으나 일부 수치는 원문을 변경했다. 그리고 청초 천주교도 양정윤(楊廷筠)의 《대의속편(代疑續編)》에서 주장한 관우복마(關羽伏魔) 비판론을 근거로 구마(驅魔) 의식을 논척하면서 양정윤의 이름이나 《대의속편》의 서명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주종원의 이름을 들었다. 이 사실로부터 실제로 이익이 《대의속편》을 열람했을 뿐 아니라 주종원의 주저 《증세약설拯世略說》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을 정도이다.

이익이 활동한 조선에서는 개별 저술이 출판을 통해 불특정의 독자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그 체계, 정의, 해설이 복수 비평가들의 ‘검토’를 거쳐 재정리되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성호사설》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인물의 지적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이 지식정보원으로서 문헌을 인용할 때 서목을 제시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인증 문헌을 원전과 간접원전으로 구분하여 사유 구축 방법의 실상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李瀾, 《성호사설 정본》,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1년 선정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 (www.chungmyung.org);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李瀾, 《星湖全集》 1-3, 한국문집총간 198-200, 민족문화추진회, 1997; 한국고전번역원 DB 제공.
- 李瀾,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성호사설》, 민족문화추진회, 1976-1978; 한국고전번역원 DB 제공.
- 李瀾, 한국고전번역원 역, 《국역 성호전집》, 한국고전번역, 2007-2016; 한국고전번역원 DB 제공.
- 李瀾 원저, 李佑成 편, 《星湖全書》 1-7, 여강출판사 영인, 1987.
- 李瀾 著, 安鼎福 改編, 《星湖僊說類選》, 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李瀾 著, 安鼎福 改編, 《星湖僊說類選》, 조선고서간행회, 1914; 명문당, 1982.
- 李瀾 著, 安鼎福 改編, 鄭寅普 校, 《星湖僊說類選》, 洪翼杓, 文光書林, 1929.
- 李瀾, 《星湖全書》 1-7, 여강출판사 영인, 1987.
- 李瀾, 《星湖疾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청구기호: 古1250-27-83-1).
- 李瀾, 《孟子疾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李瀾, 《藿憂錄》, 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www.chungmyung.org)
- 李瀾, 《星湖藿憂錄》筆寫本 2권 1책, 단국대학교 연민문고 소장.
- 李瀾 著, 안병학 외 역주, 임창순 교열, 《國譯星湖疾書》(論語·大學·中庸), 한림대학교태동문화연구소, 1998.
- 李瀾 著, 최석기 옮김, 《星湖僊說》, 서울: 한길사, 1999.
- 李瀾, 崔錫起 譯註, 《詩經疾書》, 와우출판사, 1996.
- 李瀾 지음, 김경남 역주, 《소학질서》, 예문서원, 2020.
- 李瀾 지음, 이민홍 역주, 《해동악부: 한시로 읽는 우리 역사》, 문자향, 2008.
- 柳慶種 지음, 윤재환 역, 《국역 성호선생 언행록》, 학자원, 2019.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간, 《近畿實學淵源諸賢集》 1-6, 2002. 11.
-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中文大學出版社·迪志文化出版社, 2002.
-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文化室編, 《明代通俗日用類書集刊》 1-16. 重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北京: 東方出版社, 2011(2012).

- (당)杜佑, 《通典》(全五冊書圖), 王文錦等點校, 中華書局, 1992.
- (북송)李昉, 《太平御覽》, 中華書局, 影印, 1960.
- (북송)王欽若等編, 《宋本冊府元龜》, 中華書局, 1989.
- (송)王楙, (명)陳繼儒訂正, 《陳眉公訂正野客叢書》12, 서울대 중앙도서관.
- (북송)王欽若, 《冊府元龜》, 文津閣四庫全書 300-304, 子部·類書類, 商務印書館, 2005.
- (남송)王柏, 《天地萬物造化論》, 을해자본, 고려대 도서관 화산문고.
- (남송)鄭樵, 《通志》, 台北: 新興書局, 1963; 《通志》, 浙江古籍出版社, 1988.
- (남송)祝穆, 《古今事文類聚》, 文津閣四庫全書 308, 子部·類書類, 商務印書館, 2005.
- (남송)祝穆輯, (원)富大用補輯, 《新編古今事文類聚》, 大字癸丑字·中小字甲辰字, 零本1冊 (全221卷 目錄), 고려대 도서관; 前集60卷 後集50卷 續集28卷 別集32卷 新集36卷 外集15卷, 元泰定三年(一三二六)廬陵武溪書院刊本, 域外漢籍珍本文庫 第5輯 7-10, 西南師範大學出版社; 北京: 人民出版社, 2015.
- (원)馬端臨, 《文獻通考》, 景印文淵閣四庫全書,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3.
- (원)陶宗儀, 《說郛》, 文津閣四庫全書 292, 子部·雜家類, 商務印書館, 2005.
- (원명)陶宗儀 等編, 《說郛三種》, 上海古籍出版社, 1988.
- (명)王圻, 《續文獻通考》, 續修四庫全書 761-767, 史部 政書類, 上海古籍出版社, 1995.
- (명)吳永, 《續百川學海》, 影印 1-5, 台北: 新興書局, 1961.
- (명)彭大翼, 《山堂肆考》, 文津閣四庫全書 323-5, 子部·類書類, 商務印書館, 2005.
- (명)陶珽, 《說郛續》, 續修四庫全書 1189-1192, 子部 雜家類, 上海古籍出版社, 1995.
- (명)章潢, 《圖書編》, 文津閣四庫全書 321-323, 子部·類書類, 商務印書館, 2005.
- (명)俞安期彙纂·徐顯卿校, 《唐類函》, 萬曆46年戊午(1618)序刊, 日本國立國會圖書館, 하버드대학교 도서관 소장.
- (명)陳繼儒, 《尙白齋鐫陳眉公訂正祕笈》(《寶顏堂祕笈》), 臺北國家圖書館所藏; 陳繼儒編, 《亦政堂鐫陳眉公家藏彙祕笈》(《寶顏堂彙祕笈》), 42種, 明萬曆間沈氏亦政堂刻本, 國家圖書館·中國科學院圖書館·故宮博物院圖書館·復旦大學圖書館·祁縣圖書館·上虞市圖書館 等等; 陳繼儒, 《寶顏堂祕笈》, 百部叢書集成, 臺北: 藝文印書館, 1965.
- (명)馮可賓 편, 《廣百川學海》1-6, 新興書局, 1961.
- (명)馮琦·馮瑗編, 《經濟類編》, 文津閣四庫全書 318-320, 商務印書館, 2005.
- (명)屠隆, 《鴻苞集》, 48권 16책, 1610年序, 서울대학교 규장각; 하버드대학 漢和圖書館.
- (명)袁黃, 《袁了凡先生兩行齋集》(《兩行齋集》), 8冊, 明天啓4年刊, 日本國立公文書館 內

閣文庫.

(명)趙貞吉 著, 李贄 選評, 《李卓吾先生批選趙文肅公文集》(《趙文肅公集》), 4卷, 하버드대학.

(명)楊慎, 《升庵集》, 文津閣四庫全書 424, 集部·別集類, 商務印書館, 2005; 《升菴先生文集》, 藏書閣, 80卷 20冊. 印: 六寓堂, 李夏鎮印, 李王家圖書之章.

(명)王世貞, 《弇州續稿》, 文津閣四庫全書 429, 集部·別集類, 商務印書館, 2005.

(명)王世貞, 《弇州四部稿》, 影印本, 四庫明人文集叢刊 全7冊(弇州四部稿外6種), 上海古籍出版社, 1993; 《弇州山人四部稿》 目錄12卷, 賦詩文說部174卷 合186卷 43冊(全), 萬曆 5年(1578), 世經堂刊本, 고려대학교 晚松文庫 소장.

(명)王世貞, 《弇山堂別集》, 中華書局, 1985年.

(명)李賢等總裁, 萬安等纂修, 《大明一統志》, 零本57冊, 中宗·明宗間乙亥字本, 고려대학교 도서관; 《大明一統志》 90卷 首1卷, 香港中文大學圖書館, (<https://repository.lib.cuhk.edu.hk>)

(명)黃淮·楊士奇等奉勅編, 《歷代名臣奏議》, 1635(인조 13) 三鑄甲寅字版 321권 80책,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장서각 소장.

(명)陳子龍·宋徵璧·徐孚遠·李雯選輯, 吳培昌參閱, 《皇明經世文編》, 續修四庫全書 1655-1656, 上海古籍出版社, 1995.

(명)陳建著, 孫鑛原訂, 馬晉允增定, (조선)肅宗命撰, 《皇明通紀輯要》, 丁酉字 零本1冊 (全24卷24冊) 고려대학교 도서관; (조선)英祖命撰, 《皇明通紀輯要》, 戊申字, 零本14冊(全24卷15冊) 고려대학교 도서관; 《皇明通紀輯要》 1-2, 域外漢籍珍本文庫編纂出版委員會, 《域外漢籍珍本文庫》 第4輯 6-7 史部, 重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北京: 人民出版社, 2013.

(명)沈津, 《百家類纂》, 40卷 38冊, 1692년(숙종 18) 閔昌道主管 경상도 간행 목판본

(명)翰林院編修, 陳仁錫纂評, 《八編經世類纂》(《經世八編類纂》), 285卷 附六經圖1卷 地類圖2卷(楊甲撰 毛邦翰補); 大學衍義補; 史纂左編; 史纂右編; 史纂稗編; 周書編; 函史編; 實用編; 經濟類編, 明天啓年間家刻木版本, 하버드대학.

(명)唐順之編輯, 《歷代史纂左編》, 王革·王左 校訂, 胡宗憲校刊 1561年(嘉靖 40) 浙江本 142卷; 吳用先·陳邦瞻·蕭近高仝校 1561年 木板 142卷, 장서각; 《歷代史纂左編》. 零本 1冊. 印: 六寓堂, 李夏鎮印, 夏卿, 규장각 소장.

(명)潘光祖(司馬光通鑑·朱熹綱目·潘光祖編輯), 《鼎鉞潘義繩先生纂輯綱鑑金丹》(《綱鑑金丹》), 崇禎4(1631)刊行. 목판본 零本 21책,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명말선교사)熊三拔口授, 徐光啓編譯, 《泰西水法》, 中國史學叢書 3, 서울: 한국학자료원, 1984.

(명말선교사)艾儒略, (청)錢熙祚校, 《職方外紀》, 台北: 藝文印書館, 1968; 애유락(줄리

오 알레니) 지음, 천기철 역, 《직방외기 : 17세기 예수회 신부들이 그려낸 세계》, 일조각, 2005.

(명말선교사)利瑪竇, 主教趙方濟准, 江蘇主教姚准, 《天主實義》, 4版, 鉛活字, 上海: 土山灣印書館, 1923 ; (일본)後藤基巳譯, 《天主實義》, 中國古典新書 52, 明德出版社, 1971.

아담 샬(湯若望) 편저, 전용훈 · 한형조 · 곽문석 · 김보름 · 최정연 역주, 《주제군징 主制群徵 : 만물로써 신의 섭리를 증명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2.7.

(청)阿桂 · 劉謹之等修纂, 《盛京通志》, 東北史志 第1部 1-5, 北京: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 2004 ; 文津閣四庫全書 171, 史部 · 地理類, 商務印書館, 2005.

(청)潘永因, 《宋稗類鈔》, 文津閣四庫全書 344, 商務印書館, 2005.

(청)陳元龍, 《格致鏡原》, 文津閣四庫全書 343 子部 · 類書類, 商務印書館, 200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s://riks.korea.ac.kr/kostma/>)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http://portal.nrich.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청명문화재단 태동고전연구소 (www.chungmyung.org)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百度 <https://www.baidu.com/>

日本國立國會圖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https://dl.ndl.go.jp/pid/2609902>)

日本早稻田大學圖書館 (<https://www.wul.waseda.ac.jp/kotenseki>)

강민구, <《성호사설》의 《芝峯類說》, 《松南雜識》의 《지봉유설》·《星湖僊說》 인용 양상에 대한 연구>, 《한문학보》 24, 한문학회, 2011.

강민구, <類書を 통해 본 조선 士人の 醫學에 대한 인식-《星湖僊說》에 나타난 李瀾의 醫學認識->, 《동방한문학》 58, 동방한문학회, 2014.3, 189-223면.

강민구, <《성호사설》의 문헌 인용 양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 《동방한문학》 67, 동방한문학회, 2016, 323-374면.

강민구, 《조선 3대 유서의 형성과 특징》, 보고사, 2016.

강민구, <《지봉유설》에 적용된 지식의 경량화 기법 (1) -인용 문헌의 단순화->.

- 《동방한문학》 94, 동방한문학회, 2023.3, 67-108.
- 강민정, 〈《九章術解》의 연구와 역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번역학전공 박사논문, 2016.
- 구만옥, 《조선후기 성호학파의 자연학》, 해안, 2023.
- 김동진, 〈《주역》〈잡괘전〉의 착간 논쟁 연구 : 내지덕(來知德)과 이광지(李光地)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102, 동양철학연구회, 2020.05. 33-64면.
- 김병애, 〈〈折中義例〉에 보이는 신후담 역학요소의 개념 분석과 성호문인의 《周易折中》 논변〉, 《동양철학연구》 99, 동양철학연구회, 2019.01, 33-60면.
- 김보름, 〈《주제군징》의 전래와 수용 : 인체론에 대한 한·중·일의 이해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5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0, 371-400면.
- 김선희, 〈조선 후기 유서(類書)와 서학(西學) : 《성호사설》과 《오주연문장전산고》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 45-91면.
- 김인철, 〈성호 이익의 패변론 : 그 내원과 후학의 변용을 곁하여〉, 《태동고전연구》 48,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2.6, 211-267면.
- 김형호, 〈《성호사설》과 명·청대 인용 문헌과 그 의미〉, 《한문학보》 41, 우리한문학회, 2019.12, 203-209면.
- 김형호, 〈《성호사설》의 인용 문헌과 활용 양상〉, 《성호학보》 23, 성호학회, 2021.12, 30-92면.
- 동국역사문화연구소 편, 《조선시대 서학 관련 자료 집성 및 번역·해제》 I-VI, 경인문화사, 2020.
- 박혜민, 〈조선 내 《설부(說郛)》의 수용과 인용 소고〉, 《열상고전연구》 42, 열성고전학회, 2014.12.
- 부유섭, 〈성호 이익의 보록류 도서의 지식 원천과 성격〉, 《민족문화연구》 6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8.
- 손계영, 〈《성호사설》의 형성 배경과 인용서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6.12, 411-441면.
- 신의연, 〈양정균 《代疑續編》 속 용어로 보는 중국 초기 기독교 유교적 변용의 일면〉, 《중국학논총》 57, 한국중국문화학회, 2018, 187-207면.
- 심경호, 〈성호의 사설과 지식 구축 방식(1)〉, 《민족문화》 49, 한국고전번역원, 2017.6, 137-186면.
- 심경호, 〈성호의 사설과 지식 구축 방식(2)〉, 《민족문화》 50, 한국고전번역원, 2017.12, 243-297면.
- 심경호, 〈조선시대 지식정보 휘집 편찬물의 연구를 위한 초보적 탐색〉, 《한국사상

- 사학》59, 한국사상사학회, 2018.8, 101-131면.
- 심경호, <《성호사설》의 屠隆《鴻苞集》 인증에 대하여>, 《한문학논집》 62, 근역한문학회, 2022.6, 145-168면.
- 심경호, <명나라 찬획 원황(袁黃)의 임진전쟁 당시 공문, 그리고 조선 관료와의 학술 쟁변에 대하여>, 《동아한학연구》 16,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22.3.31.
- 심경호, <《성호사설》의 ‘字書’ 인용에 대하여>, 《민족문화》 61, 한국고전번역원, 2022.7, 41-88면.
- 여인석, <《주제군징(主制群徵)》에 나타난 서양의학 이론과 중국과 조선에서의 수용양상>, 《의사학》 21-2(통권 41), 대한의사학회, 2012.8, 251-277면.
- 이종묵·김형술·당윤희·박민수·백승호·장유승·한종진, 《조선에 전해진 중국 문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임병권, <명말 강남 백유사 문인 屠隆의 문예활동>, 《중국인문과학》 42, 중국인문학회, 2009.8.
- 정우봉, <조선후기 지식인의 陳繼儒 수용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57, 한국한문학회, 2015.
- 정호섭, <고구려 안시성의 위치와 안시성주 전승의 추이>, 《고구려발해연구》 67, 고구려발해학회, 2020.7, 29-62면.
- 최석기·정만조·이현창·구만옥 저, 재단법인 실시학회 편, 《성호 이익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사람의 무늬, 2012.
- 최정연, <성호의 우주론에 미친 서학의 영향 : 서양 12중천설의 접촉을 중심으로>, 《교회사학》 12권, 수원교회사연구소, 2015.
- 한만성, <《성호사설유선(星湖僊說類選)》의 판본 문제와 정보 선별 및 지식 분류>, 《대동문화연구》 10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 169-195면.
- 方豪, 《中國天主教史人物傳》中冊; 龚缨晏, <明清之际的浙东学人与西学>, 《浙江大学学报:人文社科版》, 《明清史复印》2006.08期.
- 古屋昭弘, <《正字通》版本及作者考>, 《中國語文》1995年 第4期, 北京商務印書館, 1995.7.
- 馬淵昌也, <宋明期儒學における静坐の役割及び三教合一思想の興起について>, 《言語・文化・社会》10, 学習院大学外國語教育研究センター, 2012.3, 87-118.
- 나탈리 제이먼 데이비스(Natalie Zemon Davis), 《마르탱 게르의 귀향(The Return Of Martin Guerre)》(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 지식의 풍경, 2000.

二程의 志向과 理學

崔 錫 起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부원장,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 I. 머리말
- II. 二程의 生涯와 志向
 - 1. 程顥의 생애와 지향
 - 2. 程頤의 생애와 지향
 - 3. 二程의 저술과 특이점
- III. 二程의 理學과 經學
 - 1. 理學이란 무엇인가
 - 2. 理學의 요지
 - 3. 經學의 요지
- IV. 조선 전기 《近思錄》을 통한 二程 학습
- V. 조선 정신사에 끼친 二程의 영향

I. 머리말

나는 오래전부터 “중국학자들은 宋代 학술을 ‘理學’이라 하는데, 우리는 왜 ‘性理學’이라 칭할까?”라는 의문을 품었는데, 《이정전서》를 번역하면서 그 이유를 어렵פות이 알게 되었다. 전통적인 三才(天, 地, 人)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의 이치는 天理이고, 땅의 이치는 地理이고, 인간의 이치는 人理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人理’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일까?

人理에는 道理·義理·事理·物理·心理·性理·情理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가 흔히 쓰는 性理學은 이 人理 중에서도 心理·性理·情理를 위주로 말한 것이다. 그러나 理學은 이뿐만이 아니라 事理·物理 등을 모두 포함하며, 나아가 天理·地理까지 포괄한다. 요컨대 性理學은 인간의 心·性·情에 국한하는 반면, 理學은 天·地·人을 하나의 사유체계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게다가 理學은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므로 巫俗的·迷信的 思惟로부터 合理的 思惟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보편적·합리적 이치를 밝혀 세상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사상사적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二程의 爲學과 思想에 대해 일관된 논지로 전개하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二程이 보편적 理를 추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二程이 이룩한 理學과 經學의 특징을 간추려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조선 시대 학자들이 《近思錄》을 통해 二程의 사상을 학습한 점과 조선의 정신사에 끼친 二程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二程의 生涯와 志向

1. 程顥의 생애와 지향

程顥(1032~1085)의 字는 伯淳, 호는 明道이다. 宋 仁宗 明道 1년 임신년(1032) 부친 程珦의 입소인 黃州 黃陂縣(현 湖北省) 관아에서 출생하였다.

程珦이 知虔州興國縣事로 재직할 때 南安軍司理參軍으로 있던 周敦頤(1017~1073)를 만나 二程을 그의 문하에 나아가 배우게 하였는데, 주돈이는 二程에게 ‘孔子와 顏回가 즐거워한 점의 즐거워한 바가 무엇인가’를 찾게 하였다.¹⁾ 이를 계기로 二程은 求道的 志向을 하였다.

정호는 1057년(仁宗 嘉祐 2) 26세 때 進士試에 합격하여 京兆府 鄠縣(현 陝西省 西安市 鄠邑區) 主簿에 제수되었다. 그는 1060년 인근에 있는 紫閣山·終南山 등지를 유람하며 〈遊鄠縣山詩十二首〉를 지었다. 그 중 〈下山偶成〉에서 “不是吾儒本經濟 等閑爭肯出山來”라고 한 것을 보면, 經世濟民의 본분을 잊지 않고자 하는 士意識이 드러나 있다. 정호는 정호의 호현주부 시절 治績으로 1)叔姪 사이의 금전 소송을 지혜롭게 해결한 것, 2)‘石佛’머리에서 빛을 발한다’는 유언비어를 잠재운 것, 3)役事로 설사병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鄠縣만은 사망자가 없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는 理에 따라 일을 처리한 경제적 수완을 말한 것이다.

그 후 정호는 江寧府 上元縣(현 江蘇省 南京市) 主簿에 보임되었다. 정호는 정호가 상원현에서 이룬 치적으로 1)田稅를 정해 균등하게 한 점, 2)무너진 제방을 수리하여 백성을 구제한 점, 3)용이 허공을 날아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잡아다 포를 떠 사람들이 미혹하지 않게 한 점 등을 들었다. 이 역시 정호의 경제적 면모와 미신을 믿지 않고 理를 따르게 한 교화를 드러낸 것이다.

정호는 1069년(神宗 熙寧 2) 呂公著의 천거로 太子中允 權監察御史裏行에 제수되었다. 神宗 때 王安石이 신임을 받았는데, 정호는 대부분 그와 의견이 맞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論十事劄子〉에 드러나 있다. 1070년 정호는 왕안석의 新法에 반대하는 〈諫新法疏〉를 올렸다가 왕안석의 배척으로 權發遣京西路提點刑獄에 차임되었다.

1) 《二程全書》 권2, 《遺書-二先生語第二上》. “昔受學於周茂叔 每令尋顏子仲尼樂處 所樂何事”

1076년 왕안석이 좌천되고 1077년 呂公著·司馬光이 기용되었는데, 이들의 천거에 의해 정호는 太常丞으로 옮겼다. 1078년 정호는 知扶溝縣事로 차임되었다. 정호는 부구현을 다스릴 적에 교화를 우선으로 하여 악행을 자행하는 불량한 자들을 없앴으며 백성의 생업을 안정시켰다. 1085년 神宗이 별세하고 哲宗이 즉위한 뒤 구법당이 집권하였다. 정호는 이해 宗正寺丞에 제수되었는데,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고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文彥博이 지은 묘비에 ‘明道先生’이라 칭하여 후에 ‘程明道’로 일컬어졌으며, 세속에서는 ‘大程’이라 불렸다. 寧宗 嘉定 13년 경진년(1220) ‘純公’이란 시호가 내려졌고, 理宗 淳祐 1년 신축년(1241) 河南伯에 봉해지고 文廟에 從祀되었다. 元 文宗 至順 2년 신미년(1331) 豫國公에 봉해졌다.

정호는 용모가 맑고 깨끗하며, 목소리가 마치 거문고를 타는 듯 또렷했으며, 말에는 생기가 넘쳐 발랄하였다. 또한 글은 간략하였고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힘이 있었다. 또한 하루 종일 塑像처럼 단정히 앉아 있었다고 한다.²⁾

정이는 〈명도선생행장〉에서 정호의 인품에 대해 “선생은 資品이 이미 남달랐는데도 덕을 확충하여 기르는 데 방도가 있었다. 순수함은 정제한 금과 같고 온화함은 좋은 옥과 같으며, 너그로우면서도 절제함이 있고 화합하면서도 휩쓸리지 않으며, 忠誠은 金石을 관통하고 孝悌는 神明에 통하였다. 그 안색을 보면 남들과 접할 적에 봄별의 따사함과 같고, 그 말소리를 들으면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적에 제때 내리는 비가 적셔주는 것과 같았다. 가슴속의 회포가 환히 트여 꿇뚫어 봄에 빈틈이 없었으나, 그 온축된 것을 헤아려 보면 끝이 없는 푸른 바다처럼 넓고, 그 덕을 지극히 표현해 보면 아름다운 말로도 충분히 형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³⁾

주희는 明道先生畫像贊에서 “陽氣처럼 따사롭고 산처럼 우뚝하였으며, 玉 같은 안색에 종소리 같은 목소리였네. [揚休山立 玉色金聲]”라고 정호의 덕을 묘사하였다.⁴⁾

정호는 15~16세경 구도적 지향을 하게 되었으며, 六經의 本旨를 탐구하여 터득하는 한편 道德과 性命의 관계를 탐구하여 이치를 궁구하고 본성을 극진히 하는 학문을 하였다. 그리하여 人欲을 제거하고 天理에 순응하는 天人合一을 추구하였다. 《外書》에 “二程의 학문은 聖人の 경지를 반드시 배워 이를 수 있는 경지라고 여겨 자신이 기필코 배워 聖人の 경지에 이르고자 하였다.”고 하였으니⁵⁾, 성인이 되는 공부를 지향한 것을 알 수 있다.

정호는 20대 후반 鄆縣 主簿로 있을 적에 아래와 같은 〈偶成〉⁶⁾을 지었는데, 그의

2) 張德麟 지음, 박상리·이경남·정성희 옮김, 《정명도의 철학》, 예문서원, 2004, 27쪽 참조.

3)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3》, 전통문화연구회, 2020, 294~295쪽 참조.

4) 朱熹, 《朱子全書》(上海古籍出版社, 2002) 제24책, 《晦庵集》 권85, 〈六先生畫像贊〉.

5)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4》, 전통문화연구회, 2021, 246쪽 참조.

정신 지향이 잘 드러나 있다. 熊剛大가 주석한 《性理群書句解》에는 이 시의 제목 밑에 “이 시는 사물을 빌어 양기가 상승하고 음기가 소멸하여 生意가 한창 솟아나는 것을 형용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⁷⁾, 정호는 젊어서부터 天理를 탐구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楊時의 문인 張九成(1092~1159)은 “明道先生의 서재 창박에 무성한 풀이 섬돌을 뒤덮었다. 혹자가 그 풀을 베라고 권하자, 명도선생이 ‘안 됩니다. 나는 조물주의 生意를 늘 보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뜰에 화분을 비치하고서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기르며 수시로 그 물고기를 관찰하였다. 혹자가 그 이유를 묻자, ‘만물의 자득한 意思를 보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으니⁸⁾, 정호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만물이 化生하는 生意를 感知하여 天理를 체득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范祖禹는 “선생의 학문은 誠意·正心에 근본을 두어 ‘聖賢의 학문은 반드시 이를 수 있다’고 여겨 힘써 행하는 데에 용감하였고, 공허한 글을 짓지 않았다.”⁹⁾라고 하였으며, 문인 朱光庭은 “대개 誠은 天德이다. 聖人은 誠을 말미암아 善을 밝히니, 고요할 적에는 연못처럼 잔잔하고 움직일 적에는 귀신처럼 신속하다. -중략- 선생은 聖人の 誠을 얻은 분이다. 처음 배울 때부터 德을 이룰 때까지 비록 타고난 자질이 빼어나게 밝고 동년배보다 훨씬 뛰어났지만, 탁월하고 요약된 식견은 한결같이 誠에 근본을 하였다.”¹⁰⁾라고 하였으니, 정호는 학문을 통해 誠의 경지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誠은 眞實無妄의 聖人の 경지이다.

정호의 爲學에 대해, 程頤는 〈명도선생행장〉에서 “여러 사물에 밝고 人倫을 살피서, 性을 극진히 하여 天命에 이르는 것은 반드시 孝悌에 근본하고, 神明을 궁구하여 造化를 아는 것은 禮樂에 통해야 함을 알았다.”¹¹⁾라고 하고, 또 “선생은 남을 가르칠 적에 致知로부터 知止에 이르며, 誠意로부터 平天下에 이르며, 물 뿌리고 비질하고 응대하고 대답하는 것으로부터 이치를 궁구하고 性을 극진히 하는 것에 이르러 차근 차근 순서가 있었다.”¹²⁾고 하여, 窮理盡性하는 학문을 모두 禮樂·孝悌의 下學에 근본 하였음을 말하였다.

이처럼 정호의 학문은 《大學》·《中庸》을 통해 성인의 경지인 誠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런 그의 사상이 주희에게 전해져 마침내 四書を 새롭게 해석하여 사

6) “雲淡風輕近午天 訪花隨柳過前川 旁人不識予心樂 將謂偷閒學少年”

7) 熊節 編,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 권3, 〈偶成〉. “此篇 借物形容陽勝陰消 生意春融”

8) 《宋元學案》 권14, 〈明道學案下〉. “張橫浦曰 明道書窓前 有茂草覆砌 或勸之芟 曰不可 欲常見造物生意 又置盆池 畜小魚數尾 時時觀之 或問其故 曰欲觀萬物自得意”

9)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3》, 전통문화연구회, 2020, 314쪽 참조.

10) 上同, 308~309쪽 참조.

11) 上同, 295쪽 참조.

12) 上同, 296쪽 참조.

서를 중심으로 하는 新儒學이 정립된 것이다.

정호의 학문성취에 대해, 劉立之는 “孟子가 세상을 떠난 뒤로 聖學이 전함을 잃어 배우는 자들이 망령된 일에 천착하여 德에 들어가는 법을 알지 못하였다. 선생이 우뚝하게 1천 년 뒤에 자립하여, 더러운 습속을 제거하고 本原을 열어 보여 聖人の 뜰과 집안으로 밝게 들어갈 수 있었으니, 學士와 大夫가 비로소 지향할 곳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였으며¹³⁾, 朱光庭은 “선생은 성인의 誠을 얻은 분이다.”라고 하였으며¹⁴⁾, 范祖禹는 “맹자가 세상을 떠난 뒤로 中庸의 학문이 전해지지 않아 후세의 士人들은 그 근본을 따르지 않고 그 말단에 마음을 썼다. 그러므로 堯·舜의 道에 들어갈 수 없었다. 선생은 빼어난 지혜로 증용의 도를 자득하여 聖人이 떠난 지 1천여 년 뒤에 그 關鍵을 발명하고 심오한 경지를 곧바로 묵도하여 天地의 이치에 전일하고 事物의 변화에 극진히 하였다.”¹⁵⁾라고 하였으며, 朱光庭은 “孟軻 이래 1천여 년 만에 先王의 大道가 선생을 얻은 뒤 전해졌으니, 선생이 天地의 功을 도운 것이 성대하다 할 만하다.”¹⁶⁾라고 하였으며, 朱熹는 ‘程先生 형제분이 세상에 태어나 1천 년 동안 전해지지 않던 道統을 이으셨다’고 하였다.¹⁷⁾

정호는 〈明道先生墓表〉에 “周公이 세상을 떠나자 聖人の 道가 행해지지 않았고, 孟子가 세상을 떠나자 성인의 학문이 전해지지 않았다. 도가 행해지지 않아 백세 동안 선한 정치가 없었고, 학문이 전해지지 않아 천 년 동안 참된 儒者가 없었다. 선한 정치가 없으면 士人이 오히려 선한 정치의 道를 밝혀서 사람들을 착하게 하고 후세에 전할 수 있거니와, 참된 유자가 없으면 천하가 캄캄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해 人欲이 기승을 부리고 天理가 없어진다. 선생이 1천 4백 년 뒤에 태어나 성인이 남긴 經에서 전해지지 않은 학문을 터득하여 장차 이 道로써 이 백성을 깨우치는 데 뜻을 두었다. 하늘이 이 사람을 남겨두려 하지 않아 哲人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 고을 사람들과 사대부들이 서로 의론하기를 ‘道가 밝혀지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 선생이 나와서 聖學을 드러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異端을 변별하고 邪說을 물리쳐서 오랫동안 침체해 혼미했던 길을 열어 주었다. 성인의 도가 선생을 얻어 다시 밝아졌으니, 功을 세운 것이 위대하다.’고 하였다.”¹⁸⁾라고 썼으니, 성인의 도를 밝힌 明道의 功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정호는 도학자로서 1천 년 동안 끊어진 道統을 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경륜하고 백성을 구제할 經世濟民의 이상을 가지고 가진 經世家이기도 하였다. 劉立之는

13)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3》, 전통문화연구회, 2020, 303~304쪽 참조.

14) 上同, 309쪽 참조.

15) 上同, 315쪽 참조.

16) 上同, 310쪽 참조.

17) 朱熹, 《中庸章句》, 〈中庸章句序〉. “程夫子兄弟者出 得有所考 以續夫千載不傳之緒”

18)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3》, 전통문화연구회, 2020, 326쪽 참조.

이 점에 대해 “선생은 經世濟民할 큰 기량을 가지고 있었으며, 만물의 이치를 밝혀 천하의 일을 성취할 재주가 있었다.”라고 하였다.¹⁹⁾ 정호는 政事를 행하는 데 통달하였는데, 백성을 仁愛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았다. 그러므로 부임하는 곳마다 백성들이 부모처럼 떠받들었다. 백성들에게 임하는 수령의 자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각자 그들의 실정을 다 말하게 하는 것이었고, 御史가 되어서는 자신을 바르게 하여 남을 바로잡아주려 하였다.²⁰⁾

정호의 이런 도학적 지향은 경전의 문구를 기억하고 암송하며 박식하기만을 추구하는 것을 모두 玩物喪志라고 생각하였다²¹⁾ 정호는 문인 謝良佐가 경서의 문구를 뽑아 한 책을 만들었는데, 정호는 그것을 보고서 玩物喪志라 하였다고 하니, 自得이 없는 학문은 記誦之學으로 여긴 것을 알 수 있다.

2. 程頤의 생애와 지향

程頤의 字는 正叔, 호는 伊川이다. 宋 仁宗 明道 2년 계유년(1033)에 부친 程珦의 임소인 黃州 黃陂縣(현 湖北省) 관아에서 출생하였다.

정이는 유년 시절부터 식견이 높아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14~15세경 부친의 명으로 周敦頤에게 나아가 배웠다. 18세 때인 1050년 宋 仁宗에게 上書하여 ‘王道에 마음을 두고 백성을 생각하며 세속의 의론을 물리치고 비상한 공을 기약해야 한다’고 진언하였으며, 배운 바를 면전에서 아뢰기를 청하였다. 이런 점을 보면 정이는 젊어서 경제적 포부가 남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정이는 24세 때 부친 程珦이 國子博士가 되어 수도로 이주하자, 國子監에 입학해 독서하였다. 당시 太學을 관장하던 胡瑗이 ‘顔子所好何學論’이라는 제목으로 諸生에게 시험을 보였는데, 程頤가 쓴 답지를 보고 놀라 만나보고서 학식이 있다고 칭찬하였다.

정이는 1059년(宋 仁宗 嘉祐 4년) 舉進士(進士出身)를 하사받고 廷試에 응시하였는데 낙방하였다. 그러자 다시는 과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1064년 개봉에 거주할 때 呂公著가 태학을 관장하면서 박사들에게 명하여 정이를 太學正으로 모시라 하였는데, 정이는 〈謝呂晦叔待制書〉를 보내 사양하였다. 治平年間(1064~1067) 조정의 근신들이 여러 차례 정이를 천거하였으나, 학문이 부족하다고 사양하며 벼슬살이를 원치 않았다.

정이는 熙寧年間(1068~1077) 낙양에서 한가로이 지냈다. 당시 二程은 인근에 사는 邵雍을 방문하여 《周易》을 해설하면서 道를 논하였다. 1077년 張載가 소명을 받고

19) 上同, 306쪽 참조.

20) 上同, 305쪽 참조.

21)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1》, 전통문화연구회, 2018, 282쪽 참조.

入京하다가 낙양에 들러 二程을 만났다. 장재는 조정에서 정사를 논하다가 왕안석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였다. 그는 지나는 길에 낙양에 들러 二程과 학술을 토론하였는데, 정이가 그 내용을 기록하여 〈洛陽議論〉을 지었다. 1079년 張載의 문인 呂大忠·呂大臨·呂大鈞 삼형제가 낙양에 찾아와서 二程을 만나 학술을 토론하였다.

1080년 학자 6~7인과 關中の 雍州와 華山 사이를 유람하고 〈雍行錄〉을 지었다. 이때 張載를 만나 道學을 논하였으며, 關中の 학자들과 학문을 토론하였다. 1081년 韓維가 知潁州로 나가자, 이정이 함께 그곳을 유람하였다. 문인 李籲가 그 문답을 기록하였다.

1085년 神宗이 별세하고 哲宗이 즉위한 뒤 王安石의 新法에 반대하던 呂公著·司馬光·韓絳 등 구법당이 집권하였다. 이때 門下侍郎 司馬光, 尙書左丞 呂公著, 西京留守 韓絳 등이 정이를 천거하여 西京國子監 教授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1086년 朱光庭이 정이를 講官으로 삼을 것을 주청하여, 秘書省 校書郎에 제수하였다. 정이가 사양하자, 哲宗이 다시 불러 면대하였고, 태황태후 高氏가 면대하여 효유하고서 崇政殿 說書에 제수하였다.

정이는 1086년 윤2월부터 승정전 설서로서 侍講官의 일을 담당하였다. 4월 더위로 황제의 강학을 파하자, 〈乞六參日上殿筭子〉를 올렸다. 5월 韓維가 문하시랑이 되어 옛 제도를 회복하려 하자, 〈三學看詳文〉을 지어 올려 學制를 바로 세울 것을 건의하였다. 6월 태황태후에게 상서하여 ‘황제를 輔養하는 도리’에 대해 진언하였다. 8월 尙書省 判登聞鼓院의 직을 겸임하게 하자, ‘시강관이 겸직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아뢰었다.

1087년 봄 태황태후에게 상소하여 延和殿에서 강독할 것을 청하였다. 3월 ‘넓고 시원한 곳에 나아가 강독한 것’을 청하는 소장을 올렸다. 4월 태황태후에게 상서하여 ‘시강관이 앉아서 강독할 것’을 청하였다. 어느 날 강독을 마친 뒤에 황제가 난간에 기대어 버드나무 가지를 꺾는 것을 보고서, 정이가 나아가 “한창 봄기운이 피어나는데, 무단히 꺾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뢰었는데, 철종은 기뻐하지 않는 기색을 보였다.

정이는 천하의 일을 자임하여 조금도 회피하는 바가 없었다. 그러자 조정의 관리들은 정이를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고, 마침내 간의대부 孔文仲이 정이를 탄핵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087년 8월 승정전 설서에서 파직되고 管勾西京國子監에 차임되었다. 정이는 고향으로 돌아가길 청하는 소장을 두 차례 올리고 관직에서 물러날 결심을 하였다.

당시 정치권에는 洛黨·蜀黨·朔黨 등이 생겨 붕당정치가 시작되었는데, 정이의 문인 賈易·朱光庭 등이 蘇軾을 공격하자, 소식의 당여 胡宗愈·顧臨 등도 정이를

공격하였다.²²⁾ 정이는 탄핵당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길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아, 조정에 머물며 여러 차례 致仕를 청하였다. 그러다 1090년 부친상을 당하여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1092년 부친의 삼년상을 마친 뒤 左通直郎으로 直秘閣 및 判西京國子監에 제수되자, 사양하는 상소를 올렸다. 5월 다시 管勾西京嵩山崇福宮에 제수되자, 〈謝管勾崇福宮狀〉을 올려 사양하면서 儒者の 進退의 도를 극론하였다. 그때 감찰어사 董敦逸이 ‘정이의 상소문에 원망하는 말과 경박한 말이 있다’고 탄핵하였다.

1094년 哲宗이 神宗 때의 新法을 다시 추진하면서 程頤도 신법에 반대한 인물로 지목되어 奸黨에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 紹聖年間(1094~1097)에 出身 이후 문자를 추급해 없애고 田里로 추방하였다. 정이는 1097년 11월 涪州(현 四川省 涪陵市)의 編管에 소속되었다.²³⁾ 編管은 죄를 지은 관리를 먼 지방에 귀양보내 그 지방의 호적에 편입시키고 그 지방 관리가 감독하게 유배형을 말한다. 정이는 涪州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周易》해석에 전심하여 1099년 《易傳》(《周易程氏傳》)을 완성하였다.

1100년 哲宗이 별세하고 徽宗이 즉위한 뒤 정이는 峽州로 配所를 옮겼다. 이해 4월 宣德郎의 품계에 회복되었고,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는 사면을 받아 낙양으로 돌아왔다. 11월 通直郎 權判西京國子監의 관직에 회복되었다. 1101년 자신이 저술한 《易傳》을 꺼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1102년 徽宗이 희령 연간에 시행했던 新法을 다시 시행하여 정이를 元祐奸黨으로 지목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관작을 삭탈 당하자, 예전처럼 致仕하였다. 1103년 蔡京이 右相이 되어 전횡을 하면서 정이의 出身 이후 문자를 추급해 없애고 저술한 것을 監司로 살피게 하였다. 11월 范致虛가 “程某는 邪說詖行으로 衆聽을 惑亂하였는데, 尹焞과 張繹이 羽翼이 되었다.”라고 비방하며 탄핵하자²⁴⁾, 정이는 낙양 龍門山 남쪽으로 물러나 은거하며 찾아오는 학자들을 사절하였다. 당시 집권 세력은 1104년 6월에 元祐年間(1086~1093)과 元符年間(1098~1101)의 黨人 309인의 黨籍을 만들어 文德殿 동쪽 벽에 새겼다.

1107년 정월 蔡京이 다시 左相이 되었다. 정이는 《周易程氏傳》을 문인 張繹과 尹焞에게 전수하였다. 이해 9월 집에서 별세하였으니, 향년 75세였다. 정이가 별세했을 때, 사람들이 洛黨으로 지목될까 두려워 장례에 참석하기를 극도로 꺼렸다. 그리하여 장사를 지낼 적에 제문을 지은 사람도 張繹·范域·孟厚·尹焞 등 4인에 불과하였다.

1220년(宋 寧宗 嘉定 13년) ‘正公’이란 시호가 내려졌고, 1241년(宋 理宗 淳祐 元年) 伊

22) 石訓 等著, 《北宋哲學史 下卷》, 제17장 程顥程頤의哲學思想(上) 참조.

23) 張立文 主編, 《中國學術通史-宋元明卷》, 〈理學的開創和奠基〉 참조.

24) 朱熹, 《朱子全書》(上海古籍出版社, 2002) 제12책, 《伊洛淵源錄》 권4, 〈伊川先生-年譜〉.

陽伯에 봉해지고 文廟에 從祀되었다. 元 文宗 至順 2년 신미년(1331) 洛國公에 봉해졌다.

주희가 지은 伊川先生畫像贊에 “선생은 그림쇠처럼 둥글고 곱자처럼 방정하며, 먹줄처럼 곧고 수평기처럼 공평하였네. 진실하도다 군자여, 참으로 크게 이루었네.〔規圓矩方 繩直準平 允矣君子 展也大成〕”라고 칭송하였다.²⁵⁾

二程이 周敦頤에게 배울 때, 주돈이가 ‘孔子와 顏子가 즐거워한 점의 즐거워한 바가 무엇인가’를 찾게 하였는데²⁶⁾, 정이도 이런 가르침을 통해 구도적 지향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24세 때 太學에 들어가 공부할 때 〈顏子所好何學論〉을 지어 ‘胡瑗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는 일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이는 ‘성인의 경지는 배워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뒤, 그렇다고 스스로 확신하였다. 여기서 정이가 말한 ‘聖可學’은, 안희가 “舜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큰 뜻을 가진 사람은 또한 이와 같이 한다.”²⁷⁾라고 한 말에서 연유한 것으로, ‘누구나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는 여타 종교에서 인간이 신에게 복종하는 논리와는 전혀 다른, ‘인간은 자발적 노력에 의해 누구나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사대부 시대의 士意識으로 자리 잡았다.

정이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사람의 마음에는 性·情이 있는데 情이 치열하고 성대해져서 더욱 방탕해지면 그 性이 뚫리어 손상된다’는 점을 직시하고서, “이런 까닭에 이를 깨달은 자는 그 情을 단속해서 中道에 합하게 하여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性を 보존해 기른다. 그러므로 ‘그 情을 性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情을 절제할 줄 몰라서 그 情을 풀어놓아 간사하고 편벽됨에 이르러 그 性を 구속하여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그 性を 情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다.”²⁸⁾라고 하였다. 이는 안희가 克己復禮를 통해 三月不違仁의 경지에 이른 것을 학문의 요체로 삼은 것이다.

정이는 18세 때 仁宗에게 〈上仁宗皇帝書〉를 올려 王道를 권하였다. 정이는 이 글에서 ‘王道의 근본은 仁’이라고 하면서 천하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仁政을 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천하의 ‘治·不治는 賢者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또 천하에 현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자를 구할 방도를 알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⁹⁾ 정이는 이 글에서 자신이 배운 바는 ‘천하가 크게 中正하는 道’라고 밝혔는데, 이것이 그가 추구한 학문이다.

25) 朱熹, 《朱子全書》(上海古籍出版社, 2002) 제24책, 《晦庵集》 권85, 〈六先生畫像贊〉.

26) 《二程全書》 권2, 《遺書-二先生語第二上》. “昔受學於周茂叔 每令尋顏子仲尼樂處 所樂何事”

27) 《孟子》〈滕文公上〉 제1장.

28) 《二程全書》 권62, 〈顏子所好何學論〉. “情既熾而益蕩 其性鑿矣 是故覺者 約其情 使合於中 正其心 養其性 故曰性其情 愚者則不知制之 縱其情而至於邪僻 梏其性而亡之 故曰情其性”

29)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7》, 전통문화연구회, 2025, 165~179쪽 참조.

정이는 이런 구도적 지향을 하여 과거시험에 나아가지 않았고, 50세가 넘도록 벼슬길에 나가지도 않았다. 정이가 54세 때 崇政殿 說書에 제수되어 侍講官으로 있을 때 올린 〈論經筵筍子〉 3편과 〈上太皇太后書〉를 보면, 황제를 輔養하는 도리를 언급한 것에서 그의 聖學을 추구한 학문정신을 알 수 있다.

정이는 자신의 공부에 대해 “나는 40세 이전에는 讀誦을 했고, 50세 이전에는 그 意義를 연구했으며, 60세 이전에는 반복해서 그 의미를 연역했고, 60세 이후에 비로소 저술하였다. 저술은 부득이해서였다.”³⁰⁾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도리를 체득하여 자기화하는 공부’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程頤가 〈명도선생행장〉에서 ‘명도선생이 이치를 궁구하고 본성을 극진히 하는 공부를 할 적에 孝悌와 禮樂의 下學을 통해 上達을 추구하였다.’³¹⁾고 하였는데, 정이도 것처럼 下學上達의 방법을 추구하였다. 문인 飽若雨·劉安世·劉安節 등이 정이에게 찾아와 “〈맹자가〉 ‘堯·舜의 도는 孝悌일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요·순의 도가 무슨 연고로 孝悌에서 그칠 뿐이라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정이가 尹焞에게 찾아가 물어보라고 하였다. 이들이 윤돈에게 묻자, 윤돈이 “요·순의 도는 효제일 뿐이니, 효제는 요·순이 아니면 극진히 할 수 없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하며 저녁에 잠자리를 살피고 새벽에 문안을 드리는 일로부터 소리가 없는 데에서 듣고 형체가 없는 데에서 보는 것에 이르기까지 실천하고, 또 ‘아버지를 섬길 적에 효성스러웠기 때문에 하늘을 섬기는 데에 밝았고, 어머니를 섬길 적에 효성스러웠기 때문에 땅을 섬기는 데에 분명하여, 하늘이 밝아지고 땅이 분명해지면 神明이 나타난다’라는 것과 같이 하면, 곧장 神明에 통하고 四海를 밝히는 데 이를 것이니, 요·순 같은 큰 성인이 아니면 이를 극진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³²⁾ 이는 곧 하학상달의 공부법으로 윤돈이 맹자가 말한 ‘요·순의 도는 효제일 뿐이다’라는 말을 깨닫고서 말한 것이다.

정이는 사람됨이 엄중하여 남들이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였다고 한다. 정호가 온화하고 평화로운 데 비해, 정이는 엄격하고 장중하였다. 문인 游酢·楊時가 정이를 찾아갔는데, 정이가 앉아 눈을 감고 고요히 있자 두 사람은 감히 자리를 떠나지 못하였다. 한참 뒤 정이가 그들을 돌아보며 ‘두 사람은 아직도 여기에 있었는가? 날이 저물었으니 우선 숙사로 가게’라고 하여, 두 사람이 물러 나오니, 문밖에 눈이 한 자도 넘게 쌓였다고 한다.³³⁾

정이는 벼슬한 기간이 매우 짧았으며, 대부분 저술과 강학으로 보냈다. 그의 문하

30) 上同.

31)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3》, 전통문화연구회, 2020, 295쪽 참조.

32)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3》, 전통문화연구회, 2020, 277~278쪽 참조.

33) 上同, 351쪽 참조.

에서 배출된 제자가 80여 인이나 되었으며, 전국 40여 개 州縣에 널리 퍼져 있었다. 그 가운데 일부 문인들이 정이의 학문을 福建省·浙江省·江西省 등 남쪽 지방으로 전해 朱熹로 이어져서 理學을 집대성하게 되었다.

정이는 평생 자신에 대한 규율과 남을 대하는 태도를 매우 엄격하고 엄숙하게 하였다. 胡安國은 정이에게 封號를 내리고 祀典에 실어달라고 주청한 奏狀에서 “관직을 맡아 행하게 되어서는 거동하는 것이 반드시 禮를 말미암았고, 몸을 받들어 떠날 적에는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이 반드시 義에 합치되었습니다. 그가 몸을 닦고 법을 집행한 것은 법도가 여러 儒者들 중에서도 특출하여 門人高弟도 계승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정이가 문인 張繹에게 “내가 전에 명도 선생의 행장을 지었다. 나의 도는 대개 명도 선생과 같으니, 훗날 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글에서 찾으면 될 것이다.”³⁴⁾라고 하였으니, 二程의 학문은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큰 차원에서는 같다고 하겠다.

3. 二程의 저술과 특이점

周敦頤가 “道德에 힘쓸 줄 모르고 단지 文辭를 재능으로 여기는 자는 技藝를 일삼을 뿐이다.”³⁵⁾라고 하였듯이, 북송의 도학자들은 文辭보다 求道에 중점을 두었다. 二程도 이런 지향을 하여 “子弟 중에 재주가 있지만 경솔한 자를 근심한다면 經書를 배우고 글을 외우는 것을 가르칠 것이요, 글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³⁶⁾고 하였으며, 程頤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불행이 있으니, 어린 나이에 高科에 오르는 것이 첫 번째 불행이요, 부형의 권세를 빌려 좋은 벼슬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불행이요, 뛰어난 재주가 있어 문장에 능한 것이 세 번째 불행이다.”³⁷⁾라고 하여, 문장에 능한 것을 불행으로 보아 경계하였다.

이처럼 二程은 글 짓는 것을 자제하여 저술을 좋아하지 않았다. 정호는 〈大學〉개정설과 문집에 전하는 시문 약간 편을 지었을 뿐이며, 정이도 《周易程氏傳》과 《春秋傳》 및 문집에 전하는 시문 약간 편을 지었을 뿐이다. 지금 전하는 《二程全書》에 수록된 글 중에는 二程의 글보다 문인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훨씬 더 많다.

二程의 글은 문인들에 의해 편찬되기 시작하여 송대에 《遺書》·《外書》·《經說》·《文集》 등이 개별적으로 간행되었는데, 이 4종의 책을 ‘程氏四書’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易傳》(《周易程氏傳》)·《粹言》 등이 별책으로 간행되었다.

二程의 시문집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34) 上同. “我昔狀明道先生之行 我之道 蓋與明道同 異時欲知我者 求之於此文 可也”

35) 周敦頤, 《通書》〈文辭〉. “不知務道德 而第以文辭爲能者 藝焉而已

36)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1》, 전통문화연구회, 2018, 129쪽.

37)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4》, 전통문화연구회, 2021, 315쪽.

첫째, 二程은 시를 거의 짓지 않았다. 程顥는 시를 잘 해석했지만 겨우 39제 63수 밖에 짓지 않았으며, 程頤는 젊은 시절에 지은 시 3수밖에 없다. 즉 二程은 求道的 志向을 한 뒤로는 詩를 거의 짓지 않았다. 그것은 詩를 玩物喪志로 여겨 극도로 경계한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도를 구하고 밝히는 일 외에는 그 어떤 일도 엄격하게 단절한 것이다. 이는 그들의 학문을 ‘道學’으로 칭하게 하는 중요한 정신이며, 후대 동아시아 사상계에 큰 영향을 미친 주목할 만한 일이다.

둘째, 玩物喪志로 여겨지는 일을 모두 배척하고 오로지 求道的 志向에 집중했다. 玩物喪志는 《尙書》〈旅獒〉에 “사람을 노리갯감으로 여기면 덕을 잃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지향을 잃는다.”³⁸⁾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이 완물상지의 의미를 체득하여 학문정신으로 강조한 사람이 바로 二程이다. 《이정전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자제들의 온갖 취미는 모두 지향을 빼앗는다. 글씨와 편지는 儒者의 일에 가장 가깝지만, 한결같이 그것만을 좋아하면 또한 스스로 지향을 잃게 된다. 王羲之·虞世南·顏眞卿·柳公權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장점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중에 도를 아는 이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평생의 정력을 한결같이 글씨를 쓰는 데 사용하였으니, 오직 시일을 헛되이 버렸을 뿐만 아니라, 도를 추구하는 데에도 해로운 점이 있었다. 그러니 글씨를 쓰다가 지향을 잃어버린 것을 잘 알 수 있다.³⁹⁾

王羲之는 東晉의 서예가로 行書·草書を 완성하여 書聖으로 추앙받은 인물이며, 虞世南은 수·당 때의 서예가로 왕희지의 서법을 터득하여 명성을 얻은 인물이며, 顏眞卿은 당나라 때 서예가로 안진경체를 만들었고, 柳公權도 당나라 때 이름난 서예가이다. 이 인용문은 서예가가 글씨를 쓰는 데 심취하여 道를 구하지 못하는 점을 말한 것인데, 書藝·書札 등 유자의 온갖 취향도 모두 포함한 말이다. 요컨대 이정은 도를 구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잡다한 취미나 기호에 끌려 지향을 잃게 되면 세월만 허비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정은 書藝·書札은 물론 記憶·暗誦·博學을 모두 玩物喪志로 여겼다.⁴⁰⁾ 심지어 程顥는 경전의 문구를 채록하여 책으로 만든 것도 玩物喪志로 경계하였으며⁴¹⁾, 程頤는 製述도 도를 해치는 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8) 《書經》, 〈旅獒〉. “玩人喪德, 玩物喪志.”

39) 《二程全書》 권1, 《遺書》, 〈二先生語一〉. “子弟凡百玩好, 皆奪志. 至於書札, 於儒者事, 最近, 然一向好著, 亦自喪志. 如王虞顏柳輩, 誠爲好人則有之, 曾見有善書者知道否. 平生精力, 一用於此, 非惟徒廢時日. 於道, 便有妨處, 足知喪志也.”

40) 《二程全書》 권4, 《遺書》, 〈二先生語三〉. “以記誦博識 爲玩物喪志”

41) 《二程全書》 권39, 《外書》, 제12. “昔錄五經語 作一冊 伯淳見謂曰玩物喪志”

혹자가 문기를 “글 짓는 것은 도를 해칩니까?”라고 하니, 선생[程頤]이 말하기를 “도를 해친다. 무릇 글을 짓는 것은 생각을 전일하게 하지 않으면 공교롭지 않다. 생각을 전일하게 하면 지향이 여기에 국한되니, 또한 어찌 천지와 더불어 그 광대함을 함께하겠는가? 《상서》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지향을 잃는다’고 하였으니, 글을 짓는 것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呂與叔(呂大臨)이 지은 시에 ‘학문이 元凱(杜預)와 같으면 바야흐로 癖을 이루고, 문장이 司馬相如와 같으면 비로소 배우와 같아지네. 홀로 공자 문하에 서서 한 가지 일도 없으니, 다만 안회를 본받아 心齋를 얻으려 하네’라고 하였는데, 이 시가 매우 좋다. 옛날의 배우는 자들은 오직 성정을 기르는 데 힘쓰고 그 나머지는 배우지 않았다. 지금 글 짓는 자들은 오로지 장구에 힘써 남의 이목을 기쁘게 한다. 이미 남을 기쁘게 하는 데 힘쓰면 배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하였다.⁴²⁾

‘心齋’는 《莊子》〈人間世〉에 보이는 공자의 말로, ‘잡념을 제거하여 심경을 虛靜하고 純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인용문을 보면 오로지 존양·성찰을 통해 性情을 함양하는 것을 구도적 일로 보고, 그 외는 일체 玩物喪志로 여긴 것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학문은 모두 玩物喪志로 여긴 것이니, 북송 초 도학자의 정신이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알 수 있다.

셋째, 二程은 老莊의 문자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정전서》 권18, 《遺書》〈伊川先生語第三〉에 “呂與叔有詩云 學如元凱方成癖 文似相如始類俳 獨立孔門無一事 只輪顏氏得心齋 此詩甚好”라고 하였는데, 문인 呂大臨이 《莊子》〈人間世〉에 보이는 ‘心齋’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 程頤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즉 노장·불교의 용어도 필요한 경우 인용하고 있다. 후대 학자들은 노장·불교의 문자를 사용하면 사상이 순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거나 노장에 물들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현대 학자 張德麟은 ‘왜 정호와 송명 유학자들이 도·불의 용어를 그렇게 즐겨 사용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이유는 이러한 용어들이 본래 유·불·도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⁴³⁾라고 하였고, “먼저 道家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상적으로 도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⁴⁴⁾라고 하였으며, 또 “역사상 정호는 일찍이 도가에 출입하였지만 그것이 그의 사상 내용에는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⁴⁵⁾고 하였다.

넷째, 二程은 불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정호는 道家에 대해 그다지 비판적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적극 비판하였다. 정호는 “釋氏가 도를 말한

42) 《二程全書》 권18, 《遺書》, 〈伊川先生語第三〉. “問 作文害道否 曰 害也 凡爲文 不專意則不工 若專意則志局於此 又安能與天地 同其大也 書曰玩物喪志 爲文亦玩物也 呂與叔有詩云 學如元凱方成癖 文似相如始類俳 獨立孔門無一事 只輪顏氏得心齋 此詩甚好 古之學者 惟務養情性 其他則不學 今爲文者 專務章句 悅人耳目 既務悅人 非俳優而何”

43) 張德麟 지음, 박상리·이경남·정성희 옮김, 《정명도의 철학》, 예문서원, 2004, 59쪽 참조.

44) 同上, 58쪽 참조.

45) 同上, 60쪽 참조.

것은 비유하자면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같다. 곧장 위로 올라가는 것만 힘쓰니, 오직 한쪽만 보고 사방은 보지 못한다.”⁴⁶⁾라고 하였고, 또 “釋氏는 본디 死生을 두려 위하여 이로움만 추구하였으니, 어찌 공정한 道이겠는가. 오직 위로 이치를 통달하는 데만 힘쓰고 아래로 인간의 일을 배움이 없다. 그렇다면 그들이 위로 통달하는 지점에 어찌 옳음이 있겠는가. -중략- 그러나 적들에게는 ‘마음을 보존하여 性을 기른다’라는 한 단락의 일과 같은 것은 없다.”⁴⁷⁾라고 하였다.

이처럼 정호가 불교를 비판한 것은 ‘上達만 있고 下學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장덕린은 “불교와 비교되는 모든 말을 살펴보면, 유자는 實理와 實事의 관점에서 서술되며, 불교는 空理와 幻現의 이해 아래에서 관찰된다.”라고 하였다.⁴⁸⁾

다섯째, 二程은 온갖 迷信의인 思惟를 물리치고 理에 따라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합리적 사유를 했다. 이는 정호가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불교와 관련된 유언비어 및 미신적인 민속신앙에 대해 과감하게 대처하여 합리적 사유로 널리 교화를 편 여러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Ⅲ. 二程의 理學과 經學

1. 理學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조선시대 학문을 ‘性理學’이라 칭한다. 이 ‘性理學’이라는 용어는 ‘性命理氣’ 또는 ‘性情理氣’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한다. 즉 心·性·情과 理·氣의 관계를 설명하는 학문을 性理學으로 보는 것이다. 그 내용에는 人心·道心の 문제, 本然之性·氣質之性の 문제, 四端·七情의 情의 문제, 그리고 心統性情의 문제가 중핵을 차지한다.

그런데 중국 학자들은 ‘性理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理學’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 이유는 ‘性理學’이라는 용어가 전체를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張立文 교수는 송대 이후 道學·理學·宋學·性理之學·心性之學·義理之學 등의 용어를 검토하면서 ‘宋明理學’이라고 칭하는 이유에 대해, ‘道學’이라는 용어는 宋·元·明·淸의 정신과 본질을 반영할 수 없고, ‘道家之學’이라는 말과 혼동하기 쉬우며, 〈理學은〉程朱의 道學과 陸九淵의 心學을 포함하는 용어로 세상에서 널리 쓰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⁴⁹⁾

46)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3》, 전통문화연구회, 2020, 88쪽 참조.

47) 上同, 88~89쪽 참조.

48) 張德麟 지음, 박상리·이경남·정성희 옮김, 《정명도의 철학》, 예문서원, 2004, 62~63쪽 참조.

49) 張立文, 《宋明理學研究》人民出版社, 2002, 11~12쪽 참조.

‘道學’이라는 용어는 張載와 二程이 공식적으로 사용한 말인데, 후에는 二程 및 그 문인들의 학설을 지칭하게 되었다. 주희가 편찬한 《伊洛淵源錄》을 보면, 周敦頤·程顥·程頤·邵雍·張載·呂希哲·范祖禹·楊國寶·朱光庭·劉絢·李籲·呂大忠·呂大臨·蘇昞·謝良佐·游酢·楊時·劉安節·尹焞·張繹·胡安國·程氏門人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주희는 이들을 道學者로 본 것이다. 《宋史》에는 〈儒林傳〉 앞에 〈道學傳〉을 두었는데, 이는 《伊洛淵源錄》에 의거하여 주희의 스승·문인 및 張栻만 넣고, 陸九淵·呂祖謙·陳亮·葉適 등은 제외한 것이다. 이는 《송사》를 편찬한 원대 학자들이 육구연의 心學, 呂祖謙의 婺學, 陳亮의 永康學 등은 道學과 다르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道學’이라는 명칭은 북송 때부터 나타나지만, ‘理學’이라는 명칭은 남송 때부터 나타난다. 북송 때는 사대부 정치 시대로 張載의 학문을 關學, 蘇氏 부자의 학문을 蜀學, 二程의 학문을 洛學, 周敦頤의 학문을 濂學, 邵雍의 학문을 百源學, 司馬光의 학문을 涑水學, 王安石의 학문을 新學 등으로 불렀다. ‘道學’이라는 용어는 남송 때 정주학 계열의 理學派에서만 사용하여 ‘理學’보다 범위가 좁다. 또한 ‘道學’이라는 용어는 明代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道學’이라는 용어는 理學이 발전하던 송대 특정한 학파를 지칭하던 용어로 理學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용어는 아니다.

정이는 “우리 형제가 道學을 倡明한 뒤 세상 사람들이 바야흐로 놀라고 의심하였다.”⁵⁰⁾라고 하였고, “道學은 서책으로 전해지지 못해 마침내 민멸되어 알려짐이 없게 될 것이니”⁵¹⁾라고 하였으며, 주희는 〈程氏遺書後序〉에서 “공자와 맹자가 돌아가신 뒤 1천 년 동안 전해지지 않던 후대에 二先生이 道學을 창도해 밝힌 점을 생각하면, 그 공이 성대하고 할 만하다.”⁵²⁾라고 하였다. 이런 자료를 보면, 道學은 ‘성인의 도를 전한 학문’을 의미한다. 張立文 교수는 이를 더 구체화하여 ‘도학은 일반적으로 剛毅正直하고 守道循理하는 학문을 의미한다.’⁵³⁾고 하였다.

남송 때 널리 쓰인 理學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唐代 이전의 부화한 수식과 기교를 위주로 하는 辭章學과는 달리 ‘도를 드러내고 理를 위주로 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漢·唐代的 訓詁學과는 달리 경전의 義理를 발명하는 義理學을 의미한다. 그런데 元·明代로 내려오면서 程朱學派의 理學과 陸王學派의 心學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어 宋·明代 주도적 지위를 차지했던 학술체계를 ‘宋明理學’이라 칭하게 되었다.

陳來 교수는 송명리학의 체계를 張載를 대표로 하는 氣學, 邵雍을 대표로 하는 數

50) 《二程全書》 권65, 〈祭李端伯文〉. “自予兄弟倡明道學 世方驚疑”

51) 《二程全書》 권63, 〈上孫曼叔侍郎書〉. “道學 不及傳之書 遂將泯沒無聞”

52) 朱熹, 《朱子大全》 제24책 《晦庵集》 권75, 〈程氏遺書後序〉. “夫以二先生唱明道學於孔孟既沒千載不傳之後 可謂盛矣”

53) 張立文, 《宋明理學研究》人民出版社, 2002, 8쪽 참조.

學, 二程과 朱熹를 대표로 하는 理學, 陸九淵과 王守仁을 대표로 하는 心學 등 네 학파로 나누었다. 그는 氣學은 空·虛로 대표되는 불교·도교의 학설을 비판하면서 氣가 우주의 궁극적 실재임을 설파하였고, 數學은 실재의 우주적 과정과 역사적 과정의 규율성을 연구하였고, 理學은 氣學·數學을 흡수하여 유가사상의 본체론적 기초를 확립하였고, 心學은 도덕실천의 방면에서 本心이 도덕법칙을 결정한다고 하여 주체성 원칙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평하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理學과 心學이 주도적 지위를 누렸다고 하였다.⁵⁴⁾

2. 理學의 요지

二程은 漢·唐代 訓詁學의 영향으로 경전의 字句나 해석하는 문풍을 반성하면서 “경전은 도를 싣고 있는 책이다.”⁵⁵⁾라고 하였다. 이는 唐代 韓愈 등이 고문운동을 일으키면서 ‘文은 형식적인 浮華함보다는 道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한 정신과 맥락이 닿아 있다. 二程은 당대 학풍에 대해 “오늘날 배우는 자에게는 세 가지 폐해가 있다. 첫째는 文章에 빠지는 것이고, 둘째는 訓詁에 끌려가는 것이고, 셋째는 異端에 미혹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폐해가 없다면 장차 어디로 돌아갈까? 반드시 道로 나아갈 것이다.”⁵⁶⁾라고 하고, 또 “옛날에 배우는 것은 한 가지였지만 지금 배우는 것은 세 가지이니, 異端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 첫째는 文章學이고, 둘째는 訓詁學이고, 셋째는 儒者學이다. 道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儒者學을 버리고서는 불가하다.”⁵⁷⁾라고 하여, 異端을 물리치는 것은 물론 詞章學과 訓詁學도 배격하고 오로지 道를 탐구하는 것만을 진정한 儒者學이라 하였다.

程頤는 “후세의 儒者들은 文章을 짓고 經術을 연구하는 것을 임무로 여기지 않는 자가 없다. 문장을 짓는 것은 그 문사를 화려하게 수식하고 그 의미를 새롭고 기이하게 하여 남들의 이목을 기쁘게 하기를 취할 따름이고, 경술을 연구하는 것은 성인의 말씀을 해석하고 先儒의 설의 장단점을 따져서 그들과 다른 설을 세우는 것을 자신의 공부로 삼을 따름이다. 이와 같은 학문으로 과연 도에 이를 수 있겠는가.”⁵⁸⁾라고 하여, 사장학과 훈고학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였다.

이런 당대 학풍에 대한 반성이 二程의 理學을 낳게 하였다. 정이는 〈明道先生墓表〉에서 “선생이 1천 4백 년 뒤에 태어나 성인이 남긴 經에서 전해지지 않은 학문을 터

54) 陳來 지음, 안재호 옮김, 《송명성리학》, 예문서원, 2011, 39~40쪽 참조.

55) 《二程全書》 권6, 《遺書》〈二先生語五〉. “經 所以載道也”

56)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2》, 전통문화연구회, 2019, 232쪽 참조.

57) 上同.

58) 《二程全書》 권62, 伊川先生文四, 〈爲家君作試漢州學策問三〉 “後之儒者 莫不以爲文章治經術 爲務 文章則華靡其詞 新奇其意 取悅人耳目而已 經術則解釋辭訓 較先儒短長 立異說以爲己工而已 如是之學 果可至於道乎”

득하여 장차 이 道로써 이 백성을 깨우치는 데 뜻을 두었다.”⁵⁹⁾라고 하였다. 二程의 학문을 ‘道學’이라 부르는 것은 성인의 도를 터득하여 밝혔기 때문이다. 道學은 ‘성인의 도를 밝히는 학문’이다. 이 道는 곧 理를 가리키고, 理는 보편적 자연의 섭리인 天理를 가리킨다. 二程은 특히 理에 관한 학설을 중시하여 발전시켰다. 정호는 자신이 ‘天理’ 두 글자를 체득하였다고 하였으니, 理는 二程의 사상에 있어서 핵심에 자리한다. 그러므로 二程의 학문을 ‘理學’이라 부르는 것이다.

二程은 “배우는 자는 멀리서 구할 필요가 없고, 가까이 자신에게서 취하여 사람의 이치를 밝혀 마음을 공경히 할 따름이니, 그것이 곧 요약된 점이다. 《周易》의 乾卦에서는 聖人の 학문을 말하고, 坤卦에서는 賢人の 학문을 말하면서 오직 ‘敬하여서 안을 곧게 하고, 義하여 밖을 방정하게 하여 敬과 義가 확립되면 德이 외롭지 않다’고 하였다. 聖인에 이르러서도 이와 같을 뿐이니, 다시 별도의 길이 없다. 천착하고 얽매이는 것은 저절로 道理가 아니다. 그러므로 道가 있고 理가 있는 것은 하늘과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이니, 다시 나누어 구별할 수 없다.”⁶⁰⁾라고 하였다.

이 말에는 二程의 理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 하나는 道는 형이상의 고원한 것이 아니니 日常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道와 理는 天·人이 하나이므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에게서 天理를 찾아 보존해야 한다’는 것으로 理學의 핵심 사상이다.

二程의 理學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일화가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生意에 관한 이야기이다. 周敦頤가 창 앞의 풀을 제거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 정호가 그 이유를 묻자, 주돈이는 “저 풀도 나의 意思와 같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⁶¹⁾ 《近思錄集解》의 本註에 “天地의 生意가 流行하여 發育하니 仁者만이 生生之意를 가슴속에 충만히 하므로 그것을 볼 적에 마음에 이해됨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유명한 일화는 자연의 理를 체득하고 그와 하나가 되는 정신을 드러낸 것이다.

정기도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모두 理가 있으니 반드시 이를 살펴야 한다.”⁶²⁾고 하였으니, 이런 사유가 理學의 기초에 해당한다. 정호는 “나의 학문은 전해 받은 바가 있기는 하지만, ‘天理’ 두 자는 도리어 내가 체득해 낸 것이다.”⁶³⁾라고 하였으니, 천지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理學을 학문의 본령으로 삼은 것이다.

정이는 “理가 있는 뒤에 象이 있고, 象이 있고 난 뒤에 數가 있다. 易은 象을 통해 理를 밝히고 象을 통해 數를 아니, 그 의리를 터득하면 象과 數 그 가운데 있을 것

59)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3》, 전통문화연구회, 2020, 326쪽 참조.

60)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1》, 전통문화연구회, 2018, 167~168쪽 참조.

61) 《近思錄》 권14, 〈觀聖賢〉. “明道先生曰 周茂叔窓前草不除去 問之 云與自家意思一般”

62) 《二程全書》 권19, 《遺書》 〈伊川先生語四〉. “一草一木 皆有理 須是察”

63) 《二程全書》 권39, 《外書第十二》. “吾學雖有所受 天理二字 却是自家體貼出來”

입니다. -중략- 理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象을 통하여 理를 밝힙니다. 理가 말에 드러나면 말을 통해 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리를 터득하면 象과 數는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⁶⁴⁾라고 하였다. 이처럼 象·數를 통해 理를 밝히는 것이 理學이다.

程顥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글이 識仁篇과 定性書이다. 식인편은 한 편으로 저술한 글이 아니고, 《이정전서》 권2의 《遺書》〈二先生語 二上〉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조항 중 정호가 仁에 대해 언급한 몇 조항(제12조~제28조)을 가리킨다. 定性書는 《二程全書》 권56 〈明道先生文 三〉에 실려 있는 〈答橫渠張子厚先生書〉를 가리킨다.

먼저 識仁篇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정호는 “仁·義·禮·智·信 다섯 가지는性이다. 仁은全體이고 나머지 넷은 四肢이다. 仁은 본체요, 義는 마땅함이요, 禮는 구별함이요, 智는 앎이요, 信은 가득 채움이다.”⁶⁵⁾라고 하여, 仁을全體로 보았다. 그리고 “배우는 자는 仁의 본체를 알아 자기 몸에서 실제로 터득하여 義理가 북돋아 길러지길 구해야 한다.”⁶⁶⁾고 하여, 仁의 본체를 자기 몸으로 터득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호는 張載의 〈訂頑〉(〈西銘〉)에 仁의 體에 관한 의미가 잘 갖추어져 있으니, 학자들은 이 의미를 체득해야 한다고 하였다.⁶⁷⁾

또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仁을 먼저 알아야 한다. 仁이라는 것은 온전히 사물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니, 義·禮·智·信도 모두 仁이다. 이 이치를 알고서 誠·敬으로 그것을 보존할 따름이니, 방비하며 점검할 필요도 없고 궁구하며 탐색할 필요도 없다.”⁶⁸⁾라고 하여, 仁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仁者는 천지 만물로써 한 몸을 삼으니, 천지 만물이 내 몸 아닌 것이 없다. 천지 만물이 내 몸이 됨을 인식하면 어디인들 이르지 못하겠는가. 만약 仁을 내 몸에 소유하지 않으면 저절로 나와 서로 관계되지 않는다. 마치 손발이 不仁하여 기운이 이미 관통하지 않아 모두 나에게 속하지 않는 것과 같다.”⁶⁹⁾라고 하여, 仁者는 천지 만물과 一體가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호는 ‘誠·敬의 수양을 통하여 모든 대립을 초월하는 경지를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런 경지에 도달해야 仁의 本體를 얻을 수 있고 공자와 안연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⁷⁰⁾ 이것이 識仁篇의 요지이다. 16세기 조선의

64) 《二程全書》 권63, 伊川先生文五, 〈答張宏中書〉. “有理而後有象 有象而後有數 易因象以明理 由象而知數 得其義則象數在其中矣 -중략- 理無形也 故因象以明理 理既見乎辭矣 則可由辭以觀象 故曰得其義則象數在其中矣”

65)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1》, 전통문화연구회, 2018, 148~149쪽 참조.

66) 上同, 152쪽 참조.

67) 上同, 149~150쪽 참조.

68) 上同, 155쪽 참조.

69) 上同, 150쪽 참조.

도학자 李彥迪이 〈求仁錄〉을 만든 것도 이 識仁篇의 영향이라 하겠다.

다음 定性書를 살펴보기로 한다. 장재가 정호에게 보편 편지에 “性을 定할 적에 動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外物에 얽매인다.”고 하였는데, 정호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의 설을 써서 장재에게 보냈다. 이 편지는 《이정전서》 권56 ‘明道先生文 三’에 〈答橫渠張子厚先生書〉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후대 학자들은 이 글의 요지가 ‘定性’이므로 ‘定性書’라고 불렀다. 주희는 이 定性書의 요지인 定性에 대해, “이 ‘性’ 자는 ‘心’ 자의 의미이다.”⁷¹⁾라고 하여, 마음의 안녕과 평정을 실현할 방법을 논한 것으로 보았다.

장재는 ‘마음의 평정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 사물의 교란으로 조성된 意念의 동요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 사물의 교란을 근절하기란 어렵다. 정호는 우선 ‘定’에 대해, “이른바 定이라는 것은 動하여도 定하고 靜하여도 定하여 보내고 맞이하도 없고 內·外도 없습니다. 만일 外物을 밖으로 여겨 자기를 이끌고서 外물을 따르면, 이것이 ‘자기의 性에 內·外가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定을 動해도 定하고 靜해도 定하여 將迎·內外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聖人の 心を 논하였다.

天地가 蕩々한 것은 그 마음이 만물에 두루 미치면서도 無心하기 때문이고, 聖人이 蕩々한 것은 그 감정이 만사에 순응하면서도 無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君子의 학문은 廣大無邊하여 크게 공정해서 物이 다가오면 순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중략- 사람의 감정은 각각 가려진 바가 있기 때문에 道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의 걱정은 사사로운 생각을 하여 지혜를 쓰는 데 있습니다. 사사로운 생각을 하면 추진하는 일을 당연한 이치에 순응하게 할 수 없고, 지혜를 쓰면 지각을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外物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물이 없는 곳을 비추려 한다면 이는 거울을 돌려놓고서 자기 모습이 비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중략- 밖을 그르다 하고 안을 훑다 하고 하기는 內·外를 모두 잊는 것이 나으니, 內·外를 모두 잊으면 마음이 깨끗해져서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일이 없으면 안정되고, 안정되면 밝아질 것이니, 밝아지면 어찌 사물에 응할 적에 얽매이겠습니까.⁷²⁾

이 인용문에는 정호의 사상이 농축되어 있다. 우선 ‘聖人之常은 그 감정이 만사에 순응하여 無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君子之學은 廓然而大公하여 物來而順應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공부법으로는 ‘非外而是內보다는 內外兩忘이 더 낫다’는 것이다. 內外兩忘은 자아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는 맹자의 不動心을 계승한 것으로, 도가·불교의 심리 수양의 경험까지 받아들인 것이다.⁷³⁾ 定性書는 정호의 나이 26세

70) 陳來 지음, 안재호 옮김, 《송명성리학》, 예문서원, 2011, 131~132쪽 참조.

71) 黎靖德, 《朱子語類》 권95, 〈程子之書 一〉. “此性者 是個心字意”

72)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7》, 전통문화연구회, 2025, 81~82쪽 참조.

73) 陳來 지음, 안재호 옮김, 《송명성리학》, 예문서원, 2011, 134쪽 참조.

때 지은 것이다.

정호는 “성현이 天德을 논한 것은 대개 자기가 본래 천성적으로 타고난 완전하고 충만한 존재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만약 더럽혀지거나 무너짐이 없으면 마땅히 그 덕을 곧게 하여 행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더럽혀지거나 무너짐이 있으면 敬으로써 그것을 다스려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합니다.”⁷⁴⁾라고 하여, ‘敬을 통해 天德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정호는 “‘修辭立其誠’이라고 한 말을 자세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니, ‘능히 言辭를 닦고 성찰할 수 있으면 곧 誠을 세우고자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만약 言辭를 수식하는 것으로만 마음을 먹는다면 이는 허위를 행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그 言辭를 닦아 정히 자신을 세우는 誠意를 행한다면 이는 자신이 ‘敬以直內義以方外’의 實事를 체험하고 감당하는 일이다. 道는 넓고 넓으니, 어디에서 착수할 것인가? 오직 誠을 세워야 겨우 근거할 곳이 있게 되며, 근거할 곳이 있으면 학업을 닦을 수 있다. -중략- ‘終日乾乾’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고, ‘忠信 所以進德’은 실제로 착수하는 곳이 되며, ‘修辭立其誠’은 실제로 학업을 닦는 곳이다.”⁷⁵⁾라고 하여, 修辭立誠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程頤는 18세 때 〈上仁宗皇帝書〉를 올려 王道를 진언하였고, 24세 太學에서 〈顏子所好何學論〉을 지어 胡瑗의 칭찬을 받았다. 정이는 “治經은 實學이다.”라고 하면서 “예컨대 《中庸》 한 책은 지극한 이치로부터 바로 실제의 일에 그 이치를 미루어나갔으니, ‘국가를 다스리는 데 九經이 있다’는 것과 역대 성인의 자취를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은 實學 아닌 것이 없다. 마치 9층의 누대에 오를 적에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이 평소 경전을 강론하고 학습할 때 공허한 말이 되어 실익이 없음을 근심하는 것은 대개 自得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문할 적에는 治經이 가장 좋으니, 만일 自得하지 못하면 五經을 모두 공부하더라도 공허한 말이 될 것이다.”⁷⁶⁾라고 하였다. 이처럼 정이는 경전의 本旨를 自得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이는 “所以一陰一陽 道也”(《이정전서》 권4)라고 하여, 陰陽은 氣이고 一陰一陽하는 所以를 道, 즉 理로 보았다. 또 “體用一源 顯微無間”(《易傳序》)이라고 하여, 體·用을 통일적으로 생각하였다. 또 “道則自然生萬物”(《이정전서》 권16)이라 하여, 生生不息하는 것은 所以然的 理로 보고, 부단히 생성되고 소멸하는 것은 氣로 보았다. 이러한 사상이 그의 理學의 기초에 해당한다.

74)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1》, 전통문화연구회, 2018, 107쪽 참조.

75) 《二程全書》 권1, 〈二先生語 一〉. “修辭立其誠 不可不仔細理會 言能修省言辭 便是要立誠 若只是修飾言辭爲心 只是爲僞也 若修其言辭 正爲立己之誠意 乃是體當自家敬以直內義以方外之實事 道之浩浩 何處下手 惟立誠 才有可居之處 有可居之處 則可以修業也 終日乾乾 大小大事 却只是忠信所以進德 爲實下手處 修辭立其誠 爲實修業處”

76)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1》, 전통문화연구회, 2018, 111~112쪽 참조.

정이는 “性이 곧 理이다. 이른바 理란 性이 그것이다.”(《이정전서》 권22)라고 하여, 도덕 원칙을 인간의 본성으로 여겼다. 정이는 ‘性은 理이기 때문에 堯·舜과 같은 성인부터 길가는 평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才質은 氣에서 부여받는데, 氣에는 淸濁이 있어서 맑은 것을 부여받은 사람은 賢人이 되고 탁한 것을 부여받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⁷⁷⁾ 이러한 언급은 사람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에는 性(理)뿐만 아니라 氣도 있다는 것이다.

정이는 이런 기초 위에서 告子가 말한 ‘生之謂性’은 부여받은 氣質之性을 가리키고, 天命을 性이라고 할 때는 理를 가리키는 것으로 맹자가 말한 性善이라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정이는 “性을 논하면서 氣를 논하지 않으면 구비되지 않고, 氣를 논하면서 性을 논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못하다.”(《이정전서》 권7)고 하였다.

정이는 主敬을 강조하면서 敬공부로 整齊嚴肅과 主一無適을 제시하였다. 정제엄숙은 내적·외적으로 모두 절제하고 단속하여 禮에 맞게 하는 것이다. 주일무적에 대해 정이는 “敬은 한 생각을 주로 하는 것이다. 한 생각을 주로 하면 이미 동쪽으로 가지 않고 또 서쪽으로 가지 않으니, 이와 같이 하면 단지 中道를 유지하게 된다. 이미 이쪽으로 가지 않고 또 저쪽으로 가지 않으니, 이와 같이 하면 단지 내면을 지킬 따름이다. 이 마음을 보존하면 자연히 天理가 밝아진다.”⁷⁸⁾라고 하였고, 또 “所謂一者 無適之謂一”이라 하여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지 않는 專一한 경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정이는 사람의 마음은 만물과 교감하기 때문에 思慮가 없을 수 없는데, 이런 사려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마음에 주재함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마음에 주재함이 있게 하는 방법은 敬뿐이라고 하였다.⁷⁹⁾ 즉 敬공부를 통해 마음에 주재가 있게 하는 것이다.

정이는 主敬을 중주로 삼았지만 靜을 배척하지도 않았다. 다만 主靜을 종지로 삼지 않았을 따름이다. 主靜은 불교의 수양 방법인데, 周敦頤는 〈太極圖說〉에서 “聖人定之以中正仁義而主靜-無欲故靜-”이라고 하여, 主靜과 無欲을 강조하였다. 정이는 이러한 主靜을 수용하지 않고 主敬을 주장하였다.

정이는 靜坐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열심히 공부한다’고 칭찬했지만, “靜을 말하면 바로 釋氏의 설로 들어가니, ‘靜’ 자를 쓰지 않고 단지 ‘敬’ 자를 쓸 따름이다. 조금이라도 ‘靜’ 자를 말하면 바로 敬을 잊어버린다.”(《이정전서》 권19)라고 하였다. 그리고 孟子가 浩然之氣를 기르는 방법으로 말한 ‘必有事焉而勿正’의 ‘必有事焉’을 ‘心勿亡’의 의미로 보아 ‘敬’과 연관해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敬하면 저절로 虛靜하지만, 虛靜한

77)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2》, 전통문화연구회, 2019, 287쪽 참조.

78)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2》, 전통문화연구회, 2019, 287쪽 참조.

79)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2》, 전통문화연구회, 2019, 178쪽 참조.

것을 敬이라 부를 수는 없다.”(《이정전서》 권16)고 하였다. 정이는 養心하고 存心하려 면 主靜이 아닌 主敬이 유효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二程은 《중용》에 ‘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中和說을 중시하였다. 정이는 呂大臨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릇 心을 말하는 자는 已發을 가리켜 말하는데, 이는 참으로 온당치 않다. 心은 하나인데, 體(寂然不動)를 가리켜 말할 경우도 있고, 用(感而遂通天下之故)을 가리켜 말할 경우도 있으니, 오직 그 소견이 어떠한지를 볼 따름이다.”(《이정전서》 권63 〈與呂大臨論中書〉)라고 하여, 心에 體·用이 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희로애락이 未發時에 存養을 말하면 괜찮지만, 희로애락이 발하기 전에 中을 求한다고 말하면 불가하다.”고 하여, ‘구한다’고 하면 已發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발시에는 涵養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涵養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정이는 “감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마음 붙일 곳을 압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단지 마음을 붙잡음이 있을 따름이다. 그것을 붙잡는 방법은 敬하여서 내면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이정전서》 권16)라고 하였으니, 主敬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외물을 접하지 아니할 적에는 어떻게 善을 할까? 단지 敬을 주로 하면 이것이 善을 하는 것이다.”(《이정전서》 권16)라고 한 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정이는 마음을 보존하고 기르는 데 主敬을 중시하였는데, 학식을 진전시키는 進學에서는 致知를 강조하였다.⁸⁰⁾ 그는 ‘마음을 붙잡고 지키기 위해서는 致知를 먼저 해야 한다[持守甚事 須先在致知]’(《이정전서》 권16)고 하였고, ‘학문은 致知보다 더 큰 일이 없다[學莫大於致知]’(《이정전서》 권18)고 하였다. 그리고 致知는 앎을 극진히 하는 것[盡知]이라고 하였으며, 窮理하여 格物하는 것이 바로 致知라고 하였다.(《이정전서》 권16) 또 정이는 格物을 풀이하여 “格은 窮과 같은 뜻이고, 物은 理와 같은 뜻으로 格物은 窮其理라는 의미와 같다.”(《이정전서》 권28)고 하였다.

정이는 窮理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讀書하여 義理를 講明하는 것, 고금의 人物을 논하여 그 是非를 변별하는 것, 사물을 응접하면서 그 합당을 조처하는 것 등이 모두 궁리라고 하였다.(《이정전서》 권19) 정이는 하나의 草木에도 모두 理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살펴야 하지만, 사물의 이치를 궁구할 적에는 自身에서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다.⁸¹⁾ 또 궁리의 방법으로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모두 궁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정이는 “모름지기 오늘 하나의 이치를 궁구하고 내일 또 하나의 이치를 궁구하여 익힌 것이 많이 축적된 뒤에야 환하게 절로 관통하게 될 것이다.”⁸²⁾라고 하여, 궁리가 축적되면 보편적 원리를 인식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

80) 《二程全書》 권19. “涵養 須用敬 進學則在致知”

81) 《二程全書》 권18에 “格物之理 不若察之於身 其得尤切”이라 하였고, 권19에 “求之性情 固是切於身”이라 하였다.

다고 보았다.

二程의 理學은 각종 미신적 사유로부터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전환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심성을 수양하여 天理와 하나가 되는 天人合一을 지향하게 함으로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중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禮敎가 지나치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듯이, 理學도 보편적 이치를 교조적으로 사용하여 인간의 순수한 욕망을 억제하거나 권리를 통제하기도 하였다. 淸初 戴震이 “酷吏는 法으로 사람을 죽이고, 後儒는 理로 사람을 죽인다. -중략- 사람이 法에 의해 죽으면 오히려 가엽게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理에 의해 죽으면 그 누가 가엾게 여기겠는가.”⁸³⁾라고 지적하였듯이, 그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3. 經學의 요지

二程은 “학문은 요점이 自得에 있다.”⁸⁴⁾고 하였으며, 또 “학문을 할 적에는 경전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만약 自得하지 못하면 五經을 다 연구할지라도 또한 空言이 된다.”⁸⁵⁾고 하였으며, 정이는 “배움은 自得을 귀하게 여긴다. 터득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연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自得이라 한다.”⁸⁶⁾고 하여, 自得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정호는 ‘학문은 아는 단계[知之], 좋아하는 단계[好之]를 넘어 즐거워하는 단계[樂之]까지 이르러야 완성된다’고 하면서, 도를 좋아하는 단계는 남의 정원에서 노니는 것과 같고, 도를 즐거워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자기의 물건이 된다고 하였다.⁸⁷⁾

문인이 自得하는 방법을 묻자, 정이는 “사유하라. 사유는 지혜를 말하니, 지혜는 성스러움을 낳는다. 모름지기 사려하는 사이에서 터득해야 하니, 대저 하나의 밝은 이치일 뿐이다.”⁸⁸⁾라고 하였다. 요컨대 思索을 통해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다.

이처럼 自得을 강조한 二程은 ‘경전을 연구하는 것은 實學[治經 實學也]’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實學은 虛學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정은 “經書를 窮究하는 것은 실제의 쓰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니, 예컨대 《詩》 3백 편을 외우면서도 정사를 맡겼을 적에 통달하지 못하며, 四方에 使臣을 가서 혼자 처결하지 못한다면 비록 시를 많이 외운들 어디에 쓰겠는가?”라고 한 것과 같다. 오늘날 경서

82)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2》, 전통문화연구회, 2019, 236쪽 참조.

83) 戴震, 《孟子字義疏證 上》, 上海古籍出版社, 1980. “酷吏以法殺人 後儒以理殺人 -중략- 人死於法 猶有怜之 死於理 其誰怜之”

84)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2》, 전통문화연구회, 2019, 25쪽 참조.

85)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1》, 전통문화연구회, 2018, 111~112쪽 참조.

86)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3》, 전통문화연구회, 2020, 243쪽 참조.

87)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2》, 전통문화연구회, 2019, 52쪽 참조.

88)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3》, 전통문화연구회, 2020, 178~179쪽 참조.

를 궁구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과연 정사에 통달하고 혼자서 사신의 일을 처결하는 사이에서 능히 임무를 해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경서를 궁구한다고 일컫는 것은 章句에나 치중하는 말단적인 것일 따름이니, 이는 배우는 자들의 큰 근심거리이다.”⁸⁹⁾라고 하여, 自得을 통해 實用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二程은 ‘먼저 義理를 밝히지 않으면 경전을 연구할 수 없다’고 하여, 경전연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義理發明이라고 하였다.⁹⁰⁾ 또 “聖人の 經旨는 어떻게 궁구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二程은 “理와 義로써 미루어 찾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⁹¹⁾ 이를 보면 義理發明을 중시하는 二程의 경학관을 엿볼 수 있다.

二程은 또 “배우는 자는 仁의 本體를 알아 자기 몸에서 실제로 터득하여 義理로 복돋아 길러야 한다. 예컨대 經典의 뜻을 찾는 것은 모두 복돋아 기르는 의미이다.”⁹²⁾라고 하였다. 이는 경전의 本旨를 실제로 터득하여 義理를 培養해 보편적 이치와 합리적 사유를 하는 것이 학자의 임무임을 역설한 것이니, 이 역시 義理學의 정수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本旨自得, 致用實學, 義理發明, 義理培養으로 요약되는 二程의 경학관은 理學에 근본을 둔 사유로서 義理學의 초석에 해당한다.

二程의 《經說》에 실린 설 가운데 程顥의 설은 《이정전서》 권50에 수록된 〈明道先生改正大學〉 1편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程頤의 설이다. 물론 《遺書》·《外書》·《粹言》 등에는 사서오경에 관한 정호의 단편적인 경설이 산견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논의의 번다함을 피하기 위해 정이의 《周易程氏傳》과 《經說》에 실린 二程의 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정이는 평생 《주역》을 연구하여 유배 중인 66세 때 《周易程氏傳》을 완성하였다. 문인 尹焞은 “선생이 평생 마음을 쓴 곳은 오직 《역전》에 있었으니, 선생의 학문을 알고자 하는 자는 이 책을 살펴보면 충분할 것이다.”⁹³⁾라고 하여, 정이가 일생의 정력을 기울여 저술한 책을 《주역정씨전》으로 보았다.

정이는 〈易傳序〉에서 “《주역》에는 성인의 도가 네 가지(辭·變·象·占)가 들어있는데, 易道를 말하는 자는 그 辭를 숭상하고, 易道를 動의 측면에서 살피는 자는 그 變을 숭상하고, 易道로써 器物을 제조하는 자는 그 象을 숭상하고, 易道로써 점을 치는 자는 그 占을 숭상한다. -중략- 지극히 은미한 것은 理이고 지극히 드러난 것은 象이

89) 上同, 316쪽 참조.

90)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1》, 전통문화연구회, 2018, 145쪽 참조.

91)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2》, 전통문화연구회, 2019, 290쪽 참조.

92)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1》, 전통문화연구회, 2018, 152쪽 참조.

93)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3》, 전통문화연구회, 2020, 350쪽 참조.

다. 體·用은 근원을 하나로 하고, 顯·微는 간격이 없으니 會通을 관찰하여 그 典禮를 행하면 辭에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⁹⁴⁾라고 하였다. 정이의 《주역》을 해석하는 관점은 辭를 통해 變을 알아 體用과 顯微를 회통하는 것이다. 이는 작용이나 현상을 통해 본체를 아울러 인식하는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義理學을 천명한 것이다. 정이는 《주역정씨전》 외에도 〈繫辭傳 上〉에 대해 12조의 〈易說〉을 지었고, 〈繫辭傳 上〉을 十三經注疏本の 《周易》 및 주희의 《周易本義》와는 다르게 分節하였다.⁹⁵⁾

또 정이는 《서경》에 대해 〈書解〉·〈堯典〉·〈舜典〉·〈改正武成〉 등 4편의 글을 남겼다. 〈書解〉는 孔安國의 〈尙書序〉에 “孔子가 三墳·五典을 연구하되 唐·虞 시대로부터 끊어서 시작하였다.”라고 한 구절을 문제로 삼아 공자가 전대의 글을 산삭했다는 것에 대해 논한 것이다. 정이는 이 글에서 “설령 그 글이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면 없앨 수 없지만, 그것이 혹여 의리를 해치는 점이 있다면 성인은 삭제하거나 바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은 그 사실일 뿐이니, 굳이 삭제하거나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文辭에 해로운 점이 있으면 삭제하거나 고칠 수 있는 이치가 있을 따름이다.”⁹⁶⁾라고 하여, 義理를 기준으로 산삭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역시 정이의 義理學的 사유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堯典〉 해석은 총 23조로 되어 있는데, 〈書序〉·句節 등에 대해 정이가 자신의 견해로 풀이한 것이다. 〈舜典〉 해석은 총 21조로 되어 있는데, 구절에 대해 풀이한 것이다. 〈순전〉은 伏生이 전한 今文에는 〈堯典〉에 합해 있고, 孔壁의 古文에는 〈舜典〉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魏·晉 시대 만들어진 僞《古文尙書》에는 독립되어 있다. 唐代 孔穎達 등이 만든 十三經주소본은 위《고문상서》를 저본으로 한 것이므로 정이는 이 본을 그대로 따라 해석한 것이다.

〈改正武成〉은 〈武成〉의 차례를 개정한 글이다. 정이는 이 글이 내용상 차례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해 구절의 차례를 개정하여 새로운 논리 체계를 세워 해석하였는데, 이 글을 번역하면서 십삼경주소본의 舊說과 정이의 개정설 및 후대 蔡沉이 완성한 《書集傳》 〈武成〉의 차례를 도표로 제시하여 비교하기 쉽게 하였다.⁹⁷⁾

《經說》에 실린 《詩經》 해석은 頌이 빠진 風·雅만 있는데, 총 65편 65조의 해석으로 되어 있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周南 4조, 召南 1조, 邶風 3조, 鄘風 5조, 衛風 3조, 王風 4조, 鄭風 2조, 齊風 3조, 魏風 1조, 唐風 3조, 秦風 4조, 陳風 2조, 檜風 1조, 曹風 3조, 豳風 7조, 小雅 17조, 大雅 1조이다. 내용은 구절에 대한 풀이가 주

94) 程頤, 《周易程氏傳》〈易傳序〉. “易有聖人之道四焉 以言者 尙其辭 以動者 尙其變 以制器者 尙其象 以卜筮者 尙其占 吉凶消長之理 進退存亡之道 備於辭 推辭考卦 可以知變 象與占 在其中矣 -중략- 至微者 理也 至著者 象也 體用一源 顯微無間 觀會通 以行其典禮 則辭无所不備”

95)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6》, 전통문화연구회, 2024, 13~29쪽 참조.

96) 同上, 31쪽 참조.

97) 同上, 69~74쪽 참조.

를 이룬다.

《經說》에 실린 《春秋》에 대한 해석은 〈春秋傳序〉 1조, 隱公 71조, 桓公 53조, 莊公 14조, 閔公 1조, 僖公 15조, 文公 16조, 宣公 8조, 成公 19조, 襄公 11조, 昭公 7조, 定公 4조, 哀公 3조로 되어 있다. 정이는 〈춘추전서〉에서 공자가 《춘추》를 지은 이유를 順天應時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不易의 大法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후인들이 《춘추》를 역사서로만 보아 經世大法을 알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春秋大義는 수십 가지인데 은미한 말과 의리 및 時宜에 따라 적절하게 조처한 것은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후대 임금들이 《춘추》의 의리를 안다면 三代之政치를 본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춘추전》을 지은 이유를 “그러므로 〈내가〉 傳을 지어 그 義理를 밝혀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글을 통하여 그 의리를 구하고, 그 의미를 터득하여 그 효용을 본받게 하고자 하니, 그러면 三代之政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⁹⁸⁾

다음 《經說》에 실린 四書 해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經說》은 총 8권인데 권5에 〈明道先生改正大學〉과 〈伊川先生改正大學〉, 권6에 〈論語說〉, 권7에 〈孟子解〉, 권8에 〈中庸解〉가 수록되어 있다. 唐代 孔穎達 등이 편찬한 五經正義에는 《儀禮》·《周禮》가 빠지고 《禮記》가 禮經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禮記注疏》 제10편에 〈大學〉이 수록되어 있고, 제31편에 〈中庸〉이 수록되어 있다.

《예기》의 한 편으로 수록된 〈大學〉·〈中庸〉은 북송 초 二程에 의해 비로소 注目되어 聖賢의 道가 있는 글로 인식되었다. 후대 주희가 二程의 이런 생각을 더욱 발전시켜 〈大學〉·〈中庸〉을 별책으로 독립시키고, 分章하여 새롭게 주석한 뒤 《논어》·《맹자》와 합해 ‘四書’라고 명명하고, 孔子-曾子-子思-孟子로 내려오는 道統을 확립함으로써 四書는 五經보다 더 중요한 경서로 자리 잡았다.

《경설》에 수록된 〈明道先生改正大學〉·〈伊川先生改正大學〉은 십삼경주소본에 실린 〈大學〉이 錯簡에 의해 編次가 잘못되었으므로 편차를 바로잡아 논리구조를 새롭게 정리한 글이다. 이러한 논리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십삼경주소본의 〈대학〉과 정호의 〈개정대학〉, 정이의 〈개정대학〉, 그리고 후대 주희가 다시 개정한 《大學章句》의 편차를 상호 대조 비교해 번역문 뒤에 붙여놓았다.⁹⁹⁾

다음 《경설》 권6에 수록된 〈論語說〉을 살펴보기로 한다. 〈논어설〉은 〈學而〉부터 〈子罕〉까지 문제가 되는 章을 차례로 해석한 글로 〈학이〉가 15조, 〈爲政〉이 11조, 〈八佾〉이 16조, 〈里仁〉이 17조, 〈公冶長〉이 22조, 〈雍也〉가 27조, 〈述而〉가 37조, 〈泰伯〉이 21조, 〈子罕〉이 3조이다. 〈鄉黨〉 이하 11편에 대해서는 설이 없다. 내용은 각 章의 의미를 舊說과 다르게 의리학으로 해설한 것이 주를 이룬다.

98) 上同, 176~177쪽 참조.

99) 上同, 286~294쪽 참조.

《경설》 권7에는 〈孟子解〉 1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明代 徐必達의 교정본에는 ‘여러 본과 대조해 본 결과, 〈孟子解〉는 후인이 《遺書》과 《外書》에서 《孟子》에 대한 해설 부분을 모아 엮어놓은 것으로 제목만 남기고 재수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⁰⁰⁾ 요컨대 《經說》 권7의 〈孟子解〉는 제목만 있고 그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다.

《경설》 권8에는 〈中庸解〉가 수록되어 있다. 〈중용해〉는 36조 되어 있다. 이 36조가 〈중용〉을 36절로 分節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십삼경주소본 〈중용〉의 舊說 및 후대 주희의 《중용장구》의 分章과 비교해 보면, 二程의 《중용》해석의 구조 분석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해 대조표를 번역문 뒤에 붙여 놓았다.¹⁰¹⁾

〈中庸解〉의 작자를 정호로 보는 설도 있고, 정이로 보는 설도 있고, 문인의 설로 보는 설도 있다. 명대 徐必達의 교정본에는 〈中庸解〉 말미에 “晁公武의 《郡齋讀書志》에는 ‘明道の 《中庸解》가 1권이다.’라고 한 것이 있고, 伊川의 大全集에도 이 한 권이 실려 있다. 가만히 상고해 보건대, 〈中庸〉에 대해 明道는 책으로 만들지 못하였고, 伊川은 비록 〈중용〉에 관한 책을 완성하였다고 하였으나 그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여겨 이미 불태워버렸다. 이 〈中庸解〉를 반복해 살펴보건대, 이는 곧 朱자가 변론한 藍田呂氏 講堂의 初本の 改正本임에 의심할 바가 없다. 옛 사본을 그대로 기록하여 참고할 자료로 갖추어 둔다.”¹⁰²⁾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中庸解〉는 문인 呂大臨 강당의 초본을 개정한 본이라고 여겨진다.

二程은 四書を 매우 중시하여 四書を 表章하고 四書의 지위를 제고하였다. 이정은 “배우는 자는 《論語》·《孟子》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논어》·《맹자》를 공부하고 나면 六經은 공부하지 않아도 환해진다.”¹⁰³⁾라고 하여, 《논어》·《맹자》로 학문의 근본을 세울 것을 권하였다. 그리하여 四書を 읽는 순서도 “배우는 자는 《논어》·《맹자》 먼저 읽어야 하니, 《논어》·《맹자》를 궁구하면 저절로 요약된 곳이 있을 것이다. 이로써 다른 경서를 보면 크게 힘을 줄일 수 있다. 《논어》·《맹자》는 丈尺·權衡과 같으니, 이로써 사물을 헤아리면 자연히 長短과 輕重을 알 수 있다. 나는 일찍이 배우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반드시 《논어》·《맹자》를 먼저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¹⁰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주희가 《대학》-《논어》-《맹자》-《중용》의 순서로 독서할 것을 권한 것과 차이가 있다.

정호는 《대학》에 대해 “《大學》은 孔氏가 남긴 글이니, 모름지기 그 내용을 따라 배우면 학문이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¹⁰⁵⁾라고 하여, 《대학》을 공자 문하에서 전해진

100) 上同, 347쪽 참조.

101) 上同, 381~394쪽 참조.

102) 上同, 380쪽 참조.

103)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3》, 전통문화연구회, 2020, 258쪽 참조.

104)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2》, 전통문화연구회, 2019, 290쪽 참조.

105)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1》, 전통문화연구회, 2018, 159쪽 참조.

책으로 보았다. 한편 정이는 “德에 들어가는 문은 《大學》만 한 것이 없다.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이 한 편의 글이 남아있는 것에 의지하면 된다. 그 외에는 《論語》·《孟子》만 한 것이 없다.”¹⁰⁶⁾라고 하여, 《대학》을 ‘入德之門’으로 평하였다. 그리고 《논어》·《맹자》보다 더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후대 주희는 이런 二程의 해석을 계승하여 《대학》을 학문의 규모가 모두 들어 있는 책으로 가장 먼저 읽어 학문의 규모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학문의 규모는 格物·致知의 진리 탐구[知], 誠意·正心·修身的 심성 수양 실천[行], 齊家·治國·平天下의 지식과 덕성을 주변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推行을 말하는 것이다.

정이는 문인 尹焞에게 “《중용》은 공자 문하에서 心法을 전수한 글이다.”¹⁰⁷⁾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중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이를 이어 후대 주희는 〈中庸章句序〉에서 ‘子思가 공자의 도가 失傳될까를 우려하여 《중용》을 지었다’고 하였다.

二程의 四書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四書を 처음으로 중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대학》·《중용》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二程의 사서에 대한 견해는 후대 주희가 四書 체계를 정립하는 데 기초를 놓았다.

Ⅳ. 조선 전기 《近思錄》을 통한 二程 학습

1. 《近思錄》의 편찬과 구성

《근사록》은 1175년 여름 朱熹가 呂祖謙과 함께 寒泉精舍에서 周敦頤·二程·張載의 遺文을 읽으면서 초학자들에게 유용한 大體에 관계되고 日用에 절실한 문장을 가려 뽑아 편찬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周敦頤·張載·程顥·程頤의 道學 또는 理學을 배우는 入門書라고 할 수 있다. ‘近思錄’이라는 冊名은 《論語》〈子張〉에 보이는 “子夏曰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矣”에서 취한 것이다. ‘近思’에 대해 程顥는 ‘以類而推’라고 하여, ‘그 내용을 일상에서 유형별로 미루어 헤아리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주희는 “四書는 六經의 階梯이고, 《근사록》의 四書의 階梯이다.”¹⁰⁸⁾라고 하여, 《근사록》을 사서로 나아가는 계단으로 인식하였다. 주희와 여조겸이 편찬한 《근사록》은 문인에서 문인으로 전해지며 주석서가 나오는데, 陳淳(北溪陳氏)의 문인 葉采가 1248년에 편찬한 《近思錄集解》가 가장 널리 유행하였다. 주희와 여조겸이 처음 만든 《근

106)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3》, 전통문화연구회, 2020, 111쪽 참조.

107) 최석기·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4》, 전통문화연구회, 2021, 215~216쪽 참조.

108) 葉采, 《近思錄集解》, 〈近思錄集解序〉. “朱子曰 四子 六經之階梯 近思錄 四子之階梯”

사록》과 후대 섭채가 만든 《근사록집해》의 篇題와 조항 및 주희가 구분한 강령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차	朱子分卷篇題	조항 수	朱子區分綱領(序)	葉采《近思錄集解》篇題
권1	道體	51	求端	道體
권2	爲學大要	111	用力	爲學
권3	格物窮理	78		致知
권4	存養	70		存養
권5	改過遷善 克己復禮	41	處己	克己
권6	齊家之道	22		家道
권7	出處進退辭受之義	39		出處
권8	治國平天下之道	25	治人	治體
권9	制度	27		治法
권10	君子處事之方	64		政事
권11	教學之道	21		教學
권12	改過及人心疵病	33		警戒
권13	異端之學	14	辨異端	辨異端
권14	聖賢氣象	26	觀聖賢	觀聖賢
계		622		

《근사록》에는 총 622조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작자 및 출전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도표와 같다.

작자 / 출전			조항 수	전체 조항 수
周敦頤	太極圖說, 通書		10	12
	遺文		1	
	附錄		1	
二程	遺書		296	362
	外書		50	
	經說	易說	1	
		書說	2	
		詩說	3	
		春秋說	1	
		論語說	9	
二程	程顥	文集	文集	8
			附錄	
			哀詞	

	程頤	文集	文集	22	23
			手帖	1	
		程頤	周易程氏傳		106
張載		文集	文集	19	111
			行狀	4	
		正蒙		28	
		經說	易說	8	
			詩說	2	
			禮樂說	1	
			樂說	1	
			禮記說	2	
			論語說	2	
			孟子說	7	
		語錄	語錄	36	
	雜說		1		
계				622	

위의 도표에 보이듯, 《근사록》에는 周敦頤의 설이 12조, 二程의 글이 499조, 張載의 글이 111조이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周敦頤의 글 1.9%, 二程의 글 80.2%, 張載의 글 17.8%이다. 그러니까 《근사록》은 二程의 글이 80% 이상으로 二程의 理學을 위주로 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二程의 글은 遺書·外書·經說이 362조, 文集이 31조, 易傳이 105조로 문집에서 뽑은 글이 월등히 적다. 이는 二程이 詩文을 거의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조선 전기 《근사록》의 유입과 학습

《근사록》이 우리나라에 언제 유입되었는지 알 수 없다. 南宋이 1279년에 망하고 원나라가 들어섰는데, 이 시기는 고려 忠烈王 때이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고려 말 원나라 수도 북경을 통하여 당대 유행하던 宋學을 수입하였는데, 1248년 葉采가 만든 《근사록집해》가 원나라 수도 북경에서 곧바로 유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니, 忠肅王·忠惠王·忠穆王·恭愍王 대에 북경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간행한 최초의 판본은 1370년(공민왕 19) 晉州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보고 있으니¹⁰⁹⁾, 1370년경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에는 《근사록》에 대해 언급한 것이 없다. 단지 고려 말 李穡(1328~1396)

109) 송희준, 〈朝鮮朝《近思錄》註釋書의 史的 展開〉, 宋熹準 編, 《近思錄註解總編一》, 학민문화사 영인.

이 지은 〈養眞齋記〉에 ‘周子作太極圖 亦曰無極而太極’이라는 문구가 보이고¹¹⁰⁾, 이색이 지은 金子粹의 字說 〈純仲說〉에 周敦頤가 말한 ‘士希賢 賢希聖 聖希天’이라는 문구가 보이는데¹¹¹⁾ 점으로 미루어, 이색이 《근사록》을 보았을 것으로 추정할 따름이다.

세종 즉위년인 1418년 金益精이 經筵에서 《근사록》을 강하기 청한 기록¹¹²⁾이 최초로 보이는 《근사록》 관련 언급이다. 세종은 許稠의 요청을 받아들여 1436년 《근사록》을 간행하여 보급하였는데, 權近·卞季良·金汝 등의 발문이 있다. 1439년에 별세한 좌의정을 지낸 許稠의 卒記에 ‘四書·《소학》·《근사록》·성리서·《名臣言行錄》등을 좋아했다’고 하였으며¹¹³⁾, 1450년 文宗과 知經筵事 金宗瑞 사이에 《근사록》의 내용을 문답한 기록이 있는¹¹⁴⁾ 것으로 보아, 조선 전기 문관 학자들이 四書·《소학》과 함께 《근사록》을 중시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종실록》에는 경연에서 《근사록》을 강한 기사가 다섯 번 보이는데, 四書와 거의 동등하게 인식한 점이 눈에 띈다.

端宗과 世祖 때에는 정국의 혼란으로 경연에서 《근사록》을 강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成宗朝에 도승지 玄碩圭가 《근사록》을 조종조에서 留意하였다고 아뢰었고¹¹⁵⁾, 1483년 《근사록》을 강했다는 기록이 다시 나타난다.¹¹⁶⁾

개인적으로는 15세기 전반에 활동한 孫肇瑞가 《심경》·《근사록》을 좋아하여 손에 놓지 않고 밤낮으로 연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¹¹⁷⁾ 손조서는 金宗직·박팽년 등과 교유한 인물로 1435년 문과에 합격하여 예문관 검열, 집현전 학사 등을 지냈는데, 1455년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은거한 인물이다.

다음 세대 南孝溫(1454~1492)은 智異山을 유람하면서 화엄사에서 崔忠成(1458~1491) 등과 밤에 《소학》·《근사록》을 강론했다는 기록이 보인다.¹¹⁸⁾ 金宗직의 문인으로 《소학》을 중시한 도학 계열의 학자로는 金宏弼(1454~1504)·鄭汝昌(1450~1504)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갑자사화에 화를 당해 기록이 거의 없지만, 남효온·최충성처럼 《소학》·《근사록》을 중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15세기 후반 주로 金宗직 문하 도학 계열 학자들이 《소학》·《근사록》을 중시해 학습하며 송대 사대부의 정신과 자세를 익힌 듯하다.

110) 李穡, 《牧隱文藁》 권3, 〈養眞齋記〉.

111) 李穡, 《牧隱文藁》 권10, 〈純仲說〉.

112) 《世宗實錄》 권2, 世宗 즉위년 11월 13일.

113) 《世宗實錄》 권87, 世宗 21년 12월 28일.

114) 《文宗實錄》 권3, 文宗 즉위년 8월 11일.

115) 《成宗實錄》 권72, 成宗 7년 10월 8일.

116) 《成宗實錄》 권158, 成宗 14년 9월 11일.

117) 孫肇瑞, 《格齋集》附錄 권2, 鄭宗魯 撰, 〈墓碣銘并序〉.

118) 南孝溫, 《秋江集》 권6, 〈智異山日課〉.

中宗朝에는 《근사록》 강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516년(중종 11) 10월 8일 夕講에서 검토관 趙光祖(1482~1519)가 ‘《근사록》은 학문에 가장 긴절하니 더 진강해야 한다’고 아뢰었고¹¹⁹⁾, 동일 夜對에서 金安國(1478~1543)과 奇遵(1492~1521)도 《근사록》의 중요성을 거듭 아뢰었으며¹²⁰⁾, 10월 13일 임시 경연에서 蔡忱(1481~1525)·奇遵·柳庸謹(1485~1928)도 ‘《근사록》을 더욱 강마해야 한다’고 아뢰었다.¹²¹⁾ 또 1518년(중종 13) 6월 경연에서 홍문관 부제학 趙光祖, 정자 李認(1486~?), 승지 金正國(1485~1541)이 입시하여 《근사록》을 강했다는 기록이 보이며¹²²⁾, 權櫟(1478~1548)은 《근사록》·《自警編》¹²³⁾을 더욱 좋아하였다고 한다.¹²⁴⁾ 이를 통해 볼 때, 중종 때 조광조·김안국·김정국·권별·기준 등 사림파 학자들이 《근사록》을 중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6세기 전반 사림파 학자들에게서 본격적으로 중시되기 시작한 《근사록》은 16세기 중반 李滉(1501~1570)·曹植(1501~1572) 등 사화기의 도학자들 사이에서 더욱 중시되어 사서에 버금가는 서적으로 널리 읽혔다. 이황은 趙穆에게 답한 편지에서는 ‘《心經》이 四書·《근사록》과 존중되는 점이 거의 같다’고 하였으며¹²⁵⁾, 鄭述에게 답한 편지에서는 “보내준 편지에 ‘근래 《근사록》·주자서를 읽는데 그 완미하는 기쁨이 예전과 같다’고 하였으니, 매우 좋습니다.”라고 하였다.¹²⁶⁾ 이를 보면 당시 《근사록》을 중시하여 정밀히 독서하고 있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조식은 문인 김우옹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닷가 집 책장 속에 푸른 표지의 《근사록》 작은 책자가 있는데, 그 책을 가져다 숙독하며 사색하게. 한스러운 것은 자네와 마주하고 몇 달 동안 서로 강마할 수 없는 것일세.”¹²⁷⁾라고 하였으며, 문인 鄭仁弘이 지은 〈行狀〉에 “선생은 항상 《논어》·《맹자》·《중용》·《대학》·《근사록》 등을 연역하여 근본을 배양하고 지취를 넓히셨는데, 그 가운데 자신에게 절실한 대목에 나아가 더욱 玩味하고 그 문구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다.”¹²⁸⁾라고 하였다.

119) 《中宗實錄》 권26, 中宗 11년 11월 8일.

120) 上同.

121) 《中宗實錄》 권26, 中宗 11년 10월 13일.

122) 權櫟, 《冲齋集》 권6, 〈戊寅日記〉.

123) 《自警編》: 송나라 趙善璫가 유교경전과 선현의 글에서 발취하여 만든 심성수양서이다.

124) 權櫟, 《冲齋集》 권8 附錄, 李滉 撰, 〈有明朝鮮國 贈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 兼領經筵 監春秋館事 行崇政大夫 議政府右贊成 兼知經筵判義禁府事 權公 行狀〉.

125) 李滉, 《退溪集》 권23, 〈答趙士敬〉. “但以此經之行於今 殆與四子近思錄 同其尊用 一朝輒以己意有所改動 非徒人共駭怪 於心亦甚未安 久而未果”

126) 李滉, 《退溪集》 권26, 〈答鄭子中〉. “見喻近將近思錄朱子書讀之 其悅味猶舊 甚善甚善”

127) 曹植, 《南冥集》 권2, 〈又與肅夫書〉. “海家篋中 有青衣近思錄小帙 須取而熟思之 恨未得對與數月 琢磨相益”

128) 曹植, 《南冥集》 卷頭 鄭仁弘 撰 〈行狀〉. “常繹論孟庸學近思錄等書 以培其本 以廣其趣 就其中尤切己處 更加玩味 仍舉以告人”

동시대 安義에 살던 林薰(1500~1584)이 지은 盧禎의 行狀에도 “반평생 공력을 기울인 것 오로지 《대학》에 있었네. 항상 존신하며 애완한 것은 《논어》·《근사록》뿐이었네.”¹²⁹⁾라고 하여 《대학》·《논어》와 함께 《근사록》을 중시한 면모를 드러냈다.

盧守愼이 지은 曹植의 벗 李浚慶의 行狀에도 “공은 한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향을 피우고 단정히 앉았으며, 《소학》·《근사록》·《심경》 등을 항상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반복해 읽으며 사색하셨다.”¹³⁰⁾라고 하여, 이준경이 《근사록》을 매우 중시한 점을 드러냈다.

조식과 절친하게 지낸 宋麟壽의 〈연보〉에는 “공은 청주 사람 趙綱이 예를 갖추어 배우러 오자 《심경》·《근사록》 등을 전수했다.”¹³¹⁾고 하였으니, 송인수도 《근사록》을 중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송인수는 송시열의 종증조부로 을사사화 때 화를 당한 인물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볼 때, 16세기 중반 사림과 학자들이 四書와 함께 《근사록》·《心經》을 중시함으로써 《근사록》이 본격적으로 널리 읽힌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근사록》은 二程의 글이 80%가 넘기 때문에 16세기 조선의 학자들은 《근사록》을 통해 二程의 理學을 익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컨대 16세기 중반 사림과 학자들이 《근사록》을 통해 二程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학습하여 조선성리학의 근간으로 삼았다.

16세기 사림과 학자들이 《근사록》을 본격적으로 탐독하기 시작하면서 《근사록》에 주석서가 생산되어 조선조에 80여 종 이상의 《근사록》 주석서가 편찬되었다.¹³²⁾ 이를 보면, 이 책이 조선성리학의 토대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V. 조선 정신사에 끼친 二程의 영향

16세기 사림과 학자들 사이에서 四書와 함께 《근사록》·《심경》이 중시되면서 《심경》을 통해서는 심성수양을 통한 도덕성 제고가 사회기의 주된 관심사로 부각되었고, 《근사록》을 통해서는 二程의 理學과 經學을 학습하고 탐구하는 한편, 二程의 정신 지향을 통해 사대부의 志向과 節操을 정립하였다. 여기서는 二程의 사상이 16세기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을 간추려 고찰해 보고자 한다.

129) 林薰, 《葛川集》 권2, 〈玉溪盧公行狀〉. “半世功力 專在大學 常所尊信愛玩者 論語近思錄而已”

130) 李浚慶, 《東臯遺稿》, 附錄, 盧守愼 撰, 〈領議政贈諡忠正東臯先生李公行狀〉, “淨掃一室 焚香端坐 小學近思錄心經等書 常置案上 循環思索”

131) 宋麟壽, 《圭菴集》 권4, 附錄, 〈年譜〉. “淸州士人趙綱 執摯就學 授以心經近思錄等書”

132) 송희준, 〈朝鮮朝《近思錄》註釋書의 史的 展開〉, 宋熹準 編, 《近思錄註解總編一》, 학민문화사 영인.

첫째, 사화기에 학자들이 벼슬을 단념하고 성리학에 침잠하면서 求道的 志向을 한 점이다. 《근사록》 권2 〈爲學〉 첫머리에 “周濂溪 선생이 말씀하기를 ‘성인은 天을 희구하고, 현인은 聖을 희구하고, 士는 賢을 희구하니, 伊尹·顔淵은 大賢이다. -중략- 伊尹이 지향했던 것을 지향하고, 顔子가 배운 것을 배운다면 지나칠 경우는 聖이 되고, 그 경지에 미칠 경우는 賢이 되고, 미치지 못하더라도 아름다운 명예를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다.”¹³³⁾라고 하였듯이, 주돈이는 ‘聖 可學’을 제시하여¹³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논의를 폈다.

程頤도 이를 계승하여 “혹자가 ‘顔子가 홀로 좋아한 것은 어떤 학문입니까?’라고 묻자, 이천 선생은 ‘배워서 성인의 도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또 혹자가 ‘성인은 배워서 이를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이천 선생이 ‘그렇다’라고 답하였다.”¹³⁵⁾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돈이와 정이의 사상을 조선 시대 학자들도 계승하였다. 李滉은 “聖希天 賢希聖 士希賢의 설을 모두 폐할 수 있겠는가?”¹³⁶⁾라고 하였고, 李好閔은 “물노라. 聖은 天을 희구하고, 賢은 聖을 희구하고, 士는 賢을 희구하니, 먼저 그 표준을 정하지 않으면 힘을 쓸 터전을 삼을 길이 없을 것이다.”¹³⁷⁾라고 하였으며, 尹拯은 “賢은 聖을 희구하고 士는 賢을 희구하니, 남이 한 번에 그것을 능히 하면 나는 천 번이라도 해서 능하게 해야 한다.”¹³⁸⁾고 하였다. 이처럼 이 말은 16세기 이후 구도적 지향을 한 학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어 聖賢이 되는 학문을 꿈꾸게 하였다. 그것이 〈聖學十圖〉·《聖學輯要》등 ‘聖學’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주돈이가 말한 ‘志伊尹之志 學顔子之學’은 널리 알려져 조선 초 權近·朴彭年 등의 글에 보이며¹³⁹⁾, 16세기 조광조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조정의 대소 신료가 모두 立志를 선무로 삼아야 한다’고 아뢰기도 하였다.¹⁴⁰⁾ 한편 元代 許衡은 주돈이가

133) 朱熹·呂祖謙 編, 《近思錄》 권2, 〈爲學〉. “濂溪先生曰 聖希天 賢希聖 士希賢 伊尹顔淵大賢也 -중략- 志伊尹之所志 學顔子之所學 過則聖 及則賢 不及則亦不失令名”

134) 《近思錄》 권4 〈存養〉에 “或問 聖 可學乎 濂溪先生曰 可”라고 하였다.

135) 《近思錄》 권2, 〈爲學〉. “或問 顔子所獨好者 何學也 伊川先生曰 學以至聖人之道也 〈或問〉 聖人 可學而至歟 曰然”

136) 李滉, 《退溪集》 권41, 〈天命圖說後敘〉. “聖希天賢希聖士希賢之說 皆可廢耶”

137) 李好閔, 《五峯集》 권7, 策文, ‘問聖希天賢希聖士希賢策’. “問 聖希天 賢希聖 士希賢 不先定其標準 則無以爲用力之地”

138) 尹拯, 《明齋遺稿》 권2, 詩, 〈題李子貞-師吉-素屏〉. “聞賢希聖士希賢 人一能之我則千”

139) 權近, 《陽村集》 권33, 策題類, 〈策問題〉. “諸君子志伊尹之志 學顔子之學 以待於用久矣” 朴彭年, 《朴先生遺稿》, 文, 〈希賢堂詩後敘〉. “濂溪先生生於千載之下 上繼不傳之緒 特發希賢之論 其爲學者指南也 明矣 其言曰 志伊尹之志 學顔子之學 過則聖 及則賢 不及亦不失於令名人苟志其志學其學 是亦伊尹而已矣 是亦顔子而已矣”

140) 趙光祖, 《靜菴集》 권5, 〈筵中記事一-戊寅十月五日-〉. “志伊尹之所志 學顔子之所學也 朝廷大小臣僚 皆當以立志爲先務”

말한 이 문구를 재천명하여 “이윤의 지향에 뜻을 두고 안자의 학문을 배워서 出仕하면 큰일을 행함이 있고 退處하면 자신을 지킴이 있어야 한다. 장부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¹⁴¹⁾고 하였다. 16세기 曹植은 《성리대전》을 읽다가 이 문구를 보고 크게 깨달아 과거 공부를 접고 聖賢의 학문에 뜻을 두게 되었다.¹⁴²⁾

둘째, 聖賢의 학문에 뜻을 두고 孔子·顏回처럼 되기를 희구하여 道學이 아닌 것을 모두 玩物喪志로 여긴 점이다. 이는 조식이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둔 뒤로 안회처럼 살고자 하여 克己復禮를 통해 天德을 추구하는 것을 학문의 핵심으로 삼은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구도적 지향을 한 뒤 구도 외의 잡다한 일을 단절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二程은 그림을 구경하고 차를 마시는 것은 물론 사대부의 일상에서 필수적인 書藝·書札·節記·作詩 등을 모두 玩物喪志로 보았는데, 16세기 사림파 학자들은 二程의 영향으로 그런 지향을 하는 학자들이 나타났다.

趙光祖가 侍講官 시절 “외간에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화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거위와 오리를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외물에 마음을 빼앗기면 반드시 거기에 얽매이게 되어 끝내 道에 들어갈 방도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玩物喪志라고 하는 것입니다.”¹⁴³⁾라고 아뢴 것을 이런 지향을 알 수 있다.

16세기 도학자 曹植은 이런 二程의 영향으로 作詩를 玩物喪志로 여겨 成守琛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씀하신 四言詩에 화답한 것을 올립니다. 저는 일찍이 시를 읊조리는 것은 완물상지하는 애물단지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매양 무한히 교만하고 오만한 죄를 더하는 것이기에 시를 읊조리는 일을 폐지한 지 근 수십 년이나 됩니다.”¹⁴⁴⁾라고 하였다. 조식은 시를 짓는 일은 구도적 지향을 방해한다고 여겨 문인들에게 詩荒戒를 언급하였는데, 대표적 문인 鄭述의 경우를 보면 시를 지은 것이 거의 없다. 조식은 作詩뿐만 아니라, 花草를 완상하는 것도 완물상지로 여겨 오로지 소나무만을 주변에 심었다고 한다.

셋째, 二程이 爲學의 목표로 내세운 窮理와 盡性이 그대로 수용된 점이다. 窮理는 格物致知를 통해 明善하는 것이고, 盡性は 存心養性하는 誠身이다. 窮理는 이치를 밝혀 올바른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 盡性は 심성을 수양하여 덕성을 드높이는 것이다. 이는 도리를 알고 도리를 실천하는 爲學의 양대 목표이다.

141) 胡廣 等 編, 《性理大全書》 권50.

142) 曹植, 《南冥集》 권4, 補遺, 金宇頤 撰 〈行狀〉. “年二十五 偕友人肄學業於山寺 讀性理大全至魯齋許氏語有曰 志伊尹之志 學顏子之學 出則有爲 處則有守 丈夫當如此 先生於是 惕然警發 惘然自失 始悟從前所趣之非 而古人所謂爲己之學者 蓋如此也 遂喟然發憤 竟夜不就席 遲明揖友人而歸”

143) 趙光祖, 《靜菴集》 권3, 經筵陳啓, 〈侍讀官時啓九〉. “外間有愛馬者 有愛花草者 有愛養鵝鴨者 若馳心於外物 則必至着泥 而終無以入道 是所謂玩物喪志也”

144) 曹植, 《南冥集》 권2, 〈答成聽松書〉. “所索四言詩和上 嘗以哦詩 非但玩物喪志之尤物 於植每增無限驕傲之罪 用是廢閣諷詠 近出數十載”

조선 전기 成倪은 “窮理와 盡性 육경의 正脈을 祖述하고 옛 성인의 淵源을 거슬러 오르는 것이다.”¹⁴⁵⁾라고 하였고, 金安國은 《성리대전》을 간행한 뒤에 쓴 발문에서 “만약 窮理와 盡性, 爲己와 切實의 학문을 연구한다면 본말이 모두 구비되고 문장과 행실이 모두 성대해질 것이다.”¹⁴⁶⁾라고 하였고, 李滉은 “다만 《주역》은 《논어》·《맹자》·《대학》·《중용》이 학자의 일용공부에 절실한 것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先正 臣 중에는 혹 급히 배울 책이 아니라고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窮理·盡性の 학문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¹⁴⁷⁾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 학자들이 窮理·盡性を 학문의 목표로 삼을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정호는 天理를 밝혀 자신을 성인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經書를 辨釋하거나 技藝를 자랑하는 製述에 관심을 두지 않고 自得을 중시하였다. 이런 학문관은 16세기 도학자 曹植에게 영향을 미쳐 自得을 위주로 하는 학문관을 중시하게 하였다. 金宇頤이 지은 스승 曹植의 〈행장〉에 “선생께서는 학도를 위해 경전을 답론하고 경서를 설명하신 적이 없으셨다. 단지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돌이켜 그 본지를 스스로 터득하게 할 뿐이었다.”¹⁴⁸⁾라고 하였으니, 이정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득을 중시하는 학풍은 16세기 이황과 기대승이 四端·七情의 理發·氣發에 대해 논쟁하면서 高談性理로 경도되어 17세기 이후 思辨化되었다. 그리하여 18세기 李瀾 같은 실학자는 이런 학풍을 비판하며 다시 自得을 중시하였다.

다섯째, 下學에 근본하여 上達을 추구한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程頤는 〈明道先生行狀〉에서 “性を 극진히 하여 天命에 이르는 것은 반드시 孝悌에 근본하고, 神明을 궁구하여 造化를 아는 것은 禮樂에 통해야 함을 알았다.”라고 하였으니, 盡성과 窮理는 모두 현실의 孝悌와 禮樂 등 실제적인 일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下學人事를 통해 上達天理를 추구하는 것이다.

사화가 극심하던 16세기에 학자들이 은거하여 성리학에 잠심하다 보니, 문제의식이 생겨 李滉과 奇大升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四七論爭을 벌이면서 학계는 思辨化의 조짐이 나타났다. 이때 실전을 강조한 曹植은 이런 학계의 분위기를 심각하여 여겨 下學을 하지 않고 上達만 추구하는 학풍을 질타하였다. 그는 68세 때 선조에게 올린 〈무진봉사〉에서도 “아래로 人事를 배우는 것을 통해 위로 天理에 도달하는 것이 또한 학문에 나아가는 순서입니다. 人事를 버리고 天理를 답론하는 것은 입으로만 말

145) 成倪, 《虛白堂集》 권12, 〈與楸功書〉. “窮理盡性 祖六經之正脈 溯往聖之淵源”

146) 金安國, 《慕齋集》 권12, 〈書新刊性理大全後〉. “若更研究於窮理盡性爲己切實之學 則本末兼該 文行兩茂”

147) 李滉, 《退溪集》 권25, 〈答鄭子中〉. “但不如語孟庸學之切於學者日用工夫 故先正或以爲非學之急 其實莫急於窮理盡性之學也”

148) 曹植, 《南冥集》 권5, 附錄, 金宇頤 撰 〈行狀〉.

하는 이치이며, 자신에게 돌이키지 않고 견문과 지식을 많이 추구하는 것은 귀로만 듣는 학문입니다.”¹⁴⁹⁾라고 하였다. 조식은 만년에 이황에게 편지를 보내 일상의 실천을 등한시하고 입으로 천리를 담론하는 학풍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일상에서 실천을 중시한 그의 학문정신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二程에게서 영향을 받은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여섯째, 《대학》과 《중용》을 중시하여 학문의 중심에 둔 점이다. 程顥와 程頤 모두 《예기》의 한 편으로 들어있던 〈大學〉에 대해, 錯簡되었다는 관점에서 편차를 개정하여 논리구조를 새롭게 하는 해석을 하였다. 또한 《예기》에 들어 있던 〈中庸〉에 대해, 성현의 도가 들어있는 글로 여겨 그 본旨를 드러내는 해석을 시도하였고, 그 영향이 문인에게 미쳐 〈中庸〉을 중시하며 여러 해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정은 《대학》·《중용》과 함께 《논어》·《맹자》를 중시하였는데, 이는 후대 주희가 四書 체계를 정립하는 데 토대가 되었다. 사서 체계는 孔子-曾子-子思-孟子로 이어지는 道統의 전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를 통해 공자가 편수한 六經의 본旨를 탐구하려 한 것이다. 주희는 二程의 이런 경학관을 계승하여 사서 체계를 수립하면서 《대학》·《중용》의 해석에 일생의 정력을 기울여 신유학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러한 程朱의 四書を 중시하는 학문관, 나아가 《대학》·《중용》의 해석을 통해 爲學의 체계를 수립한 경학관은 조선 시대 학자들에게 그대로 수용되어 학문이 사서를 중심에 둘 뿐만 아니라, 사서 가운데서 《대학》과 《중용》에 대한 탐구가 심화 발전되었다.

일곱째, 天德을 추구하는 內聖을 바탕으로 경세제민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外王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였다는 점이다. 二程은 천덕·왕도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인물이다. 二程은 “성현이 天德을 논한 것은 대개 자기가 본래 타고난 완전하고 충만한 것을 말한 것이다.”¹⁵⁰⁾라고 하였고, 또 “마음에 극진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곧 天德을 극진하게 할 수 없으니, 무엇을 인하여 性을 알고 天을 알겠는가.”¹⁵¹⁾라고 하였으니, ‘마음에 본성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마음을 극진히 해 본성을 알아야 한다’는 盡心知性을 말한 것이다.

二程은 “天德이 있어야 王道를 말할 수 있으니, 그 요점은 慎獨에 달려있을 뿐이다.”¹⁵²⁾라고 하였고, 또 “천덕이란 하늘에서 받은 것이 온전하지 않음이 없음을 말한다. 만일 더럽혀지거나 무너짐이 없으면 덕을 곧게 하여 행하고, 혹 더럽혀지거나 무너짐이 있으면 마음을 공경히 하여 그것을 회복한다.”¹⁵³⁾고 하였고, 또 “敬·義를 함께 지

149) 曹植, 《南冥集》 권2, 〈戊辰封事〉. “由下學人事 上達天理 又其進學之序也 捨人事而談天理 乃口上之理也 不反諸己而多聞識 乃耳底之學也”

150) 《二程全書》 권1, 《遺書》, 〈二先生語一〉. “聖賢論天德, 蓋謂自家元是天然完全自足之物.”

151) 《二程全書》 권6, 《遺書》, 〈二先生語五〉. “心有不盡處 便是天德處未能盡 何緣知性知天”

152) 《二程全書》 권15, 《遺書》, 〈明道先生語四〉. “有天德 便可語王道 其要只在慎獨”

키면 곧장 위로 올라가 天德에 통달함이 이로부터 시작된다.”¹⁵⁴⁾라고 하여, 天德을 추구하기 위한 공부로 敬·義를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二程은 본성을 밝혀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순수하고 전일한 것을 天德으로 보고, 수신의 방법으로 慎獨·敬義를 제시하였으며, 天德을 바탕으로 한 王道를 말하였다. 이런 이정의 사상은 조선 중기 학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曹植의 〈神明舍圖〉에는 太一君 앞에 天德·王道를 제시하여 임금 또는 학자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목표로 보았다. 이는 그가 추구한 학문이 天德을 통해 王道를 실현하는 데 있음을 드러난 것이다. 그는 또 1568년에 올린 〈戊辰封事〉에서 “안으로 存心하여 慎獨하는 것이 天德이고, 밖으로 省察하여 力行하는 것이 王道입니다.”¹⁵⁵⁾라고 하여, 천덕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存心과 慎獨을 제시하고, 왕도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省察과 力行을 제시하였다. 이는 王道가 왕도정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성수양을 통한 도덕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또한 벼슬하지 않고 은거하여 학문에 전념하더라도 天德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늘 王道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사대부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程顥가 지은 〈下山偶成〉에 “우리 유자들이 경세제민을 근본으로 삼지 않는다면 한 가로이 노닐면서 어찌 산을 나가려고 하겠는가.[不是吾儒本經濟 等閑爭肯出山來]”라고 노래한 것을 보면, 비록 脫俗의 志趣가 있더라도 經世濟民의 本分을 잊지 않고자 하는 사의식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의식은 조선 시대 士人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曹植의 문인 成汝信은 쌍계사 쪽을 유람하고 돌아와 쓴 〈方丈山仙遊日記〉에서 “士의 一身은 經濟를 그의 계책으로 하고, 士의 一心은 兼善을 그의 뜻으로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산에 어찌 들어갈 수 없겠으며, 신선을 어찌 배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¹⁵⁶⁾라고 하여, 士의 本分이 經世濟民과 與人兼善에 있음을 상기하고 있다.

조선 시대 학자들은 程顥가 젊어서 자연에서 生意를 체득하고자 한 정신을 노래한 〈偶成〉에서 ‘訪花隨柳過前川’이라고 노래한 것을 추종하여 산수가 좋은 곳에 정자를 짓고 그 이름을 ‘訪花隨柳亭’, ‘訪隨亭’, ‘過川亭’ 등으로 명명하였으며, 그런 시내를 ‘訪花川’이라 하였다, 그 대표적인 정자가 수원 화성에 있는 ‘訪花隨柳亭’이며, 함양 군 안의면 花林洞 居然亭 앞의 시내를 ‘訪隨川’이다.

또 程頤가 황제를 輔導하는 교육을 강조한 점, 조정에서 벼슬할 적에 철저히 공적

153) 《二程全書》 권41, 《二先生粹言》, 〈心性篇〉. “子曰, 天德云者 謂所受於天者 未嘗不全也 苟無汚壤 則直行之耳 或有汚壤 則敬以復之耳”

154) 《二程全書》 권6, 《遺書》, 〈二先生語五〉. “敬義夾持 直上達天德自此.”

155) 曹植, 《南冥集》 권2, 〈戊辰封事〉. “存心於內而謹其獨者 天德也 省察於外而力其行者 王道也”

156) 成汝信, 《浮查集》 권5, 〈方丈山仙遊日記〉. “士之一身 經濟其策 士之一心 兼善其志 不然山何可不入 仙何可不學”

인 태도를 취한 점, 學制를 바꾸어 실질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한 점 등은 조선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참고문헌>

1. 중국 자료

- 《孟子》, 《書經》, 《宋史》, 《二程全書》
 戴震, 《孟子字義疏證 上》, 上海古籍出版社, 1980.
 黎靖德, 《朱子語類》
 謝良佐, 《上蔡語錄》
 葉采, 《近思錄集解》
 熊節 編,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
 程頤, 《周易程氏傳》
 周敦頤, 《通書》
 朱熹, 《朱子全書》, 上海古籍出版社, 2002.
 朱熹, 《中庸章句》
 朱熹·呂祖謙, 《近思錄》
 胡廣 等 編, 《性理大全書》
 胡廣 等編, 《中庸章句大全》
 黃宗羲, 《宋元學案》

2. 한국 자료

- 權近, 《陽村集》
 權櫟, 《冲齋集》
 金安國, 《慕齋集》
 南孝溫, 《秋江集》
 李穡, 《牧隱文藁》
 李浚慶, 《東皐遺稿》
 李好閔, 《五峯集》
 李滉, 《退溪集》
 林薰, 《葛川集》
 成汝信, 《浮查集》

成倪, 《虛白堂集》

孫肇瑞, 《格齋集》

宋麟壽, 《圭菴集》

尹拯, 《明齋遺稿》

趙光祖, 《靜菴集》

曹植, 《南冥集》

《文宗實錄》, 《成宗實錄》, 《世宗實錄》, 《中宗實錄》

3. 연구 논저

石訓 等著, 《北宋哲學史》, 河南人民出版社, 1987.

송희준, 〈朝鮮朝 《近思錄》 註釋書의 史的 展開〉, 宋熹準 編, 《近思錄註解總編一》, 학민문화사 영인.

張德麟 지음, 박상리 · 이경남 · 정성희 옮김, 《정명도의 철학》, 예문서원, 2004.

張立文 主編, 《中國學術通史-宋元明卷》, 人民出版社, 2004.

張立文, 《宋明理學研究》 人民出版社, 2002.

陳來 지음, 안재호 옮김, 《송명성리학》, 예문서원, 2011,

4. 번역서

최석기 · 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1》, 전통문화연구회, 2018.

최석기 · 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2》, 전통문화연구회, 2019.

최석기 · 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3》, 전통문화연구회, 2020.

최석기 · 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4》, 전통문화연구회, 2021.

최석기 · 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5》, 전통문화연구회, 2022.

최석기 · 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6》, 전통문화연구회, 2023.

최석기 · 강도현 역주, 《譯註 二程全書7》, 전통문화연구회, 2025.

《설문해자》에 나타난 문자 용어의 실상과 국역 -段玉裁 注를 중심으로-

李 忠 九
(본회 책임연구원)

- I 서론
- II 문자 용어의 실상과 국역
 - 1. 직음(直音)의 변형
 - 2. 독약(讀若) 독여(讀如)와 독위(讀爲) 독왈(讀曰)
 - 3. 지언(之言) 지위언(之爲言)
 - 4. 동자(同字) 주석(註釋)
 - 5. 당위(當爲) 당작(當作)
 - 6. 가차(假借)
- III 결론

I. 서론

본고는 문자 용어의 실상을 제시하고 그 국역을 살펴봄으로써, 국역의 정확한 표현을 추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한문에는 문자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문자서(文字書), 그중에서도 후한(後漢) 허신(許慎)의 저술 《설문해자(說文解字)》(이하 《설문》)는 이 분야의 원조(元祖)로서 가장 중시되었다. 그리고 《설문》의 여러 주석서 중에서도 청(淸) ‘단옥재(段玉裁)의 주석서(注釋書)’(이하 ‘〈단주(段注)〉’)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점을 주시하고, 《설문》〈단주〉본(本)에 쓰인 문자 용어를 제시하며 그 국역을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경서(經書) 등에서 각 용어가 쓰인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그 국역도 살펴보려 한다.

문자 용어는 매우 많다. 이들 중 중요한 용어가 학계에 널리 소개되지 않았거나 국역에 당면하여 유념할 점이 있는 몇 가지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동자(同字) 주석(註釋)’의 “관(觀, 누관(樓觀))은 ‘관(觀, 바라보다)’이다.[觀, 觀也.]”와 같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문자 용어의 의미를 살피고, 그것이 쓰인 구문(句文)을 제시하여 국역하면서 그 적의성도 논의할 것이다. 구체적 작업으로는 직음(直音)의 변형, 독약(讀若) 독여(讀如)와 독위(讀爲) 독왈(讀曰), 지언(之言) 지위언(之爲言), 동자(同字) 주석(註釋), 당위(當爲) 당작(當作), 가차(假借)를 다룬다.

이상의 문제들은 현재 한문 번역서에서 온당하게 번역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 점에서 본고의 작업이 이루어지면 극히 일부나마 문자 용어 번역의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겠고, 따라서 한문의 정확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문자 용어의 실상과 국역

1. 직음(直音)의 변형

직음(直音)¹⁾은 ‘어느 한자를 동음(同音)의 단자(單字)로 주음하는 방법’이다. 이때 피주음자(被注音字, 표제자)와 주음자(注音字, 설명자)는 동일음(同一音)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열(說)은 음이 열(悅)이다.[說, 音悅.]《論語》〈雍也〉“子路不說(열).”〈集註〉
- 세(說)는 음이 세(稅)이다.[說, 音稅.]《孟子》〈盡心下〉“說(세)大人則貓之.”〈集註〉
- 사(食)는 음이 사(嗣)이다.[食, 音嗣.]《孟子》〈盡心上〉“食(사)而弗愛.”〈集註〉
- 승(勝)은 음이 승(升)이다.[勝, 音升.]《孟子》〈梁惠王上〉“穀不可勝用也,……魚鼈不可勝食也.”〈集註〉
- 조(朝)는 음이 조(潮)이다.[朝, 音潮.]《孟子》〈梁惠王上〉“皆欲立於王之朝”〈集註〉
- 역(斲)은 음이 역(亦)이다.[斲, 音亦.]《詩經》〈周南 葛覃〉“爲絺爲綌 服之無斲”〈集傳〉

열(說)은 열(悅)에 의해 ‘기쁘다’, 세(說)는 세(稅)에 의해 ‘유세(遊說)하다’, 사(食)는 사(嗣)에 의해 ‘먹이다’, 승(勝)은 승(升)에 의해 ‘모두’, 조(朝)는 조(潮)에 의해 ‘조정’, 역(斲)은 역(亦)에 의해 ‘싫다’로 국역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직음을 변형한 표음 방법’으로, ‘직음과 동음(同音)이 되 성조(聲調)가 다른 한자로 바뀌어 주음(注音)하는 방법’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직음(直音)의 변형’이라고 하겠다.

직음(直音)의 변형에 대하여 왕력(王力)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直音과 매우 흡사한 또 다른 注音法이 있는데, 이는 바로 직음과 同音이 되 聲調가 다른 字로 注音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刀’字는 《康熙字典》에 “到平聲(到字의 平聲이다)”이라 注音되어 있다. ‘刀’는 平聲字이고 ‘到’는 去聲字이므로, 단지 ‘음到(음이 到이다)’라고만 말하면 부정확한 것으로, 반드시 ‘到’字의 성조를 바꾼 다음에야 ‘刀’字의 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注音法은 진보한 것인데, 왜냐하면 알기 어려운 字로 常用字를 注音하는 것(예컨대 ‘刀’音은 ‘劊’이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결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성조를 바꾼 다음에야 비로소 읽어야 할 字의 음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²⁾

1) 직음(直音): 魏孫炎因創爲反語之法, 以兩字定一音, 爲直音一字差易, 反切兩音難混也. (注) 字下 注音某者, 名直音.《經解入門》〈說經必先知音韻〉(《中文大辭典》‘直音’條再引用))

《설문해자》(이하 《설문》) 및 제서(諸書)에서는 모평성(某平聲), 모상성(某上聲), 모거성(某去聲), 모입성(某入聲)의 사성(四聲)으로 표현되어 있다. 《설문》에 나타난 직음의 변형을 성조별로 하나씩 제시한다.

- 기(機)는 기(機)의 평성(平聲)과 같이 읽는다.[讀若機平聲](木部 机(機)字 段注)
- 표(鵬)는 음이 표(瓢)의 상성(上聲)과 같다.[鵬. 音如瓢上聲](目部 鵬(丑)字 段注)
- 봉(葑)은 봉(封)의 거성(去聲)이다.[葑, 封去聲.](艸部 苳(高)字 段注)
- 역(役)은 지부(支部)에 있으니 바로 영(穎)의 입성(入聲)이다.[役在支部, 即穎之入聲.](禾部 稷(수)字 段注)

‘기(機)는 기(機)의 평성’은 기(機)의 음을 기(機)에서 성(聲, ㄱ)만 취하고 그 나머진 운(韻)은 평성으로 하는 것이다. 기(機)는 상성이므로 평성인 기(機)와 운(韻)이 달라 기(機)의 성조를 평성으로 바꾸어야 기(機)의 음을 얻을 수 있다.

‘표(鵬)는 표(瓢)의 상성’은 표(鵬)의 음을 표(瓢)에서 성(聲, ㅍ)만 취하고 그 나머진 운은 상성으로 하는 것이다. 표(瓢)는 평성이므로 상성인 표(鵬)와 운이 달라 표(瓢)의 성조를 상성으로 바꾸어야 표(鵬)의 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봉(葑)은 봉(封)의 거성’은 봉(葑)의 음을 봉(封)에서 성(聲, ㅂ)만 취하고 그 나머진 운은 상성으로 하는 것이다. 봉(封)은 평성이므로 거성인 봉(葑)과 운이 달라 봉(封)의 성조를 거성으로 바꾸어야 봉(葑)의 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역(役)은 영(穎)의 입성’은 역(役)의 음을 영(穎)에서 취하고 그 나머진 운은 입성으로 하는 것이다. 영(穎)은 상성이므로 입성인 역(役)과 운이 달라 영(穎)의 성조를 입성으로 바꾸어야 역(役)의 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상 ‘기 기평성(機 平聲)’, ‘표 표상성(鵬 上聲)’, ‘봉 봉거성(葑 去聲)’, ‘역 영입성(役 穎入聲)’은 평·상·거·입성 사성 중의 하나인 평성 등을 제시할 뿐이지, 평성 안에서의 특정 운(韻)이 어느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위의 직음 표시 “열 음열(說音悅)”에 의한 성(聲)과 운(韻)을 모두 알 수 있는 것만은 못한 것이다.

직음의 변형이 경서(經書) 등에 표시된 실상을 살펴본다.

- 선(洗)은 선(先)의 상성이다.[洗, 先上聲.](《孟子》〈離婁上〉‘不能正五音’〈集註〉‘姑洗’〈大全〉)
- 완(剗)은 완(玩)의 평성이다.[剗, 玩平聲.](《詩經》〈小雅 彤弓〉‘中心貺之’〈集傳〉‘至有印剗而不忍予者.’〈大全〉)
- 忒(特)은 특(特)의 입성이다.[忒, 特入聲.](《書經》〈洪範〉‘民用僭忒.’〈集傳〉)
- 담(紇)은 탐(貪)의 상성이다.[紇, 貪上聲.](《古今列女傳》권2 〈周列國〉‘王后親織玄紇’〈注〉)

○ 라(裸)는 라(羅)의 상성이다.[裸, 羅上聲.]《康熙字典》辨似 二字相似)

○ 촌(寸)은 조(措)와 곤(困)의 반절이다. 촌(村)의 거성이다.[寸, 措困切. 村去聲.]《形字典》³⁾)

‘선(洗)은 선(先)의 상성’은 《한사전》⁴⁾에 “洗, 蘇典切, 上銑, 心.”으로, 선(洗)의 성조를 상성이라고 하고, 의미를 《강희자전》에 ‘음률 이름[律名]’⁵⁾이라고 하였다. 선(先)은 평성이고 성모(聲母)가 심(心)으로 선(洗)과 같다.⁶⁾ 이는 반절하자(反切下字) ‘전(典)’ 부분을 ‘상성’으로 대치한 것이다. 전(典)은 206운목(韻目)의 선운(銑韻)에 속하는 반절하자를 제시한 것이고, 상성은 평·상·거·입성의 4성조(聲調) 분류이어서 206운목보다는 덜 정확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이하 같다.

‘완(剏)은 완(玩)의 평성’은 《한사전》에 “剏, 五丸切, 平桓, 疑. 削去棱角.”으로, 완(剏)의 성조를 평성이라고 하고, 의미를 ‘〈도장의〉 모서리가 닳다[削去棱角]’라고 하였다. 완(玩)은 거성이고 성모가 의(疑)로 완(剏)과 같다.

‘특(忒)은 특(特)의 입성’은 《한사전》에 “忒, 他德切, 入德, 透. 邪惡.”으로, 특(忒)의 성조를 입성이라고 하고, 의미를 ‘사악하다[邪惡]’라고 하였다. 특(特)은 입성이고 성모가 정(定)인데, 특(忒)의 성모 투(透)와 함께 설두음(舌頭音)에 속한다.⁷⁾

‘담(統)은 탐(貪)의 상성’은 《한사전》에 “統, 都敢切. 上敢, 端. 冠冕上用以繫瑱的絲繩.”으로, 담(統)의 성조를 상성이라고 하고, 의미를 ‘관면(冠冕)에 귀막이 옥을 다는 끈[冠冕上用以繫瑱的絲繩.]’이라고 하였다. 탐(貪)은 평성이고, 성모가 투(透)인데, 담(統)의 성모 단(端)과 함께 설두음에 속한다.⁸⁾

‘라(裸)는 라(羅)의 상성’은 《한사전》에 “裸, 郎果切, 上果, 來. 露體”로, 라(裸)의 성조를 상성이라고 하고, 의미를 ‘몸을 드러내다[露體]’라고 하였다. 라(羅)는 평성이고, 성모가 래(來)로 라(裸)와 같다.

‘촌(寸)은 촌(村)의 거성’은 《한사전》에 “倉困切, 去願, 清. 長度名. 十分爲寸.”으로, 촌(寸)의 성조를 거성이라고 하고, 의미를 ‘길이 명칭. 10분(分)이 촌(寸)이 된다.[長度名. 十分爲寸.]’라고 하였다. 촌(村)은 평성이고, 성모가 청(淸)으로 촌(寸)과 같다.

이러한 직음의 변형은 자음(字音)의 운(韻) 부분을 평·상·거·입 4성(聲)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견지에서 살펴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직음의 변형은 모든 자전이 표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당면했을 경우에는 《강희자전》·

3) 《形字典》: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의 약칭.

4) 《한사전》: 《漢語大詞典》의 약칭.

5) 선(洗)은……음률 이름[律名]: 《한사전》에는 해당 의미가 제시되지 않았고, 《康熙字典》에 “洗, 蘇典切, 音銑. 又姑洗, 律名. 洗者, 鮮也.”라고 하여, 洗은 의미가 ‘律名’, ‘鮮’으로 제시되었다.

6) 先, 《古今韻會舉要》蘇典切, 上銑.(《한사전》)

7) 《中國聲韻學通論》, 76면. ‘41聲類發音表’ 참조.

8) 《中國聲韻學通論》, 76면. ‘41聲類發音表’ 참조.

《형자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독약(讀若) 독여(讀如)와 독위(讀爲) 독왈(讀曰)

‘독약(讀若)’은 ‘○와 같이 읽는다’라는 훈고(訓詁) 용어로, ‘독여(讀如)’와 같다. 음동(音同)·음근(音近)의 한자로 주음(注音)하는 방식인데, 반절(反切) 이전부터 사용된 것이다. 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독위(讀爲)’·‘독왈(讀曰)’과 함께 설명한다. ‘讀爲’는 ‘○로 읽는다’라는 훈고 용어로 ‘讀曰’과 같은데, 본자(本字, 註釋字, 說明字)로 가차자(假借字, 被註釋字, 標題字)를 풀이하는 방식이다.

〈단주〉에서는 시부(示部) 취(夔, 제사를 거듭 지내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취(夔)는〉 보리를 찢는데 거듭 찢는다는 취(夔)의 취(夔)와 같이 읽는다. (대체로 “독약(讀若)”이라고 말한 것은 모두 그 음과 유사한 것이고, 대체로 전(傳)과 주(注)에서 “독위(讀爲)”라고 말한 것은 모두 그 글자를 바꾸는 것이다. 경(經)에 주(注)를 달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겸하기 때문에 ‘讀爲’라고 한 경우가 있으며 ‘讀若’이라고 한 경우가 있다. ‘讀爲’는 또 독왈(讀曰)이라고도 하였으며, ‘讀若’은 또 독여(讀如)라고도 하였다. 자서(字書)에서는 단지 그 본자(本字)와 본음(本音)만 말하였기 때문에 ‘讀若’만 있고 ‘讀爲’가 없다.)([讀若春麥爲夔之夔. (凡言“讀若”者, 皆擬其音也, 凡傳注言“讀爲”者, 皆易其字也. 注經必兼茲二者, 故有讀爲, 有讀若. 讀爲亦言讀曰, 讀若亦言讀如. 字書但言其本字·本音, 故有讀若, 無讀爲也.))](‘()’ 안의 밑줄 부분이 〈단주〉이고, 없는 부분은 《설문》 본문임. 이하 같음.)

호초생(胡楚生)은 ‘讀若’·‘讀如’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음(注音)’, ‘讀爲’·‘讀曰’을 ‘본자(本字)와 통가자(通假字)의 관계’⁹⁾라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讀爲’는 “습즉유반(隰則有泮, 못에는 물가가 있다.)”(《詩經》〈衛風 氓〉)의 정현(鄭玄) 전(箋)의 “반(泮)은 반(畔)으로 바꾸어 독해(讀解)한다.[泮, 讀爲畔.]”를 들었다. ‘반(泮)’은 ‘제후 학교를 두른 물’이 본의(本義)인데, 이 의미로 쓰이지 않고 ‘반(畔, 물가)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 경우 ‘泮’은 가차자이고, ‘畔’은 본자이다.

이를 정리하면 ‘讀若’은 음이 유사한 것으로, “취 독약취(夔, 讀若夔.)”는 ‘夔는 夔와 같이 읽는다’라는 뜻이고, 두 글자는 음만 유사할 뿐 의미는 관련되지 않는 것이다. ‘讀爲’는 가차로, “반 독위반(泮, 讀爲畔.)”은 ‘泮’의 음의인 본의(제후 학교를 두른 물/반)를 버리고 다른 글자인 ‘畔’(물가/반)이 되어, 결국 ‘泮’(가차자)은 ‘畔’(본자)으로 글자가 바뀌는 것이다.

독약(讀若)·독여(讀如)는 ‘……와 같이 읽는다’로 국역되는데, 《설문》과 《단주》에 나타난 실재를 살펴본다.

9) 《訓詁學大綱》, 143면.

- 산(禡, 계산하다)은 ‘밝게 보아서 계산하다’이다. 두 개의 시(示)의 의미를 따랐다. … 〈산(禡)〉은 산(筭)과 같이 읽는다.[禡, 明視呂筭之. 从二示. … 讀若筭.]
- 방(旁, 旁)은 ‘넓다’이다. 상(二, 上)을 따랐다. 결여한다. 방(方)이 소리이다.(내(단옥재)가 생각하기에 방(旁)은 방(滂)과 같이 읽으니 보(溥)와 쌍성이다.)[旁, 溥也. 从二. 闕. 方聲.(按, 旁讀如滂, 與溥雙聲.)]

‘讀若’은 ‘산(禡)은 산(筭)과 같이 읽는다.[讀若筭]’, ‘讀如’는 ‘방(旁)은 방(滂)과 같이 읽는다.[旁讀如滂]’에 보인다. 산(禡)과 산(筭), 방(旁)과 방(滂)은 각각 두 글자끼리 자음만 유사하고 자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경서에 나타난 독약(讀若)·독여(讀如)의 실재를 살펴본다.

- 준(屯)은 크게 형통하고 정(貞)함이 이롭다. 〈주(註)〉 준(屯)은 철(屮, 풀싹이 트다)이 땅[一]을 뚫음을 따랐다. 일(一, 비문)은 땅의 모양이다. 밑이 굽은 것[尾曲]은 초목이 땅에서 나오는 모양을 본떴다. 철(屮)은 철(徹)과 같이 읽으니[讀若徹], 초목이 처음 생겨나와 가지와 줄기가 있는 것이다.[屯 元亨利貞. 〈註〉 屯, 从屮貫一, 一, 地形也. 尾曲, 象艸木出土形. 屮, 讀若徹, 艸木初生有枝莖也.]《古周易訂詁》卷1 明 何楷 撰)
- 고종(高宗)이 양암(亮陰, 상중 여막(廬幕))에서 택우(宅憂, 거상(居喪)함)하기를 3년 하였다. 〈집전(集傳)〉 암(闇)은 순암(鶉鷃)의 암(鷃)과 같이 읽으니,[讀如鶉鷃之鷃] 암(闇)은 여막(廬幕)을 이른다.[王宅憂亮陰三祀. 闇, 讀如鶉鷃之鷃. 闇謂廬也.]《書經》〈說命上 集傳〉)

‘讀若’은 ‘철(屮)은 철(徹)과 같이 읽으니[讀若徹]’, ‘讀如’는 ‘암(闇)은 순암(鶉鷃)의 암(鷃)과 같이 읽으니[讀如鶉鷃之鷃]’에 보인다. 철(屮)과 철(徹), 암(闇)과 암(鷃)은 각각 두 글자끼리 자음만 유사하고 자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독위(讀爲)·독왈(讀曰)은 ‘……로 바뀌어 독해된다’로 국역되는데, 《설문》과 《단주》에 나타난 실재를 살펴본다.

- 회(膾)는 ‘가늘게 썬 고기’이다.(이른바 먼저 콩잎처럼 썰고 다시 빨리 썬 것이다. 부(報)는 속어(俗語)에서 말하는 ‘빠르다[急報]’의 부(報)이다. 대체로 가늘게 썬 것은 반드시 빠르게 칼질하는 것이다. 《예기》〈소의(少儀)〉의 정현(鄭玄) 주에 “부(報)는 부질(赴疾, 빠르다)의 부(赴, 빠르다)로 바뀌어 독해된다[讀爲]. 발(拔)과 부(赴)는 모두 ‘빠르다’이다.”라고 하였다.)[膾, 細切肉也. (所謂先藿葉切之, 復報切之也. 報者, 俗語云急報. 凡細切者, 必疾速下刀. 《少儀》注云: “報讀爲赴疾之赴. 拔·赴皆疾也.”)]
- 조(阻)는 ‘험난하다’이다. 《서경》〈요전(堯典)〉의 고문에 “백성들이 어려워 굶주렸다.”라고 했고, 정현(鄭玄) 주석에 “조(阻)는 바꾸어 독해하기를[讀曰] ‘조(阻, 어렵다)’로 한다.”라고 했다.)[阻, 險也. (堯典古文, “黎民俎饑.” 鄭注云, “俎, 讀曰阻.”)]

‘讀爲’는 ‘부(報)는 부질(赴疾, 빠르다)의 부(赴)로 바뀌어 독해된다.[報讀爲赴疾之赴]’, ‘讀曰’은 ‘조(俎)는 바꾸어 독해하기를 조(阻)로 한다.[俎, 讀曰阻.]’에 보인다. 이들은 두 글자끼리 자음과 자의가 모두 관련되는 것이다.

부절(報切, 빠르게 썰다)의 부(報)는 ‘죄인을 판결하다[當臯人也]’(‘報’의 음은 ‘보’)가 본의(本義)이고, ‘빠르다[疾]’(‘報’ 음은 ‘부’)가 가차이다. 가차인 ‘빠르다/부[報]’는 본자가 부(赴, 빠르다)이므로, 결국 부(報)는 ‘죄인을 판결하다’를 버리고 부(赴)로 바뀌어 독해되는 것이다.

조기(阻)의 조(阻)는 ‘적(炙) 받침대[禮俎]’가 본의이고, ‘어렵다[阻]’가 가차이다. 가차인 ‘어렵다[阻]’는 본자가 조(阻, 어렵다)이므로, 결국 조(阻)는 ‘적(炙) 받침대’를 버리고 조(阻)로 바뀌어 독해되는 것이다.

경서에 나타난 독위(讀爲)·독왈(讀曰)의 실재를 살펴본다.

- 종이(宗彝), 마름, 불, 분미(粉米), 보(黼), 불(黻)을 바느질해 수놓는다. 〈집전(集傳)〉 치(紕)는 정씨(鄭氏)가 치(黼)로 바뀌어 독해되는데[讀爲黼], ‘질(紕, 바느질하다)’이니, 바느질하여 수를 놓는 것이다.[宗彝藻火粉米黼黻紕繡. 〈集傳〉 紕, 鄭氏讀爲黼, 紕也. 紕以爲繡也.] 〈《書經》〈益稷 集傳〉〉
- 녹봉(祿俸)의 곡식을 일에 맞추어 준다. 〈집주(集註)〉 희(既, 양식(糧食))는 희(飢, 녹봉)로 바뀌어 독해하니,[既讀曰飢] 희(稌)은 초식(稍食, 녹봉)이다.[既稌稱事. 〈集註〉 既讀曰飢, 飢稌, 稍食也.] 〈《中庸章句》 20章 〈集註〉〉

‘讀爲’는 ‘치(紕)는 치(黼)로 바뀌어 독해되는데[讀爲黼]’, ‘희(既, 양식(糧食))는 희(飢)로 바뀌어 독해하니,[既讀曰飢]’에 보인다. 이들은 두 글자끼리 자음과 자의가 모두 관련되는 것이다.

치(紕)는 ‘가는 침베[細葛]’가 본의이고, ‘바느질하다’가 가차이다. 가차인 ‘바느질하다/치’는 본자가 치(黼)이므로, 결국 치(紕)는 ‘가는 침베[細葛]’를 버리고 치(黼, 바느질하다)로 바뀌어 독해되는 것이다.

희(既)는 ‘조금 먹을[小食]/기’가 본음의(本音義)이고, ‘양식/희’가 가차이다. 가차인 ‘양식/희’는 본자가 희(飢)이므로, 결국 기(既)는 ‘조금 먹을[小食]/기’를 버리고 희(飢, 양식)로 바뀌어 독해되는 것이다.

3. 지언(之言) 지위언(之爲言)

주석자(註釋字, 설명자)가 피주석자(被註釋字, 표제자)와 성훈(聲訓) 관계인 것에 지언(之言)·지위언(之爲言)이 있다. ‘聲訓’은 ‘성음(聲音)이 같거나 근접하는 글자로 자의(字義)를 해석하는 것’이다. ‘之言’은 ‘之爲言’과 같은데, 동음(同音) 또는 쌍성(雙聲)·첩운(疊韻)으로 주석하여 전주·가차로 쓰이는 것이다.¹⁰⁾

지언(之言)에 대하여 ‘관(裸)’ 자의 〈단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0) 이상은 《訓詁學概論》, 齊佩瑤, (175면), 그리고 《簡明訓詁學》, 白兆麟, (141면)을 참고하였음.

○ 무릇 ‘之言’이라고 한 것은 모두 그 자음과 자의를 통하여 풀이한 것이니, ‘독위(讀爲)’가 그 글자를 바꾸고, ‘독여(讀如)’가 자음을 정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예를 들어 《주례》〈지관(地官) 서관(序官) 재사(載師)〉에서 “재(載)라는 말은 사(事, 일하다)이다.”, 《주례》〈지관 서관 족사(族師)〉에서 “사(師)라는 말은 수(帥, 거느리다)이다.”, 《주례》〈천관(天官) 내사복(內史服) 전의(展衣)〉의 단의(檀衣)에서 “단(檀)이라는 말은 단(亶, 진실하다)이다.”, 《주례》〈천관 봉인(縫人)〉의 삼류(裳柳, 상여의 관 장식)에서 “류(柳, 柳)라는 말은 취(聚, 모으다)이다.”, 《주례》〈천관 추사(追師)〉의 편부차(副編次)에서 “부(副)라는 말은 부(覆, 덮다)이다.”, 《주례》〈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의 인사(禋祀)에서 “인(禋)이라는 말은 인(煙, 불 피우다)이다.”, 《주례》〈지관 서관 광인(𡗗人)〉에서 “광(𡗗)이라는 말은 광(礦, 광물을 다루다)이다.”라고 한 것이 모두 이것이다.[凡云‘之言’者, 皆通其音義以爲詁訓, 非如‘讀爲’之易其字, ‘讀如’之定其音. 如〈載師〉, “載之言事”, 〈族師〉, “師之言帥”, 檀衣, “檀之言亶”, 裳柳, “柳之言聚”, 副編次, “副之言覆”, 禋祀, “禋之言煙”, 〈𡗗人〉, “𡗗之言礦”, 皆是.]

‘지언(之言)’은 음의(音義)를 통한 풀이라고 하고, “재(載)라는 말은 사(事, 일하다)이다.[載之言事]”, “사(師)라는 말은 수(帥, 거느리다)이다.[師之言帥]” 등의 여러 글자를 예시하였다. 피주석자와 주석자는 위의 예시와 같이 모두 한자(漢字)로 표시하여 “재(載)라는 말은 사(事, 일하다)이다.”와 같이 국역하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쌍성·첩운 관계는 양쪽의 두 자 한자음이 모두 제시되어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載)라는 말은 ‘일하다’이다.”라고 하여 주석자 사(事)의 한자가 제시되지 않으면, 피주석자 재(載) 한 글자로써 쌍성·첩운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설문》에 재(載)는 “‘타다[乘也]’이다. 거(車, 수레)를 따르고, 재(戔)가 소리이다.[从車, 戔聲.]”인데, 단옥재는 1부(部)에 있다고 하였다. 사(事)는 “‘기억하다[職也]’이다. 사(史, 사람을 다스리는 이)를 따르고, 지(止, 之)의 생략형이 소리이다.[从史, 止省聲.]”인데, 단옥재는 역시 1부(部)에 있다고 하였다. 단옥재는 〈육서음운표(六書音均表)〉¹¹⁾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고십칠부해성표(古十七部諧聲表) 육서음운표2(六書音均表二)〉의 제 1부(部)에 재성(戔聲), 지성(之聲), 사성(事聲)이 모두 함께 속해 있어, 고음(古音)에 재(載)와 사(事)는 첩운(疊韻)이 된다.¹²⁾

사(師)는 “2,500명 군인 단위[二千五百人爲師]”이다. 잡(巾, 두루)을 따르고, 퇴(自, 언덕)를 따랐다.[从巾, 从自.]”인데, 단옥재는 〈고십칠부해성표〉의 15부(部)에 있다고 하였다. 술(帥)은 “‘허리에 차는 수건[佩巾也]’이다. 진(巾)을 따르고, 퇴(自)가 소리이다.[从巾, 自聲.]”인데, 단옥재는 역시 15부(部)에 있다고 하였다. 〈고십칠부해성표 육서음운표2〉의 제15부(部)에 퇴성(自聲), 술성(帥聲), 사성(師聲)이 모두 함께 속해 있어, 고음에 사(師)와 술(帥)은 첩운이 된다. 그리고 성운(聲韻)이 사(師)는 “《廣韻》疏夷切, 平脂, 生.”이고, 술(帥)은 “《廣韻》所類切, 去至, 生.”인데, 〈고십칠부합용유분표(古十七部合用)〉

11) 《說文解字注》(上海古籍出版社, 上海, 1995. 7次印刷.)의 본문 뒷 부분에 실려 있다.

12) 재(載)와 사(事)는 첩운(疊韻)이 된다: 이는 《한자전》에 “載, 之部.” “事, 之部.”, “檀, 元部.” “亶, 元部.” 등으로, 30韻部の ‘之部’, ‘元部’가 같은 것으로도 확인된다.

類分表) 육서음운표3(六書音均表三)의 제6류(類) 제15부(部)에 평성 지(脂), 거성 지(至)가 속해 있어 첩운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의 지언(之言)과 지위언(之爲言)에 대하여 더 살펴본다.

- 귀(鬼)는 ‘귀(歸, 사람이 돌아간 것)가 귀(鬼)로 된다’(첩운으로 풀이하였다. 《이아(爾雅)》〈석언(釋言)〉에 “귀(鬼)라는 말은 귀(歸, 돌아간다)이다.”라고 하였다.)(鬼, 人所歸爲鬼.(以疊韻爲訓. 〈釋言〉曰, “鬼之爲言歸也.”))
- 경(脛)은 ‘행(脛, 정강이)’이다. (무릎 아래에서 복사뼈 위까지를 경(脛)이라고 한다. 경(脛)이라는 말은 ‘경(莖, 기둥)’이니, 기둥이 물건을 실어 주는 것과 같다.)(脛, 脛也. (郤下踝上曰脛. 脛之言莖也, 如莖之載物.))
- 섬(殫)은 ‘모조리 없애다’이다. 알(𠂔, 歹, 발라낸 뼈의 나머지)을 따르고, 섬(鐵)이 소리이다. (섬(殫)이란 말은 ‘섬(纖, 가늘다)’이니, 섬세하게 없애는 것이다.)(殫盡也. 从𠂔, 鐵聲. (殫之言纖也, 纖細而盡之也.))

귀(鬼)는 음(音)이 “《廣韻》居偉切, 上尾, 見.”(《漢詞典》에 의함. 이하 같음.)이고, 귀(歸)는 음이 “《廣韻》舉韋切, 平微, 見.”으로, 성모(聲母)가 모두 ‘견(見)’이라서 쌍성이다. 첩운 관계는 ‘鬼’가 상성 미성모(尾聲母)이고, ‘歸’가 평성 미성모(微聲母)로 달라서 성립되지 않는 듯하지만, 단옥재의 〈고십칠부합용유분표(古十七部合用類分表) 육서음운표3(六書音均表三)〉의 제6류(類) 제15부(部)에 평성 미(微)와 상성 미(尾)가 모두 함께 속해 있어, 고음에 첩운이 된다.¹³⁾(@〈고십칠부해성표 육서음운표2〉에도 15부에 鬼聲, 自聲, 微聲, 尾聲이 있음)

경(脛)은 음이 “《廣韻》胡定切, 去徑, 匣.”과 “《廣韻》胡頂切, 上迥, 匣.”으로 양음(兩音)이고, 경(莖)은 음이 “《廣韻》戶耕切, 平耕, 匣.”이니, 성모(聲母)가 모두 ‘갑(匣)’이라서 쌍성이다. 첩운 관계는 ‘脛’이 거성 경성모(徑聲母)와 상성 형성모(迥聲母)이고, ‘莖’이 평성 경성모(耕聲母)로 달라서 성립되지 않는 듯하지만, 단옥재의 〈고십칠부합용유분표 육서음운표3〉의 제4류 제11부에 평성 경(耕)과 상성 형(迥), 거성 경(徑)이 모두 함께 속해 있어, 고음에 첩운이 된다.¹⁴⁾(@〈고십칠부해성표 육서음운표2〉에도 11부에 井聲, 同聲, 迥聲이 있음)

섬(殫)은 음이 “《廣韻》子廉切, 平鹽, 精.”이고, 섬(纖)은 “《廣韻》息廉切, 平鹽, 心.”으로, 운모(韻母)가 모두 ‘염(鹽)’이므로, 섬(殫)과 섬(纖)은 첩운이 된다.¹⁵⁾ 그리고 섬(殫)과 섬(纖)은 단옥재의 〈고십칠부해성표 육서음운표2〉에도 7부에 들었고, 그 성부

13) 이들 글자의 첩운 관계는 현대 자전에서 확인된다. 미(微)와 미(尾)는 모두 《漢字典》에 30운부(韻部)의 미부(微部)에 속하여, 첩운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14) 이들 글자의 첩운 관계는 현대 자전에서 확인된다. 경(耕)과 형(迥), 경(徑)은 모두 《漢字典》에 30운부(韻部)의 경부(耕部)에 속하여, 첩운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15) 이들 글자의 첩운 관계는 현대 자전에서 확인된다. 섬(殫)과 섬(纖)은 모두 《漢字典》에 30운부(韻部)의 담부(談部)에 속하여, 첩운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聲符)가 모두 섬(鐵)이므로 고음에 침운이 된다.

경서 등에 나타난 지언(之言)과 지위언(之爲言)의 사례를 더 살펴본다.

- 급암(汲黯)은 한나라 경제(景帝) 때에 태자선마(太子洗馬)가 되었다.[汲黯景帝時 爲太子洗馬.]¹⁶⁾《小學》〈善行〉) 선(洗)은 소(蘇)와 전(典)의 반절이다. 선(洗)이라는 말은 선(先, 앞서 가다)이니, 태자(太子)가 외출하면 앞서가며 인도한다.[洗, 蘇典反. 洗之言先也, 太子出則前導也.](《增解》)
- 불(弗)이라는 말은 불(祓, 제거하다)이니, 자식이 없는 액운(厄運)을 제거하여 자식이 있기를 구하는 것이다.[弗之言祓也, 祓無子求有子也](《詩經》〈大雅 生民〉‘克禋克祀 以弗無子’〈集傳〉) 불(祓)은 음이 불(弗)이니, ‘제거하다[除]’이다.[祓, 音弗, 除也](《大全》)
- 학(學, 배우다)이라는 말은 ‘효(效, 본받다)’이다.[學之爲言效也.](《論語》〈學而〉‘學而時習之’〈集注〉)
- 삭(朔)이라는 말은 ‘소(蘇, 소생한다)’이다.[朔之爲言蘇也](《書經》〈堯典〉‘申命和叔宅朔方’〈集傳〉)

선(洗)은 음의(音義)가 “《廣韻》 蘇典切, 上銑, 心. 洒足也・洒足也.(발을 씻다)”이고, 또 “《廣韻》 先禮切, 上齊, 心. 用水滌除污垢.(물로 때를 씻다)”이다. 선(先)은 음이 “《廣韻》 蘇前切, 平先, 心.”이고, 또 “《廣韻》 蘇佃切, 去霰, 心.”이다. 선(洗)과 선(先)은 성모가 모두 “심(心)”이므로, 선(洗)과 선(先)은 쌍성이 된다. 그리고 《한자전》에는 “洗 蘇典切 諄部”, “先 蘇前切 諄部”라고 하여, 선(洗)과 선(先)은 운부(韻部)가 모두 같은 순부(諄部)이므로, 고음에 침운이 된다.

불(祓)은 음이 불(弗)이라고 하였으므로, 불(祓)과 불(弗)은 동음(同音)이라서 쌍성과 침운이 모두 성립된다.

학(學)은 음이 “《廣韻》 胡覺切. 入覺, 匣”이고, 효(效)는 음이 “《廣韻》 胡教切. 去效, 匣”으로, 성모가 모두 “갑(匣)”이라서 학(學)과 효(效)는 쌍성이 된다.

삭(朔)은 음이 “《廣韻》 所角切. 入覺, 生.”이고, 소(蘇)는 음이 “蘇, 《廣韻》 素姑切. 平模, 心.”으로, 성모와 운모가 모두 다르지만, 삭(朔)의 성부(聲符) 역성(逆聲)과 소(蘇)의 성부 소성(蘇聲)이 〈고십칠부해성표 육서음운표2〉 제5부(部)에 모두 함께 실려 있어, 삭(朔)과 소(蘇)는 침운이 된다.

이러한 성운이 유사한 관계의 주석은 피주석어와 주석어를 더욱 밀착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16) 洗馬: 태자가 행차할 때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관원. 본래 ‘선마(先馬)’라고 썼고 뒤에 ‘세마(洗馬)’라고 하였는데 선(洗)은 선(先)과 통용으로 ‘앞선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선(洗)은 소(蘇)와 전(典)의 반절이다. 선(洗)이라는 말은 선(先)이니 태자가 외출하면 앞서서 인도한다. [洗 蘇典反 洗之言先也 太子出則前導也]”(《小學增解》)라고 설명되었다. 이에 의하면 ‘洗’은 음이 ‘선’이지만 선조판·영조판 《소학언해(小學諺解)》에는 모두 ‘세’라고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선마(洗馬)’를 모두 언해를 따라 ‘세마’로 읽고 있다.((《小學》〈善行〉‘汲黯景帝時 爲太子洗馬’〈增解〉)

4. 동자(同字) 주석(註釋)

위에서 다룬 독약(讀若)·독여(讀如) 등은 《설문》과 《단주》에 그 용어가 사용된 경우였으나, 이 경우는 ‘동자 주석’이라는 말이 쓰인 것이 아니라 피주석자(被註釋字, 표제자)의 주석자(註釋字, 해석자(解釋字))가 동자로 표현된 것이 있어 이를 ‘동자 주석’이라고 한 것이다.¹⁷⁾

동자 주석은 두 글자가 품사(品詞) 또는 음독(音讀)을 달리하여 의미에 차별이 있게 되는 것이다. 피주석자는 특정적 의미를 지니고, 주석자는 일반적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해 《간명훈고학(簡明訓詁學)》(100면)에서는 “동자상훈(同字相訓)은, 표제자는 이따금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해석자는 일반적 의미를 지닌다.[同字相訓, 被釋者往往有特定的涵義, 釋字用一般的涵義.]”라고 하였다.

《설문》과 〈단주〉에서는 동자 주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사(巳, 여섯째 지지(地支)/사)는 사(巳, 뱀/사)이다.《주역》〈서괘전〉에 “몽(蒙, 몽괘(蒙卦))은 몽(蒙, 어리다)이다. 비(比, 비괘(比卦))는 비(比, 친하다)이다. 박(剝, 박괘(剝卦))은 박(剝, 손상하다)이다.”라고 하고, 《시경》〈패풍(邶風) 북풍(北風)〉 ‘기허기서(其虛其邪)’의 〈모전〉에 “허(虛, 느슨하다)는 허(虛, 비다)이다.”라고 하였다. 예부터 훈고(訓詁)에 이러한 예가 있었으니, 바로 본자(本字, 자기 글자)를 사용하여 다른 글자를 빌지 않았다.)……사월은 양기(陽氣)가 이미 나왔고 음기(陰氣)가 이미 숨어서 만물이 드러나고 문양(文樣)을 이루므로, 사(巳)는 사(它, 뱀/사, ‘蛇’의 고자)를 만들어 모양을 본떴다.(사(巳, 여섯째 지지/사)는 본뜰 수 없으므로, 뱀으로 모양을 본떴다. 뱀은 길면서 구부리고 꼬리를 내렸다. 그[巳] 글자가 뱀을 본떴으니, 양기가 이미 나왔고 음기가 이미 숨은 것을 본떴다.……사(巳)는 뱀의 모양이다.)[巳, 巳也。(序卦傳, “蒙者, 蒙也. 比者, 比也. 剝者, 剝也.” 毛詩傳曰, “虛, 虛也.” 自古訓故有此例. 即用本字, 不段異字也.) …… 四月, 易氣已出, 陰氣已藏, 萬物見, 成彰彰, 故巳爲它象形。(巳不可像也, 故以蛇象之. 蛇長而冤曲垂尾. 其字像蛇, 則象陽已出陰已藏矣. …… 巳者, 蛇象也.)]
- 철(徹)은 ‘통하다[通]’이다.《맹자》〈등문공상(滕文公上)〉에 “철(徹, 10% 세금)은 철(徹, 통용된다)이다.”라고 하였고, 《논어》정현(鄭玄) 주에 “철(徹)은 ‘통하다[通]’이니, 천하에 통하는 법이다.”라고 하였다.)[徹, 通也。(孟子曰, “徹者, 徹也.” 鄭注論語曰, “徹, 通也. 爲天下通法也.”)]
- 학(鸞)은 ‘한학(韓鸞, 산 까치)’으로 ‘산작(山鵲)’이다. 미래 일을 아는 새이다.(…… 활쏘기에는 정곡(正鵠)이 있는데 정(正, 과녁 중심의 새 이름)이라는 말은 정(正, 바르다)이고, 곡(鵠, 과녁의 중심 새 이름)이라는 말은 교(較, 바르다)이다. ‘較’는 바르다’이다.)[鸞, 韓鸞, 山鵲. 知來事鳥也。(……射有正鵠, 正之言正, 鵠之言較. 較者, 直也.)]

사(巳, 여섯째 지지(地支))와 사(巳, 뱀)는 ‘지지’의 추상 명사와 ‘뱀’의 동물로 의미가 다르다. 몽(蒙, 몽괘(蒙卦))과 몽(蒙, 어리다), 비(比, 비괘(比卦))와 비(比, 친하다), 박(剝, 박

17) ‘동자 주석’을 기준에 표현한 것으로는 ‘本字爲訓’, ‘同字相釋’, ‘同字相訓’, ‘同字爲訓’ 등이 있다.

괘(剝卦)과 박(剝, 손상하다)은 ‘괘 이름’의 명사와 ‘어리다’는 등의 형용사, 동사로 의미가 다르다. 허(虛, 느슨하다)와 허(虛, 비다)는 모두 형용사이지만 의미의 차이를 보인다. 철(徹, 10% 세금)과 철(徹, 통용된다)은 역시 명사와 형용사의 차이를 보인다. 정(正, 과녁 중심의 새 이름)과 정(正, 바르다)은 역시 명사와 형용사의 차이를 보이는데, ‘지언(之言)’이라는 성훈(聲訓)으로 주석하는 훈고 용어가 쓰이기도 하였다.

이들 동자 주석은 모두 본자(本字)를 사용하여 주석하고 다른 글자를 빌지 않았는데, 피주석자는 특정적 의미를 지니고 주석자는 일반적 의미를 지니게 함으로써, 피주석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경서 등에 나타난 동자 주석의 사례를 살펴본다.

- 백성을 인도함이 매우 쉽다.〔牖民孔易〕《詩經》〈大雅 板〉 이(易, 바꿈)는 이(易, 쉽다)이다.……백성을 인도함이 자기에게 달렸으니, 매우 쉽다.〔易, 易也.……道民在己, 甚易也〕(鄭玄 箋) 공이(孔易)의 이(易)는 정현이 음을 역(亦)이라고 하였고, 주에 “이(易)는 이(易)이다.”에도 앞의 역(易)자는 ‘역’이 같고, 또 이(以)와 시(鼓)의 반절이기도 하다.…… 이아(易也)의 이(易)는 이(以)와 시(鼓)의 반절이고 아래도 같다.〔孔易, 鄭音亦, 注“易, 易也.” 上字同, 又以鼓反.…… 易也之易, 以鼓反, 下同.〕《經典釋文》〈毛詩音義〉 압운(押韻)으로 보면 개역(改易)의 역(易, 바꾸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어(轉語)¹⁸⁾로 난이(難易)의 이(易, 쉽다)가 되었다.〔以韻當爲改易之易, 故轉之爲難易之易也.〕(孔穎達 正義)
- 풍(風, 국풍)은 ‘풍(風, 고동(鼓動)시키다)’이며, ‘교(敎, 가르치다)’이니, 풍(風)으로 고동시키고, 교(敎)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다.〔風, 風也, 敎也, 風以動之, 敎以化之.〕《詩經》〈大序〉
- 부(夫, 장부)라는 것은 ‘부(夫, 장부의 도리를 한다)’이다. 부(夫, 장부)라는 것은 지혜로 남을 인솔하는 사람이다.〔夫也者, 夫也. 夫也者, 以知帥人者也.〕《禮記》〈郊特牲〉 부(夫)라는 말은 장부(丈夫)이다. 부(夫)는 혹은 부(傳, 스승)로도 쓴다.〔夫之言丈夫也. 夫或爲傳.〕(鄭玄 註) 지(知)는 음이 지(智, 지혜)이다.〔知, 音智.〕《毛詩音義》
- 관(觀, 누관(樓觀))은 ‘관(觀, 바라보다)’이니, 위에서 관망하는 것이다.〔觀, 觀也, 於上觀望也.〕《釋名》〈釋宮室〉

역(易, 바꿈)과 이(易, 쉽다)는 명사와 형용사로 의미가 다르다. 이(易)가 두 번 쓰였는데 앞의 이(易)는 ‘이’ 또는 ‘역’으로 읽고, 뒤의 이(易)는 ‘이’로만 읽는다는 것이다. 압운(押韻)¹⁹⁾으로 보면 개역(改易)의 역(易, 바꾸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어(轉語)로 난이(難易)의 이(易, 쉽다)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전대전(詩傳大全)》에서는 공이

18) 전어(轉語) : 훈고 학술 용어로, 시기와 지방이 같지 않거나 혹은 기타 원인 때문에 음(音)이 바뀐 말을 이르며, 음이 바뀌어도 뜻은 변하지 않는다. 예컨대, 《방언(方言)》 제3(第三)에 “용(庸)을 송(松, 게으르다)이라고 하니, 전어(轉語)이다.”라고 하였는데, 용(庸)과 송(松)은 첩운(疊韻)으로 음이 서로 바뀐 것이다.

19) 압운(押韻) : 이 가사의 앞뒤 구절의 압운을 살펴보면 “攜無曰益(陌), 牖民孔易(陌), 民之多辟(陌), 無自立辟(陌)”《詩經世本古義》에 의함)으로 입성(入聲) 맥운(陌韻)이라서, 입성인 ‘易’은 ‘역’이라야 압운이 성립되고, ‘이’는 거성이라서 압운이 성립되지 않는다. ‘역’이 ‘이’로 읽히는 데에는 전어(轉語)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孔易)의 ‘易’에 대하여 정음(正音)을 ‘이’로 하고, 협음(叶音)을 ‘역’이라고 설명한 것도 있다.²⁰⁾

풍(風, 국풍)과 풍(風, 고동(鼓動)시키다), 부(夫, 장부)와 부(夫, 장부의 도리를 한다), 관(觀, 누관(樓觀))과 관(觀, 바라보다)은 모두 명사와 동사로 의미가 다르다.

5. 당위(當爲) 당작(當作)

오자(誤字)를 바로잡을 경우에 당위(當爲)를 사용하는데, 당작(當作)도 같이 사용한다. ‘當爲’에 대하여 ‘기(祇) 자의 <단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옛날 사람이 “마땅히 -로 되어야 한다.[當爲]”라고 말한 것은 모두 자형이 잘못된 글자를 고친 것이다.(古人云“當爲”者, 皆是改其形誤之字.)

‘當爲’는 ‘자형이 잘못된 글자를 고친 것’이라고 하여, 오자(誤字)를 바로잡는 데에 쓰이는 것이다.

《설문》의 ‘當爲’와 ‘當作’을 살펴본다.

- 시(崇)는 ‘섬을 태워 하늘에 제사지내다’이다. … 《상서(尙書)》 <우서(虞書)》에 “대종(岱宗, 泰山)에 이르러 시제(柴祭를 올렸다.”라고 하였다.(《虞書》는 <당서(唐書)》가 되어야 한다.)
[崇, 燒柴祭天也. … 虞書曰. “至于岱宗崇.”(虞書, 當爲唐書.)]
- 염(琰, 아름다운 옥)은 ‘벽옥(璧)의 위쪽이 아름다운 색을 드러나게 한 것’이다.(벽(璧)은 규(圭)가 되어야 하고, 야(也)는 자(者)가 되어야 한다.) [琰, 璧上起美色也.(璧當爲圭, 也當爲者.)]
- 관(鵬, 황새)은 관작(鵬爵)이다.(‘爵’은 새(새/작)이 되어야 한다. ‘鵬’은 금자가 鵬(황새/관)이다.)
[鵬, 鵬爵也.(爵當作雀. 鵬, 今字作鵬.)]

<우서(虞書)》라는 출전은 요(堯)임금이 살아 있으면서 순(舜)을 시켜 제사 지내게 한 것이므로 요임금을 의미하는 <당서(唐書)》로 고쳐 써야 한다는 것이다. ‘벽상기미색야(璧上起美色也)’에서 벽(璧)은 규(圭), 야(也)는 자(者)가 되어 ‘규상기미색자(圭上起美色者, 규옥(圭玉)의 위쪽이 아름다운 색을 드러나게 한 것)’로 고쳐 써야 한다는 것이다. 관작(鵬爵)은 새 이름이므로, 작(爵, 술잔)을 작(雀, 새)으로 고쳐 써야 한다는 것인데, ‘爵’은 ‘雀’을 가차하여 ‘새/작’으로도 쓰이지만 가차 글자를 사용하지 말고 본자 ‘雀’을 써서 관작(鵬雀)으로 쓰자고 한 것이다.

경서 등에 나타난 당위(當爲) 당작(當作)의 사례를 살펴본다.

20) 《시전대전(詩傳大全)》 <집전(集傳)》에서는 공이(孔易)의 ‘易’에 대하여 “‘易’는 이(以)와 시(鼓)의 반절(이)이고, 협음(叶音)이 이(夷)와 익(益)의 반절(역)이다.[易, 以鼓反, 叶夷益反.]”라고 하여, 정음(正音)을 ‘이’로 하고, 협음(叶音)을 ‘역’이라고 설명하였다.

-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힘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지선(至善, 지극한 선)에 그침에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大學》〈經〉1章) 정자가 말하였다. “친(親)은 신(新)이 되어야 한다.”[程子曰: “親, 當作新.”](《集注》)
- 은밀한 것을 찾고 괴이한 것을 행함을 후세에 칭술(稱述)하는 이가 있다.[素隱行怪, 後世有述焉.](《中庸》11章) 소(素)는 《한서》〈예문지(藝文志)〉를 살펴보면 색(索)이 되어야 하니,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素, 按《漢書》, 當作索, 蓋字之誤也.](《集注》)
- 어진 이를 보고도 들어 쓰지 못하며, 들어 쓰되 먼저하지 못함이 태만함이다.[見賢而不能學, 舉而不能先, 命也.](《大學》〈傳〉10章) 명(命)은 정현(鄭玄)이 “만(慢)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정자(程子)가 “태(怠)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누가 옳은지 자세하지 않다. [命, 鄭氏云, “當作慢.” 程子云, “當作怠.” 未詳孰是(《集注》) 명(命)은 만(慢)과 음성이 서로 가까우니, 옳음에 가깝다.[命慢, 聲相近, 近是.](《大全》)
- 〈동궁지십(彤弓之什)〉은 10편(篇)이고 40장(章)이고 259구(句)이다. 아마 2구가 빠진듯하니, 261구가 되어야 하겠다.[彤弓之什十篇, 四十章, 二百五十九句. 疑脫兩句, 當爲二百六十一句.](《詩傳大全》〈小雅 彤弓之什〉〈集傳〉篇數句數統計)
- 왕(王)의 믿음을 이루셨도다.[成王之孚](《詩傳大全》〈大雅 下武〉) 혹자(或者)는 의심하기를 “이 시(詩)에 성왕(成王)이란 글자가 있으니, 마땅히 강왕(康王) 이후의 시(詩)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한다.……그러나 구설(舊說)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或疑此詩有成王字하니 當爲康王以後之詩……然非有誤也.](《下武》篇末 〈集傳〉)

친(親)은 신(新)이 되어야 하고, 소(素)는 색(索)이 되어야 한다. 명(命)은 만(慢) 또는 태(怠)가 되어야 하는데, 명(命)이 만(慢)과 음성이 가까워서 옳다는 것이다. 〈동궁지십(彤弓之什)〉의 259구(句)는 261구가 되어야 한다. 성왕(成王)은 강왕(康王)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성왕(成王)이란 글자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6. 가차(假借)

가차는 독음이 같아서 글자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다. 가차의 생성은 글자가 없어서 빌려 사용하는 ‘본무기자지가차(本無其字之假借, 본래 자기 글자가 없어서 빌려 쓰는 가차)’가 있는데, 허신은 영(令, 명령하다)의 본자(本字)에 ‘현령(縣令)’이라는 가차의 의미를 더한 것이다. 이 이외에 해당 문자가 있어도 동음(同音)의 간절한 문자를 사용하는데, 예컨대 천(韃, 그네/천)이 있는데도 천(千, ‘일천/천’)을 천(韃)으로 사용하고, 갑자기 해당 문자가 생각나지 않을 때에 동음의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본유기자지가차(本有其字之假借, 본래 자기 글자가 있어도 빌려 쓰는 가차)’가 있다. 여기서는 후자를 다룬다.

《설문》의 ‘本有其字之假借’를 살펴본다.(여기 가차에서는 《설문》 자료만 제시한다. 가차 자료는 《설문》이 다른 서적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 류(漚)는 옥을 늘어뜨린 것이니, 면류관의 장식이다. 《주례(周禮)》〈하관(夏官) 변사(弁師)〉에는 〈漚‘자가’ 류(旒)로 되어 있고, 《예기(禮記)》〈옥조(玉藻)〉에서는 속자를 따라 ‘류

(旒)로 되어 있는데, 모두 ‘塗’의 가차 글자이다.)(塗, 垂(垂)玉也, 冕飾. (弁師作旒, 玉藻从俗字作旒, 皆塗之假借字.))

- 철(屮)은 ‘초목이 처음으로 자란다’이다. ……고문에는 혹 철(屮) 글자를 가차하여[以爲] 艸(풀/초)자로 사용하였다. (‘고문에서 어떤 글자를 사용하여 어떤 자로 가차한다.[古文以爲某字]’라고 한 것은 육서 중의 가차임을 밝힌 것이다. ‘以’는 ‘用’이다. 본래는 ‘某字’가 아닌데 고문에서 ‘某字’라고 사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고문에서는 洒(씻을/세, 세(洗)의 고자)가 灑(灑)의 灑(물뿌릴/쇄), 𣎵(발/소)가 《시경》〈대아(大雅)〉의 雅(正(바를/아), 巧(기운막힐/고)가 巧(재주/교), 畎(군을/간)이 賢(재주많을/현), 𣎵(군대/려)가 魯(魯)의 魯(나라/로), 哥(소리/가)가 歌(노래/가), 諛(변론할/피)가 頗(치우칠/파), 瞶(눈언저리/권)이 瞶(볼/전)으로 가차되었다. …… 모두가 옛 날에는 문자가 적었기 때문에 소리에 의거해서 의미를 붙였다. 심지어 고문에서 철(屮)이 초(艸), 소(疋)가 족(足, 발), 고(巧)가 巧(탄식소리/우), 侯(달려보낼/잉. 脛과 동자)이 訓(가르칠/훈), 臭(운택할/고)가 澤(운택할/택)으로 가차되었는데, 이런 문자는 소리에 의거함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간혹 자형이 비슷해서 가차한 것으로, 후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屮, 艸木初生也. 古文或曰(以)爲艸字] (漢人所用尙爾. 或之言有也, 不盡爾也. 凡云古文以爲某字者, 此明六書之段借. 以, 用也. 本非某字, 古文用之爲某字也. 如古文以洒爲灑掃字, 以疋爲詩大雅字, 以巧爲巧字, 以畎爲賢字, 以𣎵爲魯衛之魯, 以哥爲歌字, 以諛爲頗字, 以瞶爲瞶字. …… 皆因古時字少, 依聲託事. 至於古文以屮爲艸字, 以疋爲足字. 以巧爲巧字. 以侯爲訓字, 以臭爲澤字, 此則非屬依聲, 或因形近相借, 無容後人效尤者也.))

류(塗)는 ‘면류관 옥 장식’이 본의인데, 류(旒, 깃발)와 류(旒, 깃술)가 ‘塗’의 음의(音義)로 쓰이는 것은 가차라는 것이다.

철(屮)은 ‘초목이 처음으로 자란다’가 본의인데, 초(艸, 풀)자로 가차된다는 것이다. ‘이위(以爲)’는 가차를 표현한 용어라는 것이다. 예컨대 세(洒, 씻다)가 灑(灑, 물뿌리다) [以洒爲灑掃字], 려(𣎵, 군대)가 魯(魯, 나라 이름) [以𣎵爲魯衛之魯]로 가차된 것에 ‘以爲(以○爲◎)’를 사용하여 가차 표현을 한 것이다. 소(疋, 발)가 족(足, 발)으로 가차된 것에 대하여는 〈단주〉에 “이는 자형이 비슷한 것으로 가차하였으니 변례이다. [此則以形相似而段借 變例也.]”라고 하여, 자음의 가차가 아니고, ‘疋’와 ‘足’의 자형이 비슷하여 이루어진 변례가차라고 하고, 이와 함께 철(屮)을 초(艸)로 가차한 등의 문자는 소리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자형이 비슷해서 가차한 것으로 잘못된 가차라는 것이다. 려(𣎵)는 《설문》에서 려(旒, 군대)의 중문(重文, 古文)으로 수록하였는데, 《고림(詁林)·혜기(惠記)》에서는 “려(𣎵)는 려(旒)의 고문이다. 고문에서는 이를 ‘魯·衛’의 ‘魯’로 사용한다. [𣎵, 古文旒. 古文以爲魯·衛之魯.]”라고 하여, 려(𣎵)가 ‘군대/려, 나라/로’의 2가지 음의로 쓰임을 나타냈다. 그리고 《고림·교록(校錄)》에서는 “석경의 고문에서는 ‘魯’를 ‘로(𣎵, 나라 이름)’로 쓴다. [石經古文魯作𣎵]”라고 하여, 자형을 ‘𣎵’로 나타냈다.

《설문》에 쓰인 생형가차(省形假借)의 사례를 더 살펴본다.

- 용(春)은 ‘곡식을 찧다’이다. 두 손(収)으로 절굿공이[杵]를 잡고서 절구[臼]에 임한 것을

따랐다. 저(午, 杵)는 자형(字形)이 생략되었다. (저(杵, 午)는 《설문》 일부(日部)의 요(曷)자 해설의 “비(匕)는 ‘합하다[合]’이다.”, 회부(會部)의 회(會)자 해설의 “증(曾)은 ‘더하다[益]’이다.”, 언부(允部)의 수(旂)자 해설의 “윤(允)은 ‘나아가다[進]’이다.”와 같다. 모두 육서(六書)의 가차이다. [春, 擣粟也. 从収持杵呂臨曰. 杵省. (此與日部匕合也, 會部曾益也, 允部允進也同. 皆六書之段借也.)]

- 요(曷)는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다’이다. 일(日)·비(匕)를 따랐다. 비(匕)는 ‘합하다[合]’이다. (비(匕)가 어찌하여 ‘합하다[合]’로 풀이되는가. 비(比, 합하다)의 생략형이기 때문이다. 《설문해자》 회부(會部)의 회(會)자 해설에 “증(曾)은 더하다[益]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증(曾)이 어찌하여 ‘더하다[益]’로 풀이되는가. 증(增, 더하다)의 생략형이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설문해자》에서 가차(段借)를 말한 것 중의 하나이다. 요(曷)의 비(匕)가 어찌하여 비(比)의 생략자가 되었는가. 곤(昆, 갈다)자가 있기 때문이다.)[曷, 望遠合也. 从日匕. 匕, 合也. (匕何以訓合, 比之省也. 猶會下云: “曾, 益也.” 曾何以訓益, 增之省也. 是亦許書言段借之一也. 曷何以省比, 有昆字在也.)]
- 수(旂)는 ‘도거(導車)에 끄는 오색 깃털 기’이다. (윤(允)은 윤(胤)의 가차이다.……윤(胤)은 ‘나아가다[進]’이다.) [旂, 導車所載. (允即胤之段借. ……胤, 進也.)]

저(午, 절구공이)는 저(杵)의 자형(字形)이 생략된 가차, 즉 저(午)는 저(杵)의 생형가차(省形假借, 생차(省借))라는 것이다. 그리고 비(匕, 합치다)는 비(比), 증(曾, 더하다)은 증(增), 윤(允, 나아가다)은 윤(胤)의 생차라는 것이다. 이들은 자형의 일부분(木·日匕·土·夊)을 생략하고 일부분(聲符, 午·匕·曾·允)만 남겨 자형(字形)이 줄어 이룩된 가차로, 그 경향은 대부분 형부(形符, 木·土·夊)를 생략하고 성부(聲符, 午·曾·允)만 남겨놓은 것이다.

《설문》에 쓰인 가차의 사례를 더 살펴본다.

- 부(稭)는 ‘벼의 겉껍질’이다. 《시경》〈소아(小雅) 대전(大田)〉의 정현 전(箋)에 “방(方)은 방(房, 껍질이 막 생기다)이다. 껍질이 막 생겨 합하지 않을 때의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옛날에 부(孚, 알이 깨다)가 부(稭)의 가차자로 사용되었다.) [稭, 稈也. (〈大田〉箋曰: “方, 房也. 謂孚甲始生而未合時也.” 古借孚爲稭.)]

부(孚, 알이 깨다)가 부(稭, 벼의 겉껍질)로 가차되었는데, 그에 대한 원문 ‘차부위부(借孚爲稭)’를 ‘부(孚, 알이 깨다)를 가차하여 부(稭, 벼의 겉껍질)로 사용하였다’, ‘부(孚, 알이 깨다)가 부(稭, 벼의 겉껍질)의 가차자로 사용되었다’의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이 중에 ‘부(孚)가’로 부(孚)를 주어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에 보다 선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부(孚, 알이 깨다)를 가차하여 부(稭, 알이 깨다)로 사용하였다’로 잘못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해(胲)는 ‘엄지발가락의 털 난 곳 살’이다. 《장자(莊子)》〈경상초(庚桑楚)〉에 “선달 납제사를 지낼 때 희생으로 바치는 소의 내장과 굽이 있다.[臘者之有臄胲]”라고 하였는데, 《경전석문》〈장자음의(莊子音義)〉에 “해(胲)는 발의 엄지발가락이다.”라고 하였다. 《한서》〈동방삭전(東方朔傳)〉에

“뺨의 살[頰]이 튀어나왔다.[樹頰胲]”라고 하였는데, 해(胲)는 기(臍, 뺨의 살)의 가차자로 사용되었다.[胲, 足大指毛肉. (《莊子》: “臠者之有臠胲.” <音義>云: “胲, 足大指也.” 《漢書》: “樹頰胲.” 假爲臍也.)]

- 연(㗎)은 ‘말하다가 탄식하다’이다. (《이아(爾雅》) 곽박(郭璞) 주(注)에는 “연(㗎)은 연次, 침)의 가차자로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㗎, 語㗎嘆也. (郭注《爾雅》, “假爲次字.”)]
- 추(追)는 ‘쫓다’이다. (《시경》과 《주례》에서는 추(追)가 가차되어 ‘금옥(金玉)을 가공한다’는 뜻의 퇴(鎚, 옥을 다듬다)로 사용하였다.) [追, 逐也. (《詩》·《禮》假爲治金玉之鎚.)]
- 상(詳)은 ‘자세히 논의하다’이다. (審은 ‘자세하다’이다. 경전(經傳)에서는 상(詳)이 가차되어 ‘상(祥, 상서롭다)’의 의미로 쓰인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음은 양(羊)인데, ‘거짓으로 미친 척하다.[詳狂]’라고 할 때의 ‘양(詳·佯, 거짓)’자로도 사용된다.²¹⁾) [詳, 審議也. (審, 悉也. 經傳多假爲祥字. 又音羊, 爲詳狂字.)]

해(胲, 엄지발가락의 털 난 곳 살)가 기(臍, 뺨의 살)로 가차되었는데, 그에 대한 원문 ‘가위기야(假爲臍也)’는 ‘가차하여 기(臍, 뺨의 살)가 되었다’로 번역되었으나,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 없어 ‘해(胲)는’을 보충하여 번역해야 한다.

연(㗎, 말하다가 탄식하다)이 연(次, 침)으로 가차되었는데, 그에 대한 원문 ‘가위연자(假爲次字)’는 ‘가차하여 연(次, 침)으로 사용되었다’로 번역되어, ‘무엇이’에 해당하는 주어가 없어 ‘연(㗎)은’을 보충하여 번역해야 한다.

추(追, 쫓다)가 퇴(鎚, 옥을 다듬다)로 가차되었는데, 그에 대한 원문 ‘《시》·《례》가위 치금옥지추(《詩》·《禮》假爲治金玉之鎚.)’는 ‘《시》·《례》에서는 가차되어 「금옥(金玉)을 가공한다」는 뜻의 퇴(鎚, 옥을 다듬다)로 사용하였다.’로 번역되어,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 없어 ‘추(追)가’를 보충하여 번역해야 한다.

상(詳, 자세히 논의하다)이 상(祥, 상서롭다)과 양(詳·佯, 거짓)으로 가차되었는데, 그에 대한 원문 ‘경전다가위상자(經傳多假爲祥字)’는 ‘경전(經傳)에서는 가차되어 「상(祥, 상서롭다)」의 의미로 쓰인 경우가 많다.’로 번역되어,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 없는데다 “심실야(審, 悉也.)”가 앞에 있어 ‘심(審)이 가차되어 「상(祥, 상서롭다)」의 의미로 쓰인 경우가 많다.’로 잘못 이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詳)이’를 보충하여 번역해야 한다.

- 표(穮)는 ‘전답의 김을 매다’이다. 화(禾)를 따르고 포(廩)가 소리이다. (《시경》 <주송(周頌) 재삼(載芟)>에 “꼼꼼하게 김을 매다[縣縣其廩]”에 대하여, 모형(毛亨) 전(傳)에는 “포(廩)는 운(耘, 김매다)이다.”라고 하였다.……<주송 재삼>에서는 포(廩, 고라니)가 표(穮, 김매다)의 가차자로 사용되었다.[穮, 耨鉏田也. 从禾, 廩聲. (《周頌》: “縣縣其廩.” 毛傳曰: “廩, 耘也.” ……<周頌>段廩爲之.)]

- 군(稂)은 ‘뭉다’이다. (옛날에는 또한 군(麤, 노루)이 군(稂, 뭉다)의 가차자로 사용되었다. 예

21) 거짓으로……사용된다: 《전국책(戰國策》) <위책 2(魏策二)>에 “그 다음은 진나라를 배척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맹약을 더욱 공고히 하고 거짓으로 진나라와 강화를 맺은 다음, 동맹국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其次堅約而詳講, 與國無相離也.]”에 쓰인 양(詳)자는 ‘양(佯)자’의 가차로 ‘거짓’이라는 뜻이다.

컨대 《춘추좌씨전》 애공(哀公) 2년에 “조라(趙羅)가 용맹이 없자 그를 묵었다[麋之].”라고 하였다.) [稭, 稭束也. (古亦段麋爲之. 如《左傳》: “羅無勇, 麋之.”)]

- 폐(樅, 柿)²²⁾는 ‘나무를 깎을 때 생기는 나뭇조각(대팻밥)’이다. 《한서》의 《중산정왕승전(中山靖王勝傳)》²³⁾ · 《유향전(劉向傳)》²⁴⁾ · 《전분전(田蚡傳)》²⁵⁾에 “폐부(肺附)”라고 많이 말하였는데, 나무를 깎을 때 생기는 대팻밥 조각을 이른다. 제실(帝室)의 근신(近臣)에 몸을 둔 것이 대팻밥 조각이 큰 목재(木材)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폐(肺, 대팻밥)는 폐(樅)의 가차자이다. [柿, 削木朴也. 《漢書》中山靖王·劉向·田蚡傳, 多言“肺附”, 謂斫木之柿札也. 己於帝室親近, 猶柿札附於大木材也. 此樅之假借字也.)]

표(樅, 전답의 김을 매다)는 포(麋, 고라니)가 소리이다. 포(麋)가 표(樅, 김을 매다)로 가차되었는데, 그에 대한 원문 ‘가포위지(段麋爲之, 포(麋)가 표(樅)의 가차자로 사용되었다.)’는 지(之, 그것)가 표(樅)를 대용(代用)한 것이다. 대명사 지(之)를 ‘그것’이라고 번역해 서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지(之)를 ‘표(樅, 김매다)’라고 번역해야 의미가 소통된다.

균(麋, 노루)이 균(稭, 묵다)으로 가차되었는데, 그에 대한 원문 ‘가균위지(段麋爲之, 균(麋, 노루)이 균(稭)의 가차자로 사용되었다.)’는 지(之, 그것)가 균(稭)을 대용한 것이다. 지(之)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지(之)를 ‘균(稭, 묵다)’으로’라고 번역해야 의미가 소통된다.

폐(肺, 허파)가 폐(柿, 대팻밥)로 가차되었는데, 그에 대한 원문 ‘차폐지가차자야(此樅之假借字也, 이 폐(肺)는 폐(樅)의 가차자이다.)’는 차(此, 이것)가 폐(肺)를 대용한 것이다. 차(此)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차(此)를 ‘폐(肺, 대팻밥)’이라고 번역해야 의미가 소통된다.

- 간(干)은 ‘침범하다’이다. 《시경》 〈용풍(鄘風) 간모(干旄)〉의 간모(干旄)와 간정(干旌)의 간(干, 장대)은 간(竿, 장대)의 가차자이다. [干, 犯也. 《毛詩》干旄·干旌假爲竿字.)
- 수(脩)는 ‘육포(肉脯)’이다. (수치(修治)는 포를 두들겨 생강과 계피를 더하는 것을 말한다. 경전(經傳)에는 대부분 수(脩)가 수치(修治)의 수(修, 닦다)의 가차자로 사용되었다.) [脩, 脯也. (修治之謂捶而施薑桂. 經傳多假脩爲修治字.)]

간(干, 침범하다)은 간(竿, 장대)으로 가차되었는데, 그에 대한 원문 “간모·간정가위

22) 폐(樅, 柿): 《檀辭典》에는 자형(字形)이 “폐(柿)”로 실려 있다. 해서 자형은 ‘시(柿·柿, 김)’와 같다.

23) 한서의 중산정왕승전(中山靖王勝傳): 《한서》 〈중산정왕승전(中山靖王勝傳)〉에 “신이 비록 재주가 없지만 폐부를 얻었습니다.[臣雖薄也, 得蒙肺腑.]”라고 하였다.

24) 유향전(劉向傳): 《한서》 〈유향전(劉向傳)〉에 “신은 다행히 폐부에 의탁하게 되었습니다.[臣幸得託肺腑.]”라고 하였다.

25) 전분전(田蚡傳): 《한서》 〈전분전(田蚡傳)〉에 “저는 폐부로 재상이 되었습니다.[蚡以肺附爲相.]”라고 하였다.

간자(干旄·干旌假爲竿字)”는 “간모(干旄)와 간정(干旌)<의 간(干)>은 간(竿, 장대)의 가차자이다.”로 번역되어, 간(干)·모(旄)·정(旌)에서 어느 것인지 지정해야 하므로 ‘-의 간(干)’을 보충하여 번역해야 한다.

수(脩, 육포(肉脯))는 수(修, 닦다)로 가차되었는데, 그에 대한 원문 “가수위수치자(假脩爲修治字)”는 “수(脩)가 수치(修治)의 <수(修, 닦다)의> 가차자로 사용되었다.”로 번역되어, 수(脩)와 치(治)에서 어느 것인지 지정해야 하므로 ‘수(修, 닦다)의’를 보충하여 번역해야 한다.

III. 결론

이상으로 문자 용어의 실상과 국역을 《설문》〈단주〉본(本)에 의해 살펴보고, 경서(經書) 등에서 사례를 제시하며 그 국역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음(直音)의 변형에서는 《설문》〈단주〉본(本)에서 기(檜)는 기(豈, ㄱ)의 평성, 표(鰲)는 표(瓢, ㅍ)의 상성, 봉(葑)은 봉(封, ㅂ)의 거성, 역(役)은 영(穎, ㅇ)의 입성을 다루었다. 그리고 경서(經書) 등에서 선(洗)은 선(先)의 상성, 완(玩)은 완(玩)의 평성, 특(忒)은 특(特)의 입성, 탐(紃)은 탐(貪)의 상성, 라(裸)는 라(羅)의 상성, 촌(寸)은 촌(村)의 거성을 다루었다.

독약(讀若)·독여(讀如)와 독위(讀爲)·독왈(讀曰)에서는 독약(讀若)·독여(讀如)가 두 글자 사이의 음만 유사할 뿐 의미는 관련되지 않는 것이고, 독위(讀爲)·독왈(讀曰)이 가차로서 음의(音義)를 바꾸는 즉 글자를 바꾸는 것을 살폈다. 독약(讀若)·독여(讀如)에서는 ‘산(禡)은 산(筭)과 같이 읽는다.[讀若筭]’, ‘방(旁)은 방(滂)과 같이 읽는다.[旁讀如滂]’, ‘철(𪚩)은 철(徹)과 같이 읽으니[讀若徹]’, ‘암(闇)은 순암(鶡鶩)의 암(鶡)과 같이 읽으니[讀如鶡鶩之鶡]’를 다루었다. 독위(讀爲)·독왈(讀曰)에서는 ‘부(報)는 부질(赴疾, 빠르다)의 부(赴)로 바꾸어 독해해야 한다.[報讀爲赴疾之赴.]’, ‘조(俎)는 바꾸어 독해하기를 조(阻)로 한다.[俎, 讀曰阻.]’, ‘치(紕)는 치(澌)로 바꾸어 독해하였는데[讀爲澌]’, ‘희(既, 양식(糧食))는 희(飢)로 바꾸어 독해하니,[既讀曰飢]’를 다루었다.

지언(之言) 지위언(之爲言)에서는 이들 용어가 쌍성(雙聲)·첩운(疊韻)으로 주석하는 것으로, 귀(鬼)는 귀(歸)와 첩운이고, 경(脛)은 경(莖)과 첩운이고, 섬(殲)은 섬(纖)과 쌍성·첩운이고, 선(洗)은 선(先)과 쌍성·첩운이고, 불(祓)은 불(弗)과 쌍성·첩운이고, 학(學)은 효(效)와 쌍성이고, 삭(朔)은 소(蘇)와 쌍성이 되는 것을 밝혔다.

동자(同字) 주석(註釋)에서는 사(巳, 여섯째 지지(地支)/사)와 사(巳, 뱀/사), 몽(蒙, 몽괘(蒙卦))과 몽(蒙, 어리다), 비(比, 비괘(比卦))와 비(比, 친하다), 박(剝, 박괘(剝卦))과 박(剝, 손상하다), 허(虛, 느슨하다)와 허(虛, 비다), 철(徹, 10% 세금)과 철(徹, 통용된다), 정(正, 과녁 중심의 새 이름)과 정(正, 바르다), 역(易, 바꿈)과 이(易, 쉽다), 풍(風, 국풍)과 풍(風,

고동(鼓動)시키다), 부(夫, 장부)와 부(夫, 장부의 도리를 한다), 관(觀, 누관(樓觀))과 관(觀, 바라보다)의 피주석어와 주석어의 의미가 다른 것을 밝혔다.

당위(當爲) 당작(當作)에서는 오자(誤字)를 바로잡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데, <우서(虞書)>는 <당서(唐書)>, ‘벽상기미색야(壁上起美色也)’는 ‘규상기미색자[圭上起美色者]’, 관작(舊爵)은 새 이름이므로 관작(舊雀), 친(親)은 신(新), 소(素)는 색(索), 명(命)은 만(慢) 또는 태(怠), <동궁지십(彤弓之什)>의 259구(句)는 261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성왕(成王)은 강왕(康王)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성왕(成王)이란 글자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밝혔다.

가차(假借)에서는 ‘본유기자지가차(本有其字之假借, 본래 자기 글자가 있어도 빌려 쓰는 가차)’를 살폈는데, 류(旒, 깃발)와 류(旒, 깃술)가 류(灑, 면류관 옥 장식), 철(巾, 초목이 처음으로 자란다)이 초(艸, 풀), 세(洒, 씻다)가 쇠(灑, 물뿌리다), 러(裴, 군대)가 로위(魯衛)의 로(魯, 나라 이름), 소(疋, 발)가 족(足, 발)의 가차임을 밝혔다. 또 생형가차(省形假借), 즉 생차(省借)로는 저(午, 절구공이)가 저(杵), 비(匕, 합치다)가 비(比), 증(曾, 더하다)이 증(增), 윤(允, 나아가다)이 윤(胤)의 생차(省借)인데, 이들은 자형의 일부분(木·日·土·本)을 생략하고 일부분(聲符, 午·匕·曾·允)만 남겨 자형(字形)이 줄어 이룩된 가차로, 그 경향은 대부분 형부(形符, 木·土·本)를 생략하고 성부(聲符, 午·曾·允)만 남긴 것을 밝혔다. 또 부(孚, 알이 깨다)가 부(稭, 벼의 겉껍질), 해(胲, 엄지발가락의 털 난 곳 살)가 기(臍, 뱀의 살), 연(飢, 말하다가 탄식하다)이 연次, 침), 추(追, 쫓다)가 퇴(鎚, 옥을 다듬다), 상(詳, 자세히 논의하다)이 상(祥, 상서롭다)과 양(詳·佯, 거짓)으로 가차되었는데, ‘무엇이’에 해당하는 주어를 보충하였으니, 예컨대 “해(胲)는 기(臍, 뱀의 살)의 가차자로 사용되었다.[假爲臍也.]”에서 원문에 없는 ‘해(胲)는’을 보충하여 번역한 것이다. 또 포(麋, 고라니)가 표(麋, 짐을 매다)로 가차된 것에서 원문 가포위지(假麋爲之)의 지(之)가 표(麋, 짐매다), 군(麋, 노루)이 군(糶, 묵다)으로 가차된 것에서 원문 가군위지(假麋爲之)의 지(之)가 ‘군(糶, 묵다)으로’라고 번역해야 의미가 소통됨을 밝혔다. 또 폐(肺, 허파)가 폐(柿, 대팻밥)로 가차된 것에서 원문 “차폐지가차자야(此柿之假借字也.)”의 차(此, 이것)가 ‘폐(肺, 대팻밥)는’이라고 번역되어야 의미가 소통됨을 밝혔다. 또 간(干, 침범하다)이 간(竿, 장대)으로 가차된 것에서 그 원문 ‘간모·간정가위간자(干旄·干旌假爲竿字)’의 ‘간모(干旄)와 간정(干旌)은 간(竿, 장대)의 가차자이다.”로 번역되어 ‘간(竿, 장대)의’를 보충하고, 수(脩, 육포(肉脯))는 수(修, 닦다)로 가차된 것에서 그 원문 ‘가수위수치자(假脩爲修治字)는 ‘수(脩)가 수치(修治)의 수(修, 닦다)의 가차자로 사용되었다.’로 번역되어 ‘수(修, 닦다)의’를 보충하여 번역해야 함을 밝혔다.

이상의 작업은 문자 용어에 대한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그 의미에 의한 국역의 문제를 일부 밝혔다. 이외에도 문자 용어와 관련된 국역의 문제는 매우 많다. 이 분야에 대한 후고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앞은 약호임)

- 《설문》: 《說文解字注》(段注本),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1995. 7次印刷. (《底本》)
- 《고림》: 《說文解字詁林正補合編》(12冊), 鼎文書局, 臺北市, 民國72年. 2版.
- 《字典彙編》(30冊), 于玉安·孫豫仁, 國際文化出版公司, 北京, 1993. 1版.
- 《형자전》: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高樹藩, 正中書局, 臺北市, 民國18年, 增訂3版.
- 《大漢和辭典》(13冊), 諸橋轍次, 大修館書店, 東京, 昭和 43年. 縮寫版第2刷.
- 《中文大辭典》(10冊),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國文化學院華岡出版有限公司, 臺北市, 民國68年. 4版.
- 《한사전》: 《漢語大辭典》(13冊), 漢語大辭典編輯委員會漢語大辭典編纂處, 漢語大辭典出版社, 上海, 1993. 1版.
- 《한자전》: 《漢語大字典》(9冊),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湖北辭書出版社·四川辭書出版社, 湖北省·四川省, 1990. 1版.
- 《檀辭典》: 《漢韓大辭典》(16冊),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檀國大學校出版部, 서울, 2008. 初版.
- 《文字學》, 衛聚賢, 黎明文化事業公司, 臺北市, 民國68年, 初版.
- 《說文解字研究法》, 馬叙倫, 太平書局, 香港, 1976. 重印.
- 《中國文字學史》(2冊), 胡樸安, 臺灣商務印書館股份有限公司, 臺北市, 民國 68年. 8版.
- 《中國文字學通論》, 謝雲飛, 學生書局, 臺北市, 民國69年. 7版.
- 《中國文字學通論》, 謝雲飛, 學生書局, 臺北市, 民國69年, 7版.
- 《文字學綱目》, 杜學知, 臺灣商務印書館股份有限公司, 臺北市, 民國73年. 4版.
- 《中國聲韻學通論》, 林尹, 黎明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台北市, 民國77年.
- 《訓詁學概論》, 齊佩瑢,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臺北縣, 民國74年. 初版.
- 《訓詁學大綱》, 胡楚生, 蘭臺書局, 台北市, 民國74년. 4版.
- 《簡明訓詁學》, 白兆麟, 臺灣學生書局, 板橋市, 民國85年. 增訂版.
- 《漢字學總論》, 李敦柱, 博英社, 서울, 1992. 全訂增補版.
- 《훈고학의 이해》, 정명수·장동우 옮김. 동과서1997.
- 《漢語音韻》, 吳世駿, 中文出版社, 대구, 1993. 초판.
- 《설문해자주 부수자 역해》, 염정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초판11쇄.
- 《說文解字注에 나타난 段玉裁의 古今字觀 研究》, 문수정, 2014,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AI와 기계 번역

尹 鍾 雄

(본회 정보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I. 서론
- II. 번역 플랫폼
- III. LLM 모델의 선택 및 최적화
- IV. 후처리(포스트-에디팅)
- V. 번역 품질의 평가
- VI. 맺음말

〈초록〉

최근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등장은 한문 번역 분야에서 기술적 전환점을 가져왔다. LLM은 범용 언어 영역에서 인간 수준의 이해 능력을 입증했지만, 한문 고전 번역과 같이 고도로 전문화된 도메인에서는 아직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LLM 모델은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향후 발전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에 개별 연구자나 기관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보다 이들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우수한 LLM 모델들을 기반으로 모델 선택, 파인튜닝, 프롬프트 설계, 외부 지식 통합, 후처리 등의 요소를 체계적으로 조합함으로써 번역 성능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한한 병렬 말뭉치를 꾸준히 구축해 온 전통문화연구회의 연구 사업 일환으로, LLM을 활용한 동양고전 번역의 실질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번역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LM 기반 한문 번역의 압도적인 잠재력을 활용하면서도 신뢰성 및 경제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핵심 방법론들을 중점적으로 모색한다.

1. LLM 모델 선택 및 파인튜닝 전략

한문 번역에 최적화된 베이스 모델을 선택하고, Full Fine-tuning 대 PEFT의 비

용-성능 분석 및 파국적 망각(Catastrophic Forgetting) 방지 기법을 분석한다.

2.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번역과 검증에 필요한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Chain-of-Thought(CoT) 기법을 적용하며, 번역 스타일(직역/의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 컨텍스트 관리 및 프로세스 개선

긴 문서 번역 시 주의력 소멸(attention decay)이나 Lost in the Middle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초벌 번역, 검토, 검증, 교정 등의 다단계 번역 프로세스를 설계한다.

4. 외부 지식 통합

LLM이 이해지 못하는 한문 지식과 전문 용어 처리, 지침의 적용 등을 위해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및 GraphRAG를 구성하여 번역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5. 후처리 및 품질 검증

LLM의 일관성 없는 출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침 기반 후처리를 방안을 분석한다. 후처리 단계에서는 용어 일관성 검증, 한자 병기 처리, 주어 생략 처리, 한국어 존대말/높임말 처리 등을 자동화하고 일반적인 맞춤법 교정 방안을 검토한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LLM 기반 한문 번역을 위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며, 향후 실증 연구에서는 LLM이 학습하지 않은 인터넷 미공개 중국 고전을 선정하여 번역을 수행하고, 기존 평가 지표(BLEU)의 적합성을 검증하며 한문 번역 특화 평가 지표(용어 일관성 점수, 존칭 표현 정확도, 문맥 적합도 등)를 개발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I. 서론

1. 연구 배경

한문 고전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상적, 역사적 유산을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방대한 한문 문헌이 존재하며, 이들 문헌에 대한 번역은 역사 연구와 문화 계승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문은

주어와 목적어가 빈번히 생략되고, 하나의 한자가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며, 전고(典故) 인용이 많아 배경지식 없이는 정확한 이해가 어렵다. 또한 시대별, 문체별로 표현 방식과 어휘가 크게 다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문 번역가를 양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방대한 문헌을 인력만으로 번역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한문 기계 번역에 대한 시도는 다양한 기술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초기의 규칙 기반 기계 번역(RBMT)은 명확한 규칙이 있는 문장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보였으나, 한문의 함축적 표현과 문맥 의존성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1990년대 이후 통계 기반 기계 번역(SMT)이 등장하였으나 병렬 말뭉치의 절대적 부족으로 실용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신경망 기계 번역(NMT)이 주목받으며 유창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긴 문맥 이해와 전문 지식 부족으로 학술적 번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전통문화연구회는 2017년부터 한문 기계 번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한(漢韓) 병렬 말뭉치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왔다. 전문 번역가들이 번역한 고품질 번역문을 원문과 정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시대별, 문체별, 장르별로 분류하여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병렬 말뭉치는 초기에는 NMT 모델 학습에 활용되었으나, LLM 시대에 들어서는 파인튜닝 데이터와 RAG 시스템의 지식 베이스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 11월 ChatGPT의 공개는 자연어 처리 분야 전반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은 수천억 개의 매개변수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범용적인 언어 이해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기계 번역 분야에서도 기존의 NMT를 크게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 방대한 사전 학습을 통해 한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문맥 파악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긴 문맥을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컨텍스트 윈도우를 제공한다. 또한 프롬프트를 통해 번역 지침과 배경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도메인 특화가 용이하다. LLM은 문맥 이해 능력이 뛰어나 주어 생략이나 대명사 지시 대상을 추론할 수 있고, Few-shot Learning 능력으로 적은 예시만으로도 번역 스타일을 학습할 수 있으며, CoT(Chain-of-Thought) 방식으로 복잡한 문장도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문 고전 번역과 같은 고도로 전문화된 도메인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범용 지식과 전문 지식 간의 본질적 차이에서 비롯되며, LLM을 학습할 때 현재 수준보다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학습시키지 않고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LM 모델은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향후 발전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우수한 LLM 모델들을 기반으로 한문 번

역에 최적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LLM을 이용하여 번역할 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LLM 모델의 선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번역 프로세스의 설계, 도메인 파인튜닝, RAG를 통한 외부 지식 통합, 리랭커를 활용한 검색 성능 향상, 체계적인 후처리 등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조합하고 최적화함으로써 한문 번역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수행하는 고전어휘정보화 동양고전 말뭉치 구축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LLM을 활용하여 동양고전 번역의 실질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번역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LLM의 번역 성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문 번역을 위한 LLM 활용에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구체적으로는 LLM 모델의 선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파인튜닝 전략(Full Fine-tuning, PEFT 등), 임베딩 모델의 종류, 리랭커 모델, RAG/GraphRAG 구성, 벡터스토어의 선택, 번역 파이프라인 설계, 메타데이터 보완, 후처리 방법론 등을 들 수 있다.

LLM 모델은 빅테크 기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시킨 대규모 사전학습 모델로, 기존의 개별 딥러닝 모델로는 그 발전 속도나 성능을 따라갈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재의 상용 LLM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기존의 딥러닝 모델로는 개별 연구자나 기업이 LLM을 능가하는 새로운 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는 기술적으로, 비용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문 번역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우수한 상용 LLM을 베이스 모델로 선택하여 도메인 파인튜닝, 프롬프트 최적화, RAG를 통한 외부 지식 통합, 그리고 체계적인 후처리를 조합하여 성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LLM 기반 번역의 압도적인 잠재력을 활용하면서도 신뢰성 및 경제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LLM 모델의 선택과 파인튜닝 전략 : 목표 도메인에 최적화된 베이스 모델 선택, Full Fine-tuning 대 PEFT의 비용-성능 분석, Catastrophic Forgetting 방지 기법 적용, 상용 모델과 오픈소스 모델의 장단점 비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 번역과 검증에 필요한 프롬프트 설계, Chain-of-Thought(CoT) 기법 적용, 프롬프트 데이터 구조화(Markdown vs XML), 인풋 데이터 크기 최적화

컨텍스트 관리 및 프로세스 개선 :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 전략,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의 적용,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를 통한 다단계 번역 프로세스(초별 번역→검토→검

증→스타일 조절→교정), Lost in the Middle 현상 극복, 캐시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외부 지식 통합 및 데이터 처리 : RAG 및 GraphRAG 활용, 임베딩 모델 선택, 벡터스토어 구성, 청킹 전략, 리랭커를 통한 검색 성능 향상, 전고(典故) 자동 식별 및 처리, 메타데이터 보완

후처리 및 품질 검증 : 자동화 가능한 검증(용어 일관성, 한자 병기, 문장부호, 맞춤법, 띄어쓰기), 일반적인 맞춤법 교정 단계, 주어 생략 처리, 높임말·존대말 처리, 지칭 기반 후처리, 평가 지표 개발, 피드백 루프 구축

도메인 및 문체 최적화 : 시대별·문체별·분야별 학습용 말뭉치 분류, 구·절·문장 단위 번역 단위 조정, 주석 번역 처리, 번역 스타일 지정

다만, 본 연구에서는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인터넷 미공개 중국 고전을 선정하여 대규모로 번역을 수행하고 정량적 평가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본격적인 실증 연구는 본 연구에서 마련한 방법론적 기반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II. 번역 플랫폼

1. 랭체인(LangChain)

LLM을 구동하려면 적절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LLM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랭체인(LangChain)과 같은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랭체인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이다. 이는 언어 모델을 다른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고, 환경과 상호 작용하며,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과정을 단순화하는 도구와 추상화를 제공한다. 랭체인은 사용 편의성, 유연성, 확장성, 오픈 소스, 커뮤니티 지원, 문서화,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통합, 확장성 등의 장점이 있다. 이는 개발자가 원하는 언어 모델을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LLM 모델을 클로드 4.0에서 제미니2.5 pro로 변경할 때 랭체인을 사용하면 최소한의 코드 변경만으로 모델을 교체할 수 있다.

2. 랭그래프(RangGraph)

앞서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를 통해 번역과 검증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다. 앤드류 웅 교수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Agentic Workflow)를 적용한 GPT 3.5가 GPT4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였다. 워크플로에이전트를 구

현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가 랭그래프(LangGraph)이다. 랭그래프는 복잡한 AI 작업 흐름을 그래프 구조로 모델링하여 각 단계별 조건과 분기점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다. 한문 번역과 같은 복합적인 작업에 LangGraph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다단계 워크플로우를 구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세울 수 있다.

1단계 : 전처리 및 분석

- 원문을 의미 단위로 분할
- 개체명 인식(NER)을 통해 인명, 지명, 관직명 추출
- 핵심 용어와 전고 식별

2단계 : 외부 지식 검색 (RAG)

- 식별된 개체명과 용어에 대한 배경 정보 검색
- 기존 번역 사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 문맥 검색
- 관련 학술 자료 및 주석 정보 수집

3단계 : 초벌 번역

- 수집된 정보를 컨텍스트로 제공
- 명시된 번역 스타일과 용어 원칙에 따라 번역 수행
-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맥락 유지

4단계 : 품질 평가

- 번역 결과를 자동 평가(용어 일관성, 존칭 표현, 누락 여부 등)
- 품질 점수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 문제 지점 식별

5단계 : 조건부 재처리

- 평가 결과에 따라 재번역 필요 여부 판단
- 문제가 있는 부분만 선별하여 재처리
- 피드백 루프를 통해 개선

6단계 : 후처리 및 검증

- 전체 번역의 일관성 검증
- 맞춤법 및 띄어쓰기 교정
- 최종 형식 정리

이러한 다단계 워크플로우는 LangGraph의 상태 관리 기능을 통해 각 단계의 결과를 저장하고, 조건에 따라 동적으로 작업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품질 평가 단계에서 특정 부분의 점수가 낮으면 자동으로 해당 부분을 재번역하거나, 더 많은 참조 자료를 검색하여 다시 시도할 수 있다.

3.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GraphRAG

LLM은 제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외부 지식을 통합하여 대형 언어 모델(LLM) 생성을 강화하는 기술인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가 활용되고 있다. RAG는 검색을 통해 얻은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최신 데이터를 검색하여 반영함으로써, 모델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정보에 대응할 수 있다. 번역에 RAG를 적용할 경우에 번역에 필요한 외부 지식을 주입하거나 병렬말뭉치에서 유사한 번역을 찾아서 번역에 참조하는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파인튜닝과 RAG는 대규모 언어모델을 특정 도메인에 최적화시키는 두 가지 주요 접근 방법이다. 파인튜닝은 사전 훈련된 모델의 매개변수를 특정 도메인이나 작업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법이다. 모델의 가중치 자체를 변경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적응시킨다. 반면 RAG는 유사도 검색을 기반으로, 모델의 매개변수를 변경하지 않고 외부 지식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생성에 활용한다. 두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델 변경 여부이다. 파인튜닝은 모델 자체를 변경하여 도메인 지식을 내재화시키지만, RAG는 모델은 그대로 두고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이로 인해 파인튜닝은 상당한 컴퓨팅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며,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려면 재훈련이 필요한 반면 RAG는 상대적으로 구현이 쉽고 새로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것만으로 지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III. LLM 모델의 선택 및 최적화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등장은 한문 번역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전통적인 규칙 기반 번역이나 초기 신경망 번역 모델이 한문의 함축적 표현과 문맥 의존성을 처리하는 데 한계를 보인 반면, LLM은 방대한 학습 데이터와 문맥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번역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LLM을 한문 번역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번역 목적과 도메인 특성에 따라 어떤 LLM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다음으로 범용 모델을 한문-한국어 번역에 특화시키기 위한 파인튜닝 방법을 고찰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번역 지침과 용어 사전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전처리, 번역, 후처리를 아우르는 전체 프로세스에서 고려해야 할 개선 사항들을 논의하여, 학술적으로 엄밀하고 실용적으로 유용한 한문 번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1. LLM 모델의 선택

2022년 OpenAI의 ChatGPT가 공개된 이후, 구글의 Gemini 시리즈, 엔트로픽의 Claude 시리즈, xAI의 Grok 시리즈 등 다양한 LLM이 경쟁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초거대 언어 모델은 딥러닝 기반 번역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한문 번역 능력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한문 번역의 성능은 절대적으로 선택된 LLM 모델에 달려 있다. 거의 매월 새로운 모델이 공개되고 각 모델의 한문 처리 능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공개되는 모델들 중에서 한문 번역에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모델에 대한 실제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직접 확인하고 비교 검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서만 해당 자료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2025년 10월 현재 공개된 주요 모델은 다음과 같다.

<표 1> LLM 모델

모델 이름	개발사	발표일	주요 기능	접근 방식
GPT-5	OpenAI	2025-08-07	멀티모달(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대화/추론 강화	프로프라이어티
Claude 4.5	Anthropic	2025-05-22	코딩, 장기 작업, Opus/Sonnet 변형	프로프라이어티
Grok 4	xAI	2025-07-09	실시간 데이터, 고급 추론, X 통합	프로프라이어티
Gemini 2.5 Pro	Google	2025-03-25	1M 토큰, 다모달, 사실 검증	프로프라이어티
Llama 4	Meta AI	2025-04-05	멀티모달(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픈소스	오픈소스(커뮤니티)
DeepSeek R1	DeepSeek	2025-01-20	수학, 코딩, 비용 효율적	오픈소스
Qwen 3-Max	Alibaba	2025-09-24	32K 토큰, 다국어, 기업 채택	오픈소스(Apache 2.0)

2. 파인튜닝

한문 번역을 위한 LLM 개발에서 파인튜닝(Fine-tuning)은 사전 학습된 모델을 특정 도메인에 적응시키는 핵심 기법이다. 파인튜닝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베이스 모델의 성능을 한문 번역에 최적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특히 도메인 특화 데이터를 활용한 파인튜닝은 번역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문 번역에 특화된 LLM 파인튜닝 전략과 실무적 고려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1) Full Fine-tuning vs PEFT

파인튜닝은 조정 범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풀 파인튜닝(Full Fine-tuning)은 사전 학습된 모델의 모든 레이어와 매개변수를 업데이트하고 최적화

하여 목표 작업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으나, 상당한 컴퓨팅 리소스와 시간이 필요하며 한문 기계 번역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

반면 매개변수 효율적 파인튜닝(Parameter-Efficient Fine-Tuning, PEFT)은 모델의 일부 매개변수만 업데이트하거나 작은 모듈을 추가하여 학습하는 방법으로, 자원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파인튜닝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파인튜닝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PEFT 기법을 활용하면 일반 GPU 환경에서도 파인튜닝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록 풀 파인튜닝에 비해 약간의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2) Catastrophic Forgetting 방지

LLM을 한문 번역 데이터로 미세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파국적 망각(Catastrophic Forgetting) 현상이다. 이는 모델이 새로운 작업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학습한 다른 언어 능력이나 일반적 지식을 상실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파라미터 효율적 미세조정 기법이나 부분 층 동결(Partial Layer Freezing)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제안된 RAT(Redundancy-Aware Tuning) 기법은 LLM의 중요하지 않은 일부 계층만 업데이트하고 나머지는 동결함으로써, 기존 지식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능력을 학습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번역 작업에 특화하는 동안에도 모델의 기초 언어 능력과 사실 지식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고품질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과적합(Overfitting)이 발생할 수 있으며,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하면 모델이 잘못된 패턴을 학습할 위험이 있다.

(3) 모델 선택의 중요성

파인튜닝의 효과는 베이스 모델의 품질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베이스 모델은 한국어와 중국어 또는 한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파인튜닝 후 최종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모델이 공개되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모델을 베이스로 선택할 것인가는 매우 전략적인 결정이다.

(4) 상용 LLM vs 오픈소스 LLM

GPT-4o와 같은 상용 모델을 베이스로 파인튜닝할 경우, 가장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상용 LLM이 파인튜닝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하더라도 비용과 접근성에 제약이 있다. 반면 Llama 시리즈, Qwen, Gemma 시리즈

등 오픈소스 모델은 대부분 파인튜닝이 가능하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상용 모델에 비해 성능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Llama3를 파인튜닝하여 GPT-4와 유사한 범용 성능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한문이라는 특수 분야에 적용 시 전문 번역가나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만약 GPT-4o를 베이스로 파인튜닝한다면, 오픈소스로 파인튜닝한 것보다 명확하게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딥시크(DeepSeek)와 같이 중국어에 강점을 가진 오픈소스 모델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한문 번역에 최적화하기 위한 파인튜닝 비용이 상당히 소요된다. 현실적으로는 양자화(Quantization)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양자화된 모델은 번역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5) 비용-성능 균형 고려

파인튜닝 전략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예산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번역 품질이 뛰어나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감수할 수 있으나, 한문 번역의 목적이 단순히 접근성 향상인지 전문 번역 품질 확보인지에 따라 투자 수준이 달라진다. 둘째, 성능 향상 폭을 고려해야 한다. 오픈소스 모델을 파인튜닝했을 때 상용 모델보다 더 우수하거나 유사한 성능을 보일 수 있는지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모델이 공개될 때마다 파인튜닝을 새로 수행해야 하므로, 장기적 유지보수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6) 데이터 품질과 양의 제약

파인튜닝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양에 크게 좌우된다. 고품질의 한문-한국어 병렬 코퍼스가 충분하지 않으면 과적합 가능성이 커지며, 제대로 라벨링되지 않은 데이터나 편향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모델이 잘못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 이는 체계적 훈련을 통해 전문 번역가를 양성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이나, 인간은 학습이 반복되면 능력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반면, 인공지능은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7) 성능 예측의 불확실성

파인튜닝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을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실무적 난제다. GPT-4o를 베이스로 했을 때 한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성능이 우수할지, 아니면 중국 고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성능이 더 나을지는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상용 LLM의 경우 어휘 추가 방식으로 번역 품질을 높일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한다.

한문 번역을 위한 LLM 파인튜닝은 PEFT 기법의 발전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데이터 품질, 베이스 모델 선택, 비용-성능 균형, 모델 종속성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오픈소스 모델이 상용 모델에 비해 성능이 낮은 것이 현실이지만, 성능 향상 가능성을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3.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는 AI에게 원하는 답변이나 결과를 얻기 위해 작성하는 질문이나 지시문을 말한다. LLM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좋은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번역을 실행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프롬프트는 한문 텍스트의 문체에 따라 각각 다른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다. 예컨대 경전(經典), 시(詩), 사서(史書), 일반 문집 등에 따라 각각 다른 프롬프트를 생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프롬프트는 번역 파이프라인에 따라 필요한 프롬프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 중간 단계에 표점이나 개체명인식 공정이 추가된다면 별도의 프롬프트로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번역 스타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번역을 축자역 위주로 지시할 수도 있고 의미 전달에 방점을 둔 의역 위주로 번역하도록 번역 스타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프롬프트는 몇 번의 샘플 번역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분량의 텍스트를 배치로 번역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다.

(1) Chain of Thought(CoT) 기법의 적용

한문 번역과 같은 복잡한 언어 작업에서는 LLM이 단순히 입력에 대한 출력을 생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해석 가능성 중에서 문맥에 맞는 번역을 선택하며, 복잡한 문장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단계 추론 과정을 명시적으로 프롬프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CoT 방식이다.

〈Reasoning for Translation: Comparative Analysis of Chain-of-Thought and Tree-of-Thought Prompting for LLM Translation〉에서는 Tree-of-Thought(CoT의 확장된 형태) 프롬프트가 GPT-4o Mini 모델을 사용한 유럽 언어, 특히 영어-독일어 번역에서 표준 방법에 비해 BLEU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이는 ToT가 다중 후보 탐색을 통한 언어적 모호성 처리에 효과적임을 수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능 향상이 실험 결과로 뒷받침된다.

또한 DeepSeek가 의료, 금융, 법률 분야에서 CoT(Chain-of-Thought) 방식을 활용하여 환자 데이터 분석, 금융 데이터 해석, 법률 문서 분석 등 복잡한 전문 분야 번역에서 높은 정확도와 유연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¹⁾

(2) 프롬프트 데이터의 구조

LLM을 이용하여 번역할 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식은 마크다운과 XML 두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마크다운 방식은 간결한 문법으로 작성이 쉽고 사람이 직관적으로 읽고 편집할 수 있다. 협업 도구나 버전 관리 시스템과의 통합이 용이하여 실시간 공유와 수정이 필요한 환경에서 유리하다. 단순한 문서 작업이나 빠른 프로토타이핑에 적합하다.

XML 방식은 태그 기반의 엄격한 구조로 데이터의 계층과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원문-번역문의 대응 관계, 출처 정보, 주석, 교감 정보, 평가 의견 등 복잡한 메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스키마를 통한 데이터 검증, 자동화 처리, XSLT 변환, API 연동 등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이 뛰어나며, 장기적인 데이터 보존과 재활용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따라서 고전번역 데이터처럼 복잡한 구조와 메타데이터 관리가 중요한 경우 XML이 더 적합하며, 단순 텍스트 편집이나 협업 문서는 마크다운이 효율적이다. 데이터의 복잡도, 활용 목적, 시스템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표 2> 마크다운 방식과 XML 마크업

구분	마크다운	XML 마크업
장점	사람이 읽기 쉽고 간결하여 가독성이 뛰어나 기본적인 텍스트 형식 및 간단한 서식(헤더, 리스트 등)을 쉽게 추가할 수 있음	계층적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복잡한 정보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음 데이터 교환 및 시스템 통합에 유리함
단점	복잡한 데이터 구조나 계층적 정보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태그가 부착되어 사람이 읽기에 가독성이 떨어짐 태그가 부착되어 텍스트가 길어질 수 있음

4. 번역 스타일 지정

LLM을 활용한 한문 번역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번역 스타일과 형식 지침을 프롬프트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동일한 원문이라도 번역의 목적과 독자층에 따라 학술적 직역, 현대어 의역, 대중적 풀이 등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 번역 스타일을 효과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1) <https://medium.com/@adibostoninstitute123/how-ai-models-like-openai-and-deepseek-use-chain-of-thought-models-their-effectiveness-and-98726ae79c2f>

명시해야 한다.

번역 톤과 문체 : 학술적 번역, 원문에 사용된 어휘를 충실히 반영하는 직역, 현대어 의역, 이해하기 쉬운 대중적 번역 등 전체적인 번역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문장 구조, 어휘 선택, 서술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번역의 누락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직역 위주로 번역을 지시하고, 후처리를 통해서 내용을 다듬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자 병기 규칙 : 한자는 괄호 안에 병기, 주요 개념은 원문을 함께 표기, 인명과 지명만 한자 병기 등 구체적인 형식 지침을 제공한다. 한자의 병기는 한자가 출현하는 위치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후처리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

이는 번역문의 가독성과 학술적 정확성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용어 통일 : 특정 개념어의 번역 방식을 사전에 정의한다. 예를 들어 성리학 문헌에서 理는 이치로, 氣는 기로 번역과 같이 핵심 용어의 번역 원칙을 명시하면, 문헌 전체에 걸쳐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존칭 표현 : 한문 고전에서는 인물의 신분과 관계에 따라 존칭 표현이 달라진다. 주상에 대해서는 최고 존칭을 사용하고, 관료에 대해서는 보통 존칭을 사용 등의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

5.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 전략

각 LLM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 토큰 수인 컨텍스트 윈도우(context window)가 정해져 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앞부분의 정보가 잘리거나 LLM이 전체 맥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번역 품질이 저하된다. 따라서 번역 작업에서 원문 텍스트의 길이가 긴 경우, 적절한 단위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 3>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

회사	모델	컨텍스트 윈도우(토큰)	출력 토큰 한도(토큰)
Google	Gemini 1.5 Pro	최대 2,000,000	8,192
	Gemini 1.5 Flash	1,000,000	8,192
Anthropic	Claude 3.5 Sonnet	200,000	8,192
	Claude 3.5 Haiku	200,000	8,192
	Claude Enterprise	500,000 (2024년 9월)	-
OpenAI	ChatGPT o1	200,000	100,000
	ChatGPT o1-mini	128,000	65,536
	ChatGPT 4o	128,000	16,384
	ChatGPT 4o-mini	128,000	16,384
Meta	Llama 3.1 모델	128,000	-
Mistral AI	Mistral Large 2	128,000	

그러나 단순히 토큰 한도 내로 분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번역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번역의 품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LLM은 문장 단위보다 더 큰 의미 단위(문단, 논리 블록)에서 가장 높은 번역 품질을 보이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LLM의 문맥 이해 능력이 넓은 범위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문장 하나만 보고 번역할 때는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 이를 추론하기 어렵지만, 문단 전체를 함께 제공하면 맥락을 통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번역 중 오류 발생 빈도에 따라 번역 단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동적 분할(dynamic segmentation)’ 전략이 효과적이다. 초기에는 비교적 큰 의미 단위로 번역을 시도하되, 오류가 자주 발생하거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더 세분화하여 재시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소프트웨어 코드 번역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코드 번역에서 단위를 잘못 설정하면 함수나 구조가 분리되어 반복적인 오류가 발생하므로, 의미 단위별로 묶고 의존성이 있는 내용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한문 번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건이나 논리적으로 연결된 내용은 함께 번역해야 인물 관계, 시간 흐름, 인과 관계 등이 명확히 유지된다.

컨텍스트 윈도우의 크기가 충분히 크더라도 모든 정보가 균등하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Liu et al.(2023)의 연구에서 보고된 ‘Lost in the Middle’ 현상은 LLM이 긴 입력 텍스트를 처리할 때 나타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이 현상은 입력된 문서나 텍스트가 길어질수록 시작(초반)과 끝(후반)에 있는 정보는 잘 기억하고 활용하지만, 중간 위치의 정보는 재현률(recall rate)이 뚜렷하게 저하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 교정이나 정보 검색처럼 복잡한 의미 해석이 거의 필요 없는 작업에서도 발생한다. 입력 데이터가 길어질 경우 중간 위치의 정보에 대한 재현률과 검색률이 낮아지는데, 이는 모델이 모든 위치의 정보를 동등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Transformer 기반 아키텍처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이는 인간의 기억에서 나타나는 계열 위치 효과(serial position effect)—처음과 끝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와 유사한 패턴이다.

번역 단위는 너무 작아도 너무 커도 각기 다른 문제를 초래한다. 단위가 너무 작으면 문맥 정보가 손실되어 부정확하거나 어색한 번역이 되고, 단위가 너무 크면 컨텍스트 윈도우를 초과하거나 Lost in the Middle 현상으로 인해 중간 부분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의 성격과 LLM의 컨텍스트 한도를 고려하여 ‘의미 단위’ 중심의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는 것이 높은 번역 품질을 얻는 핵심이다.

(1)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 방식

LLM을 활용한 한문 번역에서 긴 문서를 처리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 방식이다. 이는 긴 문서를 한 번에 모두 처리하는 대신, 마치 창문을 조금씩 옆으로 이동시키며 바깥을 보는 것처럼 일정한 범위를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번역하는 방식이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LLM의 토큰 제한을 효과적으로 우회하면서도 전체 문맥을 유지하는 실용적인 해법이다. 대부분의 LLM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토큰 수에 제한이 있는데,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하면 전체 문서가 아무리 길어도 일정한 크기의 윈도우만 유지하면 되므로 토큰 제한 내에서 작업할 수 있다. 동시에 앞뒤 문맥을 계속 참조하므로 전체적인 일관성과 품질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긴 역사서나 문집을 번역할 때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의 핵심은 현재 번역할 부분의 앞뒤 문맥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앞 컨텍스트] + [현재 번역 대상] + [뒤 컨텍스트]의 구조로 구성하는 것이다. 앞 컨텍스트는 이미 번역된 부분이나 앞서 나온 내용을 참조하기 위한 것이고, 뒤 컨텍스트는 다음에 이어질 내용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번역 대상이 실제로 번역 작업이 수행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체 문서가 10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먼저 문단을 번역할 때 뒤에 오는 문단 2와 3을 참고하며 문단 1을 번역한다. 다음으로 문단 1과 문단 3, 4를 앞뒤 컨텍스트로 참고하며 문단 2를 번역한다. 세 번째는 문단 2와 문단 4~5를 참고하며 문단 3을 번역하는 식으로 창을 계속 이동시키며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문맥 보존의 중요성 때문이다. 한문 고전에서는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이", "저" 등의 지시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앞 문맥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또한 존경어 사용, 문체, 어조 등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앞뒤 컨텍스트를 함께 제공하면 "그는"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고, 문장의 어조와 스타일이 일관되게 유지되며, 전체 흐름에 맞는 자연스러운 번역이 가능하고, 문단 간 연결이 매끄럽게 이어진다.

반대로 컨텍스트 없이 각 문장을 따로 번역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지시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호해지고,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데도 번역할 때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문체가 들쭉날쭉해지고, 문단 간 흐름이 어색해진다. 특히 승정원일기나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특정 사건이 여러 날에 걸쳐 기록되는 경우, 앞의 기록을 참조하지 않으면 맥락을 완전히 놓칠 수 있다.

(2) 캐시 처리

LLM 기반 번역 시스템에서 캐시(Cache) 활용은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의 핵심 전

략이다. 캐시는 크게 프롬프트 캐싱과 응답 캐싱으로 구분된다. 프롬프트 캐싱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 프롬프트, 번역 지침, 용례집 등을 캐시에 저장하여 매 요청마다 전송하는 토큰 비용을 절감한다. 특히 Claude나 GPT-4와 같은 API 기반 모델은 프롬프트 길이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므로, 수천 자에 달하는 번역 가이드라인을 캐싱하면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응답 캐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입력에 대해 이전 번역 결과를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한문 고전에서는 동일한 구절이나 관용 표현이 반복 등장하므로, 이를 캐싱하면 응답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번역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캐시 무효화(Invalidation) 전략도 중요하다. 번역 지침이 개정되거나 용어 표준이 변경되면 캐시를 갱신해야 하며, 문맥 의존적 번역의 경우 무분별한 캐시 재사용은 오히려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캐시 적용 대상을 신중히 선별하고, 정기적인 갱신 주기를 설정하며, 문맥 독립적 요소와 의존적 요소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6. 인풋 데이터의 크기

LLM을 활용한 번역 작업에서 입력 텍스트의 처리 단위는 번역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처리 단위는 크게 문장 단위, 문단 단위, 문서 단위로 구분되며, 각각은 고유한 장단점을 지닌다.

문장 단위 번역은 문법적 정확성이 높고 지역적 맥락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으나, 문장 간 연결성과 전체 텍스트의 담화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기술 문서나 공식 문서처럼 문장 간 의존성이 낮은 텍스트에 적합하다. 문단 단위 번역은 문장 간 응집성과 맥락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으나, 문서 전체의 주제 전개와 논리적 흐름을 포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문서 단위 번역은 가장 포괄적인 맥락 이해와 일관된 번역 스타일을 제공하지만, 긴 처리 시간과 높은 계산 비용을 요구한다.

긴 문서를 단일 처리 단위로 번역할 때 주의력 소멸(attention decay)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모델이 문서의 후반부로 갈수록 초반부의 맥락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번역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100페이지 이상의 장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며, 문서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의 용어 일관성, 문체 통일성, 주제 연속성이 흐트러질 수 있다.

장문 번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문서 전체를 먼저 읽어 맥락을 파악한 후, 적절한 단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번역하는 방법이다. 이는 전문 번역가의 작업 프로세스를 모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한다.

첫째, 문서의 주제, 어조, 스타일, 목적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번역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전체 맥락을 고려한 문장 또는 문단 단위 번역을 통해 번역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전문 용어나 핵심 개념을 사전에 식별하여 문서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다.

LLM의 컨텍스트 윈도우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법으로는 문서 압축 및 계층적 요약 방법이 있다. 원본 문서를 먼저 간결하게 요약하여 핵심 내용과 맥락을 농축된 형태로 제공하고, 상세 내용은 필요에 따라 추가 전달하는 방식이다. 또한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 기법을 적용하여 일정 부분씩 중첩되게 처리하면, 섹션 간 맥락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7. 번역의 기본 단위

인공지능을 활용한 번역에서 번역의 기본 단위는 중요한 요소다. 딥러닝 기반 모델과 NIA 사업의 병렬말뭉치는 주로 문장 단위로 구축되었으나, LLM 기반 번역에서는 더 큰 단위의 의미 있는 청크(chunk)를 고려해야 한다.

원문의 논리적 경계를 우선 고려하여 의미 단위로 번역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작은 단위(문장 단위)로 번역하면 앞뒤 맥락 반영이 부족해 용어와 스타일 일관성이 떨어지고 장기 의존성이 무너질 수 있다. 반대로 너무 큰 단위로 설정하면 LLM의 컨텍스트 윈도우 한계를 초과하여 정보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문단이나 의미적으로 완결된 구간을 번역 단위로 설정하면 앞뒤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어 맥락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용어 일관성, 스타일 통일, 정확한 의미 전달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적의 균형점이다.

8. 주석의 번역

經典에는 다양한 注釋이 존재한다. 아래는 詩經集傳의 일부이다. 맨 위에 제목이 있고 그 아래 경전 원문이 있고 그 아래에 경문을 주석한 傳이 있다. 經文은 완전 운문이라면 傳은 산문에 가깝다. 또한 경문과 주석은 별개로 떼어놓을 수 없다. 주석은 경문없이 독립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LLM을 이용하여 번역할 때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는 데이터를 프롬프트에 어떤 형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와 연결이 된다.

〈關雎〉

關關雎鳩 | 在河之洲 | 로다

窈窕淑女 | 君子好逑 | 로다

【傳】

興也라 關關은 雌雄相應之和聲也라 雎鳩는 水鳥니 一名王雎라 狀類鳬鷖하니 -- 이하 생략

○ 興者는 先言他物하여 以引起所詠之詞也라 周之文王이 生有聖德하고 又-- 이하 생략

9. 번역 프로세스의 개선

(1)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적용

LLM 기반 기계 번역의 성능을 개선할 때 프로세스 설계도 중요하다. 번역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직접 번역하는 것보다 중간에 표점이나 개체명인식, 글로서리의 추가 등의 방법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개체명 인식 단계에서 잘못 인식된 엔티티가 그대로 번역 단계로 넘어가면서 최종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번역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가 워크플로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앤드류 응(Andrew Ng) 교수는 2024년 3월 ‘Agents : An exciting new era of AI’ 강의에서 워크플로 에이전트(Workflow Agents) 개념을 제시하며, 복잡한 작업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특화된 에이전트를 할당하여 AI 성능을 향상하는 방법을 주장했다. 이 방법은 특히 번역과 같이 정확성과 품질이 중요한 분야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워크플로 에이전트는 하나의 거대한 언어 모델(LLM)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는 대신, 전체 작업을 몇 개의 하위 작업으로 분해하고, 각 하위 작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개별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접근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을 기계 번역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진행할 수 있다.

<표 4>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절차(예시)

단계	내용
초벌 번역 에이전트 (Drafting Agent)	● 원문을 입력받아 1차적으로 번역하는 에이전트이다. ● 원문에 나타난 어휘를 번역된 결과에 가급적 드러나도록 직역 위주로 번역을 하게 지시한다. ● 원문에 사용된 어휘는 한자 병기를 하도록 지시한다.
번역 검토 에이전트 (Critique Agent)	● 초벌 번역된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에이전트이다. ● 이 에이전트는 번역의 정확성, 문법, 자연스러움, 맥락 적합성 등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수정 제안을 제공한다.
검증 에이전트 (Refinement Agent)	● 번역 검토 에이전트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번역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에이전트이다. ● 이 에이전트는 피드백을 이해하고 이를 번역에 반영하여 최종 번역문의 품질을 높인다.
번역 스타일 조절 에이전트 (Style Agent)	● 만약 번역에 특정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승정원일기에서 왕과 신하가 대화하는 경우에 지정된 투식이나 스타일을 적용해야 할 때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 ● 이 에이전트는 최종 번역물이 요구되는 스타일과 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조정한다.
교정 에이전트	● 교정 에이전트는 한문 번역 워크플로에서 최종 품질 보증을 담당하는 핵심 구성요소로, 번역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 언어적 정확성을 검증하여 맞춤법, 띄어쓰기, 문법, 문장부호 사용이 올바른지 확인한다. 특히 한문 번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자 병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점검하며, 원문에 사용된 어휘가 번역문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개체명 인식을 통해 검증한다.

워크플로 에이전트를 적용할 때 LLM을 번역자와 검수자를 나누어서 번역을 진행할 수 있고 이 역할을 서로 바꿔서 검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번역 능력이 뛰어난 제미나이를 초별 번역 에이전트로 구성하고 교정 에이전트에는 한국어 처리에 뛰어난 클로드 LLM을 사용하는 것이다.

(2) 표점 공정과 NER 공정의 추가

한문은 원래 구두점이 없는 텍스트이므로, 현대어 번역을 위해서는 먼저 구절 단위로 끊어 읽기가 필요하다. 표점(標點)이 부가된 텍스트는 문장의 경계와 구조가 명확하여 번역이 훨씬 쉬워진다. 그러나 표점 자체에 작업자의 지식과 관점이 반영되므로, 표점이 잘못된 경우 번역 또한 자연스럽게 오역으로 이어지기 쉽다.

먼저 한문 전문 구문 분석기나 문장 분절기(句讀 시스템)를 활용하여 LLM 앞단에 배치한다. 이 시스템은 원문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구두점을 부가하거나 문장 경계를 표시한다. 랭체인(LangChain)이나 랭그래프(LangGraph)를 활용하여 다단계 처리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다.

랭그래프를 활용하여 다중 경로 번역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면, 동일 원문에 대해 서로 다른 표점을 적용한 여러 번역 후보를 생성하고 품질을 비교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번역을 선택하고, 해당 표점 방식을 최종 채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체명 인식(NER) 모델로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을 식별하여 태깅하고, 구문 분석 모델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 문장 성분을 파악한다. 이러한 구조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표점 시스템이 적절한 위치에 구두점을 삽입한다.

원문과 번역문을 대상으로 한 개체명 인식은 번역된 결과에 오역이 없는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원문에서 분석된 개체명이 번역문에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분석하면 오역을 체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 번역은 직역 위주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3) 전고, 출전 문제

전고(典故)는 옛 문헌이나 역사적 일화를 인용한 표현으로, 배경지식 없이는 의미 파악이 어렵다. 한문 고전에는 역사적 인물, 지명 등의 고유 명사와 함께 전고가 빈번히 등장하며, 이러한 문화적 참고 요소들은 배경지식이 없으면 기계가 이해하기 어렵다. 전고의 식별은 유사도 검색을 통해 전고 데이터베이스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번역문에서 守株待兔와 같은 표현이 나타나면 전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벡터 유사도 검색을 실행하여 한비자 오저편의 수주대토 일화와 매칭시키는 것이다.

(4) 메타데이터 보완

LLM 기반 번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메타데이터와 참조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체계적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는 LLM이 문맥을 깊이 이해하고 적절한 번역 전략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문서 메타정보를 먼저 제공하여 번역의 방향을 설정한다. 문서의 장르가 역사서인지 철학서인지, 공문서인지 사적 서간인지에 따라 문체와 어조가 달라진다. 번역의 목적이 학술 연구용인지 대중 교양용인지, 대상 독자가 전문가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용어 선택과 주석의 수준이 조정된다. 문서의 저작 시기, 저자 정보, 역사적 배경 등도 함께 제공하여 문화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해제와 관련 연구 자료를 참조 가능하게 한다. 해당 문헌에 대한 기존 연구서, 다른 번역서, 주석서 등을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임베딩하여 RAG 방식으로 활용한다. 번역 중 애매한 구절이 나오면 관련 연구 자료를 검색하여 학자들의 해석을 참조한다. 이는 LLM이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학계의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므로 정확도가 높아진다.

프로젝트별 표준 용어집, 관직명 사전, 제도 용어 사전, 철학 개념 사전 등을 구축하고 RAG에 탑재한다.

지식그래프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인물 간의 관계, 사건의 선후 관계, 제도의 변천 등을 지식그래프로 구조화하여 제공한다. 왕과 신하의 관계를 파악하여 적절한 존칭 표현을 선택하고, 역사적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여 정확한 번역을 수행한다.

스타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기관별 번역 지침, 한자 병기 규칙, 인용 표시 방법, 각주 형식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한다.

메타데이터는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는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는 문서 전체의 개요와 핵심 내용을 LLM에게 공유하여 전체 맥락을 파악하게 한다. 2단계에서는 중요 섹션별로 상세한 문맥과 배경 지식을 전달한다. 3단계에서 실제 번역을 진행하되, 앞서 제공한 맥락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일관된 번역을 생성하게 할 수 있다.

(5) 정확한 번역을 위한 추가 정보의 제공

LLM을 이용하여 번역할 때 해당 문장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어휘가 많이 있으며 이런 어휘를 정확하게 번역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가 정보를 정리한다. 예컨대 고전 원문에서 ‘子曰’의 경우 대부분 공자(公子)를 지칭하지만 《二程全書》의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程子’를 지칭한다. 이런 정보는 LLM 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사실 이러한 예는 인간이 번역하더라도 쉽게 번역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번

역하기 전체 텍스트 전체를 LLM에 이해시키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런 예외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메타 정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10. 검색

RAG의 가장 큰 문제는 유사도 검색에 종속적이라는 것이다. 유사도 검색을 통해서 외부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LLM에 프롬프트로 제공해야 LLM이 정확한 답변을 하게 된다. 만약에 유사도 검색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오지 못한다면 LLM의 성능과 관계없이 부정확한 답을 제공하게 된다. 유사도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유사도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구분	세부 요소	상세 내용
임베딩 모델	임베딩 모델의 종류	OpenAI text-embedding, Cohere Embed, BGE, E5, Sentence-BERT, multilingual-e5, 한국어 특화 모델 등
	임베딩 차원 조정	벡터 차원 수(128, 256, 512, 768, 1536 등), 차원 축소 기법 적용 여부
	모델 언어 지원	다국어 지원 여부, 한자·한국어 처리 성능
벡터 데이터베이스	벡터스토어 종류	Chroma, Pinecone, Milvus, Weaviate, Faiss, Vespa, Qdrant, Elasticsearch
	인덱싱 방식	HNSW, IVF, Flat Index 등
	거리 측정 방식	코사인 유사도, 유클리드 거리, 내적(dot product)
청킹 (Chunking)	청크 크기	문자 수 기반(512, 1024, 2048자 등), 토큰 수 기반
	청크 오버랩	오버랩 크기 및 비율(0%, 10%, 20% 등)
	분할 방법	문장 단위, 단락 단위, 의미 단위, 고정 크기, 재귀적 분할
	분할 기준	원문과 번역문의 분할 단위 일치 여부, 문장 경계 보존
데이터 구조	데이터 포맷	txt, XML, JSON, Markdown, HTML 등
	원문-번역문 배치	병렬 구조, 교차 배치, 별도 저장 후 매핑
	문서 구조화	계층 구조(장-절-문단), 평면 구조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종류	문서명, 저자, 출처, 시대, 장르, 주제, 위치 정보
	메타데이터 활용	필터링 조건, 가중치 부여, 계층적 검색
	구조적 정보	문서 내 위치(장, 절, 페이지), 문맥 정보
검색 방식	하이브리드 검색	벡터 검색 + 키워드 검색 결합, 가중치 조정
	GraphRAG 사용	지식 그래프 기반 검색, 관계 기반 확장 검색
	재순위화(Re-ranking)	리랭커 모델 적용, 교차 인코더 사용
	MMR (Maximal Marginal Relevance)	다양성 확보를 위한 중복 제거
검색 쿼리	검색어 크기	단일 문장, 복수 문장, 단락 단위
	검색어 종류	원문 직접 검색, 번역문 검색, 키워드 검색, 의미 기반 질의
	쿼리 확장	동의어 확장, 관련어 추가, 쿼리 재작성
	쿼리 전처리	정규화, 불용어 제거, 형태소 분석 적용 여부

검색 파라미터	Top-K 설정	검색 결과 개수(5, 10, 20 등)
	유사도 임계값	최소 유사도 점수 설정
	검색 범위	전체 문서 검색 vs. 특정 범위 제한
	가중치 조정	메타데이터 매칭 가중치,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가중치
컨텍스트 관리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	검색 결과 포함 범위, 주변 문맥 확장 크기
	슬라이딩 윈도우	이동 단위, 오버랩 정도
	컨텍스트 압축	LLMLingua 등 압축 기법 적용
	문맥 병합 전략	연속된 청크 병합, 관련 청크 집합 구성
후처리	결과 필터링	중복 제거, 품질 기준 적용
	결과 재배열	문서 순서, 관련도 순서, 시간 순서
	컨텍스트 보강	앞뒤 문맥 추가, 참조 정보 포함

(11) 임베딩 모델의 선택

RAG 시스템에서 임베딩 모델은 적절한 참고 자료를 찾아내서 LLM과 지식 저장소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RAG에 임베딩 벡터로 필요한 지식을 저장했다면 프롬프트에서 지시하는 명령에 따라 저장된 벡터 스토어에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야 한다. RAG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축적해 놓았다 할지라도 관련된 지식을 찾아내서 LLM이 참조할 수 있도록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임베딩 모델이다. 그렇기 때문에 RAG시스템은 절대적으로 이 임베딩 모델에 의존적이다. 임베딩 모델은 일반적인 OpenAI의 text-embedding-ada-002와 Google의 gemini-embedding-exp-03-07 같은 상업용 다국어 모델이 있다. 또한 BGE-M3나 허깅페이스에서 공개되는 수많은 임베딩 모델이 있다.

<표 6> 임베딩 모델

모델명	제공 기관	공개 유형	지원 언어	특징 및 강점
text-embedding-3-large	OpenAI	상용 API	다국어	높은 정확도, 많은 응용 사례
text-embedding-3-small	OpenAI	상용 API	다국어	
text-embedding-ada-002	OpenAI	상용 API	다국어	
gemini-embedding-001	Google	상용 API	다국어/코드	멀티모달 및 코드 지원
embed-multilingual-v3	Cohere	상용 API	다국어	초장문 임베딩 가능
BGE-M3	BAAI	오픈소스	다국어	특화 도메인 최적화, 빠른 추론
Qwen3-Embedding Series	Alibaba	오픈소스	다국어	Instruction-aware, 고성능
Nomic Embed	Nomic	오픈소스	다국어	코드 임베딩 지원
intfloat/e5-large	HuggingFace	오픈소스	다국어	다국어 성능 우수
voyage-3	Voyage AI	상용 API	다국어	저비용 · 고성능 검색

(12) 벡터스토어(Vector store)

Vector Store는 고차원의 벡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RAG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embedding을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지만, 모든 데이터의 embedding과 쿼리 embedding의 유사도를 계산해야 하므로 많은 연산이 필요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속도가 느리다. 반면, Vector DB는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인덱싱하고, 다양한 ANN(Approximate Nearest Neighbor) 기반의 유사도 알고리즘을 조합하여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²⁾ 또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와는 달리, Vector Store는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벡터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한다.

<표 7> 벡터스토어

벡터 스토어	유무료	특징	장점	단점
Pinecone	상용	클라우드 기반, 관리형 벡터 DB	쉬운 API, 높은 확장성, 실시간 업데이트 지원	비용이 높을 수 있음, 오프라인 배포 불가
Chroma	오픈소스	경량화된 로컬 벡터 스토어	빠른 설정, Python 친화적, 소규모 프로젝트 적합	대규모 스케일링에 한계
Milvus	오픈소스	대규모 데이터 처리 특화	멀티모달 지원, 고성능 ANN 검색, Kubernetes 통합	설정 복잡성 증가
Weaviate	오픈소스	그래프 기반 검색 지원	하이브리드 검색, GraphQL API, 모듈화된 구조	학습 곡선 존재
Faiss	오픈소스	Facebook 개발	초고속 검색, GPU 지원, 커스텀마이징 가능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 제한
Vespa	오픈소스	검색 및 추천 엔진	하이브리드 검색, 실시간 처리, 대규모 데이터 지원	복잡한 설정 필요
Qdrant	오픈소스	Rust 기반 고성능	메모리 효율적, 필터링 기능 강력, 클라우드/온프레미스 지원	상대적으로 신규 솔루션

(13) Reranker를 활용한 검색 증강 생성(RAG) 성능 향상

RAG에서는 보통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을 임베딩(Embedding)하여, 벡터 공간상에서 가장 유사한 정보를 찾는 벡터 검색(Vector Search)을 통해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찾게 된다. 하지만 벡터 검색만으로는 사용자의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변을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는 검색된 문서가 질문의 실제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대화의 맥락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³⁾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색된 문서를 질문과의 관련성에 따라 재정렬하는 것이 리랭커(Reranker)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LLM은 컨텍스트 내 문서의 위치에 따라 답변의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컨텍스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중요한 정보가 중간에 위

2) <https://x2bee.tistory.com/405>

3) <https://devocean.sk.com/blog/techBoardDetail.do?ID=167335&boardType=techBlog>

치하면 LLM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Lost in the Middle’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된 문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입력 프롬프트의 시작 부분에 더 가깝게 배치하여 모델이 해당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리랭킹(Reranking)이다.

리랭커를 구현하는 대표적 방법 중 하나는 Cross-Encoder 방식이다. Cross-Encoder는 질의(Query)와 문서(Document)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둘을 결합해 모델에 하나의 입력으로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모델은 질의와 문서 사이의 맥락적 연관성을 직접 고려하여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평가가 가능하다.

<표 8> Reranker 모델(Re-ranking)

모델	특징	사용 케이스
ms-marco-MiniLM-L-6-v2	빠르고 가벼움, 낮은 지연시간	실시간 서비스, 리소스 제한 환경
bge-reranker-large	높은 정확도, 대규모 파라미터	정확성이 중요한 검색, 연구 분석
cohere-rerank	API 기반, 쉬운 통합, 관리 불필요	빠른 프로토타이핑,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jina-reranker-v3	다국어 지원, 최신 아키텍처	글로벌 서비스, 크로스링구얼 검색
jina-reranker-v2	안정적인 성능, 검증된 모델	프로덕션 환경, 범용 검색
mxbai-rerank-large-v2	대용량 처리, 높은 처리량	대규모 문서 검색, 배치 처리
Voyage Rerank	최신 임베딩 기술 활용, 우수한 의미 이해	복잡한 쿼리, 의미 기반 검색
BGE-Reranker	BAAI에서 개발, 오픈소스, 중국어 강점	다국어 지원, 학술 연구
FlashRank	초고속 추론, 경량화	실시간 랭킹, 모바일/엣지 디바이스
MixedBread AI	멀티모달 지원, 하이브리드 검색	텍스트+이미지 검색, 복합 데이터
BAAI/bge-reranker-v2-m3	다국어(100+ 언어), 멀티링구얼 최적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다언어 문서 검색
NV-RerankQA-Mistral 4B-v3	텍스트 재랭크와 정확한 질문 답변을 위해 파인튜닝	Q&A 시스템, 챗봇, RAG 파이프라인
Qwen3-Reranker-8B(4B, 0.6B)	대규모 파라미터(8B), Qwen 시리즈의 최신 버전	고성능 검색, 복잡한 추론 필요 시

(14) 파라미터(parameter)

추론 관련 하이퍼파라미터는 LLM이 텍스트를 생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다음 토큰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설정값이다. 이미 학습이 완료된 모델이 실제로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며, 출력의 품질과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 9> LLM의 주요 파라미터

파라미터	설명	값의 범위	효과
Temperature	출력의 창의성과 무작위성을 조절	0.0 ~ 2.0	0에 가까울수록 결정적이고 일관된 답변, 높을수록 창의적이고 다양한 답변 생성
Top-k	확률이 높은 상위 k개 토큰만 선택 후보로 고려	1 ~ 100+	값이 작을수록 안정적, 클수록 다양한 표현 가능
Top-p (Nucleus Sampling)	누적 확률이 p가 될 때까지의 토큰만 고려	0.0 ~ 1.0	0.9~0.95가 일반적, 낮을수록 보수적, 높을수록 다양함
Max Tokens	생성할 최대 토큰(단어 조각) 수	1 ~ 모델 한계	응답의 최대 길이를 제한
Repetition Penalty	같은 단어/구문의 반복을 방지	1.0 ~ 2.0	1.0은 패널티 없음, 높을수록 반복 억제 강화
Presence Penalty	이미 등장한 토큰의 재사용을 억제	-2.0 ~ 2.0	양수일 때 새로운 주제 도입 촉진
Frequency Penalty	자주 등장한 토큰의 사용을 억제	-2.0 ~ 2.0	양수일 때 반복 표현 감소
Stop Sequences	생성을 중단할 특정 문자열 지정	문자열 리스트	특정 패턴에서 생성 자동 종료

Ⅳ. 후처리(포스트-에디팅)

LLM 기반 한문 번역의 성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번역 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후처리 단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LLM이 생성한 1차 번역문은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오역, 누락, 어색한 표현, 일관성 결여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 번역가나 별도의 교정 모델이 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교정하는 후처리 단계가 필수적이다.

포스트-에디팅은 기계 번역의 결과물을 인간 번역가 수준의 품질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전통적인 번역 작업이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면, 포스트-에디팅은 이미 생성된 번역문을 다듬고 개선하는 작업이다. 이는 처음부터 번역하는 것보다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번역가는 창작보다는 검수와 품질 개선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한문 번역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LLM은 초별 번역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전문가의 정확성과 세밀한 표현을 다듬는 역할 분담이 효율적이다.

후처리 단계는 자동화 가능한 부분과 인간 개입이 필수적인 부분으로 구분된다. 자동화 가능한 후처리로는 용어 일관성 검증, 한자 병기 형식 통일, 문장부호 표준화, 각주 번호 정렬, 명백한 문법 오류 수정 등이 있다. 이러한 기계적 검증은 정규 표현식, 용어 사전, 지식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한문 용어가 문서 전체에서 서로 다르게 번역되었는지 자동으로 탐지하고,

표준 용어집에 따라 통일할 수 있다. 한자 병기가 지침에 맞지 않게 표기되었는지, 괄호 짝이 맞지 않는지, 각주 번호가 연속되지 않는지 등도 자동으로 검증하고 교정할 수 있다.

반면 인간 개입이 필수적인 후처리로는 미묘한 의미 오역 수정, 문맥 적합성 판단, 존칭 표현의 적절성 검토, 전고의 정확한 해석 확인, 문체와 어조의 자연스러움 개선 등이 있다. LLM은 때때로 원문의 뉘앙스를 놓치거나 문맥을 오해하여 의미가 왜곡된 번역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한문 특유의 함축적 표현이나 중의적 의미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고차원적 오류는 한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번역 경험이 있는 전문가만이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다.

포스트-에디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와 도구 지원이 중요하다. 번역 결과를 원문과 나란히 표시하여 대조하기 쉽게 하고, 자동 검증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색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용어 사전과 지식그래프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이전 번역 사례를 검색하여 참조할 수 있게 하며, 수정 이력을 추적하여 변경 사항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러 번역가가 협업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유 용어집과 스타일 가이드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참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포스트-에디팅에서 얻은 피드백은 LLM 번역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 패턴을 분석하여 프롬프트를 개선하거나, 용어 사전에 추가하거나, 지식그래프를 확장하거나, 자동 검증 규칙을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관직명이 자주 오역되는 것으로 나타나면 해당 용어를 용어 사전에 추가하고 프롬프트에 명시하여 향후 번역에서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 순환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1차 번역의 품질이 향상되고 포스트-에디팅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든다.

1. 문장부호의 처리

생성형 AI를 이용한 한문 번역에서 문장부호의 일관된 처리는 번역 스타일 통일의 핵심 요소다. 한문 원문은 문장부호가 없거나 최소한만 존재하지만, 현대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마침표, 쉼표, 따옴표, 괄호 등을 체계적으로 사용해야 가독성과 의미 전달이 명확해진다. LLM은 생성형 모델의 특성상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도 매번 다른 출력을 생성하므로 문장부호 사용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후처리 단계에서 문장부호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정규표현식 기반의 자동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류를 탐지하고 교정한다. 연속된 쉼표가 발견되면 하나로 통일하고, 마침표 없이 끝나는 문장이 있으면 경고를 표시한다. 괄호의 열림과 닫힘이 짝을 이루지 않으면 오류로 표시하여 즉시 수정하도록

록 한다. 따옴표도 열림 따옴표와 닫힘 따옴표가 쌍을 이루어야 하며, 불일치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교정하거나 검수자에게 알린다. 한자 병기 형식은 반드시 한글 다음에 괄호 안에 한자를 표기하는 순서를 따라야 하며, 이 규칙에 어긋나면 자동으로 순서를 조정한다.

인용 표시의 일관성도 문장부호 처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한문 번역에서는 직접 화법과 간접화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서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직접화법을 사용할 경우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라 하였다처럼 발화 내용을 따옴표로 감싸고 하였다고 종결한다. 간접화법을 사용할 경우 임금께서 하라고 명하셨다처럼 따옴표 없이 서술한다. 두 방식을 혼용하면 독자에게 혼란을 주므로 지침에 따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후처리 시스템은 문서 전체를 분석하여 인용 방식이 혼재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불일치가 발견되면 경고를 발생시켜 검수자가 통일하도록 유도한다.

문장부호의 전후 공백 처리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한국어 문장부호 규칙에 따르면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 다음에는 공백이 하나 있어야 하고,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 뒤에도 공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닫는 괄호 바로 뒤에 마침표나 쉼표가 오는 경우에는 공백 없이 연속으로 표기한다. LLM이 생성한 번역문에서는 이러한 공백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후처리에서 자동으로 교정한다. 연속된 공백이 있으면 하나로 줄이고, 필요한 곳에 공백이 없으면 삽입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문장부호 후처리를 통해 LLM의 비결정적이고 일관성 없는 출력을 기관의 번역 지침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문장부호는 작은 요소처럼 보이지만 번역문의 가독성과 전문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동 검증과 교정 시스템을 통해 완벽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는 인간 번역가의 작업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2. 주어의 생략 처리

한문은 주어가 빈번히 생략되는 언어이나 한국어는 주어를 명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조건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 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이는 후처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후처리의 첫 단계는 생략된 주어를 문맥에서 추론하는 것이다. 이전 문장의 주어를 추적하여 연속성을 파악한다. 왕이 명하였다는 문장 다음에 다시 물었다가 나오면, 주어가 생략되었지만 왕이 계속 행위의 주체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자연어처리 기법 중 대명사 해소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할 수 있다. 문장 간 주어의 연속성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각 문장을 순차적으로 분석하면서 주어 정보를 메모리에 유지해야 한다. 첫 번째 문장에서 왕이라는 주어가 명시되면 이를 현재 주어로 저장한다.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면 저장된 왕을 계속 주어로 간주

한다. 세 번째 문장에서도 주어가 없으면 여전히 왕이 주어다. 그러나 신하가 대답하였다처럼 명시적으로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면 현재 주어를 신하로 업데이트한다.

동사 자체가 주어의 신분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교하다, 윤희하다, 전교하다 같은 동사는 왕만 사용하므로 주어가 생략되어도 왕임을 알 수 있다. 계달하다, 아뢰다, 주청하다는 신하가 왕에게 하는 행위이므로 주어는 신하다. 말씀하시다처럼 높임 표현이 포함된 동사는 존경받는 인물이 주어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동사의 의미론적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후처리 단계에서 참조한다.

대화문에서 화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왕이 물었다 다음에 대답하기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누가 대답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전 대화 구조를 분석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대방이 하는 것이므로 신하가 대답한다고 추론한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간 검수자에게 경고를 표시하여 명확히 하도록 권고한다.

3. 지침별 처리 방식 적용

후처리 시스템은 프로젝트별로 설정된 번역 지침을 참조하여 적절한 처리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승정원일기 번역 프로젝트라면 해당 프로젝트의 지침을 로드하여, 주어 보충 규칙을 그에 맞게 실행한다. 동일한 원문이라도 프로젝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지침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4. 높임말, 존대말 처리

한문과 한국어의 존대 표현 체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문은 문맥과 어휘로 높임을 표현하며 높임어미가 없지만, 현대 한국어는 발달된 존대 표현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임금이 말하는 문장이라도 한문에는 일인칭 朕 정도만 등장할 뿐이지만, 한국어 번역에서는 격식체나 높임어를 써야 자연스럽다. 이는 단순한 단어 치환이 아닌 문장 전체의 말투 변환이므로 후처리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수정해야 한다.

자동 검증 규칙을 적용하여 존칭 표현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朕, 寡人 같은 일인칭 대명사가 있으면 왕의 발화로 인식하여 하오체나 하계체가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검증한다. 臣이 있으면 신하의 발화로 인식하여 하옵니다체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서술 대상이 왕, 스승, 부모인 경우 주체높임 하시다, 께서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점검한다. 예를 들어 上曰이라는 원문은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로 번역하여 주체높임을 적용하고, 臣對曰은 신이 아뢰기를로 번역하여 겸양 표현을 사용한다. 孔子言처럼 성현을 언급하는 경우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로 존칭을 적용하며, 王命之는 왕께서 명하시다로 번역하여 주체높임과 객체 처리를 모두 반영한다. 동일 화자의 연속 발화

에서는 종결어미가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객체높임이 필요한 경우 부사격조사 께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검증한다.

신분에 따른 용어 선택도 중요한 후처리 항목이다. 동일한 행위라도 신분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왕의 죽음은 승하(昇遐)나 붕어(崩御)로, 일반인의 죽음은 사망이나 별세로 표현한다. 왕의 식사는 수라나 진지로, 일반인의 식사는 식사나 밥으로 표현한다. 왕의 말은 하교(下敎)나 전교(傳敎)로, 신하의 말은 아뢰다나 계달(啓達)로 표현한다. 이러한 용어 치환 사전을 구축하고 화자의 신분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한다.

한문의 간접적 표현도 한국어 존대법으로 적절히 변환해야 한다. 請는 겸양 표현이므로 청하옵니다로 번역하고, 敢는 공손함 표시이므로 감히 하옵니다로 표현하며, 伏는 극존칭이므로 앞드려 하옵니다로 변환한다. 이러한 간접 표현 마커를 식별하여 한국어 존대법으로 자동 변환하는 규칙을 후처리에 적용한다.

존칭 표현과 추론된 주어의 일치성도 검증한다. 말씀하시다처럼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추론된 주어가 일반 신하라면 불일치 오류를 표시한다. 반대로 평어가 사용되었는데 추론된 주어가 왕이라면 존칭 표현으로 수정하거나 주어 추론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경고한다. 지식그래프에서 인물의 신분 정보를 조회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불일치가 발견되면 검수자에게 알려 수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존칭 후처리를 통해 한문의 간결한 표현을 한국어의 세밀한 존대법으로 정확히 변환할 수 있으며, 원문의 화자-청자 관계와 신분 체계를 충실히 반영한 자연스러운 번역을 완성할 수 있다. 존칭 오류는 번역의 신뢰성을 크게 손상시키므로 자동 검증 후 반드시 전문가 최종 검수를 거쳐야 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 패턴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여 규칙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5. 한자 병기의 처리

한문 번역에서 한자 병기는 어려운 한자나 동음이의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관행이다. 이(利)와 이(理)처럼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 한자 병기를 통해 혼동을 방지한다. 일반적으로 한자 병기는 첫 출현 시에만 하거나 중요 개념에 한정하며, 해당 단어 직후 괄호 안에 표기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LLM을 활용한 번역에서는 일관된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매번 다른 결과를 내놓는다.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해도 어떤 경우에는 모든 한자어에 병기하고, 다른 경우에는 전혀 병기하지 않거나 일부만 선택적으로 병기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다. 병기 위치도 단어 앞, 뒤, 문장 끝 등 무작위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프롬프트에 명확한 규칙을 명시해도 LLM이 정확히 따르지 못하는 지시 이행 불완전성 문제에서 비롯되므로, 후처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공개한 LLM 모델은 한글을 처리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한다. 최근 Deepseek가 공개되면서 중국 LLM이 성능 면에서 주목받았으나, 한문-한국어 번역에서는 한자음 처리가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중국 모델은 한자를 중국식 발음으로 처리하도록 학습되어, 한국식 한자음 변환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학습 데이터에 중국 데이터가 현저하게 많이 포함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한문의 숫자, 날짜, 관직명 등은 한국어에서 다른 체계로 읽히므로 별도의 변환 규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문에서 "三月"은 직역하면 "세 달"이지만 실제로는 "3월" 또는 "삼월"로 번역해야 한다. 관직명의 경우 "司憲府掌令"은 단순히 음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헌부 장령"으로 읽되,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거나 각주로 직책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이처럼 어휘 단위의 불일치로 인해 번역기는 하나의 한자를 여러 음절의 한국어로 풀어서 내보내야 하며, 단어 경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자 병기 괄호의 사용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관직명, 인명, 지명, 핵심 개념어는 첫 출현 시 한자를 병기하고 이후에는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스템은 각 용어의 첫 출현 위치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해당 위치에만 한자 병기 괄호가 있는지 확인한다. 첫 출현이 아닌 곳에 한자 병기가 있으면 중복으로 간주하여 제거한다. 반대로 첫 출현인데 한자 병기가 없으면 누락으로 표시하여 추가하도록 권고한다. 괄호 안의 한자 표기 형식도 통일해야 하는데, 한자 사이에 공백을 두지 않고 연속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6. 지침의 반영 여부의 검토

고전 문헌 번역 프로젝트에서는 기관별로 체계화된 번역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 고전번역원의 승정원일기 번역 사업처럼 용어 선택, 표기 방식, 문체, 주석 처리 등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존재하며, 이는 수십 년간의 번역 경험을 축적한 결과물로서 번역의 일관성과 학술적 엄밀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준이다. LLM 기반 번역에서 이러한 기관 지침을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프롬프트만으로는 지침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히 구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처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지침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교정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번역 지침을 기계가 처리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해야 한다. 용어 지침은 표준 용어집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직명, 제도 용어, 금지 용어 등을 명확히 정의한다. 표기 지침은 정규표현식 규칙으로 변환하여 한자 병기 형식, 날짜 표기, 숫자 표기 방식을 자동 검증한다. 문체 지침은 패턴 매칭으로 구현하여 문서 유형별로 상소문, 왕명, 서술 등 적절한 종결어미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주석 지침은 자동 주석 생성 규칙으로 만들어 생소한 관직명, 전고 출전, 이체자 등에 대한 주석이 필요한 위치를 식별한다.

번역 지침서 전문을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임베딩하여 RAG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정 용어나 문장 구조 번역 시 관련 지침을 자동 검색하여 참조한다. ‘啓曰’이 등장하면 지침서에서 啓 관련 규정을 검색하여 표준 번역 형식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방식이다.

번역 지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므로 후처리 시스템도 동기화되어야 한다. 지침 변경 시 용어집 및 규칙 데이터베이스를 자동 업데이트하고, 버전 관리를 통해 지침 버전별로 번역 결과를 추적 가능하게 한다. 지침 변경 전후의 번역 품질을 비교하는 테스트도 수행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침 기반 후처리를 통해 LLM의 유연한 생성 능력과 기관의 엄격한 번역 표준을 조화시킬 수 있으며, 대규모 번역 프로젝트에서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7. 맞춤법 오류 검증

LLM이 생성한 한문 번역문은 맞춤법 오류, 띄어쓰기 오류, 동음이의어 오용 등 다양한 언어적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 특히 한자어가 많은 고전 번역문에서는 형태가 유사한 한자어를 혼동하거나 고유명사를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후처리 단계에서 체계적인 맞춤법 검증이 필수적이다.

기본적인 맞춤법 검사는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한다.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나 한글 맞춤법 검사 API를 번역 시스템에 통합하여 자동으로 오류를 탐지한다. 명백한 오타나 철자 오류는 자동으로 교정하고, 애매한 경우는 검수자에게 제안 목록과 함께 표시한다. 일반적인 맞춤법 오류로는 사이시옷 누락, 된소리 표기 오류, 준말 표기 오류 등이 있으며, 이들은 규칙 기반으로 대부분 자동 교정 가능하다.

띄어쓰기 오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어는 띄어쓰기 규칙이 복잡하고, LLM이 일관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존명사는 띄어 쓰고, 보조동사나 보조형용사는 경우에 따라 붙여 쓰거나 띄어 쓴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고, 수 관형사 뒤의 수는 붙여 쓴다. 이러한 규칙을 코드화하여 자동 검증한다. 특히 한자어 복합명사의 띄어쓰기는 논란이 많으므로,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기관별 용어집을 참조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

고유명사와 전문 용어는 별도의 사전을 구축하여 관리한다. 인명, 지명, 관직명, 제도 용어 등은 표준 표기를 사전에 등록하고, 번역문에서 이들이 올바르게 표기되었는지 자동 검증한다.

동음이의어 처리는 문맥 분석이 필요하다. 이와 리, 몇과 밋, 어떻게와 어떡해 같은 동음이의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단순 사전 검색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LLM을 활용하여 문맥상 적절한 표기인지 검증하거나, 확신도가 낮은 경우 검수자에게 표시한다. 한자어 동음이의어의 경우 원문의 한자를 참조하여 정확한 표

기를 선택한다.

외래어 표기도 검증 대상이다. 비록 한문 번역에서는 외래어가 적지만, 주석이나 해설에서 외래어가 사용될 경우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지 확인한다. 외래어 표기 사전 참조하여 표준 표기로 통일한다.

후처리 프로세스는 다층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맞춤법 검사기로 기계적 오류를 일괄 탐지한다. 고유명사 사전과 대조하여 전문 용어 표기를 검증한다. 띄어쓰기 규칙을 적용하여 오류를 교정한다. 동음이의어는 문맥 분석으로 적절성을 판단한다. 자동 교정이 어려운 항목은 검수자에게 표시하여 최종 확인을 받는다. 검수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여 유사 오류의 재발을 방지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맞춤법 검증을 통해 언어적으로 정확하고 세련된 번역문을 완성할 수 있다.

V. 번역 품질의 평가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는 BLEU Score(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 Score)로 한다. BLEU는 기계 번역 결과와 사람이 직접 번역한 결과가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하여 번역에 대한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측정 기준은 n-gram에 기반한다.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계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 BLEU Score⁴⁾가 클수록 성능이 좋다. 보통 BLEU Score가 30점 이상이면 품질이 좋다고 평가한다.⁵⁾

기계 번역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려면 평가 기준이 되는 데이터셋의 품질이 높아야 한다. 평가셋이 의역이 심하거나 오역이 많을 경우에는 평가 자체가 신뢰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잘 정리된 평가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text{BLEU} = \underbrace{\min\left(1, \exp\left(1 - \frac{\text{reference-length}}{\text{output-length}}\right)\right)}_{\text{brevity penalty}} \underbrace{\left(\prod_{i=1}^4 \text{precision}_i\right)^{1/4}}_{\text{n-gram overlap}}$$

<BLEU Score 계산식>

BLEU(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는 기계 번역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자동 평가 지표로,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로 구성된다.

4) 공개된 소스 multi-bleu-detok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5) <https://cloud.google.com/translate/docs/advanced/automl-evaluate?hl=ko>

1. n-그램 정밀도(n-gram Precision)

BLEU는 기계 번역 결과와 인간이 번역한 결과를 대상으로 n-그램 일치도를 측정한다. 여기서 n-그램은 번역문에서 n개의 연속된 단어를 의미하며, 한국어의 경우 어절 단위로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BLEU는 1-그램부터 4-그램까지의 정밀도를 계산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기계 번역문의 각 n-그램이 참조 번역문의 n-그램과 일치하는 횟수를 계산하되, 동일한 n-그램이 참조 번역에서 나타나는 최대 횟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2. Clipping 기법

동일한 단어나 구가 기계 번역문에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정밀도가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Clipping 기법을 적용한다. 이는 각 n-그램의 일치 횟수를 참조 번역에서 해당 n-그램이 나타나는 최대 횟수로 제한함으로써, 과적합을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

$$precision_i = \frac{\sum_{snt \in \text{Cand-Corpus}} \sum_{i \in snt} \min(m_{cand}^i, m_{ref}^i)}{w_t^i = \sum_{snt' \in \text{Cand-Corpus}} \sum_{i' \in snt'} m_{cand}^{i'}}$$

<Clipping 기법>

3. 길이 패널티(Brevity Penalty, BP)

기계 번역 결과가 참조 번역에 비해 지나치게 짧을 경우, 높은 정밀도를 얻을 수 있으나 이는 번역의 완전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LEU는 길이 패널티를 적용하여, 번역문의 길이가 참조 번역보다 짧을 때 점수에 패널티를 부여한다.

또한 BLEU 평가에서는 복수의 참조 번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계 번역의 n-그램이 여러 참조 번역 중 하나에서라도 일치하면 정답으로 간주한다. 이는 번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보다 공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4. 벤치마크 데이터셋

모델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공통된 기준으로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벤치마크는 GLUE(General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이다. 한문 번역 분야에서도 번역 모델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현재 수많은 LLM이 공개되고 경쟁적으로 성능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한문 번역에 최적화된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평가 기준이 필수적이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시대별(삼국시대, 고려, 조선 등), 분야별(역사서, 문집, 실록, 법전 등), 문체별(산문, 운문, 공문서 등)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가 번역하고 검증한 고품질의 표준 번역을 포함해야 하며, 쉬운 문장부터 고난도 문장까지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되어 모델의 성능을 세밀하게 변별할 수 있어야 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가를 위한 충분한 양의 데이터와 함께, 문리 오독, 어휘 오역, 누락, 추가, 존칭 표현 오류, 용어 불일치 등 다양한 오류 유형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VI. 맺음말

본 연구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 한문 고전 번역에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한문 번역은 주어 생략, 문맥 의존적 해석, 전고 인용 등의 고유한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의 규칙 기반, 통계 기반, 신경망 기반 기계 번역 방식으로는 실용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등장한 LLM은 방대한 사전 학습과 뛰어난 문맥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한문 번역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본 연구에서는 LLM 기반 한문 번역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LLM 모델 선택에서는 Claude, GPT, Gemini 등 주요 모델의 특성과 한문 번역 적합성, 상용 모델과 오픈소스 모델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둘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는 작업 특화 프롬프트, 도메인 특화 프롬프트, Chain-of-Thought 방식 등 다양한 접근법을 살펴보고, 한문 텍스트의 문체별(경전, 시, 사서, 문집 등) 프롬프트 작성 전략과 번역 스타일 지정 방법을 논의하였다. 셋째, 파인튜닝에서는 Full Fine-tuning과 PEFT(LoRA, QLoRA 등)의 비용-성능 균형, Catastrophic Forgetting 방지 기법, 베이스 모델 선택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컨텍스트 관리 및 프로세스에서는 컨텍스트 윈도우 크기 전략,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 Lost in the Middle 현상 극복 방안,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를 통한 다단계 번역 프로세스를 살펴보았다. 다섯째, RAG 시스템을 통한 외부 지식 통합에서는 임베

딩 모델 선택, 벡터스토어 구성, 청킹 전략, 리랭커 활용 등 검색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여섯째, 후처리 단계에서는 용어 일관성 검증, 존칭 표현 처리, 한자 병기, 주어 생략 처리, 문장부호 처리, 맞춤법 교정 등 번역 품질을 최종적으로 높이는 요소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한문 번역의 품질은 단일 요소가 아닌 여러 요소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며, 각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개별 연구기관이나 번역가가 독자적으로 LLM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현재 공개된 우수한 LLM 모델들을 최적화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전통문화연구회가 2017년부터 구축해온 한한 병렬 말뭉치는 파인튜닝 데이터와 RAG 시스템의 지식 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LLM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검토한 요소들은 향후 더욱 강력한 모델이 등장하더라도 여전히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대규모 실증 연구를 통한 정량적 검증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LLM이 학습하지 않은 인터넷 미공개 중국 고전을 선정하여 실제 번역을 수행하고, 본 연구에서 검토한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별 성능을 체계적으로 비교 평가해야 한다. 또한 BLEU 점수와 같은 기존 평가 지표가 한문 번역의 특수성(용어 일관성, 존칭 표현 정확도, 전고 이해도, 문맥 적합도 등)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한문 번역 특화 평가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문 고전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귀중한 지적 유산이며, 이를 현대어로 번역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문화 계승의 핵심 과제다. OpenAI, Google, Anthropic, Meta 등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더 강력한 LLM을 발표하고 있으며, 매년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LLM의 발전은 한문 번역의 품질 향상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용 LLM만으로는 한문 고전이라는 고도로 전문화된 도메인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 검토한 프롬프트 최적화, 도메인 파인튜닝, RAG 기반 지식 통합, 체계적 후처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학계와 번역 현장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실제 적용하고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 결과물의 효율적 활용 방안

- TEI 기반 XML 구조화 및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중심으로 -

金 序 潤

(부산대 디지털인문학센터 계약교수)

- I. 서론
- II. 번역 결과물의 TEI 기반 XML 구조화
- III. 고전 텍스트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안
- IV.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번역 결과물 활용 및 기대효과
- V. 결론

〈초록〉

본 연구는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의 번역 결과물을 인공지능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조화 방안과 데이터 구축 방법론을 제시한다. 전통문화연구회가 수행한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은 동양 고전의 정밀한 국역과 주석 작업을 통해 학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번역물을 생산해 왔으나, 동양고전종합DB가 XML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이러한 고품질 번역 데이터는 AI 학습 자료로서 새로운 가치를 지니며, 특히 AI의 환각 현상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한문 처리 능력을 구축하는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TEI(Text Encoding Initiative)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문 원문, 국역문, 주석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XML 스키마를 설계한다. 동양고전종합DB와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의 현행 구조를 비교 분석하고, 두 시스템이 공유하는 주희의 편장 구성을 활용하여 동양고전에 한국의 경학자료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구조화된 텍스트 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한문-한국어 병렬 코퍼스 구축, 주석 정보의 시맨틱 태깅, 개념어 온톨로지 구축을 통해 대규모 언어모델이 한문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를 학습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셋을 형성한다.

셋째, 구축된 데이터의 실제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를 논의한다. 전통문화연구회 고전정보화연구소가 추진 중인 XML 자동 변환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

발 가능한 지능형 검색 및 응용 시스템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수십 년간 축적된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의 성과를 AI 시대의 핵심 학술 인프라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동양 고전 연구가 국제적 네트워크 안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제어 :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 고전 텍스트, 인공지능, TEI/XML, AI 학습 데이터

I. 서론¹⁾

동양 고전은 동아시아 문명의 사상적 토대이자 인문학 연구의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한문으로 기록된 방대한 고전 텍스트는 현대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언어적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고전 번역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전통문화연구회¹⁾는 한문 고전의 정밀한 번역과 주석 작업을 통해 이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특히 전통문화연구회가 수행한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은 동양 고전의 정밀한 국역과 주석 작업을 통해 학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번역물을 생산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전통문화연구회의 모든 번역서는 ‘동양고전종합DB(<https://db.cyberseodang.or.kr/>)’를 통해 웹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이 데이터베이스는 단순 문자열 검색 정도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연구에 필요한 번역 내용은 오히려 종이책으로 더 많이 소비되고 있다.

21세기 들어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문학 연구방법론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대규모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등 최신 자연어 처리 기술은 텍스트 분석, 번역, 정보 검색 등의 영역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동양 고전은 앞으로도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교재로서 인공지능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AI의 한문 고전 이해와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AI의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검증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학습 데이터가 요구된다.

디지털 인문학의 관점에서 볼 때, 텍스트 데이터는 단순한 문자열의 나열이 아니라 구조화된 정보의 집합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한문 원문, 국역문, 주석은 각각 독립적인 정보 단위이면서도 상호 연관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동양고전종합

* 부산대학교 디지털인문학센터 계약교수 / sy527991@gmail.com

1) 전통문화연구회는 1988년 설립된 동양고전 전문기관으로, 번역·교육·정보화라는 3대 사업을 통해 동양학과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341책의 동양고전 번역서를 출간하였으며, 총 1,500책의 번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DB는 이미 XML 형식으로 구축되어 텍스트의 구조 정보를 담고 있으나,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구조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XML 구조화를 통해 원문-번역-주석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면, AI는 단순한 문자열이 아닌 텍스트의 의미론적 관계까지 학습할 수 있게 되어 한문 고전 이해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한편, 한국경학자료시스템²⁾은 조선시대 경학 주석을 수집·정리하여 집대성한 《한국경학자료집성》³⁾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한문자료 데이터베이스이다. 여기에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사서오경의 주요 경전에 달았던 주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한국 경학 연구의 중요한 기반 자료가 된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주석은 경전 해석의 맥락과 한국적 수용 양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는 전통 문화연구회에서 서비스하는 동양 고전 번역과 결합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한다. 특히 이들 주석은 대체로 주희의 편장 구성을 따르고 있어 동양고전종합DB의 경전 텍스트와 동일한 체계를 공유한다. 이러한 구조적 일치는 두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며, 경학 자료의 주석이 번역 결과물과 결합되면 AI는 단순한 문자적 대응을 넘어 텍스트의 해석학적 층위까지 학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의 주석 데이터와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의 번역 결과물은 현재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의 결과물을 경학자료와 연계하여 인공지능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번역 결과물의 TEI 기반 XML 구조화 방법을 제시한다. 전통적인 경전 주석 연구를 디지털 환경에 적용하여 원문과 주석의 관계를 형식화하고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동양고전과 경학자료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 XML 스키마를 제안한다. 스키마는 TEI를 준수한 CBETA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국제적인 상호운용성 및 동아시아 경학 연구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구조화된 텍스트 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2)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에서는 한국전산원에서 전담하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경학자료 DB구축사업’을 진행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수집·정리된 한국의 경학자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방대한 분량의 경학자료에 대한 이용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는 한국경학자료시스템(<http://koco.skku.edu/>)을 통해 웹서비스 되고 있다.
- 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는 한국의 경학자료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88년부터 1999년까지 11년여에 걸쳐 150여 명의 전문가와 50여 명의 실무진을 참여시켜 한국의 경학자료를 발굴하여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자료를 《대학(大學)》(8책), 《중용(中庸)》(9책), 《논어(論語)》(17책), 《맹자(孟子)》(14책), 《서경(書經)》(22책), 《시경(詩經)》(16책), 《역경(易經)》(37책), 《예기(禮記)》(10책), 《춘추(春秋)》(12책) 등 전 145책 규모로 정리해서 해제를 붙여 출간하고, 《한국경학자료집성(韓國經學資料集成)》이라 명명하였다.

한문-한국어 병렬 코퍼스를 생성하고 주석 정보에 시맨틱 태그를 부여하며 개념어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LLM이 한문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를 학습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셋을 형성한다. 이는 전문가가 검증한 번역과 주석 데이터는 AI의 환각 현상을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한문 처리 능력을 구축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셋째, 구축된 데이터의 실제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를 논의한다. 전통문화연구회 고전정보화연구소가 추진 중인 XML 자동 변환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 가능한 지능형 검색 및 응용 시스템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한국 경학 자료와 동양고전 데이터를 연계한 통합 검색 플랫폼, 개념어 네트워크 시각화, 실시간 사용자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논의하며, 이를 통해 수십 년간 축적된 번역 결과물이 단순한 출판물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학술 인프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II. 번역 결과물의 TEI 기반 XML 구조화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의 번역 결과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국제 표준인 TEI를 기반으로 동양 고전과 경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1. TEI 기반 텍스트 구조화의 필요성

전통적인 종이 매체에서 경전과 주석은 대체로 원문과 주석문이 구분되어 배치되거나, 원문 사이에 주석이 삽입되는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는 독자는 물리적 배치를 통해 원문과 주석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배치를 그대로 옮겨 놓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는 단지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옮긴 것에 불과하며, 문헌의 논리적 구조나 의미 관계를 탐색하고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의 결과물은 동양고전 원문, 국역문, 그리고 후대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요소는 각각 독립적인 텍스트이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국역문은 원문의 특정 문장이나 구절에 대응하고 주석은 원문의 특정 부분을 해석하거나 보완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관계를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텍스트 전산화 이상의 기술이 필요하다. 인간은 시각적 배치를 통해 텍스트 간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지만, 기계는 명시적으로 표시된 구조와 관계만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문, 국역문, 주석 간의 논리적·의미론적 관계를 기계가 처

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하는 텍스트 인코딩(text encoding) 이 필수적이다.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⁴⁾은 데이터의 구조와 의미를 사용자가 정의한 태그로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마크업 언어이다.⁵⁾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문헌 정보화 사업은 프로젝트별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XML 태그를 사용해 왔으며, 그 결과 자료 간의 상호 연계나 통합적 분석이 어렵게 되었다. 예컨대 동양고전종합DB와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은 유사한 정보를 다루면서도 각기 독자적인 DTD (Document Type Definition)를 채택하고 있어 상호운용성이 제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XML 기반 표준인 TEI(Text Encoding Initiative)의 준수가 필요하다. TEI는 다양한 인문학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 관계를 일관된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키마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 호환성을 확보하고 다른 연구나 시스템과의 지식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TEI는 원문과 번역문의 병렬 표현, 주석의 참조 관계, 텍스트의 계층적 구조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 TEI 기반으로 구조화된 번역 결과물은 국제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 및 기관의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와 호환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제적 협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인문학의 여러 분야에서 텍스트 인코딩 체계로 TEI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자 텍스트와 문화유산 컬렉션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생성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TEI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TEI는 기본적으로 서구 언어학 문헌의 인코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문헌의 인코딩에 있어서는 여러 제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⁶⁾ 예를 들어 한문 텍스트의 독특한 구조, 주석 체계, 이본 표기 방식 등은 서구 문헌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 문헌의 특수성을 반영한 TEI 표준 개발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사례로, 2016년에 일본 연구자들은 TEI 컨소시엄(Text Encoding Initiative Consortium) 내에 동아시아/일본어분과회(SIG, Special Interest Group)를 설치하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TEI 연구회⁷⁾를 구성하여 고문헌의 형태적 특성을 표현

4) XML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마크업 언어이다. 사용자가 직접 태그를 정의하여 데이터의 구조와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다양한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한다. (김바로 외, XML(TEI) with 인문학 - 디지털인문학 시리즈 <https://wikidocs.net/255396> 참조.)

5) XML은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가장 권장하는 언어로, 조선왕조실록·디지털장서각·한국고전종합DB·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국내의 고전학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 및 데이터베이스들 역시 해당 언어 형태를 기반으로 자료들을 정리-제공하여 관리자와 이용자에게 탑재와 검색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변은미·이길환, 〈XML을 활용한 科文選集의 디지털화 방안 연구〉, 《동아한학연구》 20,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설 한자한문연구소, 2025. 156면 참조.)

6) Ide, Nancy, and C. M. Sperberg-McQueen, "The TEI : History, Goals, and Future", Computers and the Humanities, No. 29, 1995 : 5-15; <https://www.jstor.org/stable/30200340>

할 수 있는 스키마를 연구하고 있다. 이들은 연구 결과를 TEI 컨소시엄에 제안함으로써, 동아시아 고문헌 표현에 적합한 TEI 표준 구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한문 불교 경전을 디지털화한 CBETA(電子佛典集成)⁸⁾와 SAT(SAT大正新脩大藏經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⁹⁾의 사례는 이러한 국제적 협업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 중화전자불전협회의 CBETA는 1998년부터 TEI를 활용해 불교 경전의 디지털화를 진행했으며, 불교학 연구를 위한 선구적인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도쿄대학의 SAT 역시 TEI를 활용해 방대한 불교 경전을 디지털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CBETA는 여러 나라의 불교학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경전의 구조와 주석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였다.¹⁰⁾ CBETA의 TEI/XML 데이터는 경전의 원문, 다양한 異本, 역대 주석, 현대 번역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경전 텍스트의 계층적 구조(卷, 品, 章 등)를 명확히 표현하고, 주석의 유형을 세밀하게 분류하여 태깅함으로써, 학술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디지털 자원을 구축하였다. 다음의 <그림 1>은 CBETA가 불교 경전을 TEI 표준에 따라 작성한 XML 예시이다.

```
<text cb:behaviour="no-norm"><body> ##cb:CBETA 자체 요소
<milestone n="1" unit="juan"> ##milestone:분할 경계점 표시
  <pb n="0311b" ed="A" xml:id="A091.1057.0311b"> ##pb(page beginning):페이지 바꿈
  <lb n="0311b01" ed="A"> ##lb(line beginning):행 바꿈
  <cb:mulu n="1" type="卷">
  <cb:juan n="1" fun="open">
    <cb:jhead>新譯大方廣佛華嚴經音義卷上<note place="inline">并序</note></cb:jhead> ##head:제목
  </cb:juan>
  <lb n="0311b02" ed="A">
    <byline cb:type="author">京兆府靜法寺沙門 慧 ##byline:작품에 대한 주요 책임 명시, 여기서는 저자
      <note n="0311b0201" resp="CBETA" type="add">苑【CB】， 宛【金藏】</note> ##각주
    <app n="0311b0201"> ##app(apparatus entry):여러 판독을 그룹화
      <lem resp="CBETA.maha" wit="【CB】">苑</lem> ##lem(lemma):기본 텍스트
      <rdg wit="【金藏】">宛</rdg> ##rdg(reading):텍스트 판독값
    </app> 述
  </byline>
</body></text>
```

<그림 1> CBETA의 TEI/XML 데이터 예시

7) TEI 연구회는 일본어를 포함한 동아시아 언어와 관련하여 텍스트 데이터의 효과적인 구조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모임이다. 연구회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홈페이지(<http://tei.dhii.jp/home>)의 참가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8) CBETA 電子佛典集成 <https://www.cbeta.org>

9) SAT 大正新脩大藏經 <https://21dzk.l.u-tokyo.ac.jp/SAT>

10) CBETA는 1998년 향청법사(恆淸法師)와 대만 법고산 불교대학, 중화불학연구소(Chung-Hwa 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CHIBS)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설립 초기부터 미국, 일본, 한국, 태국, 노르웨이, 네팔 등 다수 국가 학자들이 참여한 국제 불교 전산화 학술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for Digital Buddhist Studies, 2000년 개최)를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cb : 는 CBETA 자체 요소 및 속성을 나타내는 네임스페이스 접두사로, TEI 표준 요소를 확장한 것이다. <milestone> 요소는 텍스트 내 중요한 분할 경계점을 표시하며 여기서는 권(卷, juan)의 시작을 나타낸다. <pb>(page beginning)는 페이지 바꿈을, <lb>(line beginning)는 행 바꿈을 표시하여 문헌의 물리적 구조를 보존한다. <cb: jhead> 요소는 권의 제목을, <byline> 요소는 작품에 대한 주요 책임자, 여기서는 ‘저자 정보(@type="author")’를 명시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異本 정보의 표현이다. <note> 요소는 본문 텍스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n="0311b0201"은 주석의 식별 번호를, @resp="CBETA"는 CBETA가 책임 기관임을, @type="add"는 원본에는 없는 추가된 주석임을 나타낸다. <app>(apparatus entry) 요소는 다양한 판독을 그룹화하며, 그 안의 <lem>(lemma) 요소는 CBETA가 채택한 주된 판독(宛)을, <rdg>(reading) 요소는 일본 金沢文庫(가나자와분코) 소장 금장본(金藏本)의 다른 판독(宛)을 나타낸다. 이처럼 동일한 위치에서 서로 다른 판본에 나타나는 이체자를 명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연구자는 문맥에 맞는 적절한 판독을 선택할 수 있고 기계는 이본 간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다.¹¹⁾

2. 현행 시스템 분석 : 동양고전DB와 한국경학자료시스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을 수행하는 전통문화연구회와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은 각각 독자적으로 정의된 XML DTD¹²⁾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TEI 기반의 통합 스키마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와 태그 체계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ELEMENT 내용 (원문 | 서 | 안 | 번역문 | 경 | 경문 | 경원문 | 경문원문 | 경번역문 | 경문번역 | 제하주원문 | 안설원문 | 안설번역 | 안설결어원문 | 안설결어번역 | 총결원문 | 총결번역 | 집주 | 집론 | 집론원문 | 집론번역 | 집론번역문 | 집설 | 훈의원문 | 훈의번역문 | 대전 | 주 | 주번역문 | 소 | 전 | 원주 | 원주번역문 | 주해 | 집평 | 통석 | 본의 | 해제 | 신습한자 | 참고자료 | 문장의구조 | 감상 | 한자의구실 | 십터 | 출전 | 평설 | 평설번역문 | 목원문 | 목번역문 | 강원문 | 제하주번역 | 제하주원문 | 강번역문 | 부속)*>

<그림 2> 동양고전종합DB 현행 스키마 <내용>의 하위 요소

11) 정송이, CBETA 電子佛典集成 XML 설계 검토, XML(TEI) with 인문학 - 디지털인문학 시리즈(<https://wikidocs.net/238370>)

12) DTD(Document Type Definition)는 XML 문서의 구조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며, 문서가 미리 정의된 구조에 부합하는 ‘유효한 문서(valid document)’인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동양고전종합DB의 DTD(juntong.dtd)는

<https://github.com/sy527991/Analects/blob/main/juntong.dtd>에서,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의 DTD(kbible.dtd)는

<https://github.com/sy527991/Analects/blob/main/kbible.dtd>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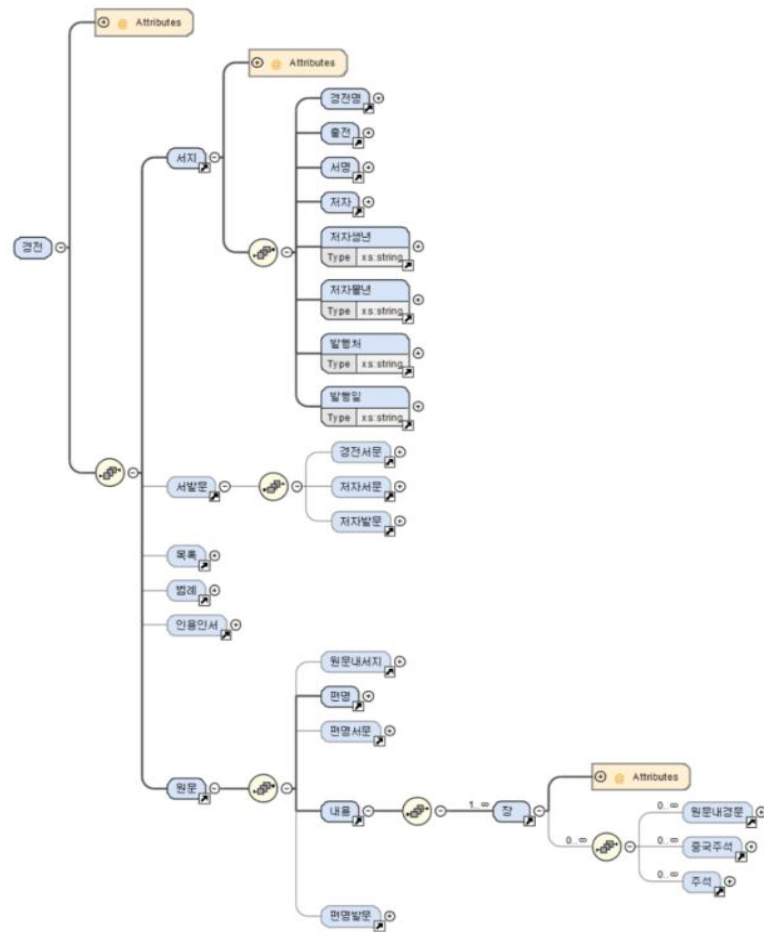
〈그림 2〉는 동양고전종합DB 현행 스키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내용〉 요소의 하위 구조에 대한 DTD이다. 하위 요소로 원문, 번역문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석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50여 개의 하위 요소 중 텍스트 형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스키마는 원문과 번역을 명확히 분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함으로써 텍스트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한다. 또한 원주, 주, 소, 집주, 집론, 집평, 통석, 본의, 해제 등 20여 종의 주석 유형을 구분하여, 고전 주석의 복잡한 층위를 표현할 수 있다. 아울러 훈의, 문장의 구조, 감상, 한자의 구실 등 학습자를 위한 교육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제하주, 안설, 총결 등 경전 텍스트의 세부 구조까지 반영하여 원전의 형식을 충실히 재현한다.

이러한 구조는 번역 중심의 교육적 활용에 최적화되어 있으나, 50여 개의 개별 요소를 모두 정의한 독자적인 태그 체계로 인해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새로운 연구자나 개발자가 이 스키마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학습 시간이 필요하며, 기관 간 협업 시 각 요소의 의미와 용도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TEI는 〈div〉(division)나 〈group〉 같은 범용 요소를 반복 사용하면서 @type, @subtype 등의 속성으로 세밀한 구분을 표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적은 수의 요소로도 복잡한 구조를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스키마의 학습 곡선을 낮추고 국제적 협업을 용이하게 한다.¹³⁾

〈그림 3〉은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의 DTD 구조를 시각화한 트리구조이다.¹⁴⁾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의 XML 문서는 최상위 요소인 ‘〈경전〉’ 아래 ‘〈서지〉’, ‘〈서발문〉’, ‘〈목록〉’, ‘〈범례〉’, ‘〈인용인서〉’, ‘〈원문〉’으로 구성되며, 문헌학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주석 중심 구조로 설계되어 〈원문내경문〉에는 경전 원문을, 〈중국주석〉에는 주희 등 중국 주석가들의 주석을, 〈주석〉에는 조선 학자들의 주석을 담고 있다. 이는 경전 해석의 역사적 층위를 명확히 보여주며, 중국 주석과 한국 주석을 명확히 구분하여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독자적 해석과 중국 주석과의 관계를 드러낸다.

13) 예를 들어 동양고전DB의 〈집주〉, 〈집론〉, 〈집평〉, 〈통석〉, 〈본의〉, 〈해제〉 등을 TEI에서는 〈div type="commentary" subtype="집주"〉, 〈note type="commentary" subtype="집론"〉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14) Oxygen XML Editor로 생성되었으며, 다음의 위키독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서윤, 성균관대학교 한국경학자료시스템 XML 설계 검토, XML(TEI) with 인문학 - 디지털인문학 시리즈(<https://wikidocs.net/239523>)



<그림 3> 한국경학자료시스템 DTD 개념도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의 주석 유형은 원주, 세주, 난외주, N주, B주 등 5종으로 간단히 분류한다. 특히 주자의 편장 구분에 의거하여 분속할 수 없는 주석은 모두 편장명을 임의로 생성하여 B주로 명명하며(<주석 type="B주">), 이러한 B주는 주석별 검색 기능에서 제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장 주석검색="0">).

동양고전DB와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구축되어 구조적 차이를 보이지만, 주희의 편장 구성을 따른다는 공통된 기반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원문 텍스트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절하고 각 분절에 공통의 식별자를 부여함으로써 서로 연계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원문의 특정 부분에 대해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의 주석과 번역사업의 국역문을 동시에 참조할 수 있는 통합적 구조가 형성되며, 이는 다음 절에서 제시할 TEI 기반 통합 스키마의 중요한 설계 원칙이 된다.

3. TEI 기반 통합 XML 스키마 설계

XML은 자료 구조의 확장이나 변형에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지나치게 자유로운 사

용자 태그 허용은 중구난방의 시스템을 양산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서로 다른 시스템들은 대부분 호환성이 없어 공유가 어려우며, 새로운 프로젝트마다 설계가 늘어나 보존 문제를 야기하고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장애가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7년에 TEI가 설립되었으며, 특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구애받지 않는 인문학 데이터의 전자적 인코딩 방법론을 개발·유지·보급하고 있다.¹⁵⁾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통합 스키마 예시가 TEI를 준수하는 CBETA를 참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다만 본 연구의 스키마는 단순히 CBETA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 경전과 한국 경학 자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설계를 지향한다. 유교 경전은 사서오경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텍스트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학자들의 주석은 중국 주석과의 비교, 논쟁, 수용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원문-국역문-주석의 3층 구조를 기본으로, 주석 간의 관계, 인용 관계, 이본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다만 이는 추후 세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계층구조와 주석 간 연계를 나타내는 예시만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4〉는 텍스트의 계층구조와 주석 간 연계를 나타낼 수 있는 TEI/XML 예시안이다. TEI는 〈TEI〉라는 최상위요소 아래 〈teiHeader〉¹⁶⁾와 〈text〉로 구성되는데, 다음은 〈teiHeader〉 부분을 생략한 〈text〉 부분에 해당한다.¹⁷⁾

15) 김서윤, 〈한국경학자료시스템 XML 분석 및 데이터 설계〉, 《대동문화연구》 12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4, 215~221면 참조.

16) 〈teiHeader〉는 서지정보 등 문헌의 형태적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한다. 하위요소로, 파일의 서지학적 설명(description)인 〈fileDesc〉 요소가 필수적이다. 그 밖의 하위요소로는 제목에 대한 정보를 그룹화한 〈titleStmt〉 (title statement), 출판이나 배포에 관한 정보를 그룹화한 〈publicationStmt〉, 전자텍스트의 소스에 대한 설명인 〈sourceDesc〉이 온다.

17) TEI의 〈teiHeader〉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의 《사변록·논어》를 정리한 예는 https://dh.aks.ac.kr/~kimseoyun/101/research_note/xml/tei사변록.xml 에서 확인 가능하다.

```

<TEI> <teiHeader> (서지정보) </teiHeader>
<text> <body>
<!-- 편(篇) 단위 -->
<div type="pian" n="1" xml:id="lunyu_01">
  <head xml:lang="zh">學而篇</head>
  <head xml:lang="ko">학이편</head>
  <!-- 장(章) 단위 -->
  <div type="zhang" n="1" xml:id="lunyu_01_01" corresp="#kbible_01_01"> ##경학자료·논어 챕터와 대응
    <head xml:lang="ko">제1장</head>
    <!-- 원문 (Original Text) -->
    <div type="original" xml:lang="zh" source="#juntong_db"> ##동양고전 원문
      <ab xml:id="orig_01_01_01" corresp="#trans_01_01_01"> ##동양고전 번역문과 대응
        <seg xml:id="orig_01_01_01_s1">學而時習之</seg>
        <seg xml:id="orig_01_01_01_s2">不亦說乎</seg>
      </ab>
    </div>
    <!-- 번역문 (Translation) -->
    <div type="translation" xml:lang="ko" source="#juntong_db"> ##동양고전 번역문
      <ab xml:id="trans_01_01_01" corresp="#orig_01_01_01"> ##동양고전 원문과 대응
        <seg corresp="#orig_01_01_01_s1">배우고 때때로 익히면</seg>
        <seg corresp="#orig_01_01_01_s2">또한 기쁘지 아니한가</seg>
      </ab>
    </div>
    <!-- 주석 그룹 -->
    <div type="commentary">
      <note type="ch-commentary" target="#orig_01_01_01_s1" source="#juntong_db"
        resp="#zhuxi" xml:id="comm_zhuxi_01">
        <label>朱熹註</label>
        <p xml:lang="zh">說悅同。學之爲言效也。</p> ##주희의 주석
      </note>
      <note type="kr-commentary" target="#orig_01_01_01_s2" source="#kbible_db"
        resp="#parksedang" xml:id="comm_parksedang_01">
        <label>>朴世堂註</label>
        <p xml:lang="zh">○ 學雖可訓爲效但只言效則恐於傳受講質之義或有未備。</p> ##박세당의 주석
      </note>
    </div>
  </div>
</body> </text>
<!-- 요소 간 관계 연결 영역 -->
<standOff>
  <linkGrp type="alignment">
    <link target="#orig_01_01_01 #trans_01_01_01" type="translation"/> ##원문과 번역문 연결
  </linkGrp>
  <linkGrp type="commentary-relation">
    <link target="#comm_parksedang_01 #comm_zhuxi_01" type="responds-to"/>
    ##박세당의 주석과 주희의 주석 연결
  </linkGrp>
</standOff>
</TEI>

```

<그림 4> 텍스트의 계층구조와 주석 연계를 나타내는 TEI/XML 예시

다음의 <표 1> 텍스트의 계층구조와 주석 연계를 나타내는 TEI/XML 예시에 사용된 요소와 속성이다.

요소/속성	역할	예시
<div>	텍스트 구획	type="pian"
<ab>	익명 전달체로 기능하는 텍스트 블록	corresp="#trans_01_01_01"
<seg>	문장이나 구 단위의 텍스트 분할	xml : id="orig_01_01_01_s1"
<head>	제목	學而篇
<label>	텍스트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	朱熹註
@type	유형을 지정	type="commentary"
@subtype	하위 유형을 지정	subtype="kr-commentary"
@xml : lang	언어 코드	xml : lang="zh"
@xml : id	고유 식별자	xml : id="orig_01_01_01"
@corresp	대응 관계	corresp="#trans_01_01_01"
@target	참조 대상	target="#orig_01_01_01_s1"
@source	데이터 출처	source="#classic_db"
@resp	책임자	resp="#zhuxi"
<standOff>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영역	원문-번역, 주석 간 관계
<linkGrp>	링크 그룹화	type="alignment"
<link>	두 요소 연결	type="translation"

<표 1> 예시에 사용된 TEI 요소 및 속성

텍스트 본문에 해당하는 <text>는 단일 텍스트일 경우 기본적으로 (서문, 본문, 발문 처럼) <front>, <body>, <back>으로 구성되며, <body>는 필수요소이다. TEI에서는 텍스트를 구획하는 <div> (division) 요소를 사용하여 텍스트의 계층적 구조를 표현하고, @type 속성으로 유형을 지정한다.¹⁸⁾ <ab>(anonymous block)는 문단과 유사한 구 또는 상호충위 요소에 대한 익명 전달체로 기능하는 텍스트 블록을, <seg>(arbitrary segment)는 문장이나 구 단위의 텍스트 분할을 나타내며, 분할된 각 문장에는 고유한 식별자(ID)를 부여하여 다른 텍스트에서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head>는 제목을, <label>은 텍스트를 식별할 수 있는 제목 등을 포함한다. <div type="commentary"> 다음에 오는 subtype="ch-commentary"는 중국 주석을, subtype="kr-commentary"는 한국 주석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type과 @subtype으로 주석의 하위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xml : lang은 언어 코드를 나타내며 zh는 한문을, ko는 한국어를 의미한다. @xml : id는 각 요소의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며,

18) 예를 들면, pian은 편(篇), zhang은 장(章), original은 원문, translation은 번역문, commentary는 주석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corresp는 원문과 번역문과 같은 대응 관계를, @target은 주석이 가리키는 참조 대상을 나타낸다. @source는 데이터 출처를 명시하는데 #juntong_db는 동양고전DB를, #kbible_db는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을 의미한다. @resp는 주석의 책임자(예: #zhuxi=주희)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standOff> 요소는 본문과 분리된 곳에서 요소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영역이다. 본문에서 @corresp나 @target 속성으로도 연결을 표현할 수 있지만, <standOff>를 사용하면 복잡한 관계를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러 관계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으며 관계의 유형을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다.

<linkGrp> 요소는 관련된 링크들을 그룹화하며, @type="alignment"는 원문과 번역문의 병렬 관계를, @type="commentary-relation"은 주석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link> 요소는 두 요소 간의 연결을 표현하며, @target 속성에 연결할 두 요소의 ID를 공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type 속성으로 관계의 유형을 지정한다. 예를 들어 type="translation"은 번역 관계를, type="responds-to"는 한 주석이 다른 주석에 응답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명시적 연결 관계 표현을 통해 AI는 원문-번역의 대응뿐만 아니라 주석 간의 논쟁, 계승, 비판 등의 복잡한 관계까지 정확히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병렬 구조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때 매우 유용하다. 한문-한국어 병렬 코퍼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문과 번역문이 정확히 대응되어야 하는데, TEI의 링크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이러한 대응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주석 간의 관계까지 명시함으로써 AI는 단순한 텍스트 번역을 넘어 경학 주석의 해석학적 전통과 논쟁 구조까지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구조화 작업을 통해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의 번역 결과물은 단순한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풍부한 메타데이터와 명시적인 구조 정보를 포함하는 지능형 문서로 전환된다. 이는 인간 연구자에게는 더욱 체계적인 접근과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에게는 텍스트의 구조와 의미를 학습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한다. 나아가 TEI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적인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동아시아의 다른 TEI 기반 디지털 인문학 프로젝트와의 연계와 통합도 가능해진다.

동양고전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자산이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전체가 공유하는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학 연구의 거대한 흐름 속에 한국의 경학 연구를 위치시키고, 각국의 연구 성과를 비교·통합하여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TEI와 같은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번역 결과물이 동아시아 경학 연구의 국제적 네트워크 안에서 효과적으로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Ⅲ. 고전 텍스트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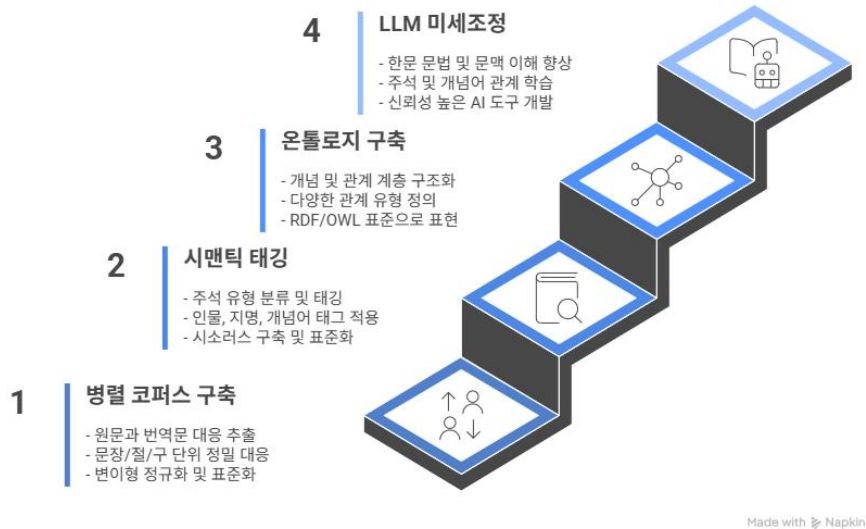
TEI 기반으로 구조화된 번역 결과물은 국제적 협업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전환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구조화된 XML 데이터를 실제로 LLM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가공과 변환 과정이 필요하다.

AI 학습 데이터로 전환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한문-한국어 병렬 코퍼스 구축이다. 한문 원문과 전문가의 고품질 한국어 번역문을 짝지어 제공하면, 정확한 번역 패턴 및 문법 구조를 학습함으로써 기계번역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석 정보에 대한 시맨틱 태깅이다. 텍스트에 인물, 지명, 개념어 등의 의미론적 유형을 명시하면 AI가 문맥을 이해하여 지식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번역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개념어 온톨로지 구축이다. 유교 사상의 핵심 개념 간 계층적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사상 체계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학습시키면 추론 능력이 강화되며 철학적 텍스트 분석 능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는 LLM의 미세조정(fine-tuning)¹⁹⁾을 거쳐 AI의 한문 이해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자원이 된다.

〈그림 5〉는 이 장에서 살펴볼 한문 고전 텍스트를 AI 학습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순서도이다. 전문가가 검증한 고품질 데이터로 학습된 AI는 한문 고전의 문법 구조와 사상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19) LLM(대규모 언어 모델)의 미세조정(Fine-tuning)은 이미 사전 학습(Pre-training)을 마친 모델을 특정 작업이나 도메인에 더 잘 맞게 추가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미세조정은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의 한 형태로, 모델이 기존 학습에서 얻은 일반적인 언어 지식을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데이터에 맞춰 모델의 파라미터(가중치)를 일부 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일반 언어를 학습한 LLM을 의료, 법률, 고객 서비스 등 특정 분야 데이터로 다시 학습시키면 그 분야에서의 정확도와 자연스러움이 향상된다. 요약하자면, LLM의 미세조정은 이미 학습된 거대 언어모델을 특정 목적에 최적화하기 위한 추가 학습 과정으로, 모델의 품질을 높이고 특정 도메인에 적합한 성능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고전 텍스트 AI 학습 데이터 구축 순서도



<표 1>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순서도

1. 한문-한국어 병렬 코퍼스 구축

AI 학습용 데이터화의 첫 번째 단계는 한문-한국어 병렬 코퍼스 구축이다. 병렬 코퍼스는 원문과 번역문이 쌍을 이루는 데이터 집합으로, 기계번역 학습에 필수적이다. TEI/XML로 구조화된 데이터에서는 원문과 국역문이 이미 대응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출하여 병렬 코퍼스를 생성할 수 있다.

병렬 코퍼스의 품질은 원문과 번역문의 대응 정밀도에 의해 결정된다. 문장 단위, 절 단위, 혹은 더 세밀한 구 단위로 대응 관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대응 단위가 세밀할수록 AI는 더 정확한 번역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논어》의 "學而時習之不亦說乎"를 문장 전체로 대응시킬 수도 있고, "學而時習之"와 "不亦說乎"로 분절하여 국역문과 대응시킬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AI는 구 단위의 번역 패턴을 더 정밀하게 학습할 수 있다.

병렬 코퍼스 구축 시 데이터의 표준화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한문 텍스트의 경우 이체자(異體字), 약자(略字), 고자(古字) 등 다양한 자형이 존재한다. 이를 통일된 형태로 정규화할 것인지, 아니면 이형 정보를 보존할 것인지는 학습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AI가 다양한 판본의 텍스트를 이해하도록 학습시키려면 이형 정보를 보존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번역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면 정규화가 필요하다. 국역문의 경우에도 번역 시기에 따라 표기법이나 용어 선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대 한국어 맞춤법에 따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주석 정보의 시맨틱 태깅

두 번째 단계는 주석 정보의 시맨틱 태깅이다. 시맨틱 태깅이란, 텍스트가 담고 있는 개념 등의 의미론적(semantic)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이다. 주석은 어휘 설명, 문법 해설, 역사적 배경, 인용 출처, 인물 정보, 지명 정보, 이본 비교, 학설 논쟁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 다양한 정보들을 분류하고 식별표(tag)를 붙임으로써, AI는 주석의 성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²⁰⁾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의 경전 주석은 난해한 고전 원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 AI의 문맥 이해에 매우 유용하다. 이 주석들은 역대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을 담고 있으므로, 주석을 원문별, 시대별, 지역별, 학파별로 구분하여 태깅하면 AI가 해석의 다양성과 역사적 변화를 학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경전 구절에 대한 조선 전기와 후기의 주석 변화나, 주리론과 주기론 학자들 간의 해석 차이를 AI가 비교 분석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철학적·사상적 개념어의 경우, 시맨틱 태깅이 중요하다. 유교 경전에 등장하는 ‘仁(인)’, ‘義(의)’, ‘禮(예)’, ‘智(지)’ 등의 개념은 문맥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개념어가 사용된 모든 용례를 추출하고 각 용례에서의 의미를 태깅함으로써, AI는 개념어의 다층적 의미를 학습할 수 있다.

인명과 서명의 경우,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치밀한 시소러스(thesaurus) 구축이 필수적이다. 시소러스는 동의어와 이형(異形)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어휘 데이터베이스로, 다양한 표기를 표준화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한 인물이 본명, 자, 호, 시호 등 여러 이름을 갖거나, 한 저작이 원제, 별칭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는 흔하다. 예를 들어, ‘李滉’²¹⁾은 ‘退溪’, ‘景浩’, ‘文純’ 등으로도 불리는데, 각 표기에 동일한 고유 식별자(ID)를 부여하여 시소러스 내에서 연결하면, AI는 이 다양한 표기가 하나의 실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시소러스는 단순히 동의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 인물의 생몰년, 관직, 저작, 학파 등의 역사적 배경 정보를 함께 구조화하므로, 이를 통해 AI는 인물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갖출 수 있게 된다.

20) 김현 교수는 XML Enabled Database 상에서 본문 텍스트에 혼재된 정보 요소들이 기계적으로 식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문중 요소(In-Text Mark-up Element)의 처리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김현, <고문헌 자료 XML 전자문서 편찬 기술에 관한 연구>, 《고문헌연구》 29, 한국고문서학회, 2006. 참조) 여기서 말하는 시맨틱 태깅은 AI에게 학습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정보를 좀 더 상세하게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21) 이황(李滉, 1502~1571)의 자는 경호(景浩), 호는 퇴계(退溪),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3. 개념어 온톨로지 구축

세 번째 단계는 개념어 온톨로지(ontology)²²⁾의 구축이다. 온톨로지는 특정 지식 영역의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형식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AI가 지식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교 사상의 경우, 핵심 개념들과 그 관계를 온톨로지로 구축하면, AI는 단순히 개별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사상 체계를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

개념어 온톨로지는 개념의 계층 구조와 개념 간의 다양한 관계를 포함하여 지식을 형식화한다. 예를 들어, ‘사덕(四德)’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상위 개념이거나, ‘인(仁)’은 ‘측은지심(惻隱之心)’과 관련되어 있다는 식의 구조를 표현한다. 온톨로지에는 이러한 내부 개념 관계 외에도 사상사적 관계가 포함될 수 있다. ‘성리학(性理學)’과 ‘심학(心學)’의 차이, 혹은 ‘이기론(理氣論)’에서 ‘주리론(主理論)’과 ‘주기론(主氣論)’의 대립 구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論語》에서 ‘仁’과 ‘禮’가 ‘言’이나 ‘行’과 같이 출현하며 공자가 ‘仁’을 개인의 발화 행동(言) 및 그것의 현실적 이행(行)과 결부시켜 설명하는 방식처럼,²³⁾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핵심 개념 간의 연관성 또한 온톨로지의 관계 정의에 반영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구조 표현을 통해 AI는 단순히 개별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동양 고전의 사상적 체계 전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온톨로지 구축 시에는 개념 간의 다양한 관계 유형을 정의해야 한다. ‘is-a’ 관계(예 : 仁은 四德이다), ‘part-of’ 관계(예 : 측은지심은 仁의 발현이다), ‘opposite-of’ 관계(예 : 理와 氣는 대립적이다), ‘associated-with’ 관계(예 : 性理學은 朱子와 연관되어 있다) 등 다양한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AI는 개념 네트워크를 통해 복잡한 사상적 관계를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온톨로지는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나 OWL(Web Ontology Language) 같은 표준 언어로 표현하여 다른 지식 자원과 연계할 수 있다.²⁴⁾ 예를 들

22) 온톨로지란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전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한 데이터 기술 체계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정보화의 틀이 다 온톨로지일 수 있겠지만, 대상 자원을 클래스(Class)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클래스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통의 속성(Property)을 갖도록 하며, 그 개체들이 다른 개체들과 맺는 관계(Relation)를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온톨로지 설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현, <다산 저작 텍스트의 전자정보화를 위한 온톨로지 설계>, 《세계사 속의 다산학》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과제(AKSR20160-J0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참조)

23) 박선영은 학위논문에서 ‘仁’과 ‘禮’를 중심으로 한 《論語》의 개념어 분포를 연구한 바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論語》에서 ‘仁’이나 ‘禮’와 함께 출현하는 개념어 가운데 대표적으로 ‘言’, ‘行’과 관련하여 유의어 통합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박선영, <디지털 인문학을 통한 《論語》연구방법론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106면 참조.)

어, 한국의 유교 온톨로지를 중국이나 일본의 유사한 온톨로지를 연계하면, 동아시아 전체의 사상적 흐름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온톨로지는 그 구조적 특성상 그래프(Graph) 형태로 저장되며,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검색 증강 생성)²⁵⁾ 시스템의 핵심 지식 베이스로 활용되어 고전에 대한 AI의 이해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개념 간 관계가 명시적으로 표현된 그래프 구조는 AI가 복잡한 사상적 맥락을 추론하고,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 관련 개념과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답변을 생성하는 데 기여한다. 시맨틱 태깅과 온톨로지 구축은 개념의 철학적 의미와 역사적 변천, 학파 간의 견해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한문학 및 철학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의 번역 결과물은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친 고품질 데이터로서, 이를 학습한 AI는 한문 문장의 문법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맥에 맞는 적절한 번역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맨틱 태깅된 주석 데이터를 통해 주석의 유형을 파악하고 주석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개념어 온톨로지를 통해 유교 사상의 전체 체계를 구조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전문가가 검증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학습된 AI는 한문 고전 연구와 교육에서 믿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V.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번역 결과물 활용 및 기대효과

앞 장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는 한문 고전 연구와 교육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전통문화연구회 고전정보화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응용 시스템을 개발을 위해 번역 결과물의 XML 자동 변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AI 학습을 위한 형식으로 정리된 XML은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되어 ‘병렬 코퍼스 추출’과 같은 질의(Query)를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학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XML로 구조화되고 AI 학습 데이터로 구축된 번역

24) RDF와 OWL은 웹상의 지식을 표현하고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언어이다. RDF는 주어-술어-목적어 형태의 트리플 구조로 비교적 단순한 관계를 표현하며, OWL은 RDF를 기반으로 더 풍부하고 복잡한 제약 조건, 클래스, 관계 등을 정의하여 온톨로지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25) RAG는 외부 지식 검색과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생성 능력을 결합한 기술로, 생성형 AI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기존 LLM은 학습된 데이터 안에서만 답변을 생성하지만, RAG는 외부 데이터베이스·문서·API 등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해 그 결과를 모델 입력에 통합한다. 즉, AI가 이미 가진 지식 외에 최신·도메인 특화 정보를 참고하여 답변을 만드는 방식이다. RAG는 검색된 근거 정보를 활용해 AI의 환각 현상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델 재학습 없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만으로 최신 지식 반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결과물이 인공지능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되며, 그리고 그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1. 지능형 검색 및 응용 시스템 개발

구조화된 XML 데이터는 XSLT 등을 활용하여 웹 페이지나 특정 분석 도구에 맞는 형식(CSV, JSON 등)으로 쉽게 변환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능형 응용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다. 전통적인 키워드 기반 검색 시스템은 사용자가 정확한 용어를 입력해야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AI 기반 검색 시스템은 자연어 질의를 이해하고, 의미론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한다.

한국경학자료시스템과 동양고전 데이터가 연계된 통합 검색 플랫폼이 구축되면, 연구자들은 방대한 경전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다. 원문, 주석, 번역문을 동시에 검색하고, 인물, 서명, 개념어 등 다양한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다. AI는 검색 결과를 관련성에 따라 순위를 매기거나, 결과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연구자가 지식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특정 개념어를 검색하면 해당 개념어가 등장하는 모든 경전 구절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대별·학파별 주석의 차이를 비교하는 표를 생성하거나, 관련 개념어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형 검색 시스템은 연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연구자가 새로운 통찰을 발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실시간 사용자 지원 서비스도 가능하다. 구조화된 데이터에서 철학적 개념어의 모든 용례와 주석을 추출하여 어휘사전 구축 및 종합적인 의미 분석을 제공할 수 있고, 치밀하게 구축된 시소러스와 AI의 자연어 이해 능력을 결합하여 불완전하거나 모호한 질의에도 적절한 인물 정보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문 학습자를 위해 원문에 자동으로 현토, 표점, 훈독을 달아주어 문장을 구분하는 기능도 구현된다. 나아가 사용자가 특정 구절을 선택하면 AI가 번역뿐 아니라 역사적 배경, 관련 주석 등을 종합하여 의미를 쉽게 풀어주는 상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AI 기반 한문 이해 및 해석 능력 향상

이처럼 고품질 학습 데이터로 훈련된 AI는 한문 이해 능력과 번역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현재 범용 대규모 언어모델들도 한문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정확도는 현대어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학습 데이터에 한문 텍스트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전문가가 검증한 고품질 한문-한국어 병렬 코퍼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의 결과물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원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확하게 번역한 고품질 데이터이므로, 이를 학습한 AI는 한문 문장의 문

법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맥에 맞는 적절한 번역을 생성할 수 있다. 특히,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다의어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번역과 주석을 통해 다의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의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경전 주석 해석 능력의 향상도 중요한 효과이다. 시맨틱 태깅된 주석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주석의 유형을 파악하고, 주석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사용자가 주석을 요청하면 AI는 관련된 모든 주석을 검색하고 시대별·학파별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한국경학자료시스템의 조선시대 주석까지 학습한다면, 중국 주석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한국 경학의 독자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3.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과 교육 혁신

전통적으로 한문 고전 연구는 문헌 고증, 해석, 번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구축된 기반 위에서 디지털 기술과 AI의 도움으로 경학 연구는 그 범위와 깊이가 확장될 수 있다. AI는 방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특정 개념의 사용 빈도와 변천을 추적하고, 저자 간의 영향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으로 시각화하는 등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공하여 연구의 효율성과 깊이를 증진시킨다. 특히 주석의 변천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경학 사상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가능해진다. 이처럼 AI는 연구자의 직관과 경험을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연구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텍스트 간의 연관성을 제시하거나, 방대한 문헌에서 특정 패턴을 찾아내거나, 복잡한 개념 관계를 시각화하여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AI가 연구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능력을 증강하여 더 깊고 넓은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AI는 학습자가 텍스트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비판적 질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기존에 주희의 주석만을 참고했다면, AI는 ‘仁’의 개념이 시대와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리 해석되었는지, 또는 특정 학자의 주장이 다른 학파와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켰는지 등을 비교하며 보여줄 수 있다. 이로써 학습자는 여러 경학자의 다양한 해석을 접하게 되어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 시야를 넓히며, 스스로 질문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러한 맞춤형 학습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학습자의 동기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환경에서는 일반 학습자들의 동양 고전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의 동양 고전 교육은 한문을 잘 아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고, 전문 교사와 교재에 크게 의존하며 학습자 개인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 제공이 어려웠다. 그러나 AI 기반 교육 플랫폼은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시하며 실시간으로 필요한 학습을 지원한다. 동양 고

전은 인간 존재와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인문학적 자산이기에, 이러한 AI의 도움은 개별 학습자가 고전을 통해 얻은 지혜를 실제 삶의 문제와 연결하여 스스로 사유하고 성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의 결과물을 인공지능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한문 고전의 번역 결과물은 오랜 기간 축적된 학술적 성과이지만, 기존의 출판 중심 형태로는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TEI 기반 XML 구조화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전통적인 학술 성과를 현대 기술과 접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를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먼저 TEI 기반 XML 구조화 방법을 통해 한문 원문, 국역문, 주석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한국경학자료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TEI 국제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동아시아 경학 연구의 국제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여러 국가의 학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한문-한국어 병렬 코퍼스 구축, 주석 정보의 시맨틱 태깅, 개념어 온톨로지 구축을 통해 전문가가 검증한 고품질 번역 결과물을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는 인공지능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전통문화연구회 고전정보화연구소의 XML 자동 변환 시스템과 응용 서비스 개발은 이미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이다. 이를 통해 구축될 AI 기반 한문 번역 및 주석 해석, 지능형 경전 검색 시스템, AI 교육용 플랫폼 등은 한문 고전 연구와 교육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 교육 플랫폼을 통해 동양 고전이 단순히 난해한 고문(古文)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인문학 텍스트로서 현대 학습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AI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한문 고전 연구 방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확장한다. 방대한 데이터의 계량적 분석, 주석 변천의 시각화, 개념 간 관계의 네트워크 분석 등 새로운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직관과 경험을 증강하여 더욱 깊고 넓은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실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대규모 번역 결과물의 XML 구조화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요구하며, 자동화된 변환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전문가의 검토와 수정이 필수적이다. 한국경학자료시스

템과의 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 전문가의 긴밀한 협력과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며, AI 학습 데이터의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업데이트 체계, 그리고 구축된 데이터와 AI 서비스의 저작권 및 이용 정책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의 성과를 AI 시대의 핵심 학술 인프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수십 년간 축적된 번역 결과물이 연구자와 학습자, 일반 대중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는 ‘협업 체계’를 설계하고, 다양한 교육 방식을 통해 미래의 연구자인 학생들이 동양고전 연구의 가치와 의의를 절감하고 디지털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연구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돕는 것이다.²⁶⁾ 동양 고전은 동아시아 문명의 정신적 유산이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담고 있다. AI 기술은 언어의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전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의 번역 결과물이 AI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됨으로써, 한국의 동양 고전 연구는 국제적 네트워크 안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경학자료집성(韓國經學資料集成)》

石田友梨 等編, 《人文学のためのテキストデータ構築入門: TEIガイドラインに準拠した取り組みにむけて》, 東京: 文学通信, 2022.

〈학술논문〉

Ide, Nancy, and C. M. Sperberg-McQueen, “The TEI: History, Goals, and Future”, *Computers and the Humanities*, No. 29, 1995.

김현, 〈조선왕조실록 電算화를 위한 마크업(MarkUp) 규칙〉, 《고문연구》 9-1, 한국고문연구회, 1996.

26) 김현, 〈디지털 시대의 漢文學: 데이터로 소통하는 고전 인문 지식〉, 《漢文學論集》 49, 근역한문학회, 2018.

- 강범모 · 장효현 · 윤재민, 〈한국학 문헌의 전산화를 위한 TEI 표준안 응용 및 확장 방안 연구〉, 《한국어전산학》 2, 한국어전산학회, 1998.
- 박하영 외 저, 〈XML을 이용한 TEI 文獻 構造化 研究〉, 《지식처리연구》 1-2, 문헌정보처리연구회, 2000.
- 김현, 〈고문헌 자료 XML 전자문서 편찬 기술에 관한 연구〉, 《고문서연구》 29, 한국고문서학회, 2006.
- 김경호 · 류준필 · 이영호, 〈韓國儒學資料의 匯集과 電算化 - ‘한국경학자료시스템’과 ‘한국주자학용어검색시스템’을 중심으로 -〉, 《동방한문학》 41, 동방한문학회, 2009.
- 김바로, 〈역사기록의 전자문서 편찬방법 탐구 - 역사요소를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 51, 열상고전연구회, 2016.
- 김현, 〈다산 저작 텍스트의 전자정보화를 위한 온톨로지 설계〉, 《세계사 속의 다산학》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과제(AKSR20160-J0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 김현, 〈디지털 시대의 漢文學 : 데이터로 소통하는 고전 인문 지식〉, 《한문학논집》 49, 근역한문학회, 2018.
- 유인태, 〈디지털 인문학과 한문학 연구 - 고문헌 자료 대상 국내 디지털 인문학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49, 근역한문학회, 2018.
- 함형석, 〈문헌 독해 방법으로서의 텍스트 인코딩〉, 《한국불교학》 86, 한국불교학회, 2018.
- 박선영, 〈디지털 인문학을 통한 《論語》연구방법론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 최지연 외 저, 〈데이터 정제의 관점에서 본 한국문집총간 XML 문서 검토〉, 《한문학논집》 60, 근역한문학회, 2021.
- 최지연 · 조성덕 · 최동빈, 〈데이터 정제의 관점에서 본 한국문집총간 XML 문서 검토〉, 《한문학논집》 60, 근역한문학회, 2021.
-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정보센터, 〈한국고전종합DB 구축의 성과와 과제〉, 《민족문화》 59, 한국고전번역원, 2021.
- 함형석, 〈산스크리트논서(sastra)문헌군 인코딩 표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참조〉, 《불교학연구》 73, 불교학연구회, 2022.
- 신용철, 〈일본 고문헌의 구조를 TEI/XML 텍스트데이터로 기술할 때 봉착하는 문제점들〉, 제44회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국내학술심포지엄 학술대회자료집, 2023.
- 김서윤, 〈한국경학자료시스템 XML 분석 및 데이터 설계〉, 《대동문화연구》 12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4.

김서윤, 〈시맨틱 DB 구축을 위한 《논어》 주석 XML 데이터 설계〉, 《한문학논집》 71, 근역한문학회. 2025.

변은미·이길환, 〈XML을 활용한 科文選集의 디지털화 방안 연구〉, 《동아한학연구》 20,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설 한자한문연구소, 2025.

〈웹페이지〉

전통문화연구회, 동양고전종합DB.

(<https://db.cyberseodang.or.kr/front/main/main.do>)

한국경학자료시스템(<http://koco.skku.edu>)

TEI연구회(<https://tei.dhii.jp/home>)

W3C XML 1.0.(<https://www.w3.org/TR/xml>)

TEI.(<http://www.tei-c.org>)

SAT.(<https://21dzk.l.u-tokyo.ac.jp/SAT>)

CBETA(<https://www.cbeta.org>)

위키독스, XML(TEI) with 인문학-디지털인문학 시리즈.

(<https://wikidocs.net/book/14569>)

《사변록·논어》TEI/XML 설계안.

(https://dh.aks.ac.kr/~kimseoyun/101/research_note/xml/tei사변록.xml)

DTD 업로드(<https://github.com/sy527991/Analects>)

2025년 학술회의

동양고전 번역과 AI 활용

-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동양고전)의 성과 및 활용을 中心으로 -

비매품

2025년 11월 3일 인쇄

2025년 11월 3일 발행

發行人 金炫

發行處 社團 傳統文化研究會
法人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332호

전화 : (02)762-8401 전송 : (02)747-0083

전자우편 : juntong@juntong.or.kr

홈페이지 : juntong.or.kr

사이버書院 : hm.cyberseodang.or.kr

온라인서점 : book.cyberseodang.or.kr

※ 본 학술회의는 202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동양고전)의 예산을 사용하여 개최하였음.

※ 본 자료집은 202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특수고전협동번역사업(동양고전)의 예산을 사용하여 발간하였음.

